

최종보고서

보령시 해양항만 발전 기본계획

(2017~2030)

2017. 12.



제 출 문

보령시장 귀하

본 보고서를 「보령시 해양항만 발전 기본계획」 수립용역의 최종 성과품으로 제출합니다.

2017년 12월

충남연구원장 강 현 수

목 차

1장 개요 및 기본구상1

1절 계획의 개요	3
1. 배경 및 목적	3
2. 범위 및 절차	6
2절 여건변화 및 상위계획 검토	12
1. 해양항만 여건변화	12
2. 해양항만 상위계획 검토	26
3절 해양항만 현황 및 특성	41
1. 보령시 일반현황	41
2. 보령시 해양항만의 현황	68
3. 보령시 해양항만의 특성 및 SWOT	93
4절 해양항만 비전 및 전략	101
1. 핵심 Keyword	101
2. 비전 및 목표	103
3. 추진전략	106
4. 공간계획	111

2장 부문별 계획115

1절 Cleaning 해양환경	117
1. 현황분석 및 진단	117
2. 기본방향 및 목표	122
3. 세부사업계획	125

2절 Amazing 해양관광	144
1. 현황분석 및 진단	144
2. 기본방향 및 목표	147
3. 세부사업계획	150
3절 Innovating 해양산업 및 항만	175
1. 현황분석 및 진단	175
2. 기본방향 및 목표	179
3. 세부사업계획	181
4절 Leading 지역역량	203
1. 현황분석 및 진단	203
2. 기본방향 및 목표	205
3. 세부사업계획	208
3장 핵심사업 및 관리계획	225
1절 해양항만 핵심사업	227
1. 보령신항 및 배후단지 개발	227
2. 대천해수욕장 활력 및 재생	232
3. 대천천 하구갯벌 보존 및 개발	238
2절 해양항만 조직체계	247
1. 조직 현황	247
2. 조직 구성의 한계 및 제안	248
3절 투·융자 및 관리계획	254
1. 보령시 해양항만 예산현황	254
2. 투·융자 계획	256
참고문헌	271

표 목 차

[표 1-1-1] 해양·항만 발전 기본계획의 부문별 내용	7
[표 1-2-1] 주요 어종 생산량 (2015~2016)	24
[표 1-2-2] 주요 어종 생산금액 (2015~2016)	24
[표 1-3-1] 보령시 기상개황	44
[표 1-3-2] 충남지역 기후특성 평년값 비교	45
[표 1-3-3] 보령시 행정구역 현황	46
[표 1-3-4] 보령시 인구 및 세대 현황	47
[표 1-3-5] 보령시 동·읍·면별 인구 및 세대 현황 (2016)	48
[표 1-3-6] 보령시 세대별 인구 현황	49
[표 1-3-7] 보령시 연령별 인구 현황 (2015)	50
[표 1-3-8] 보령시 동·읍·면별 토지이용 현황 (2015)	51
[표 1-3-9] 보령시 용도지역 지정 현황 (2015)	52
[표 1-3-10] 보령시 외국인 규모	52
[표 1-3-11] 보령시 자연경관 현황 (1)	53
[표 1-3-12] 보령시 자연경관 현황 (2)	54
[표 1-3-13] 보령시 지역문화재 일반현황	55
[표 1-3-14] 보령시 지역문화재 세부현황 (1)	56
[표 1-3-15] 보령시 지역문화재 세부현황 (2)	57
[표 1-3-16] 보령시 관광자원 현황	58
[표 1-3-17] 보령시 지역특산물 현황	59
[표 1-3-18] 보령시 주요 축제 및 행사 현황	60
[표 1-3-19] 보령시 산업별 사업체 현황	62
[표 1-3-20] 보령시 서비스업 현황	62
[표 1-3-21] 보령시 산업별 종사자 현황	62
[표 1-3-22] 보령시 동·읍·면별 사업체 현황 (2015)	63
[표 1-3-23] 보령시 주택 현황 및 보급률	64
[표 1-3-24] 보령시 도로 현황	64
[표 1-3-25] 보령시 상수도 현황	65
[표 1-3-26] 보령시 하수도 현황	65
[표 1-3-27] 보령시 연도별 교육시설 현황	66
[표 1-3-28] 보령시 학교별 교육시설 현황 (2016)	66
[표 1-3-29] 보령시 의료시설 현황	67

[표 1-3-30] 보령시 동·읍·면별 의료시설 현황	67
[표 1-3-31] 보령 사구의 출현종, 식물상, 동물상	69
[표 1-3-32] 시도별 갯벌면적 변화 (1987~2013)	69
[표 1-3-33] 충남 시·군별 갯벌면적 변화	70
[표 1-3-34] 충남 시·군별 해안선 및 도서	71
[표 1-3-35] 충청남도 자원 현황	72
[표 1-3-36]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관광객 수 (2014~2016)	73
[표 1-3-37] 충남 이용관광객 상위 5위 해수욕장 (2016)	73
[표 1-3-38] 보령시 축제 개최 시기	74
[표 1-3-39] 충청남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2014)	76
[표 1-3-40] 충남 연안 시·군의 주요 산업별 사업체 수 (2014)	78
[표 1-3-41] 충청남도 내 발전소 현황 (2016)	78
[표 1-3-42] 보령화력발전소 설비 현황	79
[표 1-3-43] 충남 연안지역 산업단지 조성 현황 (2016)	80
[표 1-3-44] 충청남도 무역항의 시설 현황 (2015)	82
[표 1-3-45] 충남 연안항 시설 현황 (2011)	83
[표 1-3-46] 충남 항만별 선석 수 (2016)	83
[표 1-3-47] 보령항 품목별 화물처리실적 (2012~2016)	84
[표 1-3-48] 충남 항만별 물동량 및 하역능력 (2015)	84
[표 1-3-49] 전국 무역항 화물처리실적 (2012~2016)	85
[표 1-3-50] 보령시 어가수 및 어가인구 현황 (2011~2015)	87
[표 1-3-51] 보령시 수산물 어획고 현황 (2011~2015)	88
[표 1-3-52] 보령시 수산물 가공품 생산 현황	89
[표 1-3-53] 보령시 수산물 생산량 및 판매금액 현황	90
[표 1-3-54] 보령시 양식 어업권 현황	91
[표 1-3-55] 보령시 어업권 현황	91
[표 1-3-56] 보령시 어항시설 현황	92
[표 1-3-57] 보령 해양항만의 SWOT 전략	100
[표 1-4-1] 추진전략 및 세부사업 (1)	113
[표 1-4-2] 추진전략 및 세부사업 (2)	114
[표 2-1-1] 충청남도 연안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118
[표 2-1-2] 연안침식 평가 결과 (보령지역)	120
[표 2-1-3] 「Cleaning 해양환경」 연차별 예산계획	142
[표 2-1-4] 「Cleaning 해양환경」 자원별 예산계획	143
[표 2-2-1] 「Amazing 해양관광」 연차별 예산계획	173
[표 2-2-2] 「Amazing 해양관광」 자원별 예산계획	174
[표 2-3-1] 해양관련 산업별 사업체 및 매출액 현황	176

[표 2-3-2] 「Innovating 해양산업·항만」 연차별 예산계획	201
[표 2-3-3] 「Innovating 해양산업·항만」 자원별 예산계획	202
[표 2-4-1] 「Leading 지역역량」 연차별 예산계획	222
[표 2-4-2] 「Leading 지역역량」 자원별 예산계획	223
[표 3-3-1] 해양항만 발전계획 연차별 예산규모	257
[표 3-3-2] 해양항만 발전계획 자원별 예산규모	258
[표 3-3-3] 「Cleaning 해양환경」 연차별 예산규모	260
[표 3-3-4] 「Amazing 해양관광」 연차별 예산규모	261
[표 3-3-5] 「Innovating 해양산업·항만」 연차별 예산규모	262
[표 3-3-6] 「Leading 지역역량」 연차별 예산규모	263
[표 3-3-7] 「Cleaning 해양환경」 및 「Amazing 해양관광」 자원별 예산규모	264
[표 3-3-8] 「Innovating 해양산업·항만」 및 「Leading 지역역량」 자원별 예산규모	265
[표 3-3-9] 「Cleaning 해양환경」 추진일정	266
[표 3-3-10] 「Amazing 해양관광」 추진일정	267
[표 3-3-11] 「Innovating 해양산업·항만」 추진일정	268
[표 3-3-12] 「Leading 지역역량」 추진일정	269

그림 목 차

[그림 1-1-1]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모습	9
[그림 1-1-2] 주요 사이트 현장방문 모습	9
[그림 1-1-3] 주요 단체 및 관계자 방문	10
[그림 1-1-4] 자문회의 및 실무회의 모습	11
[그림 1-2-1] 해양경제 부가가치 분야별 비중 (2010)	12
[그림 1-2-2] 해양경제 부가가치 분야별 비중 (2030)	13
[그림 1-2-3] 부산항 북항 그랜드 마스터플랜 구상도	14
[그림 1-2-4] 서태평양 망간각 광구 위치	15
[그림 1-2-5] 해양 연구선 아라온호	15
[그림 1-2-6] 해양과학조사선 이사부호	16
[그림 1-2-7] 크루즈 관광객 추이	16
[그림 1-2-8] 2016년 크루즈 관광객 유치 경제효과	17
[그림 1-2-9] 우리나라 참여 해양관광 형태	21
[그림 1-2-10] 우리나라 향후 희망하는 해양관광 활동	22
[그림 1-2-11] 마리나산업 예상 발전 추이	23
[그림 1-2-12]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기본 틀	27
[그림 1-2-13]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28
[그림 1-2-14]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및 개발전략	29
[그림 1-2-15] 충청 관광권 공간전략 및 특성화 계획의 기본 방향	30
[그림 1-2-16] 제2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에 따른 권역별 구상도	31
[그림 1-2-17] 서해안권의 비전과 추진전략	32
[그림 1-2-18]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의 권역별 발전구상	33
[그림 1-2-19] 4대 개발경영권의 구분	34
[그림 1-2-20]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의 비전체계도	36
[그림 1-2-21] 2020년 보령 도시기본계획(변경)의 미래상 및 4대 실천계획	38
[그림 1-3-1] 보령시의 지리적 위치	43
[그림 1-3-2] 보령시 행정구역	46
[그림 1-3-3] 보령시 동·읍·면별 인구수 및 세대수 현황	48
[그림 1-3-4] 보령시 연령별 인구 현황 (2015)	50
[그림 1-3-5] 전국 해안사구 분포 및 규모	68
[그림 1-3-6] 충청남도 갯벌 분포 현황	70
[그림 1-3-7] 보령~태안 해저터널 및 해상교량 구간 위치도	75

[그림 1-3-8] 충청남도 연안 시·군의 사업체 수 (2014)	77
[그림 1-3-9] 충청남도 사회적기업 지정 현황 (2016)	79
[그림 1-3-10] 우리나라 항만 위치도	81
[그림 1-3-11] 충청권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86
[그림 1-3-12] 해양환경 강점 및 약점	93
[그림 1-3-13] 해양관광 강점 및 약점	94
[그림 1-3-14] 해양산업·항만 강점 및 약점	95
[그림 1-3-15] 수산업·어촌 강점 및 약점	96
[그림 1-3-16] 대외적 기회 및 위협	97
[그림 1-3-17] 보령시 해양항만의 SWOT 분석	98
[그림 1-4-1] 보령시 해양항만 발전 비전도	106
[그림 1-4-2] 보령시 해양항만 공간계획도	112
[그림 2-1-1] 충청남도 간척지 현황	118
[그림 2-1-2] 하굿둑 단절로 인한 하구생태계 악화	119
[그림 2-1-3] 보령 인근 해역 주요 방조제	119
[그림 2-1-4] 장흥군 안양면 제방 해수유통	126
[그림 2-1-5] 잘피 이식을 통한 연안 수중생태계 복원 대상지	129
[그림 2-1-6] 보령 화력발전소 온배수 유출 및 저탄장 분포 위성 영상	135
[그림 2-1-7] 보령시 해양안전체험관 예상 위치도	141
[그림 2-2-1] 거북이마을 인성학교	153
[그림 2-2-2] 관광도서 사례 (나오시마, 연흥도)	155
[그림 2-2-3] 전남 신안·벌교 갯벌 도립공원	160
[그림 2-2-4] 충청산업문화철도 노선도	162
[그림 2-2-5] 해운대 스마트비치 시설	163
[그림 2-2-6] 여수 낭만포차거리 전경	168
[그림 2-2-7] 국제 보트쇼 사례	169
[그림 2-2-8] 울진 해양레포츠센터 시설	172
[그림 2-3-1] 블루카본 시범단지 예정지 (보령시 주교면 송학리)	185
[그림 2-3-2] 포항 검은돌장어마을	187
[그림 2-3-3] 부산 bexco 전경	191
[그림 2-3-4] 호주 마리나 시설	193
[그림 2-3-5] 스마트 양식 사례	200
[그림 2-4-1] 전국 해양수산 유관기관 위치	209
[그림 2-4-2] 지역 관광 중간지원조직 사례 (일본 나가사키현 오지카)	213
[그림 2-4-3] 어업유산 지정지구 어촌체험마을 현황	220
[그림 3-1-1] 보령신항 배후단지 산업별 입지도	231
[그림 3-1-2] 뉴런던(New London)의 한 카페에 걸려 있는 사진기록들	234

[그림 3-1-3] 강문해변의 다양한 포토존	235
[그림 3-1-4] 여수 낭만포차거리 전경	236
[그림 3-1-5] 대천해수욕장 역사관(추억관), 포토존, 대천포차타운 조성(안)	237
[그림 3-1-6] 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체계	239
[그림 3-1-7] 해양보호구역 지정 근거	239
[그림 3-1-8] 해양보호구역 지정 대상 지역(안)	240
[그림 3-1-9] 해양보호구역 연계·지정을 통한 충남 해양생태 Blue Belt 체제 구축(안)	241
[그림 3-1-10] 해양보호구역 지정 시 혜택	241
[그림 3-1-11] 갯벌도립공원 사례	244
[그림 3-1-12] 갯벌도립공원 지정 대상 지역(안)	245
[그림 3-2-1] 현재 환황해전략사업단의 조직 구성	248
[그림 3-2-2] 향후 환황해전략사업단 조직 확대(안)	252
[그림 3-3-1] 보령시 예산 규모 (본예산)	254
[그림 3-3-2] 2017년 본예산 부서별 예산 비율	255

1장

개요 및 기본구상

1절 계획의 개요

2절 여건변화 및 상위계획 검토

3절 해양항만 현황 및 특성

4절 해양항만 비전 및 전략

1절 계획의 개요

1. 배경 및 목적

1) 계획의 배경

- 해양수산부가 2013년 3월 부활하고, 충청남도 해양수산국이 2013년 7월 출범함에 따라 보령시에서도 2017년 1월 환황해전략사업단을 출범하여 新해양 시대 환황해권을 선도하는 해양거점도시로서 도약의 발판 마련
- 충청남도에서는 2015년 ‘서해안비전’ 과 ‘해양수산발전계획’, ‘해양수산발전 대표사업’ 을 수립·발표하고 ‘아시아의 새로운 중심, 海洋建道 충남’ 이라는 비전을 설정하여 해양수산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
- 보령시에서는 해양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15년 ‘해양항만과’ 를 신설하였으나, 해양수산 분야의 정책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17년 1월 ‘환황해 전략사업단’ 을 출범시켜 글로벌 해양도시로서 발돋움 모색
- 또 보령시는 충청남도 해양수산 비전과의 공유를 통하여 ‘환황해권의 중심! 글로벌 해양관광도시 보령’ 이라는 비전을 설정하여,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한발 앞서나가는 계기를 마련하고 새로운 서해안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발판 마련
- 그러나 그동안 수산업 중심의 해양수산정책으로는 급변하는 글로벌 해양수산트렌드에 부합하기 어렵고, 부산, 경남, 전남 등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비교열위 위치에 놓이게 되어 도태될 수밖에 없는 한계 노출
- 이에 보령시가 위치해 있는 충남 서해안의 여건 및 현실에 부합하는 비전과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및 충남도 해양항만정책을 선도하는 역할 및 기능의 확립 필요
- 또한 지역의 차별성이 담보되는 해양항만정책을 통하여 글로벌 해양도시로서

위상을 새로이 정립하고, 해양항만의 체계적인 관리, 이용, 개발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미래 먹거리 성장동력 육성

2) 계획의 목적

- 보령시 여건과 현실에 맞는 해양항만관련 환경, 산업, 관광·레저 등 각 분야를 포괄할 수 있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및 충남도의 해양항만정책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해양항만분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이용, 개발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향후 市 해양항만정책의 일관되고 체계적인 방향성 및 실천사업 제시

(1) 해양환경

- 지속가능한 해양환경의 건강성 보전·관리를 통하여 서해안 해양환경 보전의 중심적 역할 수행
- 깨끗하고 건강한 해양 생태·환경을 유지하여 서해안의 대표 청정해역의 이미지 강화
- 현 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청정 해역으로서의 가치 유지
- 청정한 해양환경을 바탕으로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지역 산업 육성

(2) 해양관광

- 보령 도서(섬)만이 갖고 있는 특성을 극대화하여 차별적인 해양 도서관광 추구
- 보령 도서(섬)의 전통과 문화, 역사가 결합된 복합 콘텐츠로 도서관광 실현
- 청정지역으로서 보령의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생태관광 활성화 추진
- 서해안(충남)을 대표하는 최고 해양생태관광, 해양레포츠 지역으로서 위상 제고

- 충청권 최대의 해수욕장으로서 보령 해수욕장의 위상 재정립 및 이용객의 만족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스마트 명품 해수욕장 조성
- 최신 관광 트렌드에 부합하는 콘텐츠 중심의 이야기가 있는 해양레포츠 실현

(3) 해양산업 및 항만

- 보령의 해양자원을 이용한 해양신산업 창출을 통한 미래 먹거리 발굴
- 해양수산 사회적경제 기반 조성으로 지역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해양산업 육성
- 해양항만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글로벌 해양산업 도시로서 위상 제고
- 보령신항의 다기능·복합화를 통한 보령 항만의 역할 및 기능 재배치
- 마리나산업, 레저보트산업, MICE산업, 해양수산 벤처타운 등 해양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항만배후단지 조성
- 전통 수산업과 ICT·IoT 기술, 생명공학과 연계한 미래지향 수산산업 육성
- 수산종자 및 수산기자재 등 수산업의 후방산업 육성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4) 지역역량

- 해양항만관련 전문기관 유치, 전문인력 양성으로 인적 인프라 구축
- 해양관광자원을 사회적 약자에게 제공하여 해양관광복지 실현
- 도서 연안여객항로 지원을 통하여 도서주민의 삶의 질 개선
- 해양관광의 전문적인 컨트롤타워 운영으로 효율화·체계화 추구
- 해양레포츠·마리나산업 전문인력 육성으로 미래 수요 대비
- 보령 도서의 낙후된 이미지를 개선하고, 미래 자산으로서 도서 개발
- 지역 해양자원의 세계화로 해양도시로서 위상 제고 및 전통 해양문화의 보전·기록
- 보령의 해양항만 발전을 토론하고 논의할 민·관 거버넌스체계 구축

2. 범위 및 절차

1) 계획의 범위

(1) 시간적 범위

- 계획년도 : 2017년~2030년
- 기준년도 : 2016년 (※ 자료 활용 기준연도)
- 목표연도
 - 단기계획 : 2017년 ~ 2020년
 - 중기계획 : 2021년 ~ 2025년
 - 장기계획 : 2026년 ~ 2030년

(2) 공간적 범위

- 계획지역: 보령시 연안 및 내륙 지역
 - 보령시 해양항만자원을 활용하여 파급효과가 미칠 수 있는 市 전역 및 충청남도, 환황해권

(3) 내용적 범위

- 국내·외 해양항만 정책의 여건 및 변화, 트렌드 및 전망 파악
- 국가, 충남도, 보령시의 해양항만관련 기존 계획 검토
- 보령시 해양항만의 분야별 현황 및 실태, 분야별 특성 분석
- 보령시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해양항만 중장기 비전 및 목표 도출
- 보령시 해양항만산업의 발전을 위한 추진전략 및 실행사업 도출
- 보령시 해양항만의 기반 구축을 위한 핵심사업 및 로드맵 제시

[표 1-1-1] 해양항만 발전 기본계획의 부문별 내용

부 문	부문별 내용
해양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 생태계 보전 및 기능 회복 • 연안통합관리 기반 구축 • 해양 생태·환경의 가치 확산 • 해양 재난·재해 대응체계 구축
해양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시 찾고 싶은 도서관광 육성 • 서해안 생태문화관광 중심지 육성 • 테마가 있는 명품 해수욕장 조성 • 해양레포츠 콘텐츠 강화
해양산업·항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자원을 활용한 해양신산업 창출 • 해양 사회적경제 및 일자리 창출 • 다기능 항만 및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 • 지역 수산산업의 미래가치 창출
지역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항만 인적 인프라 구축 • 네트워크 조직 및 전문인력 육성 • 도서(섬)의 가치 재창출 • 해양항만 소프트파워 강화

2) 추진절차 및 경위

(1) 추진절차

■ 해양항만 working group 운영 및 전문가 의견수렴

- 보령시 해양항만 관계자, 담당공무원, 지역단체 및 주민,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운영하여 상시적으로 의견 수렴

■ 보령시 해양항만 현황 분석

- 지리, 해양환경, 해양관광, 해양산업, 항만산업, 수산업, 도서(섬) 등 해양항만과 관련된 현황 파악 및 분석
- 기존에 수립된 해양수산, 해양환경, 항만물류, 해양관광, 해양산업 등 관련된 계획 검토 및 정리
- 보령시 해양항만 관련 업무 및 사업실적, 예산 등 분석

■ 정책수요자 대상 조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해양항만 관계부서 및 지역단체, 연안·도서 주민을 중심으로 인터뷰 조사를 통한 이슈 도출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환경관리공단 등 국책 연구기관, 해양수산관련 대학의 분야별 전문가 의견 수렴

■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수립

- 市の 해양항만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수립을 위하여 관계자와 지속적인 협의
- 현황조사, 인터뷰조사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보령시 해양항만정책의 비전 및 목표 도출, 추진전략 및 실행사업 수립

■ 부문별 계획 수립 및 추진시책 도출

- 각 부문별(해양환경, 해양관광, 해양산업·항만, 지역역량) 계획 수립 및 추진시책, 세부사업 발굴 및 제안
- 각 부문별 이론 및 현장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현실감 있는 시책 및 사업 발굴

■ 의견수렴 및 세부사업 선정

- 수립된 계획에 대하여 市 실무자 및 활동가, 지역단체 및 주민, 해양항만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고 피드백
- 세부사업에 대한 실효성·가능성을 검토하고 최종적인 세부사업 선정

■ 핵심사업 도출 및 관리계획 수립

- 도출된 세부사업 중 市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 사업을 선정하여 핵심사업으로 구체적인 방안 제시
- 해양항만 관련 市の 조직체계,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관리 및 투·융자 계획 제시

■ 보고서 제출

- 보령시에서 최종 검토 후, 보고서 납품

(2) 추진경위

■ 해양항만 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착수, 중간, 최종보고회 개최

- 보령시장을 비롯하여 과장급 이상 간부들에게 해양항만 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보고하고, 관련부서의 의견 청취 및 피드백
 - 착수보고회(2017.05.25.), 중간보고회(2017.10.23.), 최종보고회(2017.12.27.)



[그림 1-1-1]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모습

■ 해양항만 관련 주요 사이트에 대한 현장 방문 및 인터뷰 조사

- 원산도(복합 마리나항, 대명리조트, 테마랜드, 헬스케어), 효자도 현장 방문
- 대천해수욕장(스카이바이크, 머드엑스포, 해양안전체험관) 방문 및 대천관광협회장 인터뷰 조사
- 대천천 하구, 국립해양수산대학 및 KIOST 서해분원 후보지 방문



[그림 1-1-2] 주요 사이트 현장방문 모습

■ 해양항만 관련 주요 단체 방문 및 인터뷰 조사

- 보령시 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대천관광협회 사무국장, 해양항만에 관심 있는 주민 등을 대상으로 인터뷰



[그림 1-1-3] 주요 단체 및 관계자 방문

■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 및 관계부서와의 실무회의 개최

- 보령시 환황해전략사업단 의견수렴, 각 부문별 전문가 자문회의 추진
- 1차 자문회의
 - 일 시 : 2017.10.16.(월) 15:00
 - 장 소 : 충남연구원 회의실
 - 참석자 : 보령시청 관계자, 연구진, 전문가(김정태, 서문성, 이승용)
 - 주요내용 : 중간보고서 전반에 대한 자문
- 2차 자문회의
 - 일 시 : 2017.10.25.(수) 13:00
 - 장 소 : 부산역 회의실
 - 참석자 : 보령시청 관계자, 연구진, 전문가(이승우, 홍장원, 장희정, 윤성순, 육근형, 김종덕)
 - 주요내용 : 해양환경, 해양관광 등 자문
- 3차 자문회의
 - 일 시 : 2017.11.08.(수) 15:30
 - 장 소 : 부산역 회의실
 - 참석자 : 보령시청 관계자, 연구진, 전문가(강길모, 이주호, 서수완)
 - 주요내용 : 해양산업, 보령신항, 항만 등 자문
- 실무회의
 - 일 시 : 2017.11.24.(금) 15:00
 - 장 소 : 보령시청 회의실
 - 참석자 : 보령시청 각 부서 관계자, 연구진
 - 주요내용 : 중간보고 내용 및 사업전반에 대한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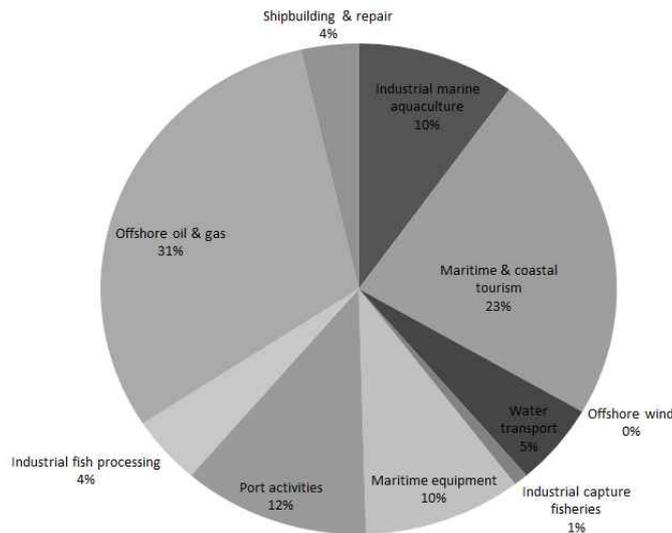
[그림 1-1-4] 자문회의 및 실무회의 모습

2절 여건변화 및 상위계획 검토

1. 해양항만 여건변화

1) 해양경제 정의 및 현황1)

- OECD에서 정의한 해양경제의 개념은 조선, 해운, 해양신소재 등 일반적인 해양산업 뿐만 아니라 해양의 이산화탄소 흡수 및 해양생명자원과 같은 해양 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도 포함
- OECD의 「해양경제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10년 기준 해양경제 규모는 1.5조 달러(약 1776.6조 원)로 글로벌 총 부가가치(GVA)의 약 2.5%에 해당하며 3천1백만 명 고용에 기여
 - 해양경제 부가가치 중 해양 석유·가스 시추 34%, 해양관광 26%, 항만 13% 점유
 - 해양경제의 세부적인 고용 비중은 어획어업 (36%), 해양관광(23%) 순이며 수산가공업 등의 나머지 분야가 1~8% 점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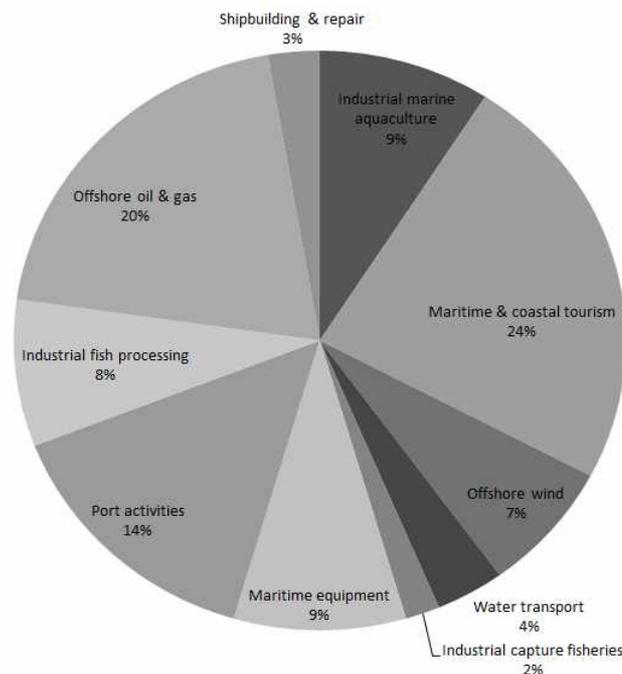
[그림 1-2-1] 해양경제 부가가치 분야별 비중 (2010)

자료 : OECD(2016), The Ocean Economy in 2030

1) 자료 : OECD(2016), The Ocean Economy in 2030

2) 해양경제 전망²⁾

- 2030년 해양경제는 부가가치 및 고용의 측면에서 세계경제 성장률보다 높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추세유지를 가정한 경우 2030년에는 2010년보다 해양경제가 글로벌 총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두 배 이상 증가하여 3조 달러(약 3,553조 원)에 달하고 고용인원도 3천6백만 명에서 4천만 명까지 이를 것으로 예상
 - 성장규모로 보았을 때 해운, 조선 및 선박수리, 항만활동, 수산양식, 해양에너지, 해양관광의 큰 성장 예상
 - 반면 어획어업, 해양 석유·가스 시추 분야는 성장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
- 해양과학기술분야에서는 첨단소재, 해저공학기술, 센서 및 영상, 빅데이터, 자동화 시스템, 생명나노기술 등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



[그림 1-2-2] 해양경제 부가가치 분야별 비중 (2030)

자료 : OECD(2016), The Ocean Economy in 2030

2) OECD(2016), The Ocean Economy in 2030 참고

3) 한국의 해양항만 현황 및 전망³⁾

(1) 최근 해양항만의 이슈

■ 중장기 항만발전전략 수립 및 민간투자 활성화

-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16.9), 제2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16.10) 등 중장기 항만발전 전략 수립
- 항만 재개발, 마리나, 민간투자 사업 등을 통해 약 2조 원 투자 유치
- '해양산업클러스터법' 제정('16.11시행)으로 해양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기반 마련



[그림 1-2-3] 부산항 북항 그랜드 마스터플랜 구상도

자료 : 부산시청 HP 「www.busan.go.kr」

■ 수산물 수출확대 및 기술개발을 통한 미래산업화 추진

- 수산물 수출지원센터 개설, 신설 물류망 구축 등으로 수산물 수출 11.7% 증가 (2016년 11월 기준으로 19.5억 달러)
- 명태, 뱀장어 완전양식 성공(세계최초, 2번째), 연어의 상업적 첫 출하 등 고부가가치 양식산업화 기반 확충
- 수협은행 발족, 경제사업 분야의 수산물 유통, 판매, 마케팅 기능강화 등을 통한 수협 발전기반 마련

3) '한국해양수산물개발원(2017), 2017 해양수산물전망대회 자료집(개회 및 기초발표, 수산, 항만물류, 해운해사, 해양정책)' 참고

■ 해양경제영토 확장 및 해양관광산업 육성

- 2016년 7월에 서태평양 공해상 마젤란 해저산 지역의 망간각 광구(3천km²) 독점 탐사권 신규 확보
 - 태평양 공해상 망간단괴 독점광구, 인도양 공해상 해저열수광상 독점광구, 통가 배타적경제수역(EEZ) 해저열수광상 독점광구, 피지 EEZ 해저열수광상 독점광구에 이은 5번째 독점광구로서 한국 독점광구는 총 11만5000km² 달함⁴⁾



[그림 1-2-4] 서태평양 망간각 광구 위치

자료 : 조형국, “한국, 여의도 350배 면적 망간각 독점탐사광구 확보”, 경향비즈, 2016.07.20.일자.

- 우리나라의 최초의 최첨단 쇄빙선인 아라온호는 2009년 취항하여 제2남극대륙기지 건설 등 극지방 연구에 투입



[그림 1-2-5] 해양 연구선 아라온호

자료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HP 「<http://www.kiost.ac.kr>」

4) 조형국, “한국, 여의도 350배 면적 망간각 독점탐사광구 확보”, 경향비즈, 2016.07.20.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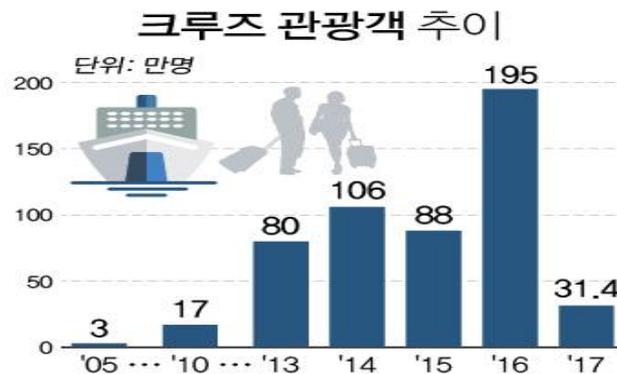
- 2016년 11월에 이사부호 취항으로 전 대양 연구기간 확대 및 읍저버 국가로 유일하게 북극이사회 신규사업 참여



[그림 1-2-6] 해양과학조사선 이사부호

자료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HP 「<http://www.kiost.ac.kr>」

- 최근 마리나항만 건설을 위하여 2014년과 2015년에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과 ‘수정계획’을 수립하고,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하여 2016년 ‘제1차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 크루즈 관광객이 2016년 기준 195만 명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소비지출 2조 원, 생산유발효과 3.4조 원, 고용유발효과 2.5만 명 창출
 - 크루즈 관광객 : ‘15년 99만 명 → ‘16년 195만 명
- 마리나 사업자 의무보험료 인하 및 창업자금 지원 등을 통하여 신규 업체 67개소 창업
- 미라나관련 사업체 수 : ‘15년 7월 0개소 → ‘16년 12월 69개소



[그림 1-2-7] 크루즈 관광객 추이

주 : 1~6월 값

원자료 : 해양수산부 HP 「<http://www.mof.go.kr>」

자 료 : 이재윤, "한국, 사드 보복 영향 크루즈 관광객 감소 현실화", 연합뉴스, 2017.07.10,일자.



[그림 1-2-8] 2016년 크루즈 관광객 유치 경제효과

자료 : 이화중, “한국, 2016년 크루즈 관광객 195만 달성”, 크루즈뉴스, 2017.01.10, 일자.

(2) 최근 해양항만의 한계

■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국내 해운업의 총체적 위기 심화

- 국내 1위, 세계 7위의 원양컨테이너 선사인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 개시('16.9)
- 법정관리 이후 물류 혼란 야기, 국내 해운산업의 대외 신인도 하락 등 해운, 물류 산업계 충격 가중
- 유럽, 미주 등 주요 지역 수출입 물류비 증가 우려

■ 자연재해, 질병, 청탁금지법 등의 영향으로 수산물 소비위축 등 피해 발생

- 고수온 등으로 양식업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재해보험 가입률(2016년 10월 기준 35.7%)이 저조하여 효과적인 지원 곤란
- 고등어구이 미세먼지 보도('16.6), 수산물 콜레라 오염('16.8), 청탁금지법 시행('16.10)등의 영향으로 수산물 출하 및 소비 감소
- 서해 NLL 등에서 중국어선의 지속적 불법 어업(단속실적: '15년, 25건 → '16년 10월, 49건)

■ 지속적인 해양사고 발생으로 안전문제 해소 미흡

- 다각적인 안전대책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사고 등 해양사고 지속 발생
- 2014년 세월호 사고이후 해안안전에 대한 관심 고조

(3) 해양항만 전망 및 대응

① 항만 · 물류

■ 항만 · 물류시장 저성장 및 위축상황 유지 예상

- 수요대비 보호주의, 친환경 정책 등으로 인한 비용구조의 증가로 경영악화 예상
 - 항만시장에서 미국, 유럽 등의 보호주의 확산으로 물동량 증가세 위축에 비해 친환경 정책적용, 선박 대형화 등 투자요인 증가로 기업활동 위축 예상
 - 선사들의 얼라이언스 축소로 인한 교섭력(bargaining power) 약화로 항만의 열위상황이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
- 기존 규모와 범위의 경제 위주의 물류기업들은 정보 투명화, 기술발전 등으로 인해 기존고객인 유통, 화주기업들이 물류서비스 경쟁자로 부상
 - 향후 물류기업들은 기존 고객들과 제한된 물류시장을 두고 경쟁을 하게 될 것이며, 경우에 따라 물류기업 없이 물류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

■ 항만물류관련 기술분야에서 국내외 항만하역장비 시장은 감소하고, 소프트웨어, 시설, 용기 등의 시장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전체 항만물류 관련 기술에 대한 국내시장은 ('17년 9,361억 원 ⇒ '30년 14조 원)으로 확대 전망 {※ 항만물류기술시장(35.2%)과 물동량비중(3.7%) 고려}
- 이 중 국내 항만물류 장비시장은 '17년 1조 2,413억원, 소프트웨어 시장은 709억원, 컨테이너 검색기 관련시장은 1,012억 원, 용기시장은 11조 2,251억 원 규모 전망

■ 4차 산업혁명 등의 기술진보에 따라 항만의 기능 및 역할변화에 대응하는 미래항만모델 가시화 확대

- 항만의 기능은 과거 단순보관기능에서 보관, 가공(재수출), 조립, 포장, 제조 및 배송 등 다기능 서비스 중심 거점으로 변화
- 2017년에 차세대 글로벌 항만(초고속 환적항, 디지털 기술융합 등) 건설 추진

② 해운 · 해사

■ 대내외 해운 경영여건 악화 지속 및 시장회복 불확실

- 세계경제성장률 둔화 및 선사 간 M&A 지속추진이 예상되고, 선박공급 과잉, 유가 상승 등 대외여건 악화

-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인한 신뢰성 추락과 해운시장 경쟁 가열로 국적선사부담 가중
- 세계 7위 한진해운의 사실상 청산과 현대상선의 재무 위험고조로 한국해운 위상 추락
 - '14년 기준 한국 해운업 전체 매출액 가운데 한진해운(23.7%)과 현대상선(17.3%) 이 40% 이상 점유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을 제외한 해운은 기타 외항해운기업, 내항해운기업 및 항만 내 운송업)
 -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선박량은 1위 선사 대비 '95년 77% → '17년 14%로 추락

■ 대외적으로는 시황의 급격한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우나, 소수 얼라이언스에 의한 과점화된 시장구조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시장진입 역시 과거에 비해 더욱 어려워질 것이며, 소수 얼라이언스 그룹에 속하지 못하는 경우 중견선사로 전략할 우려 존재
- 선사들은 자체성장보다는 인수합병 등을 통한 대형화 추진을 통해 시황하락에 따른 저수익 시장에 대응

■ 세계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나라는 해운업 성장 중요

- OECD 예측에 따르면 2060년 우리나라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근접해 단일국가로는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장기적 세계경제흐름에 맞춘 해운, 금융 등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의 중점 육성 필요
- 국가경제 필수산업인 연안 해운은 친환경 고효율 운송수단으로의 전환 필요

③ 해양정책 및 환경재해

■ 해양을 둘러싼 다양한 외부요인과 내부 수요의 변화에 적합한 해양정책의 지속적 발굴 및 추진 필요

- 위협받는 해양주권, 해양재해의 위험성 증대, 인구 저성장 및 연안구도심 황폐화 등 새롭게 부상하는 각종 이슈에 대한 분석과, 이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해양정책 개발 중요
- 단순한 위험요소의 제거, 불편 및 불만의 해소, 현재의 피해복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한 기회를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는 실천적 해양정책 요구

■ 도시의 다양한 가치를 재발견하고, 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 수립 필요

- 우리나라의 도시는 총 3,358개이고, 이 중 무인도시는 2,876개(85.7%) 분포
- 우리나라 도시정책은 도시의 가치(영토안보, 자연환경, 해양관광, 자원 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유인도시는 주민들의 낙후된 생활여건 개선, 무인도는 관리유형 지정에 주목
- 도시는 해양쓰레기, 자연재해 등으로 자연환경이 악화되는 관리의 사각지대 증가
- 행정적으로 유인도는 행자부, 무인도는 해수부에서 분할 관리하고, 환경부에서도 특 정도서를 중복으로 관리하여 행정효율성 감소
- 모도와 주변도시의 통합관리 체계가 미흡하고, 도시의 육지관리에 치중하여 도시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관리체계
- 전체 무인도서의 2/3 이상이 남해안에 분포하고, 육지에서 1km 미만에 1/20이상 분포
- 무인도서법에 따라 전국 2,619개 무인도서를 4개 관리유형으로 지정 (절대보전, 준 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
- 무인도서법에 근거하여 2017년부터 제2차 무인도서 실태조사 실시
- 무인도서를 해양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 구축 필요

■ 갯벌과 하구복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 거버넌스 필요

- 갯벌 및 하구복원의 문제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충돌되는 분야이므로 협의 회 구성 등을 통하여 정책 추진의 합의점 도출 필요

■ 연안오염총량관리의 새로운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하여 연구를 심화하고 기존 체계를 타 해역의 해양환경 개선에 적용

- 마산만 내안 해양수질 개선, 비점오염원 관리방안 마련 등 새로운 과제 해결을 위 해서는 지속적인 연구추진 필요
- 최초로 연안오염총량관리 사업이 시행된 마산만의 사례를 다른 특별관리해역에도 적용하여 기 구축된 사업추진 체계와 축적된 경험을 해양환경 개선에 활용

■ 재해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체계 구축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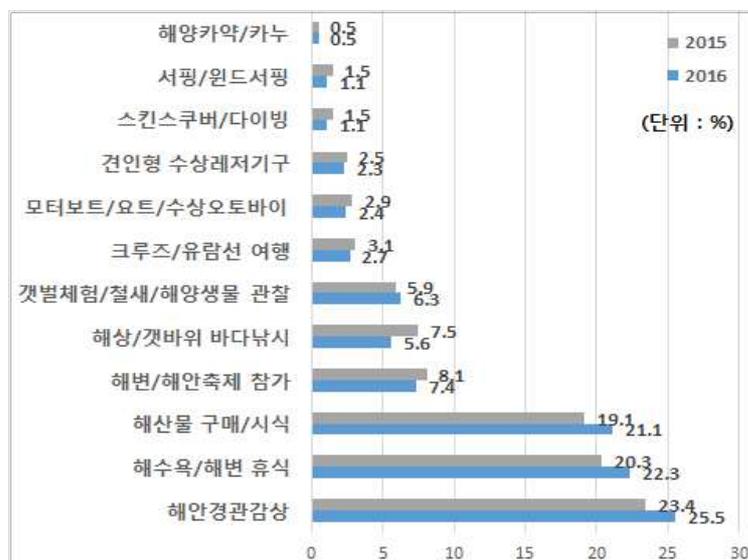
-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발생 빈도 증가하고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슈퍼태풍 증가 ('98년 ~ '12년, 연 0.68개)

- 연안재해관련 통계가 미흡하고, 해저지진, 해수면 상승 연안침수 등 새로운 재해 대응 부진
- 해양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통합적 연안재해 대응체계 구축 및 대형 재해 대응계획 마련 필요

④ 해양관광

■ 국내 해양관광시장은 해양레저 대중화와 크루즈 관광시장의 성장에 따라 관광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

- 현재 국내관광은 관광다양화, 관광시설·상품·IT 연계, 경제성장률 저하 및 관광수지 적자, 관광의 해외 의존도 심화 등 현상 대두
- 해양레저인구 증가, 해양레저산업 규제 완화, 해양레저 기반시설 확충으로 해양 레저스포츠가 해양관광의 새로운 산업으로 부각 가능
- 해양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개별관광, 공유경제, IT기반 관광서비스 상품 다변화 등의 트렌드 변화를 적극 반영해야 하며 해양관광의 질적성장 유도
- 해양관광정책은 개발과 보전의 조화가 더욱 강조되어야 하며 해양관광에서 비롯되는 환경오염, 난개발, 경관훼손 등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도 함께 수립
- 해양관광의 다양한 관광콘텐츠 발굴과 서비스시장 육성을 통하여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연계 정책 필요



[그림 1-2-9] 우리나라 참여 해양관광 형태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HP 「<http://www.kmi.re.kr>」



[그림 1-2-10] 우리나라 향후 희망하는 해양관광 활동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HP 「<http://www.kmi.re.kr>」

■ 해양관광의 각 분야별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으로 효율성 증대 요구

- 해양레저 · 스포츠
 - 레저보트 · 스킨스쿠버 : 소규모거점 마리아, 해양레저 교육 프로그램 확충, 레저보트 임대사업 지원 강화 및 공유경제, IT 기반 비즈니스 발굴
 - 해중레저 : 해중 체험 및 교육 공간 조성, 안전시설 지원
 - 바다낚시 : 바다환경교육 프로그램 확대, 가족단위 낚시활동 공간 조성, 낚시어선 시설 개선 및 안전교육 확대
- 크루즈 관광
 - 기항지 : 크루즈 터미널, 육상 대중교통, 지역 관광정보의 체계적 연계, 전담 여행사 및 가이드 육성, 관광상품 개발 필요
 - 마케팅 : 동북아(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크루즈 시장 동향 분석 및 국가별 기항지 관광상품 조사·분석, 크루즈 국제 홍보 강화
- 해수욕장 및 도서관광
 - 해수욕장 : 관광시설, 수질오염, 백사장 관리 등 환경 및 경관 정비, 레포츠·공연축제 등 해수욕장 공간의 다양한 이용 추구
 - 도서 : 도서의 관광정보 확충 및 접근체계 정비, 관광 인프라 개선
- 축제 및 체험활동
 - 축제 : 지역 관광자원(박물관, 체험마을, 사적 등)과 연계한 콘텐츠 및 상품 개발

- 체험활동 : 수산물 채집, 해양생물 관찰 등 해양환경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 해양생태 전문 가이드 및 해설사 육성

연도	2014년	2017년	2020년
요트·보트 수(척)	1만2985	2만	3만
일자리 창출(개)	1143	8000	1만2000
부가가치 창출(원)	4000억	1조	1조5200억

자료: 해양수산부

[그림 1-2-11] 마리나산업 예상 발전 추이

자료: 박찬준 "한국 선박 평형수·심층수 산업·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운다", 세계일보, 2017.03.01, 일자

⑤ 수산업

■ 연근해어업, 치어남획, 유령어업, 중국의 불법어업 등 현안문제에 대한 대응 절실

- 2016년 연근해어업 생산량 전년 대비 1.8% 감소(100만톤 하회), 근해어업 생산량 11.4% 감소가 전체 연근해어업 생산량 감소 주도
- 어종별 생산량의 경우 생산량 상위 10대 어종 중 고등어류, 붉은대게, 청어의 생산량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멸치, 살오징어, 갈치, 삼치류는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추정
- 전년 대비 근해어업의 생산량 감소가 현저한 상황에서 기선권현망어업 29.7% 감소, 대형선망어업 10.6% 감소, 근해트롤어업 3.9% 감소하였고 대형저인망어업은 7.5% 증가

[표 1-2-1] 주요 어종 생산량 (2015~2016)

연도 순위	2015년		2016년		전년대비 증감률
	어종	생산량(톤)	어종	생산량(톤)	
1	멸치	211,574	멸치	156,499	-26.0
2	살오징어	155,743	고등어류	143,520	2.1
3	고등어류	140,625	살오징어	141,308	-9.3
4	전갱이류	43,362	붉은대게	43,509	4.5
5	붉은대게	41,647	갈치	35,934	-12.5
6	갈치	41,049	삼치류	33,220	-12.3
7	삼치류	37,872	청어	29,476	13.8
8	참조기	33,254	참조기	24,640	-25.9

주 : 2016년 11~12월 생산량은 2013~2015년 동기간의 생산량을 평균한 값
 주 : 고등어류는 고등어와 망치고등어 생산량의 합계
 원자료 : 수산정보포탈 「<http://www.fips.go.kr>」
 자 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7), 2017 해양수산전망대회 자료집

[표 1-2-2] 주요 어종 생산금액 (2015~2016)

연도 순위	2015년		2016년		전년대비 증감률
	어종	생산금액 (백만원)	어종	생산금액 (백만원)	
1	살오징어	413,217	살오징어	420,856	1.8
2	멸치	264,508	갈치	272,486	11.6
3	참조기	256,948	멸치	237,075	-10.4
4	갈치	244,135	고등어류	193,971	-10.9
5	고등어류	217,747	참조기	186,630	-27.4
6	꽃게	213,061	꽃게	186,354	-13.9
7	낙지류	174,272	낙지류	168,343	-3.4
8	문어류	169,974	문어류	165,296	-2.8

주 : 2016년 11~12월 생산량은 2013~2015년 동기간의 생산량을 평균한 값
 주 : 고등어류는 고등어와 망치고등어 생산량의 합계
 원자료 : 수산정보포탈 「<http://www.fips.go.kr>」
 자 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7), 2017 해양수산전망대회 자료집

■ 4차산업혁명 대비하여 양식경영 불안정성 극복할 민·관 협력모델 구축 필요

- 양식산업의 중요성은 커졌으나 양식경영 불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발생
 - 2016년 양식 생산량 및 생산액은 전년대비 각각 12.3%, 8.6% 상승하여 각각 188만 톤, 2조3,111억 원으로 나타났으나 수출액은 단가감소(굴, 전복, 김 등)로 인하여 전

년대비 5.9% 감소하였고, 수입액은 단가상승(연어)으로 4.6% 증가

- 양식어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전체 어가의 25% 수준인 5만7천 어가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고수온, 콜레라 등의 발생으로 양식 수산물 생산 및 소비침체, 가격불안정성으로 경영 불안정성 확대
- 양식재난에 대한 상시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양식산업의 4차산업혁명을 위해 민·관 협업모델 및 실증단지 조성이 필요하며 내수면 6차산업화를 통한 내륙까지 정책의 외연적 확대 기대

■ 어촌개발 통합으로 효율성을 강조하고 어촌6차산업화, 어촌복지 정책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와 삶의 질 개선 필요

- 어촌 유희시설과 공간의 효율적 활용
 - 어촌 투자사업의 하드웨어 시설과 공간 활용의 양극화로 불필요한 유희시설 발생
 - 어촌 유희시설과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통한 유희시설의 활용 방안 도출
- 어촌 공공투자사업의 경영주체 다양화
 - 어촌계의 인적자원 부족,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으로 기대수익에 미치지 못하는 어촌계 투자사업 발생
 - 사업 책임 경영자 선정 및 독립채산제 도입으로 사업경영의 합리성 제고
- 어촌 무형자산의 잠재적 가치 창출
 - 어촌인구의 급속한 노령화로 어촌의 인류·문화적 자산 소멸 위기
 - 어촌개발의 콘텐츠로서 어촌의 역사·문화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이를 관광 콘텐츠로 개발 필요
- 어촌경제 중심공간으로서 어항 지정기준의 재검토
 - 수산업 중심의 어항 지정으로 다기능 어항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어항 지정조건 유지
 - 어항을 어촌경제의 중심공간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민의 접근수요에 부합하는 어항 지정기준 재검토
- 통합적 어촌복지정책 수립 및 추진 등 필요
 - 어촌복지의 정책을 어업인으로 한정된 협의적 개념을 어촌주민으로 확대
 - 어촌복지 실태조사 및 DB 구축, 해양수산부 내 또는 타 부처와의 협력, 어업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으로 통합적 어촌복지 실현

2. 해양항만 상위계획 검토

1) 국가계획

(1)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과제

■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의 100대 과제 중 해양수산부 주관과제는 3개 포함

-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
-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 100대 과제 중 타 부처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과제는 17개로 분류

-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 대비 : 해양수산 국내외 고급 일자리 창출, 해양과학기술의 혁신과 융합기술 개발, 해양수산 창업 확대, 해양수산 중소벤처기업 육성 등
- 해양안전 : 해양재해 및 사고 방지
- 관광복지 확대 : 해양치유 및 해양레저스포츠 보급 확대
- 균형발전 및 살고 싶은 어촌, 어업인 복지 향상 : 항만도시, 해양관광도시, 수산도시, 어촌의 고른 발전, 어민을 비롯한 지역민의 소득안정과 정주여건 개선
- 남북교류와 경제외교 : 원양어업, 해양수산 ODA, 해외거점 물류망 구축, 극지진출, 남북한 협력방안의 단계적 추진

(2)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2011~2020)

■ 비 전 :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글로벌 녹색국토

■ 기본목표

- 경쟁력 있는 ‘통합국토’, 지속가능한 ‘친환경국토’, 품격 있는 ‘매력국토’, 세계화로 향한 ‘열린국토’
 - 동북아시아 중심에 위치한 한반도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FTA 시대의 글로벌

트렌드를 수용하여 유라시아-태평양 지역을 선도하는 글로벌 국토 실현

- 정주환경, 인프라, 산업, 문화, 복지 등 전 분야에 걸쳐 국민의 꿈을 담을 수 있는 국토공간을 조성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녹색국토 실현



[그림 1-2-12]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기본 틀

자료 : 국토교통부(201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2011~2020)

■ 충청권역의 발전방향

- 비전 : 동북아 첨단과학기술·산업의 허브, 녹색국토 창조시대
- 기본목표
 -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첨단과학 R&D 산업의 중심
 - 신성장동력산업을 주도하는 첨단산업의 거점
 - 자연과 문화와 미래가 만나는 국제관광의 허브
 - 인간과 자연이 상생하는 녹색성장의 중심

■ 서해안 초광역개발권 (신산업벨트)

- 국제비즈니스 거점 및 환황해 협력체계 조성, 역내의 연계 인프라 구축, 환황해권에 서는 서해안 신산업벨트와 연계하여 산업 환경을 재정비하고 중국 및 ASEAN 제조업과의 분업 협력 추진

■ 항만의 글로벌 물류기반시설 확충

- 충청권의 에너지·자원·배후산업 기능 지원 등을 위하여 대산 및 보령을 거점 항만으로 육성

■ 지역 정체성에 바탕을 둔 역사·문화 및 관광자원의 육성

- 5대 관광권 중 서해안 국제관광권 설정
- 광역관광문화벨트 공동 개발보전을 위해 충청권 건강회랑(보령, 아산, 제천, 오송, 예산, 수안보, 양성, 유성 등)과 역사문화루트 등 활용

(3) 제2차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 (2011~2020)

■ 비 전 : 세계를 주도하는 선진 해양강국 실현

■ 기본목표

- 지속가능한 해양환경의 보전 및 관리
- 신해양산업의 육성 및 전통적 해양산업의 고도화
- 신해양질서의 능동적 수용을 통한 해양영역 확대



[그림 1-2-13] 제2차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자료 : 관계부처합동(2010), 제2차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 (2011~2020)

■ 추진전략

- 건강하고 안전한 해양 이용관리 실현
-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해양과학기술 개발

- 미래형 고품격 해양문화관광의 육성
- 동아시아 경제 부상에 따른 해운·항만 산업의 선진화
- 해양 관할권 강화 및 글로벌 해양영토 확보

(4) 제3차 관광개발 기본계획 (2012~2021)⁵⁾

■ 비전 : 글로벌 녹색한국을 선도하는 품격 있는 선진관광

■ 5대 목표

- 한국 문화가 생동하는 창조관광
- 관광자원의 보전과 재생을 유도하는 녹색관광
- 국민의 생활 속에 스며드는 생활관광
- 책임과 참여로 정의사회를 실천하는 공정관광
- 성장동력 산업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관광



[그림 1-2-14] 제3차 관광개발 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및 개발전략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1), 제3차 관광개발 기본계획 (2012~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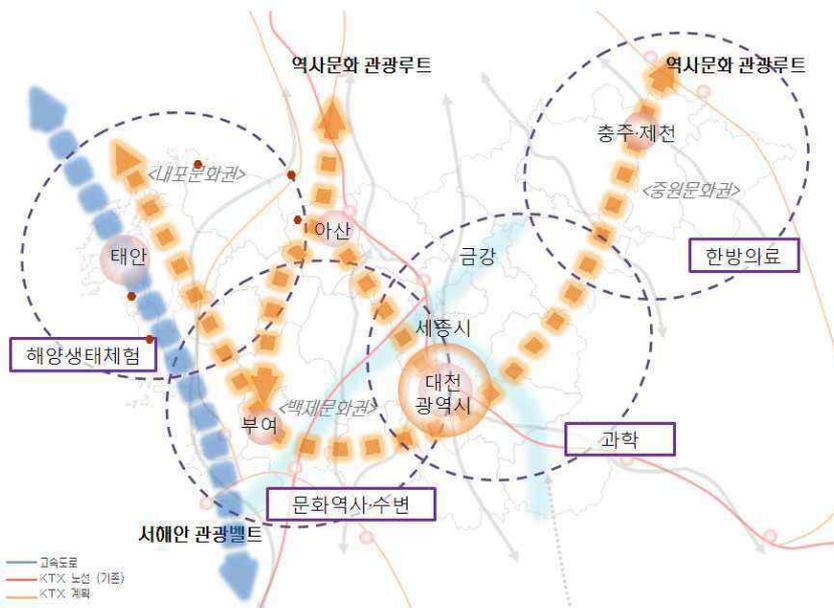
5) 관광진흥법에 의거하여 수립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계획임

■ (관광권역별 개발 추진) 16개 시·도, 광역경제권, 초광역 개발권 등 변화하는 행정 위계를 반영한 ‘다층적 지역 관광발전 전략’ 도입

- 시·도 관광권과 더불어 5+2 광역경제권을 관광권역으로 수용
- 초광역 관광벨트 설정으로 계획권역을 기능적으로 연계·보완

■ 충청 관광권의 개발방향⁶⁾

- 충청남도는 ‘전통문화 및 해양관광 활성화’ 를 목표로 설정
- 내포~백제~중원 문화권을 연결하는 역사문화 관광루트 조성
 - 머드축제(보령)를 활용한 지역정체성에 바탕을 둔 역사·문화 관광자원 육성
- 해양~하천~산악자원을 연결하는 녹색관광 활성화
 - 안면도, 원산도(당진·태안·보령)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해양레저관광 개발 추진
 - 보령 머드축제 등 국제수준의 해양관광축제 육성
 - 문화생태탐방로, 자연휴양림, 팔경과 구곡, 템플스테이 및 성지순례 등 자연과 어우러진 관광자원을 연계·육성



[그림 1-2-15] 충청 관광권 공간전략 및 특성화 계획의 기본 방향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1), 제3차 관광개발 기본계획 (2012~2021)

6)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충청북도를 포함하는 광역관광권

(5) 제2차 해양관광진흥 기본계획

■ 비 전 : 품격과 매력이 넘치는 동북아 해양관광허브 실현

■ 정책목표

- 해양 레저·문화 확산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
-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창조경제 발전
 - 구체적으로 2023년까지 해양여행이동총량 5억 일 달성과 해양관광분야 신규일자리 3만5천개 창출 목표

■ 전국 연안과 인접해역을 7개 권역으로 나누어 여건에 맞는 특화된 권역 개발

- 충청남도는 전라북도와 함께 '서해안권' 으로 구분되어, 해양문화생태관광의 융·복합 모델 창출



[그림 1-2-16] 제2차 해양관광진흥 기본계획에 따른 권역별 구상도
 자료 : 해양수산부(2014), 제2차 해양관광진흥 기본계획

■ 서해안권의 권역별 발전방향

- 서해안권은 ‘해양문화·생태관광의 융·복합 모델 창출’을 비전으로 설정
 - 보전과 체험이 조화로운 해양생태관광벨트 조성
 - 해양경관 콘텐츠와 해양생물자원관의 연계 발전
 - 해양테마마을, 연안축제 등 지역특화형 관광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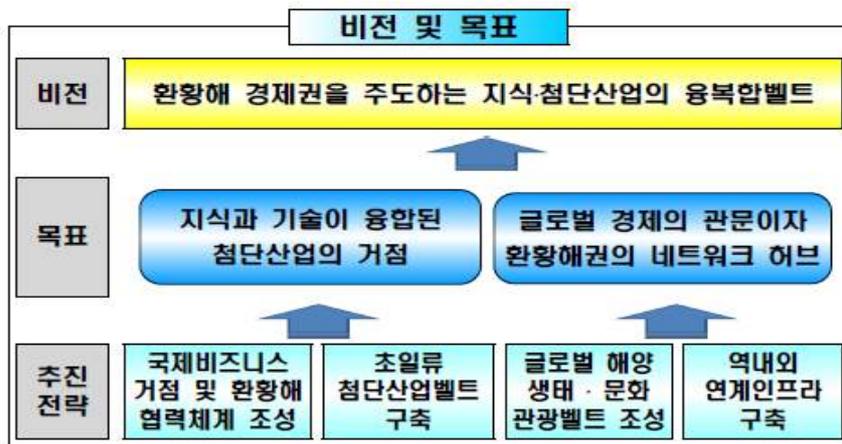
(6)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변경)⁷⁾

■ 서해안권 발전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으로서 해당 지자체간 협력을 통한 상향식 지역계획

- 인천시, 경기도, 충청도, 전북도의 해안에 위치한 25개 기초자치단체를 공간적 범위로 하고 있으며, 2020년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 계획

■ 비전 및 목표

- 비 전 : 국제비즈니스 거점화와 첨단산업벨트 구축 등을 통해 ‘환황해 경제권을 주도하는 지식·첨단산업의 융복합벨트’ 조성
- 목 표
 - 지식과 기술이 융합된 동북아 첨단산업의 거점 육성
 - 글로벌 경제의 관문이자 환황해권의 네트워크 허브 조성



[그림 1-2-17] 서해안권의 비전과 추진전략

자료 : 국토교통부·서해안권 지자체(2016),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변경)

7)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은 2010년 12월에 수립이 되었고, 2016년 10월 변경 고시되었음

■ 충남 서해안권 발전구상

-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은 지역별 발전 잠재력, 특화발전 전략 등을 바탕으로 충남 서해안권, 슈퍼경기만권, 새만금권의 3개 권역으로 구분
- 충남 서해안권은 국제관광·휴양산업과 기간산업이 어우러진 융복합 산업거점으로 설정
- 이에 따라 충남 서해안권은 산업측면에서는 태양광, 자동차, 관광측면에서는 생태관광 거점으로 구상



[그림 1-2-18]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의 권역별 발전구상

자료 : 국토교통부·서해안권 지자체(2016),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변경)

2) 충청남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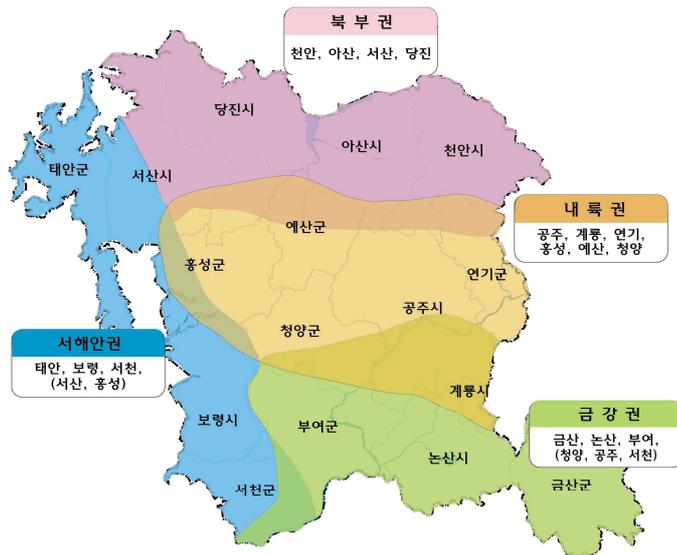
(1) 충청남도 종합계획 (2012~2020)

■ 계획의 기초 및 목표

- 최근 대내·외적 여건변화 속에서 충남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람중심으로의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어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을 본 계획의 기초로 설정
- 기본목표
 - 균형 있는 지역발전
 - 내실 있는 산업경제
 - 활력 있는 농어촌
 - 함께하는 교육복지
 - 매력적인 문화환경

■ 개발경영권의 설정

- 충청남도 종합계획은 지리적 여건과 산업·환경자원을 바탕으로 지역간 연계개발에 의한 지역 개발경영의 효율화를 위한 4대 개발경영권 설정
- 보령은 태안, 서천, 서산·홍성 일부와 더불어 서해안권에 포함



[그림 1-2-19] 4대 개발경영권의 구분

자료 : 충청남도(2012), 충청남도 종합계획 (2012~2020)

■ 서해안권 권역의 발전방향 : 환황해권 교역 전진기지, 해양 휴양·관광의 메카

- 거점항만 및 항공물류기지 확충으로 국제적 교역·교류의 거점으로 육성
- 항만 배후지 및 서해안고속도로 IC 연접부를 중심으로 신산업집적지·물류유통거점 등을 조성하여 무역항 및 황해경제자유구역⁸⁾과 연계
- 우리나라 서해안 해양관광벨트의 중핵기능을 담당하고, 통합적 연안환경 관리, 풍부한 어족자원 육성, 미래형 해양산업의 거점지대로 개발

■ 보령의 기본목표 및 발전방향

- 보령은 역사와 테마가 살아 숨 쉬는 매력적인 관광·문화도시, 기업과 일자리가 모여드는 풍요로운 자족도시, 사람과 자연 미래가 공존하는 지속가능 녹색 창조도시를 기본목표로 설정
- 발전방향 설정
 - 해양 및 산악관광 자원을 활용한 4계절 전천후 관광·휴양도시, 문화도시 조성 기반 구축
 - 사통팔달의 교통망 확충 및 신규 산업·물류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 경쟁력 있는 농어업, 살맛나는 농촌 건설 기반강화 및 지속가능한 녹색환경 조성
 -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안심 도시 창조, 따뜻한 복지사회 실현

(2)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

■ 계획의 목적

- 충청남도 바다를 체계적으로 관리이용개발하여 미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확한 정책적 방향 설정
- 충청남도의 여건과 실정에 맞는 해양, 수산, 해양관광레저, 항만물류, 관련 인프라 구축 분야에 대한 비전과 중장기 발전계획 마련 및 국가정책 반영의 기초 마련

■ 비 전 : 아시아의 새로운 중심, 해양 建道 충남

- ‘깨끗하고 건강한 바다’, ‘풍요와 역동의 바다’, ‘세계를 향한 교류의 바다’를 목표 설정하여 충남도가 그리는 서해안 발전의 미래상 반영

8) 황해경제자유구역 충남지구는 2014년 8월에 지정 해제

■ 해양수산발전계획의 부문별 과제

- 해양수산분야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6대 추진전략 도출
 - 지속가능한 해양안전환경 조성
 - 바다와 교류하는 해양레저관광
 - 살기 좋고 풍요로운 어촌아름다운 어항
 - 충남 미래 성장동력 해양신산업 창출
 - 국제 물류·항만 거점 조성



[그림 1-2-20]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의 비전체계도

자료 : 충청남도(2015),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

3) 보령시 계획

(1) 보령 비전 2025 발전전략

■ 계획의 목적

- 보령시 지역여건의 검토를 통하여 보령시의 장기적 비전 및 추진전략 마련

■ 비전 : 생동감 넘치는 해양관광도시, 만세보령

■ 4대 목표

- 특색 있고 활기찬 지역문화 창조
- 역동적인 풍성한 창조경제 육성
- 살맛나고 안전한 평생복지 지원
- 함께하는 깨끗한 참여행정 추진

■ 보령 비전 2025 발전전략의 추진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전략별 추진계획 수립

- 다양하고 즐거운 관광도시
-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 배려하고 힘이 되는 복지도시
- 깨끗하고 살아있는 환경도시
-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도시
- 독창적이고 다채로운 예술도시
- 활력있고 창조적인 산업도시
- 투명하고 함께하는 행정도시

(2) 2020 보령도시기본계획(변경)

■ 계획의 목적

- 市の 여건 변화 및 상위·관련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도시기본계획의 수정·변경

■ 계획의 미래상 : 산·들·바다가 어우러진 글로벌 녹색성장도시, Eco-Healing City, 2020년 보령

- 광역 교통망의 구축을 통하여 보령시의 아름다운 바다와 산들과 특산물, 휴양인프라를 기반으로 레저와 건강, 치유가 어우러진 관광 및 첨단산업의 융복합화의 육성에 따른 보령시의 지역경쟁력을 제고, 지속가능한 녹색성장도시 구현
- 실천계획
 - 관광·휴양중심도시
 - 지역특성화 산업도시
 - 동북아 교역 중심도시
 - 지속가능한 녹색창조도시

“21C 자연친화적 복합도시 창조” → *Eco-Healing City, 2020년 보령*”



[그림 1-2-21] 2020년 보령 도시기본계획(변경)의 미래상 및 4대 실천계획

자료 : 보령시(2014), 2020년 보령도시기본계획(변경)

(3) 보령시 섬지역 종합발전계획 (2005~2013)

■ 계획의 목적

- 천혜의 아름다운 섬을 개발하기 위한 기본방향 수립
- 공공서비스 시설과 공급체계의 개선방안 모색

- 해안중심지와의 연계개발을 통한 편의성 증진방안 도출
- 도서특성을 고려한 관광자원화 방안 마련

■ 기본방향 : 미래의 자원 해양도서개발

- 개별도서의 자생력 배양
- 도서의 격절성 해소
- 미래형 수산업의 발굴육성
- 도서의 관광자원화
- 천혜의 자연환경 보전

■ 목 표 : 서해바다의 문을 여는 풍요롭고 건강한 보령섬

- 편리하고 안전한 도서 생활환경 구축
- 풍요로운 해양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공공서비스 시설의 확충
- 지속가능한 도서환경 보전
- 도서 고유의 다양한 자연과 문화를 고부가 관광자원화

■ 추진전략

- 자생적 도서 생활환경의 기반 구축
- 풍요롭고 지속가능한 삶의 터전 구현
- 안전하고 체계적인 공공서비스 제공
- 도서지역 고유의 관광상품화
- 쾌적하고 아름다운 연안환경 조성

(4) 보령시 중기 발전전략 (2007~2015)

■ 계획의 목적

- 새로운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발전전략 도출

- 상위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실천방안 제시
-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도청이전신도시(내포신도시) 건설에 따른 연계방안 제시

■ 추진전략

- 대천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한 허브앤스포크(Hub & Spoke) 전략
-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융복합화(Convergence) 전략
- 지역의 매력을 마케팅하는 브랜드(Brand) 전략

■ 추진과제

- 활력 있고 살기 좋은 도시창조
- 청정환경의 아름다운 도시창조
-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안심도시 창조
- 협력·제휴하는 상생도시 창조

(5) 연륙교 건설에 따른 기초생활권 발전전략 수립

■ 계획의 목적

- 보령시 실정에 맞는 유형별 특성화·차별화 전략 개발로 삶의 질 향상
- 지역특화, 향토사업 육성을 통한 소득 확대와 일자리 창출로 살고 싶은 정주환경 조성
- 지역특성에 맞는 핵심 사업을 발굴 추진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
- 지자체가 중심이 된 선도적 지역발전으로 실질적인 자율성과 분권 확대

■ 기본방향

- 보령의 브랜드 파워를 글로벌 차원으로 업그레이드
- 서해안 경제 중심지로의 도약
- 사람과 물자가 끊임없이 교류하면서 부가가치 창출
- 보령신항 건설, 관창산업단지 조성 등의 핵심사업 연계

3절 해양항만 현황 및 특성

1. 보령시 일반현황

1) 연혁⁹⁾

- 삼한시대에는 마한의 만로국, 백제 때에는 신촌현, 통일신라시대에는 신읍현, 고려시대에는 보령현으로 불림
- 1895년 지방관할 개편에 따라 보령군으로 개정하였고, 1914년 통폐합령에 따라 보령, 남포, 오천의 3개 군을 보령군으로 통합
- 1986년 대천읍이 대천시로 승격되어 보령군과 대천시로 분리되고, 이후 1995년 대천시와 보령군이 통합하여 현재 보령시로 개명
- 1998년에는 왕대동을 현포동으로 통합하고, 1999년 원동을 대천1동으로, 대관동을 대천2동으로, 대신동을 대천3동으로, 흥덕동을 대천4동으로, 현포동을 대천5동으로 변경
- 2015년 현재 대천 1~5동과 웅천읍 및 주포·주교·오천·천북·청소·청라·남포·주산·미산·성주면의 1읍 10개면 5개동의 행정구역 구성

2) 자연지리

(1) 위치¹⁰⁾

- 보령시의 동단은 미산면, 서단은 오천면으로 동·서간 길이는 70.39km이고, 남단은 주산면, 북단은 천북면으로 남·북간 길이는 40.32km
- 보령시는 국토의 중서부인 충남 서해안의 남부에 위치하며, 동으로는 청양군, 북으로는 홍성군, 남으로는 서천군, 부여군과 인접

9) '보령시(2017), 2016 통계연보' 참고하여 작성

10) '보령시(2017), 2016 통계연보' 참고하여 작성

- 시가지를 중심으로 남·북으로는 장항선 철도 및 국도 21호선, 동·서로는 국도 36호와 40호선이 각각 통과하여 서해안 교통의 중심
- 우리나라 국토를 보았을 때, 서해안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해양부문에서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고, 대천항은 서해안에서 가장 많은 배들이 오가는 항구¹¹⁾

(2) 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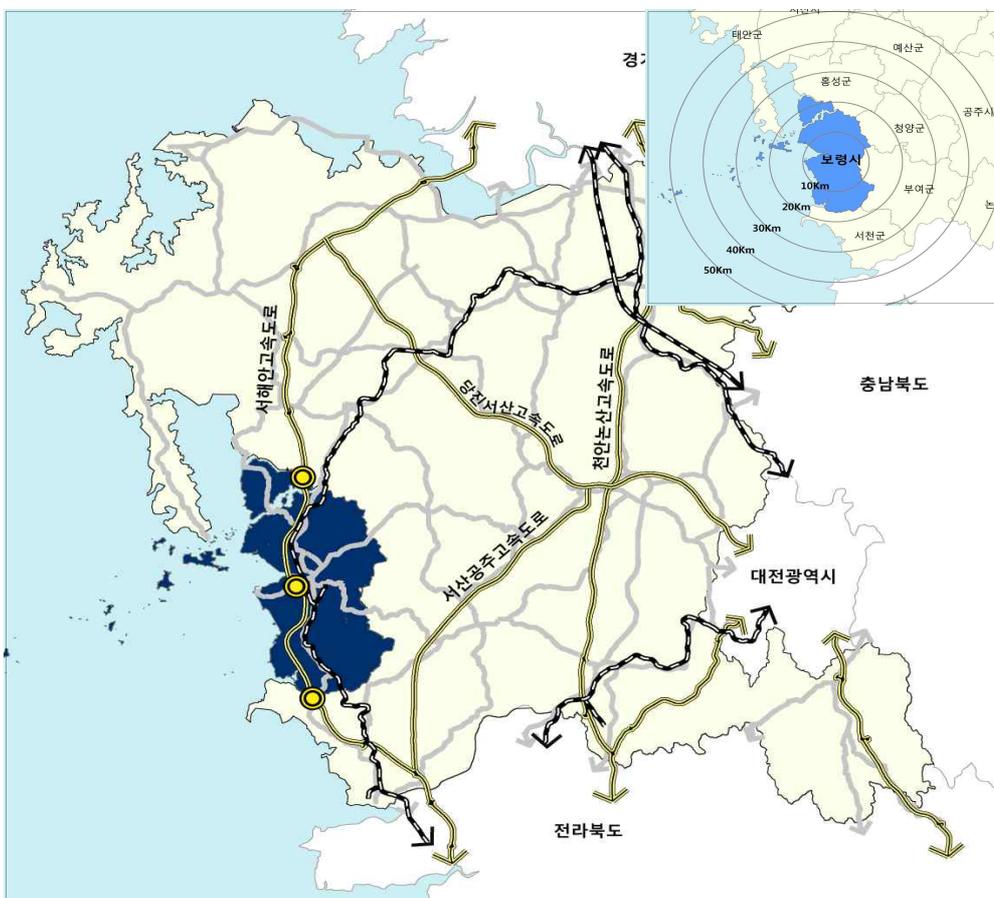
- 보령시는 충남 남서에 위치한 해안에 형성된 분지로서 동쪽에 차령산맥의 지선인 성주산이 남서로 뻗어 있으며, 서쪽에는 서해중부해상으로 리아스식 해안과 안면도, 원산도 등 여러 도서(섬) 산재¹²⁾
- 육지는 동고서저형 지형이며, 해안과 도서지역이 포함된 복합적 형태¹³⁾
 - 동부지형 : 동고서저형 지형으로 동부에는 오서산, 성주산 등 비교적 고지대의 산악지역을 형성하고 있으며, 성주산을 중심으로 폐광지역이 광범위하게 분포
 - 동부지역에 있는 성주면, 청라면, 미산면 등이 산악지형에 속함
 - 북부지형 : 보령의 북쪽에 위치하며 섬과 비슷한 반도지형을 형성하고 있고, 논은 대부분 간척지로 형성 하천의 발달이 미약하여 우기에만 물이 흐르기 때문에 간척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데 문제가 많음(천북면과 청소면)
 - 청소면의 서북쪽은 과거 바다였으나 홍보지구 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현재는 육지
 - 해안지형 : 오천면은 보령시의 서북쪽 바다와 인접한 곳으로 면의 절반은 육지이고, 절반은 섬으로, 오천면과 인근 천북면 사이에는 긴 만이 발달해 해상 교통로로 많이 이용
 - 오천면의 서쪽에는 월도에서 외연도에 이르기까지 일직선으로 많은 섬 분포
 - 일부 섬들은 사구로 둘러싸인 저습지가 있어 예부터 농경지로 이용되었으나 근래 간척사업으로 인해 넓은 들이 형성되어 있고(원산도, 삼시도, 효자도 등), 다른 섬은 지형 상 농경지를 만들기 어려워 주로 어업 성행
 - 중부지형 : 넓은 평야가 남북으로 위치해 있으며, 하천 하구에는 간척지가 있고, 높은 산지로 둘러싸인 깊은 골짜기가 바다까지 이어지고, 주변 바다 역시 깊은 골짜기를 이루고 있어 큰 선박의 접근 용이

11) 보령시(2012), 보령시 농어업농어촌 중장기 발전계획

12) 기상청 HP 「<http://www.kma.go.kr>」

13) 보령시(2012), 보령시 농어업농어촌 중장기 발전계획

- 주포면과 주교면, 대천동이 속하며 대천동은 해안이면서 주변에 높은 산지를 가지고 있는 지형으로 산의 지형은 완만하고 평탄한 것이 특징
- 남부지형 : 여러 번의 간척사업이 이루어진 곳으로, 남포방조제가 들어서면서 넓은 간척지 평야 형성
 - 노천리, 대창리, 황교리 등에 이르는 간척지가 골고루 분포되고, 부사방조제에 의해 형성된 간척지도 있음
 - 무창포와 같은 해안지형도 갖추고 있는 곳으로 남포면, 웅천읍, 주산면이 속함



[그림 1-3-1] 보령시의 지리적 위치

자료 : 보령시(2012), 보령시 농어업농어촌 중장기 발전계획

(3) 기상 및 기후

- 보령시는 서해안 중앙에 위치하고, 리아스식 해안 및 여러 섬들이 산재한 해양성 기후¹⁴⁾
- 해양성 기후로 인하여 동일위도의 내륙지방에 비하여 겨울에는 온화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편임
 - 연평균 기온은 12.6℃이고, 최고극값은 34.4℃, 최저극값은 -11.5℃
 - 연평균 강수량은 1249mm로 최근 4년간 가장 강수량이 많았던 2012년도(1319mm)와 가장 적었던 2015년도(785.4mm)의 차이는 957.6mm

[표 1-3-1] 보령시 기상개황

구분	기온(℃)					강수량(mm)	상대습도(%)	
	평균	평균최고	최고극값	평균최저	최저극값		평균	최소
2011	12.1	16.5	34.4	8.1	-13.2	1743.0	72.2	24.3
2012	12.2	16.7	36.3	8.1	-11.7	1319.0	70.3	48.4
2013	12.4	17.0	33.5	8.3	-13.6	1387.7	73.3	26.8
2014	12.9	17.6	33.8	8.9	-9.1	1010.1	75.7	28.0
2015	13.3	18.0	33.8	9.2	-9.7	785.4	76.9	15.0
평균	12.6	17.1	34.4	8.5	-11.5	1249.0	73.7	28.5

자료 : 보령시(2017), 2016 통계연보

- 1981~2010년의 충남 내륙지역 평년값을 비교했을 때, 연평균강수량은 1244.3mm로 내륙 평년값에 비하여 다소 적은 편이며, 여름철 강수량은 703.3mm, 겨울철은 87.9mm로 여름에 전체 강수량의 60~70% 편중
- 연평균 풍속은 1.9m/s로 내륙보다 강하며, 여름에는 남서기류의 영향을 받아 습하고, 겨울철에는 북서기류에 의한 지형적인 영향으로 눈이 자주 오며, 남서풍과 북서풍에 바람과 파도가 높고, 봄과 여름철에는 해무가 자주 발생¹⁵⁾

14) 기상청 HP 「<http://www.kma.go.kr>」

[표 1-3-2] 충남지역 기후특성 평년값 비교

	보령	대전	부여	금산	천안	서산
평균기온(°C)	12.4	13.0	12.2	11.6	11.8	11.9
최고기온(°C)	17.5	18.4	18.6	18.2	17.7	17.3
최저기온(°C)	7.9	8.3	6.9	5.9	6.5	7.2
평균습도(%)	73.3	66.7	7.3	71.2	71.7	74.1
평균풍속(%)	1.9	1.9	1.2	1.1	1.6	2.4
연강수량(mm)	1244.3	1458.7	1349.2	1296.8	1226.5	1285.7

주 : 평년값은 1981~2010년 사이의 평균 수치
 자료 : 기상청 HP 「<http://www.kma.go.kr>」

3) 인문사회

(1) 면적

- 보령시의 총 면적은 569.32km²로 충청남도 전체 면적(8,630.12km²)의 6.6% 점유
- 도내 16개 시·군 중 7위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중간 정도의 면적
- 보령시에 속한 섬은 총 90개가 있으며 그 중 15개는 유인도이고, 75개는 무인도

(2) 행정구역

- 보령시의 행정구역은 1개 읍, 10개 면, 5개 동, 2개 출장소, 115개 통 233개 행정리, 1,216개 반으로 구성
 - 청라면이 69.83km²(12.3%)로 가장 넓고, 대천2동은 4.03km²(0.7%)로 가장 좁음
 - 행정리 수는 웅천읍이 34개로 가장 많고, 주포면이 8개로 가장 적음
 - 반 수 또한 웅천읍이 98개로 가장 많고, 주포면이 28개로 가장 적음

15) 기상청 HP 「<http://www.kma.go.kr>」

보령시 해양항만 발전 기본계획



[그림 1-3-2] 보령시 행정구역

자료 : 보령시 HP 「<http://www.brcn.go.kr>」

[표 1-3-3] 보령시 행정구역 현황

구분	면적 (km ²)	비율 (%)	동		읍·면		반	출장소
			행정	법정	읍	면		
보령시	569.32	100.0	5	10	1	10	1,216	2
웅천읍	62.48	11.0	-	-	1	-	98	-
주포면	13.34	2.3	-	-	-	1	28	-
주교면	36.42	6.4	-	-	-	1	67	-
오천면	50.61	8.9	-	-	-	1	88	2
천북면	55.21	9.7	-	-	-	1	72	-
청소면	38.43	6.7	-	-	-	1	68	-
청라면	69.83	12.3	-	-	-	1	82	-
남포면	49.46	8.7	-	-	-	1	90	-
주산면	40.91	7.2	-	-	-	1	70	-
미산면	65.54	11.5	-	-	-	1	70	-
성주면	39.82	7.0	-	-	-	1	47	-
대천1동	5.26	0.9	1	2	-	-	96	-
대천2동	4.03	0.7	1	-	-	-	62	-
대천3동	8.46	1.5	1	2	-	-	106	-
대천4동	7.53	1.3	1	2	-	-	104	-
대천5동	22.07	3.9	1	4	-	-	68	-

자료 : 보령시(2017), 2016 통계연보

(3) 인구 현황

■ 최근 5년간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108,260명) 이후, 점차 감소하였으나 2015년에 107,279명으로 다시 증가

- 세대수는 2011년 45,275호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46,739호로 증가
- 2015년 남녀 구성 비율은 각각 0.51%, 0.49%로 일정
- 65세 이상 고령자는 2015년 22,460명으로 전체 인구의 20.9% 점유

■ 읍·면별 인구를 살펴보면 대천1동이 16,441명으로 市 전체 인구의 15.3% 점유

- 다음으로 대천3동(14.1%), 대천4동(13.5%)순이고, 주포면이 1,983명(1.8%)로 가장 적음

[표 1-3-4] 보령시 인구 및 세대 현황

구분	인구(명)			구성비		세대수(호)	65세 이상 고령자
	계	남	여	남	여		
2011	108,260	54,966	53,294	0.51	0.49	45,275	19,756
2012	107,438	54,549	52,889	0.51	0.49	45,284	20,453
2013	107,008	54,495	52,513	0.51	0.49	45,455	21,139
2014	106,702	54,443	52,259	0.51	0.49	45,831	21,817
2015	107,279	54,889	52,390	0.51	0.49	46,739	22,4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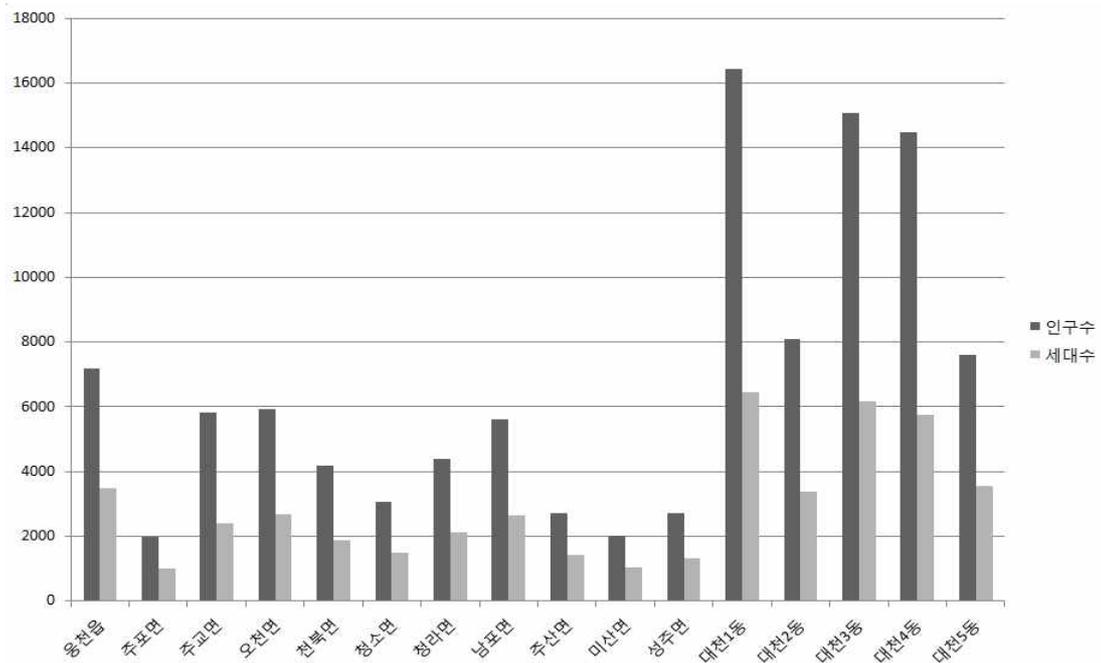
주 : 외국인 포함. 단, 세대 수 외국인 제외
 자료 : 보령시(2017), 2016 통계연보

보령시 해양항만 발전 기본계획

[표 1-3-5] 보령시 동·읍·면별 인구 및 세대 현황 (2016)

구분	인구(명)			구성비		세대수(호)	65세 이상 고령자
	계	남	여	남	여		
웅천읍	7164	3643	3521	0,51	0,49	3476	2126
주포면	1983	1109	874	0,56	0,44	998	513
주교면	5815	3125	2690	0,54	0,46	2395	1405
오천면	5911	3331	2580	0,56	0,44	2669	1542
천북면	4163	2257	1906	0,54	0,46	1887	1273
청소면	3077	1512	1565	0,49	0,51	1490	1172
청라면	4393	2221	2172	0,51	0,49	2117	1457
남포면	5622	2877	2745	0,51	0,49	2653	1817
주산면	2708	1317	1391	0,49	0,51	1402	1189
미산면	2022	1013	1009	0,50	0,50	1031	787
성주면	2723	1370	1353	0,50	0,50	1314	701
대천1동	16441	8207	8234	0,50	0,50	6447	2115
대천2동	8101	4079	4022	0,50	0,50	3384	1258
대천3동	15073	7576	7497	0,50	0,50	6173	1678
대천4동	14495	7138	7357	0,49	0,51	5755	1755
대천5동	7588	4114	3474	0,54	0,46	3548	1672

주 : 외국인 포함. 단, 세대 수 외국인 제외
 자료 : 보령시(2017), 2016 통계연보



[그림 1-3-3] 보령시 동읍면별 인구수 및 세대수 현황

자료 : 보령시(2017), 2016 통계연보

■ 최근 5년간 세대별 인구 현황을 보면, 0~14세 인구와 15~64세 인구는 점차 감소하고, 65세 인구는 증가 추세

-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1년 18.6%에서 20.1%로 증가하여 초고령사회로 진입

■ 최근 5년간 세대별 인구 현황을 보면, 여성 고령인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남녀 성비를 살펴보면 0~14세와 15~64세 인구는 남성의 비중이 큰 반면, 65세 이상 인구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높음
- 65세 인구 중 여성의 비중은 평균('11년~'15년) 59%로, 15세~64세 인구 중 여성의 비중(46.8%)보다 10% 이상 높음

[표 1-3-6] 보령시 세대별 인구 현황

구분	총계	0~14세(명)			15~64세(명)			65세 이상(명)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2011	106,421	14,589	7,548	7,041	72,076	38,103	33,973	19,756	8,034	11,722
2012	105,559	13,941	7,185	6,756	71,165	37,772	33,393	20,453	8,315	12,138
2013	104,938	13,349	6,854	6,495	70,450	37,509	32,941	21,139	8,647	12,492
2014	104,321	12,847	6,579	6,268	69,657	37,107	32,550	21,817	8,982	12,835
2015	104,754	12,383	6,344	6,039	69,911	37,323	32,588	22,460	9,301	13,159

주 : 외국인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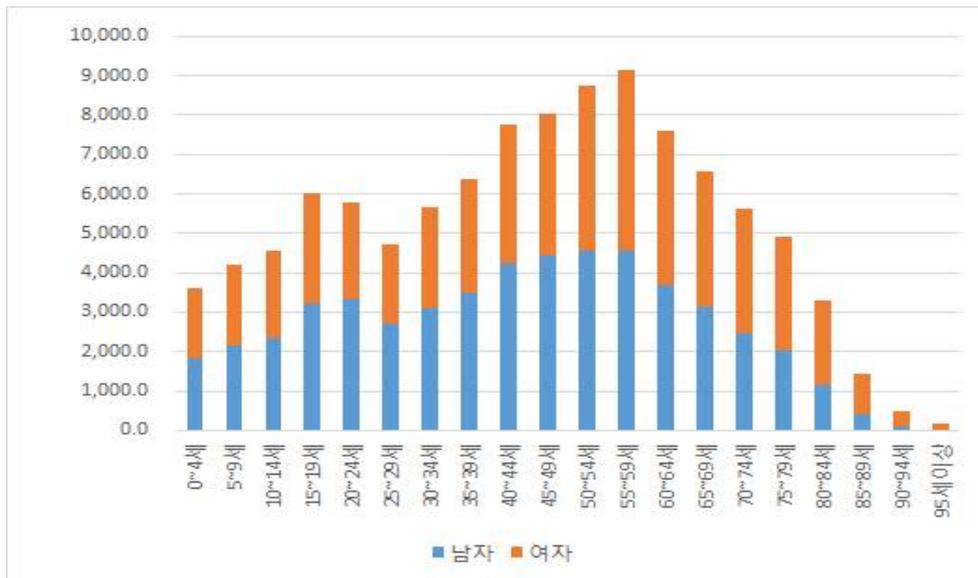
자료 : 보령시(2017), 2016 통계연보

보령시 해양항만 발전 기본계획

[표 1-3-7] 보령시 연령별 인구 현황 (2015)

구분	합계		남자		여자	
	인구(명)	비율(%)	인구(명)	비율(%)	인구(명)	비율(%)
합계	104,754	100.0	52,968	100.0	51,786	100.0
0~4세	3,624	3.5	1,833	3.5	1,791	3.5
5~9세	4,207	4.0	2,156	4.1	2,051	4.0
10~14세	4,552	4.3	2,355	4.4	2,197	4.2
15~19세	6,039	5.8	3,219	6.1	2,820	5.4
20~24세	5,799	5.5	3,329	6.3	2,470	4.8
25~29세	4,729	4.5	2,693	5.1	2,036	3.9
30~34세	5,649	5.4	3,108	5.9	2,541	4.9
35~39세	6,390	6.1	3,499	6.6	2,891	5.6
40~44세	7,754	7.4	4,225	8.0	3,529	6.8
45~49세	8,039	7.7	4,430	8.4	3,609	7.0
50~54세	8,755	8.4	4,563	8.6	4,192	8.1
55~59세	9,141	8.7	4,568	8.6	4,573	8.8
60~64세	7,616	7.3	3,689	7.0	3,927	7.6
65~69세	6,568	6.3	3,135	5.9	3,433	6.6
70~74세	5,617	5.4	2,452	4.6	3,165	6.1
75~79세	4,929	4.7	2,022	3.8	2,907	5.6
80~84세	3,275	3.1	1,171	2.2	2,104	4.1
85~89세	1,448	1.4	395	0.7	1,053	2.0
90~94세	469	0.4	98	0.2	371	0.7

자료: 보령시(2017), 2016 통계연보



[그림 1-3-4] 보령시 연령별 인구 현황 (2015)

자료 : 보령시(2017), 2016 통계연보

(4) 토지이용 현황

■ 보령시의 전체 면적은 56,940.3ha이며 그 중 임야가 32,992.5ha로 전체 면적의 57.9% 점유

■ 농경지는 14,545.4ha로 전체의 25.5%를 차지하고, 그 중 전 4,194.5ha, 답 10,233.8ha, 과수 117.1ha로 답의 비중 높음

- 전체 면적 대비 농경지의 비중은 남포면(46.3%), 주포면(38.4%), 대천5동(35.8%)순

■ 보령시 염전의 총 면적은 73.6ha

- 오천면이 43.2ha, 청소면이 16.1ha, 천북면이 7.8ha, 주교면이 6.4ha 순

■ 보령시 양어장의 총 면적은 6.7ha

- 천북면(2.9ha), 남포면(1.6ha), 오천면(0.7ha), 대천5동(0.6ha) 등 순

[표 1-3-8] 보령시 동·읍·면별 토지이용 현황 (2015)

단위 : ha

구분	합계	농경지			목장	임야	염전	양어장	대지
		전	답	과수					
보령시	56,940.3	4,194.5	10,233.8	117.1	336.7	32,992.5	73.6	6.7	1,617.7
웅천읍	6,248.5	461.5	1,239.0	45.9	24.3	3,384.7	0.0	0.3	178.2
주포면	1,334.4	201.3	308.8	2.0	6.1	582.5	0.0	0.0	49.5
주교면	3,641.9	343.1	900.5	10.1	40.8	1,489.3	6.4	0.2	117.8
오천면	5,060.9	463.0	579.4	1.4	15.4	3,293.5	43.2	0.7	103.9
천북면	5,521.1	672.4	1,081.1	12.0	178.5	2,925.7	7.8	2.9	120.6
청소면	3,843.1	354.2	780.3	2.0	17.3	2,086.8	16.1	0.0	87.0
청라면	6,982.6	370.5	896.5	9.9	16.6	4,810.0	0.0	0.3	114.9
남포면	4,946.1	355.9	1,913.7	18.3	15.3	1,742.0	0.0	1.6	140.4
주산면	4,090.9	291.3	889.9	11.2	11.0	2,325.5	0.0	0.0	102.9
미산면	6,554.0	271.5	389.4	0.0	1.6	4,964.3	0.0	0.0	83.0
성주면	3,981.5	64.9	62.9	0.3	3.2	3,637.8	0.0	0.0	44.5
대천1동	929.3	41.9	284.9	0.6	0.2	261.1	0.0	0.0	129.9
대천2동	845.7	78.5	131.0	2.5	1.2	387.8	0.0	0.0	99.4
대천3동	753.4	53.9	157.0	0.1	0.0	284.0	0.0	0.0	87.1
대천4동	2,207.1	170.7	619.4	0.8	5.1	817.4	0.0	0.6	158.4

자료 : 보령시(2017), 2016 통계연보

■ 보령시 전체 면적 중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6,586ha, 비도시지역 56580.1ha로 구성

-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주거지역의 비중이 높음

[표 1-3-9] 보령시 용도지역 지정 현황 (2015)

구분	합계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지정지역	
면적 (ha)	63,166	3535.6	62.1	908.8	1915.9	163.5	56580.1
구성비 (%)	100	5.6	0.1	1.4	3.0	0.3	89.6

자료 : 보령시(2017), 2016 통계연보

(5) 외국인 인구 추이

■ 최근 5년간 외국인 등록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2,525명 기록

- 2013년에는 전년대비 10.2%가, 2014년에는 전년대비 15% 증가
- 2015년 외국인 인구의 성비를 살펴보면 남성 76.1%, 여성 23.9% 점유

[표 1-3-10] 보령시 외국인 규모

구분	계(명)	남(명)	여(명)	인구증가율(%)
2011	1,842	1,281	561	
2012	1,879	1,277	602	2.0
2013	2,070	1,485	585	10.2
2014	2,381	1,775	606	15.0
2015	2,525	1,921	604	6.0

자료 : 보령시(2017), 2016 통계연보

4) 지역자원

(1) 자연 관광자원

■ 보령시는 다양한 관광자원을 토대로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8곳을 ‘보령8경’으로 지정하고 관광자원 개발을 역점 추진

- 보령8경 : 대천해수욕장, 무창포 바닷길, 성주산 휴양림, 보령호, 오서산, 외연열도, 오천항, 월전죽도

[표 1-3-11] 보령시 자연경관 현황 (1)

명 칭	위 치	내 용
대천해수욕장	보령시 신흑동	사계절 관광휴양지인 대천해수욕장은 길이 3.5km, 폭 100m, 평균 수온 21℃, 경사 5도의 서해안 제일의 해수욕장이라 불림. 동양에서 유일한 조개껍질 백사장이며 경사도가 완만하고 바다 밑이 일정하여 남녀노소 해수욕을 즐기기에 적합함. 백사장 남쪽에는 기암괴석이 발달되어 있어 비경을 연출함. 또한 30대 외국인 휴양지로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숙박시설 등이 잘 갖추어져 있고 성수기인 여름에는 대천해변축제 등 다양한 이벤트를 수시로 개최함. 또한 국내 최초의 해변조각공원과 아티스트, 아코트, 아베로에스 길목을 조성하여 여행객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줌
무창포 바닷길	보령시 웅천읍	1928년 서해안에서 최초로 개장된 해수욕장으로 길이 1.5km, 수심 1~2m, 백사장 50m, 수온 22℃, 경사도 4도이며 송림이 울창하여 해수욕과 산림욕을 함께 즐길 수 있음. 매월 음력 보름날과 그믐날을 전후하여 2~3회 해변에서부터 석대도까지 1.5km의 바닷길이 열리는데 이 길을 따라 개, 조개 등을 잡는 재미가 쏠쏠하며 기암괴석, 해송의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운치를 더해줌. 또한 주변 바다낚시와 풍부한 지하수 등으로 관광객들의 많은 인기를 얻고 있음
성주산 휴양림	보령시 성주면	차령산맥이 빚어낸 아름다움이 뛰어난 곳으로 성주면 성주리의 화장골 계곡은 4km에 이르는 울창한 숲이 장관인 계곡으로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데, 이는 충남 명수 11개소 중 하나로 선정됨. 화장골이란 이름은 성주산 일대에 모란형 명당이 8개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이 곳 화장골에 감추어져 있다하여 붙은 이름임. 성주산 휴양림은 도로를 닦고 위락시설도 갖추고 있어 관광 명소로 자리잡아 가고 있으며, 우거진 숲과 맑은 물이 감도는 구곡계곡은 선경을 연상케 하고, 가을 단풍은 대자연의 신비를 만끽하게 해줌
보령호	보령시 미산면	1998년 10월 준공하였으며 성주산과 성태산에서 발원된 두 개의 작은 하천이 만나 이루어지는 웅천천에 댐을 막아 물을 가두어 미산면 풍계리·용수리·평라리 등이 호수에 잠기고 아미산·양각산의 허리까지 물이 들어참. 주변 경관이 수려하여 보령호를 감싸고 있는 이설도로를 따라 푸른 물을 감상하며 드라이브 할 수 있는 색다른 맛을 즐길 수 있으며 보령댐 주변 아미산에는 중대암이 있고, 양각산에는 용암영당이 있어 보령호는 산업적 가치뿐만 아니라 새로운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음

자료 : 보령시 HP 「<http://www.brcn.go.kr>」

[표 1-3-12] 보령시 자연경관 현황 (2)

명 칭	위 치	내 용
외연도	보령시 오천면	보령시에 속해있는 70여개의 섬들 중 육지에서 가장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서해의 고도로, 대천항에서 약 53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음. 새하얀 해무가 섬을 감쌀 때가 많아 연기에 가린 듯하다는 의미로 외연도라고 불리게 되었으며 짙은 해무로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갑자기 하늘로 솟아오른 듯한 세 개의 산봉우리와 함께 멋진 경관을 펼치며 주위의 자그마한 섬들을 호위하듯 거느리고 불쑥 나타나 신비함을 더해주는 섬. 서해안 어업의 전진기지로 과거 해마다 파시가 형성될 만큼 어장이 발달한 곳. 또한 천연기념물 136호로 지정된 우리나라 남서부 도서의 식물군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상록수림이 있음
오천항	보령시 오천면	오천은 예부터 보령 북부권의 삶과 생활권의 중심지로, 현재에도 천수만 일대의 주요 어항의 역할을 하고 있음. 오천항은 만의 깊숙한 곳에 위치하여 방파제 등의 별도 피항시설이 필요없을 만큼 자연적 조건이 좋은 곳임. 따라서 방파제 없이 해안을 따라 길게 이어진 선착장에 어선들이 정박해 있는데, 1일과 5일에 서는 오천장을 찾으면 각종 해산물을 접할 수 있음
오서산	보령시 청소면	오서산은 보령을 대표하는 산으로, 우리나라 서해 연안의 산 중에서는 가장 높으며 차령산맥 끝자락인 금북정맥의 최고봉(790.7m)임. 보령시를 비롯하여 홍성군, 청양군의 3개 시군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산으로, 울창한 숲과 깊고 맑은 물이 어우러져 천연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곳임. 오서산은 까마귀와 까치가 많이 사는 산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보령 주변의 여러 명칭이 이에 유래한 것이 많음. 또한 육중한 무게감을 바탕으로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산세와 굽이치는 듯한 능선, 완만하게 펼쳐진 정상부는 명산의 요건을 두루 갖추고 있어 등산 마니아들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인기가 높음. 특히 서해 바닷길의 길잡이로서 '서해의 등대'라 불리기도 함
삼시도	보령시 오천면	삼시도는 충남에서 세 번째로 큰 섬으로, 해안선을 따라 환상적인 기암괴석의 수려한 풍경과 울창한 송림으로 둘러싸여 있음. 삼시도라는 명칭은 섬의 지형이 화살이 꽂힌 활(弓)의 모양과 같다 해서 붙여진 이름. 섬의 면적은 3.8km ² 로 비교적 큼. 또한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물망터와 면삼지를 비롯해 양질의 백사장과 청정해역을 자랑하는 거머너머 해수욕장, 진너머 해수욕장, 밤섬 해수욕장이 있어 많은 피서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음. 섬 주변의 발달된 암초와 풍부한 수산자원으로 우럭, 놀래미 등의 선상 낚시는 물론 유명 갯바위 낚시 포인트들이 많아 일년내내 많은 낚시꾼들이 찾아 옴
장고도	보령시 오천면	장고도는 대천항으로부터 서북쪽으로 21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섬의 지형이 장구처럼 생겼다하여 장고도라고 불림. 전국적으로 유명한 전승 민속놀이인 등바루 놀이가 시작되는 명장섬이 자리하고 있음. 인근에는 원산도, 삼시도, 고대도 등 크고 작은 섬들이 인접해 있으며 수심이 낮고 갯벌과 암초 등이 잘 발달되어 있어 연안 어족이 서식하는데 알맞아 전복, 해삼 양식은 물론 멸치, 까나리, 실치, 김 양식 등 수산자원이 풍부한 청정해역임. 자녀들의 현장학습과 체험관광을 겸한 가족 여행지로 추천하는 섬임
충청수영해안 경관전망대	보령시 오천면	보령시의 정서와 감성을 담아 해안경관 조망점을 설정하고 서해 바다의 천수만 낙조와 오천항 주변의 경관자원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임

자료 : 보령시 HP 「<http://www.brcn.go.kr>」

(2) 역사·문화자원

■ 보령시는 총 53개의 유·무형 문화재, 사적, 보물 등 보유

- 국 보 : 성주사지 낭혜화상탑비 (국보 제8호)
- 보 물 : 성주사지 오층석탑 (보물 제19호), 성주사지 중앙 삼층석탑 (보물 제20호), 성주사지 서 삼층석탑 (보물 제47호)
- 사 적 : 성주사지 (사적 제307호), 죽도 해저유물 매장해역 (사적 제321호), 충청수영성 (사적 제501호)
- 천연기념물 : 외연도 상록수림 (천연기념물 제136호)
- 중요민속자료 : 반수정건모한식제탑기증기념비 (중요민속자료 제30-4호)
- 보령시는 도지장 무형문화재로 남포벼루제작 및 보령석장 보유

[표 1-3-13] 보령시 지역문화재 일반현황

구분	총계	국가지정문화재						지방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등록문화재
		계	국보	보물	사적 및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민속자료	계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무형문화재		
2011	49	9	1	3	3	1	1	20	11	6	2	1	19	1
2012	49	9	1	3	3	1	1	20	11	6	2	1	19	1
2013	49	9	1	3	3	1	1	20	11	6	2	1	19	1
2014	53	9	1	3	3	1	1	23	12	7	2	2	20	1
2015	53	9	1	3	3	1	1	23	12	7	2	2	20	1

자료 : 보령시(2017), 2016 통계연보

보령시 해양항만 발전 기본계획

[표 1-3-14] 보령시 지역문화재 세부현황 (1)

구분	지정명	문화재명	소재지	수량/ 면적	지정일	
국가지정	국보	국보 제8호	성주사지 낭혜화상탑비	성주면 성주리 78	1기	`62.12.20
	보물	보물 제19호	성주사지 5층 석탑	성주면 성주리 73	1기	`63.1.21
		보물 제20호	성주사지 중앙 3층 석탑	성주면 성주리 73	1기	`63.1.21
		보물 제47호	성주사지 3층 석탑	성주면 성주리 73	1기	`63.1.21
	사적	사적 제501호	충청수영성	오천면 소성리 931	87,678m ²	`09.8.24
		사적 제307호	성주사지	성주면 성주리 72	67,295m ²	`84.8.13
		사적 제321호	해저유물 매장해역	주교면 송학리 죽도 앞바다	7.07km ²	`87.9.18
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 제136호	외연도 상록수림	오천면 외연도리 산293	1식/ 106,026m ²	`62.12.7	
도지정	유형문화재	도유형문화재 제32호	수부리 귀부 및 이수	웅천읍 만수로 582-11	1기	`74.9.1
		도유형문화재 제216호	보령 선림사 목조석가여래좌상	오천면 충청수영로 521-64	1구	`11.7.20
		도유형문화재 제159호	유격장군 청덕비	웅천면 소성리 661-8	1기	`00.9.20
		도유형문화재 제33호	성주사지 석등	성주면 성주리 73	1기	`74.9.1
		도유형문화재 제215호	보령 선림사 목조관음보살좌상	오천면 충청수영로 521-64	1구	`11.7.20
		도유형문화재 제26호	보령 성주사지 동 3층 석탑	성주면 성주리 73	1기	`73.12.24
		도유형문화재 제210호	충청수영 내삼문	오천면 소성리 586	1동/ 35m ²	`10.12.30
		도유형문화재 제65호	남포관아문 (진서루, 내삼문, 외동헌)	남포면 읍성항교길 19	3동	`76.1.8
		도유형문화재 제158호	금강암 석불 및 비편	미산면 용수리 산59	석불1구, 비편1기	`00.9.20
		도유형문화재 제40호	보령관아문	주포면 보령리 262-2	1동	`76. 1.8
		도유형문화재 제139호	대천 한내돌다리	동대동 809-1	1개소	`92.8.17
		도유형문화재 제233호	백운사 목조보살좌상	성주면 성주리 49	1구	`14.9.1
		기념물	도기념물 제188호	갈매못 천주교 순교지	오천면 영보리 375-2	2,490m ²
	도기념물 제111호		남포향교	남포면 옥동리 9	2,565m ²	`97.12.23
	도기념물 제10호		남포읍성	남포면 읍내리 378-1	106,283m ²	`73.12.24
	도기념물 제112호		보령향교	주포면 보령리 47-1	2,929m ²	`97.12.23
	도기념물 제159호		장현리 귀학송	청라면 장현리 70-2	1주	`02.1.10
	도기념물 제73호		김좌진장군 묘	청소면 재정리 산51	25,344m ²	`89.12.29

자료 : 보령시 HP 「<http://www.brcn.go.kr>」

[표 1-3-15] 보령시 지역문화재 세부현황 (2)

구분	지정명	문화재명	소재지	수량/면적	지정일	
도 지 정	기념물	도기념물 제179호	보령 산수동 소나무	오천면 갈현리 산28	1주/400m ²	‘09.10.20
	민속 문화재	도민속문화재 제16호	보령 독산리 독살	웅천읍 독산리 758-1	1식/106,026m ²	‘00.9.20
		도민속문화재 제32호	호서 옥마산 김부대왕지기	남포면 제석리 지석굴마을	4mx2m	‘12.2.10
	무형 문화재	도무형문화재 제48호	보령 석장	웅천읍 구장터1길		‘13.12.2
		도무형문화재 제6호	보령 남포벼루제작	청라면 대청로 727-10		‘87.12.30
	문 화 재 자 료	문화재자료 제374호	보령 백운사 부도	성주면 성주리 산35	1기/170cm	‘00.9.20
		문화재자료 제372호	보령 죽청리 고인돌	웅천읍 죽청리 362	12기	‘00.9.20
		문화재자료 제373호	보령 성주사지 석불입상	성주면 성주리 73	1기	‘00.9.20
		문화재자료 제137호	오천향교 대성전	오천면 교성리 523-2	1동	‘84.5.17
		문화재자료 제412호	충청수영 진흥청	오천면 소성리 658	1동	‘10.12.30
		문화재자료 제317호	대천왕대사마애불	절길 44	1구	‘90.9.27
		문화재자료 제411호	충청수영 장교청	오천면 소성리 602	1동	‘10.12.30
		문화재자료 제140호	성주사지 석계단	성주면 성주리 73	1기	‘84.5.17
		문화재자료 제14호	최고운 유적	남포면 월전리 813-8	1,503m ²	‘84.5.17
		문화재자료 제304호	편무성 가옥	천북면 신죽리 401	1동	‘88.8.30
		문화재자료 제320호	이지함 선생 묘	주교면 고정리 산27-3	1기	‘92.8.17
		문화재자료 제146호	보령성곽	주포면 보령리 262-4	77,552m ²	‘84.5.17
		문화재자료 제141호	용암영당	미산면 용수리 627-4	1동	‘84.5.17
		문화재자료 제138호	화암서원	청라면 죽성로 411	1동	‘84.5.17
		문화재자료 제143호	광성부원군 사우	청소면 재정리 산71-11	1동	‘84.5.17
문화재자료 제291호		신경섭 가옥	청라면 장현리 688	1동	‘87.12.30	
문화재자료 제139호		보령리 5층 석탑	주포면 보령리 266-1	1기	‘84.5.17	
문화재자료 제142호		수현사	미산면 판미로 884	1동	‘84.5.17	
문화재자료 제272호		보령경찰서 망루	대천로 33	1개	‘85.7.19	
문화재자료 제422-1호		영식필 산신도 백운사본	성주면 성주리 49	1폭	‘14.9.1	
등록 문화재	등록문화재 제305호	보령 청소역	청소면 청소큰길 176	1동/79.95m ²	‘06.12.4	

자료 : 보령시 HP 「<http://www.brcn.go.kr>」

(3) 관광자원 및 특산품

■ 보령시의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해 개화예술공원, 성주산휴양림, 충청수영해안 경관전망대, 보령머드박물관 등 지역의 특색을 활용한 곳이 산재

[표 1-3-16] 보령시 관광자원 현황

명칭	위치	내 용
개화예술공원	성주면	부대시설 포함 5만여명의 규모로 조성된 개화예술공원은 허브랜드, 음악당, 육필시 공원, 비림 공원, 모산 미술관이 있음. 미술관 본관은 오직 보령에서만 생산되는 진귀한 돌인 오석으로 지어짐. 허브랜드는 어린이들의 유용한 자연학습장의 역할을 하고 있음
성주산 휴양림	성주면	차령산맥이 빚어낸 아름다움이 뛰어난 곳으로 성주면 성주리의 화장골 계곡은 4km에 이르는 울창한 숲이 장관인 계곡으로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데, 이는 충남 명수 11개소 중 하나로 선정됨. 화장골이란 이름은 성주산 일대에 모란형 명당이 8개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이곳 화장골에 감추어져 있다하여 붙은 이름임. 성주산 휴양림은 도로를 닦고 위락시설도 갖추고 있어 관광명소로 자리잡아 가고 있으며, 우거진 숲과 맑은 물이 감도는 구곡계곡은 선경을 연상케 하고, 가을 단풍은 대자연의 신비를 만끽하게 해줌.
보령 에너지월드	주교면	국내 최대규모의 화력발전단지인 보령화력본부의 홍보 전시관으로 전기의 생산과정 및 사용방법을 배울 수 있는 종합 전기에너지체험관이 위치해 있음
충청수영해안 경관전망대	오천면	보령시의 정서와 감성을 담아 해안경관 조망점을 설정하고 서해바다의 천수만 낙조와 오천항 주변의 경관자원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임
스카이바이크	대천5동	국내 최초의 해상 스카이바이크로, 대천해수욕장에서 대천항까지 왕복 2.3km에 이르는 바닷가 풍광을 즐기며 추억을 만들기 좋은 명품 바이크임
보령 머드박물관	대해로	국내 유일의 머드박물관으로 머드샤워장, 머드마사지실, 머드화장품, 머드축제 전시체험 등 머드관련 체험을 할 수 있음
웅천 돌 문화공원	웅천읍	천년이 지나도 변치 않아 왕릉과 대통령의 비석으로 사용되는 남오석과, 추사 김정희도 사랑한 남포벼루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곳. 공원은 야외 산책로를 따라 석 조각자품과 휴게공간이 있으며 석재 전시관에는 어린이 체험장이 있어 탁본과 서예를 체험할 수 있음

자료 : 보령시 HP 「<http://www.brcn.go.kr>」

■ 보령시의 대표적인 특산물로는 머드, 남포벼루가 유명하며, 전복, 굴, 주꾸미, 키조개 등의 해산물 유명

■ 그 외에 해산물을 이용한 맛김, 까나리 액젓 또한 수출품이며 버섯, 버섯한우, 포도 등 다수의 특산물 보유

[표 1-3-17] 보령시 지역특산물 현황

특산물	내 용
머드	대천해수욕장 주변에서 채취한 양질의 천연 바다진흙으로, 원적외선이 다량 방출되고 미네랄이 풍부할 뿐 아니라 게르마늄, 벤토나이트 등 인체에 유익한 성분이 함유되어 수입머드보다 피부 노화방지, 피부청정작용, 피부 노폐물 제거 등 피부 미용에 탁월함
남포벼루	과거 선비들 사이에서 가장 보배로운 것으로 일컬어졌던 남포산 벼루. 품질이 뛰어난 남포산 석재로 만드는데, 국내 생산의 60~70%가 보령산 제품임
머드 천연초	서해안의 해풍과 적당한 일조량으로 천연 미네랄과 각종 유효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머드원료를 보령시로부터 공급받아 천연초를 재배함
보령 전복	다른 지역의 전복에 비해 수분함량이 높고 지방함량이 적으며 미네랄이 풍부하여 간장보호, 피로회복, 시력보호에 효과 좋음
양송이 버섯	양송이 버섯 재배에 적합한 온도(14℃)를 유지하는 폐광 자연냉풍과 최신시설로 재배하여 신선도가 뛰어나며 육질이 쫄깃한 친환경 농산물로 품질이 뛰어나 전국 생산량의 20% 차지함
버섯한우	보령의 특산물인 양송이 버섯부산물로 키워 불포화 지방산인 올레인산이 일반 한우보다 다량 함유되어 있어 육질이 부드럽고 조직감이 좋아 고기맛이 매우 월등함
맛김	보령지역 맛김은 예부터 맛과 품질이 좋기로 유명하며 단백질 함량이 매우 높고 식이섬유 함량이 많아 담백하여 밑반찬용으로 우수한 건강식품이며 동남아 등에 수출 중임
천복 굴	천수만 일대에서 서식하는 천복 굴은 비타민 A, B1, B2, B12, 철분, 옥도, 인, 칼슘 등이 많이 함유된 산성식품으로 바다의 우유라고 불리며 천복 굴구이는 굴구이 원조로 명성이 높음
남포·사현 포도	최적의 포도재배 조건을 고루 갖춘 천혜의 지역에서 비가림 재배로 생산, 당도(16도)가 높고 알이 굵으며 진화당, 비타민 등이 풍부하여 생혈, 조혈 작용하고 피로회복, 다이어트, 식이요법에 효과가 좋음
까나리 액젓	서해안 청정 해역에서 조업한 신선한 까나리 원료만 선별하여 발효시킨 자연식젓갈로 상큼하고 짭짤한 맛이 일품으로 미국, 일본, 호주 등에 수출 중임
주꾸미	보령지역에서 나는 주꾸미는 지방이 1% 밖에 되지 않아 식이요법은 물론 필수아미노산이 풍부하여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효과가 있고 빈혈예방, 시력회복에 좋음
키조개	오천 앞바다 연안의 수심 15~30m 속에서 채취하며 단백질이 풍부한 저칼로리 식품으로 필수 아미노산과 철분이 많아 빈혈, 동맥경화 예방에 탁월하여 일본에 수출 중임

자료 : 보령시 HP 「<http://www.brcn.go.kr>」

(4) 축제 및 행사

■ 보령시의 특산품과 연계된 행사 및 축제가 많으며 주로 여름에 집중

■ 특히 보령 머드축제는 연간 5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세계적인 여름 축제

[표 1-3-18] 보령시 주요 축제 및 행사 현황

축제 명	시기	장소	행사내용
천북 굴 축제	매년 12월경	천북면	천북 굴을 관광특산품으로 개발하고 소비를 촉진 시키기 위한 축제로서 천북 굴구이는 물론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으며 노래자랑도 개최함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축제	매년 8월경	웅천읍	모세의 기적이라 불리는 무창포 해변에서 석대도까지의 물 갈라짐 현상을 모티브로 개최되는 축제. 음력 보름과 그믐에 열리는 바닷길에 맞추어 개최되며 연예인들의 축하공연, 햇불어업체험 및 신비의 바닷길 햇불 대행진 등 다양한 볼거리와 맨손 고기잡이 체험, 독살어업생태체험, 바지락 잡기 체험, 맛살잡기 체험 등 다양한 체험거리를 제공함
보령 머드축제	매년 7월경	대천5동	머드마사지, 대형머드탕, 머드몐, 컬러머드, 머드어어바운스, 갯벌체험, 머드축제 개막공연, 머드락페스티벌, 힙합-레이브파티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는 체험형 축제임
무창포 대하·전어 축제	매년 9월~10월경	웅천읍	행사기간 동안 평상시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대하와 전어를 판매하고 다양한 이벤트 및 체험행사를 제공함
쭈꾸미·도다리 축제	매년 3월경	웅천읍	바다의 소중함을 체험하고 신비의 바닷길과 함께 쭈꾸미를 홍보할 목적으로, 조개잡이 체험, 맨손고기잡기, 노래자랑, 품바공연 등의 행사를 제공함
짚트랙	상시	대천5동	높이 52m, 탑승거리 613m의 짚트랙은 바다위를 줄 하나에 몸을 달고 활강하여 하늘을 나는 듯한 스릴과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음
사헌포도조합법인	매년 7~9월	남포면	매년 7~8월에는 포도하우스에서 포도 수확체험을, 매년 9월에는 와인 만들기 강의 및 나만의 와인 만들기 체험이 가능함
청라토정마을	상시	청라면	계절별로 봄, 겨울에는 표고버섯 따기 체험을, 여름에는 가재잡기, 가을에는 벼 베기, 고구마 캐기 등의 체험활동을 할 수 있음. 또한 상시체험으로는 표고버섯피자 만들기, 빵튀기 체험, 떡메치기 체험, 숲체험, 팝콘나무 만들기 등이 가능함
시민이 즐거운 보령 김축제	매년 11월	대천 해수욕장	지역 대표 수산물인 김을 테마로 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초대형 김밥만들기 등이 열리고, 손 김뜨기, 김 채취, 품바 체험장 운영 등 체험행사와 지역 농특산물 판매 및 전시 등 추진함

자료 : 보령시 HP 「<http://www.brcn.go.kr>」

5) 경제 · 산업 및 생활환경

(1) 경제 · 산업

■ 2015년 기준 보령시에 등록된 사업체 수는 총 8,428개소, 종사자 수는 34,819명

- 전체 등록사업체 중 대천3동에 1,731개(20.5%), 대천1동에 1,447개(17.2%) 밀집

■ 도소매업, 숙박 · 음식점업의 사업체 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농림어업은 그 수가 상대적으로 적음

- 2015년 기준 전체 사업체 중 도소매업이 2,321개(27.5%)로 가장 많고, 이 중 498개(21.5%)가 대천1동에 밀집
- 그 다음으로 숙박 · 음식점업이 2,288개(27.1%)로 많고, 이 중 556개(24.3%)가 대천3동에 밀집

■ 경제활동의 대부분이 도소매업 및 숙박 · 음식점업 등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고, 생산성이 요구되는 농림어업, 제조업의 수가 적어 산업구조적 측면에서 취약

- 한국표준산업분류에(KSIC) 따른 서비스업¹⁶⁾의 사업체 수는 2011년 7,197개에서 2015년 7,759개로 증가하여 7.8% 증가
- 전체 종사자 중 서비스업에 27,820명(79.9%)이 종사하고 있으며, 이 중 숙박 · 음식점업 19.9%, 도소매업 18.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0.7% 종사
- 농림어업은 가장 적은 수로, 2011년 10개(0.1%)에서 2015년 26개(0.3%)로 증가하였으며, 이 중 11개(42.3%)가 천북면에 밀집
- 제조업은 2011년 543개(7%)에서 2015년 616개(7.3%)로 증가하였고, 이 중 115개(18.7%)가 웅천읍에 밀집
- 그 외 산업(기타)은 2011년 2,916개(37.5%)에서 2015년 3,177개(37.7%)로 증가하였고, 이 중 786개(24.7%)가 대천3동에 밀집

16) 하수 ·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을 서비스업으로 분류

보령시 해양항만 발전 기본계획

[표 1-3-19] 보령시 산업별 사업체 현황

연도	구분	합계	농림어업	도·소매업	숙박/ 음식점업	제조업	기타
2011	(개)	7,773	10	2,139	2,165	543	2,916
	(%)	100	0.1	27.5	27.9	7.0	37.5
2012	(개)	8,056	10	2,247	2,204	546	3,049
	(%)	100	0.1	27.9	27.4	6.8	37.8
2013	(개)	8,298	10	2,313	2,197	584	3,194
	(%)	100	0.1	27.9	26.5	7.0	38.5
2014	(개)	8,336	23	2,298	2,242	619	3,154
	(%)	100	0.3	27.6	26.9	7.4	37.8
2015	(개)	8,428	26	2,321	2,288	616	3,177
	(%)	100	0.3	27.5	27.1	7.3	37.7

자료 : 보령시(2017), 2016 통계연보

[표 1-3-20] 보령시 서비스업 현황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4
사업체수(개)	7,197	7,477	7,678	7,668	7,759
종사자수(명)	25,395	26,391	27,319	26,865	27,820

주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름
 자료 : 보령시(2017), 2016 통계연보

[표 1-3-21] 보령시 산업별 종사자 현황

연도	구분	합계	농림어업	도·소매업	숙박/ 음식점업	제조업	기타
2011	(명)	30,920	130	4,864	5,206	4,313	16,407
	(%)	100	0.4	15.7	16.8	13.9	53.1
2012	(명)	32,061	187	5,104	5,356	4,411	17,003
	(%)	100	0.6	15.9	16.7	13.8	53.0
2013	(명)	33,406	111	5,204	5,454	4,779	17,858
	(%)	100	0.3	15.6	16.3	14.3	53.5
2014	(명)	33,597	332	5,191	5,434	5,049	17,591
	(%)	100	1.0	15.5	16.2	15.0	52.4
2015	(명)	34,819	401	5,106	5,527	5,212	18,573
	(%)	100	1.2	14.7	15.9	15.0	53.3

자료 : 보령시(2017), 2016 통계연보

[표 1-3-22] 보령시 동·읍·면별 사업체 현황 (2015)

연도	구분	합계	농림어업	도·소매업	숙박/ 음식점업	제조업	기타
웅천읍	(개)	707	2	183	212	115	195
	(%)	8.4	7.7	7.9	9.3	18.7	6.1
주포면	(개)	99	0	17	16	28	38
	(%)	1.2	0.0	0.7	0.7	4.5	1.2
주교면	(개)	316	1	66	56	63	130
	(%)	3.7	3.8	2.8	2.4	10.2	4.1
오천면	(개)	359	0	92	140	11	116
	(%)	4.3	0.0	4.0	6.1	1.8	3.7
천북면	(개)	262	11	52	123	17	59
	(%)	3.1	42.3	2.2	5.4	2.8	1.9
청소면	(개)	150	2	33	34	37	44
	(%)	1.8	7.7	1.4	1.5	6.0	1.4
청리면	(개)	135	0	25	31	15	64
	(%)	1.6	0.0	1.1	1.4	2.4	2.0
남포면	(개)	268	3	66	54	38	107
	(%)	3.2	11.5	2.8	2.4	6.2	3.4
주산면	(개)	100	0	34	15	7	44
	(%)	1.2	0.0	1.5	0.7	1.1	1.4
미산면	(개)	91	0	27	14	11	39
	(%)	1.1	0.0	1.2	0.6	1.8	1.2
성주면	(개)	152	0	42	51	14	45
	(%)	1.8	0.0	1.8	2.2	2.3	1.4
대천1동	(개)	1,447	2	498	263	77	607
	(%)	17.2	7.7	21.5	11.5	12.5	19.1
대천2동	(개)	870	0	354	138	54	324
	(%)	10.3	0.0	15.3	6.0	8.8	10.2
대천3동	(개)	1,731	3	331	556	55	786
	(%)	20.5	11.5	14.3	24.3	8.9	24.7
대천4동	(개)	654	1	180	78	24	371
	(%)	7.8	3.8	7.8	3.4	3.9	11.7
대천5동	(개)	1,087	1	321	507	50	208
	(%)	12.9	3.8	13.8	22.2	8.1	6.5

자료 : 보령시(2017), 2016 통계연보

(2) 생활기반 시설

■ 보령시 내 주택은 2015년 기준 단독주택이 61.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택 보급률은 112.2% 수준

■ 최근 5년간 단독주택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

[표 1-3-23] 보령시 주택 현황 및 보급률

연도	가구 수	계	주택 수										주택 보급률 (%)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비주거용		
			(호)	(%)	(호)	(%)	(호)	(%)	(호)	(%)	(호)	(%)	
2011	39,346	44,062	27,452	62.3	13,619	0.3	1,289	0.03	481	0.01	1,221	0.03	112.0
2012	40,081	44,606	27,870	62.5	13,635	0.3	1,289	0.03	559	0.01	1,253	0.03	111.3
2013	40,830	45,633	28,350	62.1	14,092	0.3	1,289	0.03	617	0.01	1,285	0.03	111.8
2014	41,594	46,193	28,745	62.2	14,092	0.3	1,289	0.03	757	0.02	1,310	0.03	111.1
2015	42,372	47,544	29,429	61.9	14,788	0.3	1,450	0.03	791	0.02	1,086	0.02	112.2

자료 : 보령시(2017), 2016 통계연보

■ 보령시에 설치된 도로는 총연장 508.9km로 고속도로 40km, 국도 136.7km, 지방도 101.2km, 시·군도 231km 보유

[표 1-3-24] 보령시 도로 현황

연도별	합계		고속도로 (m)	일반국도		지방도 (국지도포함)		시군도	
	연장 (m)	포장율 (%)		연장 (m)	포장율 (%)	연장 (m)	포장율 (%)	연장 (m)	포장율 (%)
2011	565,948	78.2	40,000	110,100	91.0	98,800	100.0	317,048	64.3
2012	567,130	79.9	40,000	110,100	91.0	98,800	100.0	318,230	67.2
2013	508,878	97.2	40,000	136,717	94.4	101,203	94.3	230,958	99.6
2014	508,878	97.2	40,000	136,717	94.4	101,203	100.0	230,958	99.6
2015	508,878	97.2	40,000	136,717	94.4	101,203	94.3	230,958	99.6

자료 : 보령시(2017), 2016 통계연보

■ 최근 5년간 총 인구수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급수인구는 2011년 77,929명에서 2015년 84,204명으로 증가

- 상수도 보급률이 2011년 73.2%에서 2015년 78.5%로 증가

[표 1-3-25] 보령시 상수도 현황

연도별	총인구(명)	급수인구(명)	보급률(%)	시설용량(㎡/일)	급수량(㎡/일)	1일1인당 급수량(ℓ)	급수전수(개소)
2011	106,421	77,929	73.2	37,020	37,024	475.1	13,876
2012	107,438	79,830	74.3	39,000	38,368	480.6	15,727
2013	107,008	81,098	75.8	39,000	39,808	490.9	16,324
2014	106,702	82,755	77.6	28,800	38,281	462.6	17,075
2015	107,279	84,204	78.5	28,800	37,514	445.5	17,713

자료 : 보령시(2017), 2016 통계연보

■ 보령시의 하수도 보급률은 2011년 63.7%에서 2015년 68.7%로 증가 추세

- 2011년과 비교했을 때, 총인구는 유사한 수준이나 하수도 종말처리인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어 하수도 보급이 개선 중

[표 1-3-26] 보령시 하수도 현황

연도별	총인구(명)	비처리인구	처리대상인구	하수 종말처리인구(명)	하수도보급률(%)
2011	106,421	40,458	65,963	67,802	63.7
2012	107,438	39,762	67,676	67,676	63.0
2013	107,008	37,196	69,812	69,812	65.2
2014	106,702	35,703	70,999	70,999	66.5
2015	107,279	33,621	73,658	73,658	68.7

자료 : 보령시(2017), 2016 통계연보

(3) 교육 및 의료 시설

■ 보령시에는 2015년 기준 총 87개의 교육시설이 있으며 학교 수와 학생 수가 감소 추세

- 2011년 대비 학교 수는 3개, 학생 수는 3,993명 감소

[표 1-3-27] 보령시 연도별 교육시설 현황

연도	학교 수 (개)	학급 수 (개)	학생 수 (개)	교원 수 (명)
2011	90	651	16,554	1,133
2012	90	649	16,030	1,130
2013	89	633	15,128	1,116
2014	87	628	14,936	1,136
2015	87	619	13,911	1,143
2016	87	606	12,561	1,119

자료 : 보령시(2017), 2016 통계연보

■ 교육시설 중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각각 33개로 가장 많으며, 학생 수 및 교원 수는 초등학교가 가장 많음

[표 1-3-28] 보령시 학교별 교육시설 현황 (2016)

연도	학교 수 (개)	학급 수 (개)	학생 수 (개)	교원 수 (명)
유치원	33	65	1,208	95
초등학교	33	302	4,856	486
중학교	13	105	2,674	250
고등학교	6	110	2,739	241
기타학교	1	17	80	18
전문대	1	7	1,004	29

자료 : 보령시(2017), 2016 통계연보

- 병·의원이 전체 의료시설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 기준 보건소(보건지소, 진료소 포함)는 28개소
- 의료시설의 약 85%가 대천1동, 대천2동 및 대천3동에 소재하고 있어 의료시설이 편중되어 분포

[표 1-3-29] 보령시 의료시설 현황

연도	합계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기타
2011	110	1	3	53	1	10	17	53
2012	113	1	3	55	1	10	17	54
2013	113	1	3	56	1	10	17	53
2014	112	1	3	54	1	10	17	54
2015	112	1	3	53	1	10	17	55

자료 : 보령시(2017), 2016 통계연보

[표 1-3-30] 보령시 동읍면별 의료시설 현황

연도	합계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기타
웅천읍	6	0	0	3	0	1	1	3
주포면	0	0	0	0	0	1	0	0
주교면	1	0	0	1	0	1	0	0
오천면	0	0	0	0	0	1	9	0
천북면	2	0	0	1	0	1	2	1
청소면	1	0	0	1	0	1	0	0
청라면	1	0	0	0	0	1	1	1
남포면	0	0	0	0	1	0	2	0
주산면	0	0	0	0	0	1	1	0
미산면	0	0	0	0	0	1	1	0
성주면	0	0	0	0	0	1	0	0
대천1동	39	1	2	17	0	0	0	19
대천2동	39	0	0	18	0	0	0	21
대천3동	18	0	0	9	0	0	0	9
대천4동	4	0	1	2	0	0	0	1
대천5동	1	0	0	1	0	0	0	0

자료 : 보령시(2017), 2016 통계연보

2. 보령시 해양항만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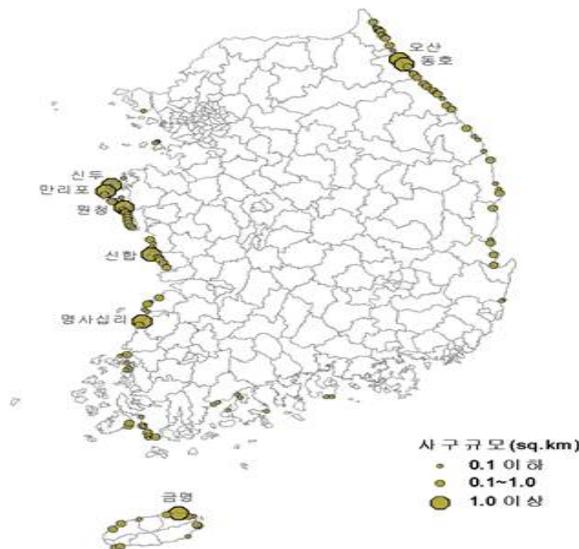
1) 해양환경

■ 충남의 해안선은 출입이 매우 복잡한 리아스식 해안으로 전국 3위의 길이이고, 이 중 보령시는 273km로 태안군(559km) 다음으로 긴 해안선 보유

- 전국에서 해안선이 가장 긴 지역은 전남으로 6,743km이고, 그 다음으로 경남(2,513km), 충남(1,242km), 인천(1,079km) 순
- 충남에서는 태안 559km, 보령 273km, 서산 149km 순

■ 전국적으로 해안사구는 총 133개가 있으며, 이 중 충남은 42개로 전국의 31.6% 위치(전국 1위)¹⁷⁾

- 해안사구는 충남연안 42개, 강원연안 32개, 전남연안 21개 순
- 충남에서는 태안연안 30개, 서천연안 8개, 보령 4개
- 보령의 해안사구는 소항사구, 원산사구, 오봉사구, 삼시도사구



[그림 1-3-5] 전국 해안사구 분포 및 규모

원자료: 환경부, 『전국 해안사구 목록(2001)』

자료: 충청남도(2016), 충청남도 해양생태환경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기획연구

17) 해안사구는 일종의 모래언덕으로 조석에 의해 운반된 해빈과 모래가 바람에 의해 해빈 후면으로 이동하여 형성된 지형으로 전사구와 이차사구로 구분되며, 전사구는 해안사구가 형성되는 과정으로 해안선을 따라 형성되고 이차사구는 퇴적된 모래가 바람에 의해 다시 침식·퇴적·운반되어 형성된 곳(충청남도, 2016)

■ 보령시 사구 4개 중 3개에 대해서는 다음 [표 1-3-31]과 같은 출현종 및 식물상, 동물상 발견

- 소항사구는 식물 90종, 동물 74종, 원산사구는 식물 100종, 동물 82종, 오봉사구는 식물 107종, 동물 68종

[표 1-3-31] 보령 사구의 출현종, 식물상, 동물상

명칭	출현종	식물상	동물상
소항사구	식물 90종 동물 74종	목본식물군락 갯그렁군락 통보리사초군락	참개구리, 유혈목이 노랑부리백로 황조롱이
원산사구	식물 100종 동물 82종	갯그렁군락 곰솔군락 통보리사초군락	말뚝가리, 참개구리 검은미리물떼새 표범장지뱀
오봉사구	식물 107종 동물 68종	갯그렁군락 좁보리사초군락 곰솔군락, 띪군락	매, 삿꾸기, 족제비 청호반새, 섬개개비 미끈도마뱀

주 : 소항사구는 2003년, 원산사구 및 오봉사구는 2007년 조사
 원자료 : 환경부, '전국 해안사구 정밀조사(2003, 2007)'
 자 료 : 충청남도(2016), 충청남도 해양생태환경 증장기 발전전략 수립 기획연구

■ 충청남도의 갯벌은 357km²로 전국 3위에 랭크되어 있으며, 이 중 보령시 면적은 33.1km²로 9.3%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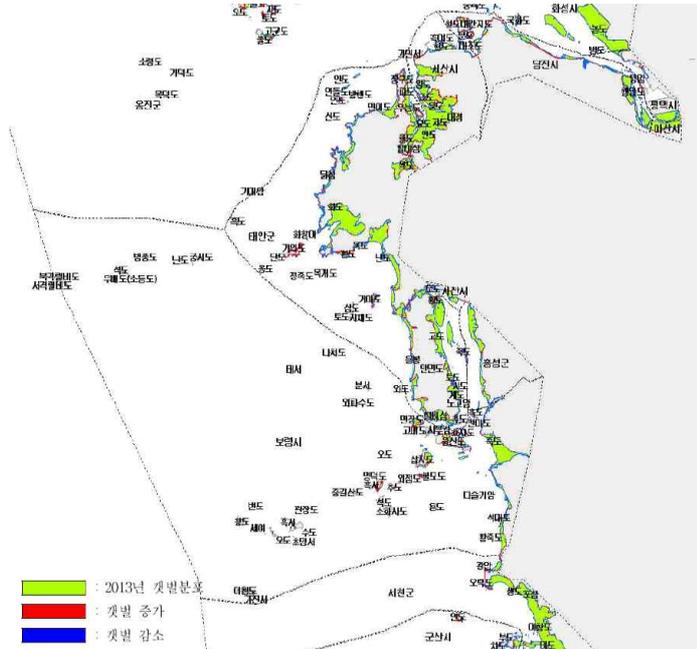
- 전국의 갯벌 면적은 1987년 3,203km²에서 2013년 2,487km²로 약 21.8% 감소
- 충남은 1987년 434km²에서 2013년 357km²로 21.5% 감소

[표 1-3-32] 시도별 갯벌면적 변화 (1987~2013)

(단위 : km²)

구 분	1987년	1998년	2003년	2008년	2013년
전 국	3,203.0	2,393.0	2,550.2	2,489.4	2,487.2
인 천	-	685	737.1	703.9	709.6
경 기	1,179.6	153.5	177.8	168.8	165.9
충 남	434.2	304.2	367.3	358.8	357
전 북	321.6	113.6	132	117.7	118.2
전 남	1,179.1	1,054.1	1,017.4	1,036.9	1,044.4
경 남	89.1	59	91.4	79.1	68.8
부 산	-	23.6	27.2	24.2	23.3

자료 : 해양수산부, '전국 갯벌 면적 조사', 각 년도



[그림 1-3-6] 충청남도 갯벌 분포 현황

원자료 : 해양수산부, '2013년 전국 갯벌 면적 조사'
 자 료 : 충청남도(2016), 충청남도 해양생태환경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기획연구

■ 보령시는 충남의 연안 시군 중 4번째로 넓은 갯벌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08년 대비 '13년을 보면 면적의 변화가 거의 없음

- 보령시 갯벌 면적은 충남 전체 면적의 약 9.3% 점유
- 충남의 갯벌 면적 순위는 태안(39.0%), 서천군(19.9%), 서산시(18.8%), 보령시 순

[표 1-3-33] 충남 시군별 갯벌면적 변화

구분	2008년	2013년		증감율 (%) ('08년 대비 '13년)
	면적 (km ²)	면적 (km ²)	비율 (%)	
계	358.8	357.0	100.0%	-0.5%
보령시	32.8	33.1	9.3%	0.9%
아산시	6.5	7.6	2.1%	16.9%
서산시	67.3	67.2	18.8%	-0.1%
당진시	28.1	24.6	6.9%	-12.5%
서천군	71.3	70.9	19.9%	-0.6%
홍성군	14.4	14.3	4.0%	-0.7%
태안군	138.4	139.3	39.0%	0.7

원자료 : 해양수산부, '2013 전국 갯벌 면적 조사'
 자 료 : 충청남도(2016), 충청남도 해양생태환경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기획연구

■ 충남의 도서는 총 268개소가 있으며, 이 중 보령은 91개소가 있어 도내 2위이고, 유인도서 수는 보령이 16개소로 가장 많음

- 충남은 유인도 33개소, 무인도 235개소 보유
- 충남 내 도서 수는 태안 118개소, 보령 91개소, 서산 27개소 순
- 유인도서는 보령이 16개소, 태안 8개소, 서산 4개소 순

[표 1-3-34] 충남 시군별 해안선 및 도서

지역	해안선 (km)	도 서					
		유무인도서 (개소)			면적 (km ²)	세대수 (세대)	인구 (명)
		계	유인도서	무인도서			
계	1,242.0 (100.0%)	268	33	235	164,188	8,763	17,085
보령시	273.0 (22.0%)	91	16	75	25,848	1,650	3,323
아산시	7.7 (0.6%)	-	-	-	-	-	-
서산시	149.0 (12.0%)	27	4	23	3,187	170	329
당진시	115.1 (9.3%)	9	3	6	5,246	185	328
서천군	111.5 (9.0%)	12	1	11	0,964	59	100
홍성군	26.4 (2.1%)	11	1	10	0,189	31	70
태안군	559.3 (45.0%)	118	8	110	128,754	6,668	12,935

자료 : 충청남도(2016), 2016년 수산현황

2) 해양관광

■ 충청남도에는 총 35개소의 지정 해수욕장이 있으며, 이 중 보령시에는 2개소 (대천, 무창포) 보유

- 태안군이 30개소로 가장 많고, 보령시 2개소, 당진시 2개소, 서천군 1개소 보유

■ 충청남도 지정 관광지 총 27개 지구 중 보령 3개 지구 위치¹⁸⁾

- 대천해수욕장('69.1.21), 무창포해수욕장('89.8.20), 죽도('90.4.19) 지정
- 대천 및 무창포 해수욕장은 해수욕장 중심 관광지이고, 죽도는 해양스포츠 및 휴양시설

■ 보령시는 태안군과 더불어 소규모 포구와 섬 등 밀집¹⁹⁾

- 보령시는 충남에서 유일하게 댐이 있으며, 항·포구는 태안군 다음으로 많음

[표 1-3-35] 충청남도 자원 현황

구 분	산	폭포	계곡	댐	저수지	항·포구	약수	섬
계	82	6	21	1	133	65	52	27
천안시	5				21		16	
공주시	3	1	3		7		3	
보령시	13		4	1	14	13	4	14
아산시	16		4		18		4	
서산시	6		3		3	1		2
논산시	2	2	1		2		4	
계룡시	1				7		3	
당진시	2				4	9	2	2
금산군	15	3			8			
부여군	1		1		4		2	
서천군	4				5	8	2	
청양군	5		3		5			
홍성군	3				9	5	4	1
예산군	5		2		20		8	
태안군	1				6	29		8

원자료 : 환경부, 2014년 기준

자 료 : 충청남도(2015),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

18) 충청남도(2014), 2013년 도정백서

19) 충청남도(2015),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

■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관광객은 충남 전체의 73.9% 점유

- 충남 해수욕장 이용관광객 18,128,252명, 보령 해수욕장 이용관광객 13,405,400명
- 당진시의 약 100배, 서천군의 약 11배, 태안군의 약 6배 수준

[표 1-3-36]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관광객 수 (2014~2016)

(단위 : 명)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12,292,872	14,566,398	18,128,252
보령시	7,638,935	10,133,640	13,405,400
당진시	111,217	89,927	130,940
서천군	1,954,000	2,175,550	1,952,450
태안군	2,588,720	2,167,281	2,639,462

자료 : 충청남도 업무자료

■ 보령시의 대천해수욕장은 2016년 기준 연간 12백만 명이 방문하여 충남에서 이용관광객이 가장 많은 최고의 해수욕장

- 무창포해수욕장도 2016년 기준 연간 1백만 명이 방문하여, 충남에서 이용방문객이 3번째로 많은 해수욕장

[표 1-3-37] 충남 이용관광객 상위 5위 해수욕장 (2016)

(단위 : 명)

해수욕장명	지역	2016년 이용관광객 수
대천	보령	12,351,000
춘장대	서천	1,952,450
무창포	보령	1,054,400
만리포	태안	416,100
꽃지	태안	260,300

원자료 : 충청남도 업무자료

자 료 : 충청남도(2016), 충청남도 해양생태환경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기획연구

■ 보령머드축제는 1998년부터 시작하여 2017년에 20회를 맞이하였으며, 연간 약 500만 명 이상 방문

- 2016년 방문객 3,995천 명 보다 약 42% 증가하여, 2017년 유료체험 입장객 53천 명과 외국인 622천 명 등 총 5,688천 명 참여

■ 보령시에는 머드축제를 포함하여 총 11개의 축제가 매년 개최

-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축제, 대하·전어 축제, 주꾸미·도다리 축제,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주산봄꽃축제, 보령 천북굴축제, 시민이 즐거운 보령 김축제, 청라 은행마을 단풍축제, 성주산 단풍축제, 해안선 레저스포츠 페스티벌

[표 1-3-38] 보령시 축제 개최 시기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축제							■			
대하·전어 축제							■	■		
주꾸미·도다리 축제	■	■								
전국해양스포츠제전						■				
보령 머드축제				■						
주산 봄꽃축제		■								
보령 천북굴축제										■
시민이 즐거운 보령 김축제									■	
청라 은행마을 단풍축제								■		
성주산 단풍축제								■		
해안선 레저스포츠 페스티벌						■				

■ 보령 대천~원산도~태안 영목을 잇는 국도 77호선이 완공되면 보령시 해양 관광정책의 근본적인 변화 예고

- ‘보령 대천 ~ 원산도’ 간은 해저터널로 건설되며 8.0km 구간으로 2021년 완공 예정
- ‘보령 원산도 ~ 태안 영목항’ 간은 해상교량으로 건설되면 6.1km 구간으로 2018년 완공 예정



[그림 1-3-7] 보령~태안 해저터널 및 해상교량 구간 위치도

원자료 : 충청남도 제공자료

자 료 : 고성민, “안면도~보령간 국내 최장 해저 터널, 서해안 관광지도 바꾼다”, chosun.com, 2017.09.05.일자

3) 해양산업 및 항만

■ 충남의 사업체는 2014년 기준으로 약 15만4천개가 있으며, 이 중 보령에 8,336개가 소재하여 충남 내 7위 위치

[표 1-3-39] 충청남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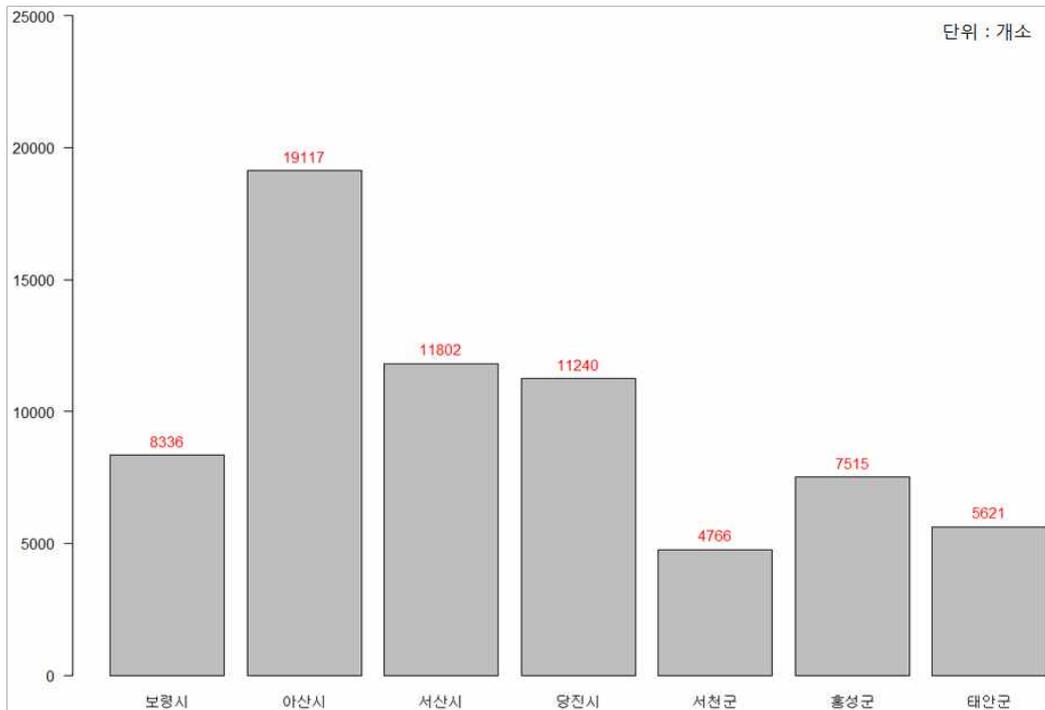
(단위 : 개, 명)

시군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천안시	44,381	253,698
공주시	8,844	42,063
보령시	8,336	33,597
아산시	19,117	146,476
서산시	11,802	59,675
논산시	10,422	42,728
계룡시	2,009	8,729
당진시	11,240	71,801
금산군	5,376	23,606
부여군	4,977	19,482
서천군	4,766	19,824
청양군	2,833	11,063
홍성군	7,515	33,161
예산군	6,799	27,832
태안군	5,621	19,087

자료 : 충청남도(2017), 2016 제56회 통계연보

■ 충남 연안 시·군 북부지역의 석유·화학 및 제조 산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것에 비하여 보령시의 산업 기반은 취약한 상황

- 충남의 7개 연안 시·군 중에서 아산, 서산, 당진에 이어 4위에 랭크



[그림 1-3-8] 충청남도 연안 시·군의 사업체 수 (2014)

자료 : 충청남도(2017), 2016 제56회 통계연보

■ 충남 연안 시·군의 주요 산업별 사업체 수와 비교하면, 보령은 월등히 앞서거나 현저하게 뒤쳐져 있는 분야가 없으나, 충남 북부권인 아산, 당진, 서산에 비하여 산업기반이 약하고 홍성군과 비슷한 수준

- 농림어업은 당진에 이어 홍성과 함께 2위 랭크
- 광업은 태안, 서산에 이어 당진과 함께 3위 랭크
- 제조업은 아산, 당진, 서산에 이어 4위에 랭크되었으나, 아산과는 2배, 당진과는 약 1.7배 격차
- 건설업은 아산, 서산, 당진, 홍성에 이어 5위 랭크
- 도·소매업은 아산, 서산, 당진에 이어 4위 랭크
- 운수업은 아산, 당진, 서산, 홍성에 이어 5위 랭크
- 숙박·음식업은 아산, 서산, 당진에 이어 4위 랭크
- 부동산·임대업은 아산, 당진, 서산, 홍성에 이어 5위
-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아산, 당진, 서산에 이어 4위

[표 1-3-40] 충남 연안 시·군의 주요 산업별 사업체 수 (2014)

구분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업	숙박·음식업	부동산·임대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보령시	23	11	619	337	2,298	502	2,242	147	220
아산시	20	6	2,528	557	4,304	1,772	4,129	721	499
서산시	19	17	768	493	3,102	924	2,790	392	296
당진시	30	11	1,028	479	2,696	968	2,618	454	344
서천군	17	1	472	177	1,424	310	941	83	90
홍성군	23	3	577	358	2,173	563	1,526	216	169
태안군	5	23	217	209	1,480	268	2,088	115	126

자료 : 충청남도(2017), 2016 제56회 통계연보

■ 보령에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해 있으며 시설용량이 5,358.3MW로 전국 최대의 화력발전소

- 보령화력은 오천면에 위치해 있으며 147만 평의 면적에 석탄화력 8기 가동
- 발전방식에 따라 기력(유연탄), 복합화력(LNG), 신재생에너지(소수력, 태양광, 연료전지)

[표 1-3-41] 충청남도 내 발전소 현황 (2016)

구분	발전소명	위치	면적(만 평)	시설용량(MW)			
				계	석탄화력	복합화력	신재생
계				19,465.6	16,110	3,231.8	123.8
석탄	보령화력	보령시(오천)	147	5,358.3	4,000/(8기)	1,350	8.3
	서천화력	서천군(서면)	42	401.2	400/(2기)		1.2
	당진화력	당진시(석문)	112	5,872	5,860/(10기)		12
	태안화력	태안군(원북)	139	5,052.3	5,050/(9기)		2.3
복합(LNG)	GS EPS(주)	당진시	13	1,516	-	1,416	100
	MPC 대산	서산시	5.2	465.8	-	465.8	-
부생가스	현대그린파워	당진시	3.8	800	부생가스(100×8기)		

자료 : 충청남도(2016), 2016년 하반기 도정주요통계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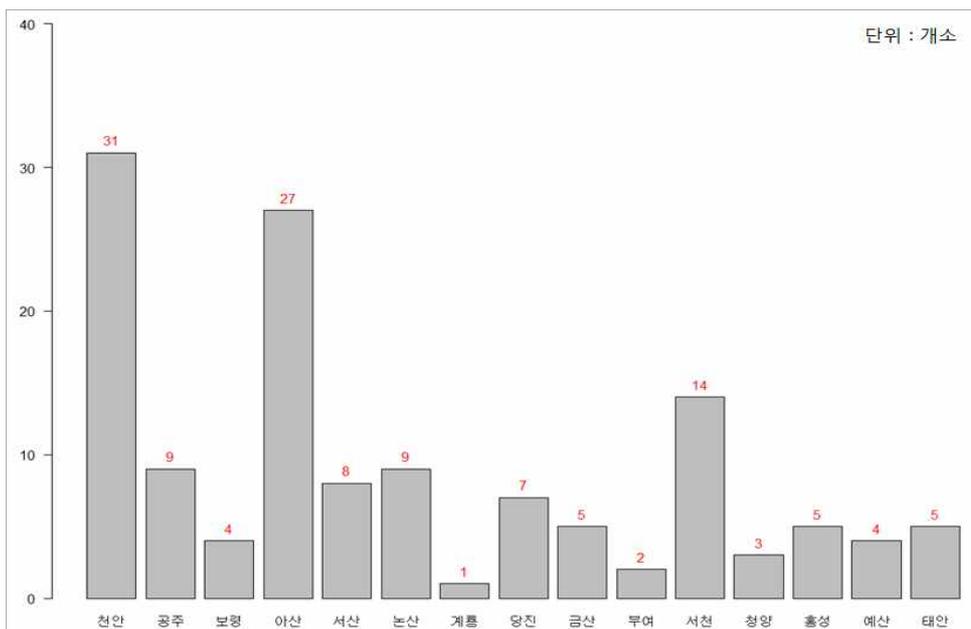
[표 1-3-42] 보령화력발전소 설비 현황

발전방식	발전원	설비용량		소계(MW)
기력	유연탄	1~8호기	500MW × 8기	4,000
복합화력	LNG	1호기	G/T: 150MW × 2기, S/T: 150MW × 1기	1,350
		2호기	G/T: 150MW × 2기, S/T: 150MW × 1기	
		3호기	G/T: 150MW × 2기, S/T: 150MW × 1기	
신재생 에너지	소수력	1,25MW × 6기		7.5
	태양광	0,525MW × 1기, 0,0462MW × 1기		0,5712
	연료전지	0,3MW × 1기		0,3
설비용량 총계		5,358,3712MW		

원자료 : EPSIS 전력통계정보시스템 「<http://epsis.kpx.or.kr>」
 자료 : 위키피디아 「<https://ko.wikipedia.org>」, 보령화력발전소

■ 보령시에는 4개의 사회적기업이 지정되어 있으나, 천안 31개, 아산 27개, 서천 14개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숫자

- 충남에는 총 134개의 사회적기업이 있고, 보령시의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인증 2개, 지역형 예비 2개



[그림 1-3-9] 충청남도 사회적기업 지정 현황 (2016)

자료 : 충청남도(2016), 2016년 하반기 도정주요통계집

■ 보령시에는 총 11개의 산업단지가 있으며, 면적은 11,741천m²

- 국가산단은 고정단지로 현재 조성 중에 있으며 입주업체는 43개
- 일반산단은 관창(조성 중), 영보(조성 중), 웅천(미개발) 단지
- 농공단지는 대천, 웅천, 주산, 주포, 청소, 주포2, 웅천석재로서 모두 조성 완료

■ 국가산단인 고정단지와 일반산단인 영보단지는 보령항의 배후지역으로 보령 화력발전소의 원료를 공급하는 기능 수행

- 특히 영보단지는 LNG 생산기지(터미널)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조성 중

[표 1-3-43] 충남 연안지역 산업단지 조성 현황 (2016)

(단위 : 개소, 천m²)

구분	계		국가산단		일반산단		농공단지		도시첨단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계	77	83,793	5	28,106	34	48,914	36	5,474	2	1,299
보령시	11	11,741	1	6,275	3	4,376	7	1,090		
아산시	18	14,557			9	13,519	9	1,038		
서산시	16	16,231	1	912	11	14,043	4	1,276		
당진시	14	34,029	2	18,168	5	14,864	7	997		
서천군	6	3,728	1	2,751	5	977				
홍성군	10	3,363			1	1,135	8	968	1	1,260
태안군	2	144					1	105	1	39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CLUSTER, 「<http://www.e-cluster.net>」

■ 전국적으로 항만은 무역항 31개, 연안항 29개이고, 신항만은 10개

- 무역항은 국가관리항 14개, 지방관리항 17개, 연안항은 국가관리항 11개, 지방관리항 18개
- 신항만은 전국적으로 10개이고, 항만구역 내 9개, 항만구역 미지정 1개

■ 충남의 무역항은 5개(국가관리 3개, 지방관리 2개), 연안항은 2개 보유

- 국가관리 무역항은 평택·당진항, 대산항, 장항항²⁰⁾
- 지방관리 무역항은 태안항, 보령항
- 지방관리 연안항은 대천항, 비인항

■ 보령시는 지방관리 무역항 1개, 지방관리 연안항 1개, 신항만 1개 보유

- 지방관리 무역항은 보령항, 지방관리 연안항은 대천항, 신항만은 보령신항



[그림 1-3-10] 우리나라 항만 위치도

자료 : 해양수산부(2016),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20) 평택·당진항은 고대부두, 송악부두, 서부두가 당진항에 해당

■ 충남에 위치한 5개의 무역항 중 보령항은 국가관리 무역항인 평택·당진, 대산에 비하여 비교적 작은 규모 보유

- 보령항은 안벽은 869m, 물양장은 90m, 접안능력은 4개, 예선 4척 보유
- 충남의 무역항은 모두 기중기선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표 1-3-44] 충청남도 무역항의 시설 현황 (2015)

항만명		평택·당진	대산	태안	보령	장항
안벽(m)		14,109	7,195	1,150	869	330
방파제(m)		1,006	870			
잔교(No.)		8	3			2
물양장(m)		616	288	287	90	850
접안능력(No.)		63	30	3	4	2
상옥	동 수 (No.)		1			
	면적 (1,000m ²)					
	수용능력 (1,000t)					
일반창고	동 수 (No.)	9	1			1
	면적 (1,000m ²)	74	0			2
	수용능력 (1,000t)	253	0			5
야적장	면적 (1,000m ²)	2,217	210			42
	수용능력 (1,000t)	6,921	611			125
예선	척 수 (No.)	24	20		4	
	마력 (HP)	106,880	73,639		16,920	
순찰선	척 수 (No.)	1	1			
	톤 수 (GT)	38	37			
기중기선	척 수 (No.)					
	톤 수 (GT)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6), 2016 해운통계요람

■ 보령의 연안항은 대천항이고, 접안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 충남의 연안항은 대천항과 비인항이 있고, 비인항도 접안능력 없음

[표 1-3-45] 충남 연안항 시설 현황 (2011)

항만명	부두(m)	물양장(m)	선양장(m)	방파제(m)	투기장 호안(m)
대천항	여객 및 역무선 부두 140 화물부두 90	1,202	125	1,220	1,226
비인항	화물 및 유람선 부두 55	381	0	880	0

원자료 : 한국해양과학기술원(2015),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
자 료 : 국토해양부(2011),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 보령항의 선석 수는 4개로 장항항보다 많으나, 평택·당진항, 대신항, 태안항 보다는 매우 적음

- 보령항의 접안능력은 200,000DWT 1개, 150,000DWT 2개, 3,000DWT 1개²¹⁾

[표 1-3-46] 충남 항만별 선석 수 (2016)

(단위 : 개)

구분	평택·당진항	대산항	태안항	보령항	장항항
계	77(41)	47	8	4	2
완 료	63(32)	31	5	4	2
공사중	1(0)		1		
장 래	13(9)	16	2		

주 : ()는 당진항의 선석수 (평택항 미포함)
자료 : 충청남도(2016), 2016년 하반기 도정주요통계집

■ 보령항은 석탄, 가스, 광석, 유류 등 에너지 관련 화물의 처리실적이 높음

- 이는 보령항 내에 중부발전(주) 시설이 위치해 있어 화력발전소 연료공급항만으로서의 기능 수행

21) DWT(deadweight tonnage, 적화톤수);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6), 2016 해운통계요람

보령시 해양항만 발전 기본계획

[표 1-3-47] 보령항 품목별 화물처리실적 (2012~2016)

(단위 : 톤(R/T))

품목/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12,520,371	13,449,433	12,943,260	13,244,151	12,205,499
시멘트	0	0	0	0	0
모래	11,357	24,468	0	0	0
철제	1,100	300	4,590	3,662	1,080
광석	124,445	122,635	93,048	64,187	61,641
석탄	12,315,774	13,246,369	12,787,596	13,103,079	11,902,281
유류(기타제외)	67,695	55,661	58,026	73,223	60,525
케미컬	0	0	0	0	0
가스	0	0	0	0	179,572
기타	0	0	0	0	400

자료 :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 SP-IDC 「<https://www.spidc.go.kr>」

■ 보령항은 하역능력은 18백만 톤이고, 물동량은 13백만 톤으로 전체 하역능력의 72.2% 사용

- 보령항은 충남 항만 물동량의 약 6%의 물동량 보유 (평택항 미포함 시 8.2%)

[표 1-3-48] 충남 항만별 물동량 및 하역능력 (2015)

(단위 : 천 톤, %)

구분	계	평택·당진항	대산항	태안항	보령항	장항항
물동량	215,537 (157,966)	112,214 (52,643)	78,514	13,244	13,010	555
하역능력	136,177	85,235	13,512	17,940	18,010	1,480
하역능력 대비 물동량	158.3	131.7	581.1	73.8	72.2	37.5

주 : ()는 당진항의 물동량 (평택항 미포함)

자료 : 충청남도(2016), 2016년 하반기 도정주요통계집;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6), 2016 해운통계요람

■ 보령항은 연간 약 12백만 톤의 화물을 처리하여 전국적으로 14번째의 화물처리실적 보유

- 충남의 5개 무역항(평택·당진항, 대산항, 태안항, 보령항, 장항항) 중에서는 4번째로 많은 화물처리실적 보유
- 최근 5년 간 약 12백만 톤에서 13백만 톤 수준을 유지하나, 2016년에는 감소

[표 1-3-49] 전국 무역항 화물처리실적 (2012~2016)

(단위 : 톤(R/T))

항만명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1,338,588,768	1,358,925,275	1,415,904,122	1,463,053,746	1,509,479,413
부산	312,040,800	324,858,224	346,640,071	359,676,343	362,369,364
인천	143,939,484	146,106,278	150,083,888	157,623,769	161,304,161
평택·당진	100,712,097	109,251,296	117,012,506	112,214,397	112,948,322
경인항	265,776	525,730	461,983	682,897	669,083
동해·묵호	31,203,910	31,728,849	32,540,970	31,279,375	32,296,665
삼척	5,823,501	5,462,941	5,647,260	6,403,142	7,070,419
속초	36,730	83,094	61,588	10,973	17,003
옥계	6,322,977	6,512,154	7,823,277	7,216,542	6,564,753
호산	0	0	2,880,656	5,962,509	6,822,268
대산	70,122,416	68,978,883	72,900,336	78,514,233	85,890,215
보령	12,520,371	13,449,433	12,943,260	13,244,151	12,205,499
태안	12,960,406	13,833,186	13,010,312	13,010,709	12,951,913
군산	18,745,410	18,610,805	18,635,390	18,487,579	19,617,684
장항	1,306,678	590,709	663,407	555,347	574,336
목포	16,868,672	20,165,192	22,997,169	22,467,164	23,547,935
완도	2,302,172	2,460,625	2,467,098	2,595,797	2,834,357
여수	5,134,530	1,033,900	1,126,649	1,353,148	1,556,710
광양	237,342,240	239,545,906	253,256,134	272,006,531	283,106,296
포항	62,764,859	61,646,820	65,241,097	61,501,405	62,303,458
마산	16,059,463	15,079,332	13,309,010	15,563,948	15,267,260
삼천포	12,183,299	12,297,322	11,753,219	11,913,657	11,328,116
옥포	7,837,336	7,864,424	9,527,465	10,141,885	8,758,769
장승포	5,073	3,676	2,983	3,928	7,924
진해	2,270,664	2,623,792	2,331,062	2,820,550	3,040,189
통영	330,167	152,229	280,974	350,981	196,657
고현	11,057,477	9,372,345	7,183,193	7,608,119	10,321,404
하동	13,550,878	13,559,156	12,670,068	13,621,283	12,516,729
울산	196,972,096	191,030,773	191,720,154	190,869,574	197,610,650
제주	2,370,417	2,364,987	2,918,278	4,170,543	11,134,659
서귀포	504,537	514,956	578,136	714,341	920,853
기타	35,034,332	39,218,258	37,236,529	40,468,926	43,725,7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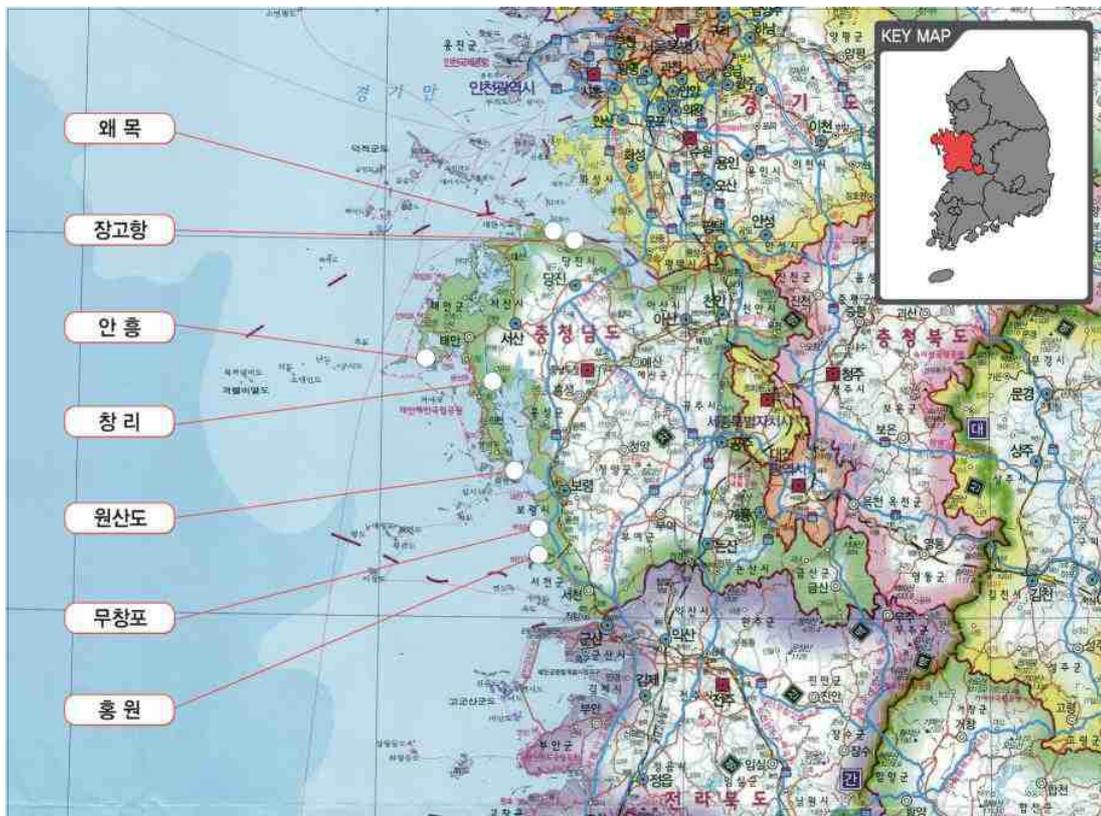
자료 :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 SP-IDC 「<https://www.spidc.go.kr>

■ 보령에는 요트경기장이 있으며, 이는 충남에서 유일한 마리나항

- 보령 요트경기장은 충남요트협회의 훈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市 소속 요트팀, 요트학교 운영

■ 보령의 오천은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2010~2019)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2015년 수정계획에 따라 원산도와 무창포로 계획 변경²²⁾

- 수정계획에 따라 충남에서는 홍원, 창리, 왜목, 안흥, 무창포, 장고항, 원산도가 예정구역으로 지정
- 이 중 왜목은 국가가 지원하는 ‘거점형 마리나항만’ 으로 선정
- 이 외, 홍성 남당항과 서산 삼길포항은 어항 내 유희수역에 레저선박을 계류시설을 설치하고, 주변 마리나 시설과 연계하는 ‘어촌 마리나역’ 으로 선정



[그림 1-3-11] 충청권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자료 : 해양수산부(2016),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

22) ‘충청남도(2015),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 참고, 이하 동일

(4) 수산업 및 어촌²³⁾

■ 보령의 어가 수는 소폭의 증가와 감소를 보이다가 2014년 2,763호로 증가했으나 2015년 2,111호로 감소

- 전업어가는 2011년 535호에서 2015년 570호로 증가한 반면, 겸업어가는 2011년 1,901호에서 2015년 1,541호로 감소

■ 보령의 어가인구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며, 어업종사자 또한 꾸준히 감소

- 2011년 어가인구는 6,095명이었으나 점차 감소하여 2015년 4,709명
- 어업종사자 또한 2011년 5,495명에서 2015년 3,645명으로 감소

[표 1-3-50] 보령시 어가수 및 어가인구 현황 (2011~2015)

연도	합계	어가 (호)				어가인구 (명)			어업종사자 (명)		
		전업	겸업 소계	1종 겸업	2종 겸업	계	남	여	계	남	여
2011년	2,436	535	1,901	850	1,051	6,095	3,016	3,079	5,495	2,676	2,819
2012년	2,442	537	1,905	852	1,053	6,099	3,018	3,081	5,906	2,924	2,982
2013년	2,431	532	1,899	848	1,051	5,850	3,014	2,836	5,876	2,902	2,974
2014년	2,763	552	2,211	875	1,336	5,880	3,029	2,851	5,880	3,029	2,851
2015년	2,111	570	1,541	693	848	4,709	2,291	2,418	3,645	1,865	1,780

자료 : 보령시(2017), 2016 통계연보

■ 보령의 어촌계는 25개소이고, 수협은 2개소 위치

- 충남 어촌계 165개소 중 보령시에 25개소 위치
- 충남도의 수협은 총 8개소이고, 이 중 보령수협과 대천서부수협 위치
- 보령수협은 전국 조합별 위판실적이 13위를 차지할 정도의 규모있는 수협이고, 대천서부수협은 50위 차지 (2013년 기준)

■ 보령의 최근 5년간 수산물 어획고를 살펴보면, 2014년까지는 꾸준히 증가하여 22,858톤이었으나 2015년에는 감소하여 19,642톤 기록

- 수산물 품목별로 살펴보았을 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류가 2011년에 수량

23) '보령시(2017), 2016 통계연보' 참조, 이하 동일

보령시 해양항만 발전 기본계획

59.6%, 금액 42.2%였으며 2015년에는 수량 48.5%, 금액 42.6%로 나타나 가장 높은 비율 차지

- 2011년과 2015년을 비교했을 때 전체에서 차지하는 어류의 수량 비율은 59.6%에서 48.5%로 감소하였으나 금액은 42.2%에서 42.6%로 증가

[표 1-3-51] 보령시 수산물 어획고 현황 (2011~2015)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수량 (kg)	16,787	18,059	18,212	22,858	19,642
	금액 (백만 원)	105,465	112,540	109,617	125,363	103,462
어류	수량 (kg)	9,999	9,446	9,460	12,920	9,522
	비율 (%)	59.6	52.3	51.9	56.5	48.5
	금액 (백만 원)	44,456	42,024	43,083	51,694	44,051
	비율 (%)	42.2	37.3	39.3	41.2	42.6
갑각류	수량 (kg)	2,463	833	3,516	4,220	1,755
	비율 (%)	14.7	4.6	19.3	18.5	8.9
	금액 (백만 원)	24,594	4,421	35,490	37,334	26,084
	비율 (%)	23.3	3.9	32.4	29.8	25.2
연체동물	수량 (kg)	1,371	3,249	1,387	1,428	661
	비율 (%)	8.2	18.0	7.6	6.2	3.4
	금액 (백만 원)	16,146	45,328	15,824	17,887	14,957
	비율 (%)	15.3	40.3	14.4	14.3	14.5
패류	수량 (kg)	2,555	4,261	3,211	4,182	7,609
	비율 (%)	15.2	23.6	17.6	18.3	38.7
	금액 (백만 원)	18,604	18,730	13,784	17,943	17,745
	비율 (%)	17.6	16.6	12.6	14.3	17.2
해조류	수량 (kg)	82	112	510	8	67
	비율 (%)	1.9	0.9	0.7	0.4	0.1
	금액 (백만 원)	197	1,341	1,020	140	369
	비율 (%)	1.4	0.6	0.4	0.3	0.2
기타 수산물	수량 (kg)	317	158	128	100	28
	비율 (%)	0.5	0.6	2.8	0.03	0.3
	금액 (백만 원)	1,468	696	417	365	256
	비율 (%)	0.2	1.2	0.9	0.1	0.4

자료 : 보령시(2017), 2016 통계연보

■ 수산물 가공품의 생산량은 2011년 5,457톤에서 2015년 20,699톤으로 증가하였으나, 생산금액은 6,702백만 원에서 4,498백만 원으로 감소

- 품목별로는 2013년부터는 자건품과 해조류 상품을 생산하지 않음

■ 냉동·냉장품의 생산량은 2011년 5,451톤에서 2015년 20,699톤으로 증가하였으나, 생산금액은 6,591백만 원에서 4,498백만 원으로 감소

[표 1-3-52] 보령시 수산물 가공품 생산 현황

(단위 : 톤(M/T), 백만 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생산량	생산금액	생산량	생산금액	생산량	생산금액	생산량	생산금액	생산량	생산금액
계	5,457	6,702	6,396	6,367	3,616	5,742	4,705	81,019	20,699	4,498
자건품	6	111	103	61,657						
냉동·냉장	5,451	6,591	5,579	6,274	3,616	5,742	4,705	81,019	20,699	4,498
해조류			714	31						

자료 : 보령시(2017), 2016 통계연보

■ 최근 5년간 수산물 생산량 및 판매금액 현황을 살펴보면 생산량은 2014년까지는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5년에 감소

- 판매금액을 살펴보면 2012년에는 전년대비 약 5조 가량 증가하였으나, 이후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
- 품목별로 비교해보면, 2011년에는 전체 판매금액 대비 각 품목의 판매금액 비중이 갑각류(39.1%), 연체동물(26.6%), 어류(18.5%) 순이었으나 2015년에는 어류(42.6%), 갑각류(25.2%), 패류(17.2%) 순
- 기타수산물을 제외한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패류, 해조류는 각각 판매금액이 감소하는 추세
- 기타수산물은 2015년 판매금액이 2억5천599만 원으로, 전년과 비교했을 때 약 5배 증가

보령시 해양항만 발전 기본계획

[표 1-3-53] 보령시 수산물 생산량 및 판매금액 현황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수량 (kg)	17,044,650	17,515,032	18,645,129	22,367,746	19,642,014
	금액 (백만 원)	15,122,028	19,243,527	16,535,382	123,180	103,462
어류	수량 (kg)	10,514,735	9,598,866	9,299,873	12,707,472	9,522,230
	비율 (%)	61.7	54.8	49.9	56.8	48.5
	금액 (백만 원)	2,803,377	4,645,779	2,041,490	51,381	44,051
	비율 (%)	18.5	24.1	12.3	41.7	42.6
갑각류	수량 (kg)	2,157,309	2,613,795	4,804,657	4,090,070	1,755,170
	비율 (%)	12.7	14.9	25.8	18.3	8.9
	금액 (백만 원)	5,917,750	6,825,539	8,563,743	36,682	26,084
	비율 (%)	39.1	35.5	51.8	29.8	25.2
연체동물	수량 (kg)	1,321,400	1,480,018	1,362,057	1,356,345	660,349
	비율 (%)	7.8	8.4	7.3	6.1	3.4
	금액 (백만 원)	4,027,703	16,231,569	4,738,209	16,902	14,957
	비율 (%)	26.6	84.3	28.7	13.7	14.5
패류	수량 (kg)	2,549,815	3,482,434	3,142,584	4,185,058	7,609,131
	비율 (%)	15.0	19.9	16.9	18.7	38.7
	금액 (백만 원)	1,497,460	24,893	670,862	17,966	17,745
	비율 (%)	9.9	0.1	4.1	14.6	17.2
해조류	수량 (kg)	493,387	316,383	30,681	27,166	66,936
	비율 (%)	2.9	1.8	0.2	0.1	0.3
	금액 (백만 원)	753,640	968,847	416,379	202	369
	비율 (%)	5.0	5.0	2.5	0.2	0.4
기타 수산물	수량 (kg)	8,005	23,536	5,277	1,636	28,199
	비율 (%)	0.05	0.13	0.03	0.01	0.14
	금액 (백만 원)	122,099	105,044	106,698	48	256
	비율 (%)	0.8	0.5	0.6	0.0	0.2

자료 : 보령시(2017), 2016 통계연보

■ 보령의 양식어업권은 2011년 158건(2,723ha)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에는 196건(3,180ha)으로 나타남

- 이 중 개인 양식어업권은 2011년 6건(46ha)에서 2015년 4건(29ha)로 감소하였으나 협업, 어촌계 및 수협 양식 어업권 증가
- 협업은 10건에서 9건으로 줄었으나 그 면적이 38ha에서 47ha로 증가
- 어촌계는 141건(2,399ha)에서 180건(2,844ha)로, 수협은 1건(240ha)에서 3건(260ha)로 증가

[표 1-3-54] 보령시 양식 어업권 현황

구분	합계		개인		협업		어촌계		수협	
	건 수	면적 (ha)								
2011	158	2,723	6	46	10	38	141	2,399	1	240
2012	162	2,798	6	46	9	34	146	2,478	1	240
2013	168	2,836	5	39	9	39	152	2,508	2	250
2014	183	2,953	5	39	9	39	166	2,615	3	260
2015	196	3,180	4	29	9	47	180	2,844	3	260

자료 : 보령시(2017), 2016 통계연보

■ 보령의 어업권은 2011년 165건(2724.1ha)에서 2015년 204건(3181.9ha)으로 증가

- 마을·정치어업은 90건(1967.6ha)에서 98건(2115.6ha)로 증가
- 양식어업은 68건(755.5ha)에서 98건(1064.6ha)로 증가
- 내수면어업은 7건(1ha)에서 8건(1.7ha)로 증가

[표 1-3-55] 보령시 어업권 현황

연도	합계		마을·정치어업		양식어업		내수면어업	
	건 수	면적 (ha)	건 수	면적 (ha)	건 수	면적 (ha)	건 수	면적 (ha)
2011년	165	2724.1	90	1967.6	68	755.5	7	1.0
2012년	169	2799.2	90	2004.6	72	793.6	7	1.0
2013년	175	2836.2	90	2004.6	78	830.6	7	1.0
2014년	191	2954.5	90	2004.6	93	947.6	8	2.3
2015년	204	3181.9	98	2115.6	98	1064.6	8	1.7

자료 : 보령시(2017), 2016 통계연보

■ 보령의 어항시설은 2011년 25개소였으나, 2015년 현재 26개소로 증가

- 2013년 소규모어항이 1개소 증가하였으나, 2014년 2개소 감소하였고, 2014년 어촌 정주어항의 2개소 증가
- 2017년 4월 무창포항이 국가어항을 승격되어 현재 국가어항 3개소, 지방어항 7개소

[표 1-3-56] 보령시 어항시설 현황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어항	계	25	25	26	26	26	
	지정항	소계	12	12	12	14	14
		국가어항	2	2	2	2	2
		지방어항	8	8	8	8	8
		어촌 정주어항	2	2	2	4	4
	소규모어항	13	13	14	12	12	
위판장	개소	3	3	3	3	3	
	면적(m ²)	913	913	913	913	913	
방파제	개소	8	8	8	8	8	
	연장(m)	3,153	3,153	3,153	3,153	3,387	
선착장	개소	19	19	19	19	20	
	연장(m)	2,543	2,543	2,543	2,543	2,548	
물양장	개소	6	6	6	6	6	
	연장(m)	1,357	1,357	1,357	1,357	1,647	
급유시설	탱크수	1	1	1	1	1	
	저장능력 (D/M)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자료 : 보령시(2017), 2016 통계연보

3. 보령시 해양항만의 특성 및 SWOT

1) 해양항만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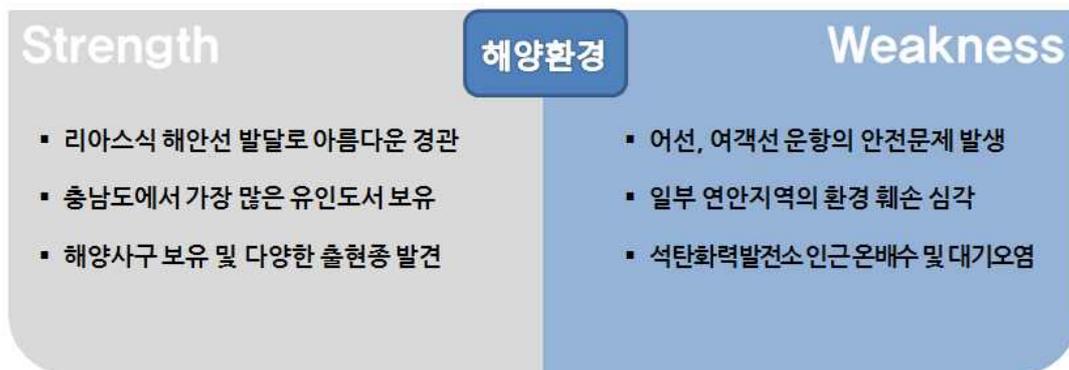
(1) 해양환경

■ 해양경관 및 유인도서는 지역 해양관광 발전의 긍정적 요소

- 리아스식 해안선의 발달로 아름다운 해안경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도내에서 가장 많은 유인도서 보유
- 소항사구, 원산사구, 오봉사구, 삽시도사구와 같은 해양사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출현종 발견

■ 해양안전에 취약하고, 해양 환경오염 사고 발생 가능성 상존

- 어선, 여객선 운항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성 문제 및 환경오염 문제 상존
- 하굿둑·방조제·해안도로 등에 의한 연안지역 환경 훼손 심화
- 지역에 위치한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하여 온배수 및 대기오염 문제 상존



[그림 1-3-12] 해양환경 강점 및 약점

(2) 해양관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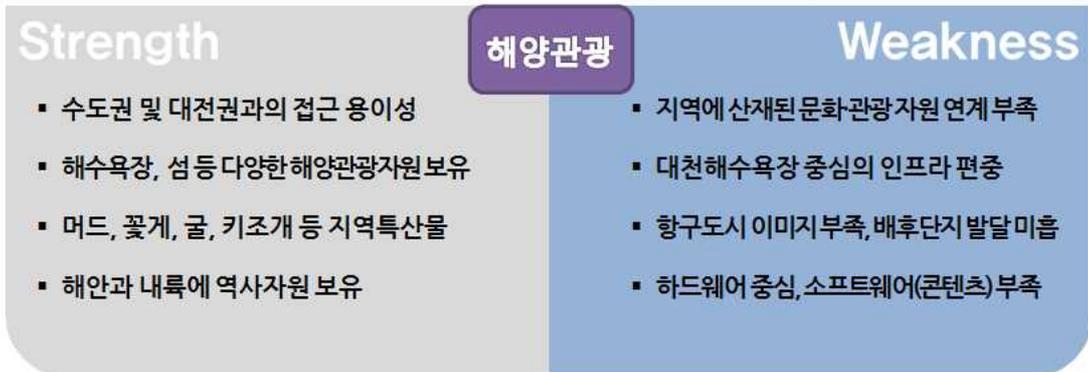
■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한 관광도시의 면모 보유

- 서해안고속도로 건설이후 수도권, 대전권과의 접근성 용이

- 충남 최고의 해수욕장, 세계적인 축제인 머드축제, 수려한 도서(섬) 등 다양한 해양 관광자원 보유
- 머드, 꽃게, 굴, 키조개, 포도, 버루 등 테마관광을 위한 지역특산물 등 관광자원 풍부
- 충청수영성, 서해안 해저유물, 성주사지 등 해안 및 내륙에 다양한 역사자원 보유

■ 하드웨어 중심의 관광 인프라 편중 및 콘텐츠 부족

- 지역에 산재된 문화·관광 자원의 연계체계 미흡
- 보령 연안 및 도서지역의 접근성 부족으로 해양 콘텐츠 부족
- 대천해수욕장 중심의 관광 인프라 편중으로 여름철 위주의 관광 수요
- 향구도시의 이미지 부족, 배후단지 발달 미흡
- 하드웨어 중심의 해양관광 인프라로 소프트웨어(콘텐츠) 투자 미흡



[그림 1-3-13] 해양관광 강점 및 약점

(3) 해양산업 및 항만

■ 세계적인 머드자원과 에너지항만의 위상 보유

- 세계적 인지도를 보유한 머드를 통하여 해양 치유·휴양산업 유치에 유리
- 우리나라 최대의 석탄화력발전소 입지로 산업용 에너지 조달 용이
- 에너지항만으로 특성화된 보령항 보유하고, 향후 보령신항 건설 예정
- 해수욕장 중심으로 숙박업, 외식업 등 서비스업 발달

■ 해양산업의 기반이 부족하고, 항만 시설 및 인프라 부족

- 보령항은 주로 석탄, LNG 화물 취급하는 에너지 특화항만으로 다목적 항만으로서의 국가 계획 미비
- 보령시는 주로 농어업, 관광업 중심의 단조로운 산업구조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6차산업화 등 최근 주목받는 경제형태 부족
- 해양산업은 주로 해수욕장 중심의 관광산업이고,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일자리 및 고용 기회 부족
- 항만 배후시설 및 인프라 부족으로 해양산업 육성의 한계 봉착



[그림 1-3-14] 해양산업 · 항만 강점 및 약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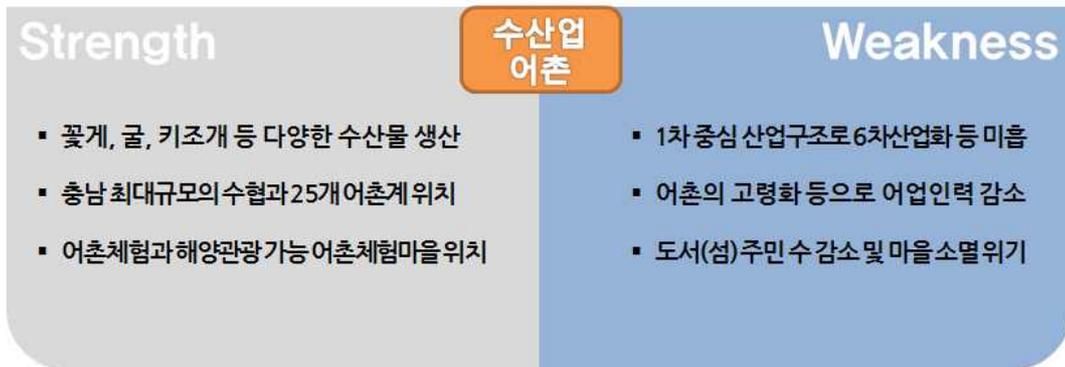
(4) 수산업 및 어촌

■ 지역적 특색이 있는 수산물 생산 및 어촌마을 위치

- 꽃게, 굴, 키조개, 바지락 등 다양한 수산물 생산
- 충남 최대의 수협과 25개의 어촌계 위치
- 무창포, 장고도 등 어촌체험과 해양관광이 연계가 가능한 어촌체험마을 위치

■ 어촌의 인구 감소 및 한계어촌 등장

- 1차 중심의 산업구조로 6차산업화 등 미흡 (어촌체험마을 2개소에 불과)
- 어촌의 고령화, 과소화, 여성화에 따른 어업인력 감소 및 한계어촌 등장
- 유인도서(섬) 주민 수 감소 및 도서 어촌마을 소멸 위기



[그림 1-3-15] 수산업·어촌 강점 및 약점

(5) 대외적 기회 및 위협

① 해양항만의 기회

■ 국도 77호선,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 등 교통 SOC 확충

- 보령 대천 ~ 원산도 ~ 태안 영목을 잇는 국도 77호선 공사 중
- 충청산업문화철도 조기 착공을 통하여 국토의 중부축 연결
- 서산 대신항에서는 중국 용안항과의 여객선 취항 예정

■ 한중 FTA를 비롯하여 중국과의 교류 및 교역 확대

- 2014년에 체결된 한중 FTA를 통하여 해삼, 전복 등 보령 주력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
- 사드문제 이전까지 중국 관광객의 한국 방문객 증가하였고,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비중은 약 25% 수준
- 특히 충남도와 가까운 중국 산둥성, 귀주성 등과의 교류 증가

■ 국가 및 충남도에서 서해안권 개발에 대한 관심 증대

- 동해안과 남해안에 집중되어 있던 해양수산업 관련 국가정책이 서해안권으로 서서히 이동
- 충남도는 2013년 해양수산국 출범부터 서해안비전, 해양수산발전계획, 해양수산대표사업 발굴 등을 통하여 충남 서해안권 개발 추진

■ 해양관광 및 레포츠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 국민소득 증가로 마리나, 크루즈 등 해양관광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요트, 서핑, 스킨스쿠버 등에 대한 관심 증대

② 해양항만의 위협

■ 국가의 동해권·남해권 중심의 해양항만 투자 지속

- 서해안권 지자체의 지속적인 투자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내 해양항만 산업을 부산을 거점으로 하는 동·남해권 중심으로 투자 지속
- 부산에 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조사원, 국립해양박물관 등 해양수산관련 주요 국가기관 이전 추진

■ 북핵, 사드 문제 등으로 인한 중국과의 정치적 갈등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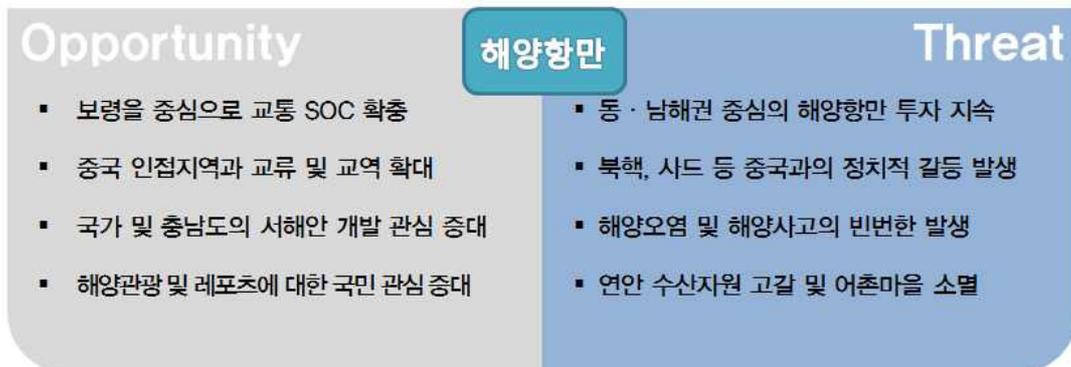
- 한중 FTA를 비롯하여 중국과의 교류·교역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북핵, 사드 문제 등으로 인하여 중국과의 통상 마찰 발생
- 중국 관광객 급감, 한중 문화교류 단절, 국내기업의 중국시장 철수 등

■ 해양오염 및 해양사고의 빈번한 발생으로 국민의 신뢰 미확보

-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사고, 2014년 세월호 사고를 비롯하여 크고 작은 해양오염 및 사고로 인하여 바다는 안전하지 않다는 국민적 인식 각인
- 지자체 단위에서는 해양안전과 관련된 행정조직과 대응 매뉴얼 구축 미비

■ 연안 수산자원 고갈 및 어촌마을 소멸로 지역 해양수산업 붕괴 우려

- 서해안을 비롯한 전 해역에 수산자원이 감소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등으로 해양 환경 및 생태계가 급속히 변화
- 어촌의 고령화, 과소화, 여성화로 어업인력이 감소하고, 연안 및 도서 어촌마을 소멸 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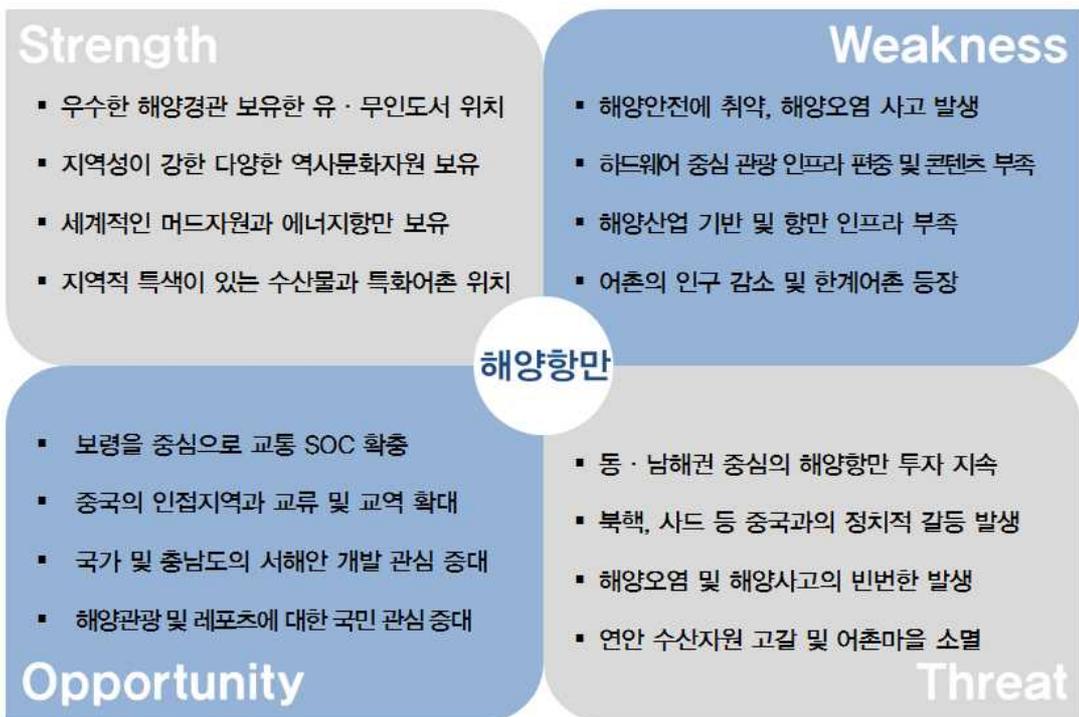


[그림 1-3-16] 대외적 기회 및 위협

2) 해양항만의 S-W-O-T 전략

■ 보령 해양항만의 각 분야의 강점 및 약점, 대외적 위기 및 위협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강점 : 우수한 해양경관과 유·무인도서, 지역성이 강한 다양한 역사문화자원, 세계적인 머드자원과 에너지항만, 지역적 특색이 있는 수산물과 특화어촌
- 약점 : 해양안전에 취약하고 해양오염사고 발생, 하드웨어 중심 관광 인프라 편중 및 콘텐츠 부족, 해양산업 기반 및 항만 인프라 부족, 어촌의 인구 감소 및 한계어촌 등장
- 기회 : 보령을 중심으로 교통 SOC 확충, 중국 인접지역과 교류 및 교역 확대, 국가 및 충남도의 서해안 개발 관심 증대, 해양관광 및 레포츠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 위협 : 동·남해권 중심의 해양항만 투자 지속, 북핵·사드 등 중국과의 정치적 갈등, 해양오염 및 해양사고의 빈번한 발생, 연안 수산자원 고갈 및 어촌마을 소멸



[그림 1-3-17] 보령시 해양항만의 SWOT 분석

■ 보령 해양항만의 S-O, S-T, W-O, W-T 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Strength-Opportunity
 - 우수한 해양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을 확보하고 있어 해양관광산업 육성의 최적지
 - 보령을 중심으로 하는 교통 SOC 확충으로 관광객 유입의 편의성 제고
 - 중국과의 인접성으로 거대한 잠재적 해양관광 및 산업 시장 확보
 - 우수한 지역자원을 바탕으로 해양문화·역사 콘텐츠 개발 가능
 - 국가 및 충남도의 서해안권 개발에 대한 관심 증대로 거점 기능 수행 가능
- Strength-Threat
 - 동·남해권 해양항만 투자와 비교하여 서해안권 투자의 필요성 지속 제기
 - 보령 해양항만산업의 중국과의 교류균형 추구 및 교류국가 다변화
 - 해양오염 및 해양사고 발생 시, 선제적 대응으로 해양관광자원 보존 필요
 - 수산자원 고갈 및 어촌마을 소멸을 방지하고 전통 역사·문화자원 보존
 - 연안 및 도서 어촌마을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어촌마을 중심 사업 추진
- Weakness-Opportunity
 - 하드웨어 사업보다는 소프트웨어 사업 중심으로 해양관광 및 산업구조 재편
 - 해양오염 및 사고에 선제적 대응으로 국민 및 지역주민의 안전체계 구축
 - 다양한 국가의 관광객의 수요에 부응하는 해양관광 콘텐츠의 지속적 개발
 - 국가 및 충남도의 서해안권 개발 욕구를 보령에 집중시킬 수 있는 유인책 필요
 - 해양관광·레포츠와 수산업·어촌을 연계하여 지역경제의 시너지 효과 창출
- Weakness-Threat
 - 해양 재난·사고에 대비한 대내·외적 연계·협력 대응체계 구축 필요
 - 보령신항, 마리나항 등 항만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국제 해양도시의 기반 구축
 - 지역의 역사·문화 콘텐츠 중심의 해양관광 및 해양산업 육성 필요
 -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동남아, 미주, 유럽 등 해외 관광객의 다변화 필요
 - 연안 및 도서 어촌마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마을 활력사업 추진

[표 1-3-57] 보령 해양항만의 SWOT 전략

전략	내용
Strength & Opportun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한 해양자연환경 보유로 해양관광산업 육성의 최적지 • 교통 SOC 확충으로 관광객 유입의 편의성 제고 • 중국과 인접 거대한 잠재적 해양관광 및 산업 시장 확보 • 지역자원을 바탕으로 해양문화·역사 콘텐츠 개발 • 서해안권 개발에 대한 국가적 관심 증대
Strength & 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에 서해안권 투자의 필요성 지속 제기 • 중국과의 교류 밸런스 추구 및 교류국가 다변화 • 해양오염 및 해양사고에 선제적 대응 • 어촌마을의 전통 역사·문화자원 보존 • 연안 및 도서 어촌마을 중심 사업 추진
Weakness & Opportun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프트웨어 사업 중심으로 해양관광 및 산업구조 재편 • 해양오염 및 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국민 안전체계 구축 • 다양한 국가의 관광객 수요에 부응하는 해양관광 콘텐츠 개발 • 국가 및 충남도의 서해안권 개발사업의 보령집중 유인책 개발 • 해양관광·레포츠와 수산업·어촌 연계방안 모색
Weakness & 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 재난·사고 대비 대내·외적 연계·협력체계 구축 • 항만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국제 해양도시의 기반 구축 • 역사·문화 콘텐츠 중심의 해양관광 및 해양산업 육성 • 중국, 일본, 동남아, 미주, 유럽 등 해외 관광객의 다변화 • 연안 및 도서 어촌마을의 활력사업 추진

4절 해양항만 비전 및 전략

1. 핵심 Keyword

1) 영역적 측면

■ 청정해역으로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Cleaning 해양환경」

- 도서(섬), 갯벌, 사구 등 연안 市로서 보유할 수 있는 다양한 해양환경자원 보유
- 보존가치가 높은 다양한 해양생물이 출현하는 해양생태계 보유
- 서해안 청정해역을 유지하여 연안 市로서의 해양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해양 재난·재해·사고에 사전적으로 대응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

■ 국민과 함께 바다의 다양성을 즐길 수 있는 「Amazing 해양관광」

- 연간 13백만 명이 방문하는 대천, 무창포 해수욕장 보유
- 연간 5백만 명이 방문하는 머드축제 외 전국해양스포츠제전 등 총 11개 축제 시행
- 해양 레저·관광 발전을 위한 충분한 여건은 조성되어 있으므로, 소프트웨어 사업을 통한 볼거리·먹거리·즐길거리 강화 필요
- 보령시는 충남에서 유인도서 가장 많고, 도서(섬)와 관련된 다양한 스토리텔링 보유
- 발전가능성이 높은 도서(섬)의 자원을 발굴하여 충남 해양관광의 중심으로 육성
- 어촌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한 어촌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활력 증진

■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견인하는 「Innovating 해양산업 및 항만」

- 산업기반은 충남 북부권(아산, 당진, 서산)에 비하여 약하고, 홍성군과 비슷한 수준
- 주로 농업, 수산업 등 1차 산업 중심이고, 사회적경제 기반 취약
- 농업, 수산업과 연계된 해양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산업 기반 창출 필요
-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해 있어 보령항은 에너지 특화항만으로 기능 수행

- 오천면 일대의 보령신항은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포함되어 다목적항으로서 개발 기대
- 원산도, 무창포에 마리나항만을 조성하여 해양레저관광의 기반 조성 필요
- 서해안의 관문으로 물류, 관광이 어우러지는 다목적항으로서의 항만정책 필요

■ 지역의 역량을 결집하여 해양건도를 선도할 「Leading 지역역량」

- 충남 유일의 해양고등학교 소재지로서 미래 해양 전문인력 양성 가능
- 현재 충남도에서 추진 중인 KIOST 서해분원, 국립해양수산대학 등 유치를 통한 충남 해양수산 교육의 중심 市로서의 위상 강화
- 충남 최대 유인도를 보유한 지역으로서 도서(섬)의 가치재창출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 지역 해양수산관련 민·관 거버넌스 강화를 통한 자치행정의 선도적 역할 수행 기대
- 전통 해양(어업)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보전, 기록으로 지역자산화 추진

2) 방법론적 측면

■ 무한한 자원으로서의 「해양의 가치에 주목」

- 해양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이를 산업화로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 농후
- 해양의 바람, 조력, 생물, 도서(섬) 등 해양의 자원은 무궁무진하고 영구적임
- 보령시의 해양의 가치에 주목하고, 이를 보전하면서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지역의 먹거리를 창출하는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

- 해양바이오, 해양레포츠, 수산산업 등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수산산업에 대한 국가적 관심 높음
- 단지화 및 집적화를 통한 해양산업의 효율성 제고 및 규모의 경제 실현
- 보령신항 개발,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 등 기초 인프라 확보를 위한 여건 조성
- 보령시의 풍부한 해양자원을 활용하여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 필요

■ 환경, 항만, 관광, 산업 등 다양한 영역이 공존하는 「융·복합 산업 지향」

- 지역 환경을 보전하면서 항만, 관광, 산업 등 각 분야가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체계적인 해양항만 정책 수립
- 지역의 전통 수산업에 2차, 3차 산업과의 결합을 통한 수산업 6차산업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
-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관광, 서비스 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이를 위한 항만, 교통 등의 기초 인프라 구축 필요

■ 지역주민에게 골고루 이익이 돌아가는 「상생 네트워크 구축」

- 해양 및 바다 자원을 이용하여 지역 주민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정책 수립
- 해양항만 정책을 지역 주민과 같이 고민하고, 주민과 함께 정책방향 및 로드맵을 설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 기능 확대
- 해양항만산업 육성을 통하여 지역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상생발전 모델 지향

2. 비전 및 목표

1) 기본방향

■ 충남의 해양항만 정책의 허브로서 보령시의 위상 정립

- 충남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해수욕장과 세계적인 명품 축제를 보유한 보령의 위상 정립
- 레저·관광, 수산업, 항만·물류 등 다양한 해양관련 산업이 공존하는 보령만의 가치 재창출
- 지리적으로 충남 서해안의 중심부로서 충남 해양항만 정책의 중추적 역할 수행

■ 해양(자원)의 가치에 주목하여 미래세대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 강화

- 보령의 특징적 자원인 도세(섬), 머드, 갯벌, 사구 등 지역 자원에 대한 가치 재조명으로 이를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 제시

- 개발보다 보전·가치에 무게 축을 두고 지역 해양자원을 미래세대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수립
- 보령뿐만 아니라 충남도, 인근 시·군과 해양환경 보존을 위하여 함께 노력해야 하는 정책 방안 제시

■ 지역의 해양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해양신산업의 기반 조성

- 미래 지역 먹거리로서의 해양산업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실천적인 발전 방안 제시
- 보령시의 해양자원, 수산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레저·관광, 산업·경제, 항만·물류 정책의 방향성 제시
- 해양환경, 레저·관광, 해양산업, 항만·물류 등 각 분야가 이질적이지 않고 상호 연계되고 융·복합될 수 있는 기반 조성

■ 해양항만 정책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우선하는 정책 설정

- 지역 주민의 삶의 터전인 바다에서 정책수요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정책 수립
- 주민의 갈등을 뛰어넘어 모두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는 정책 수립 지향
- 민·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지역 해양항만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지역 거버넌스 체계 구축

2) 비전 및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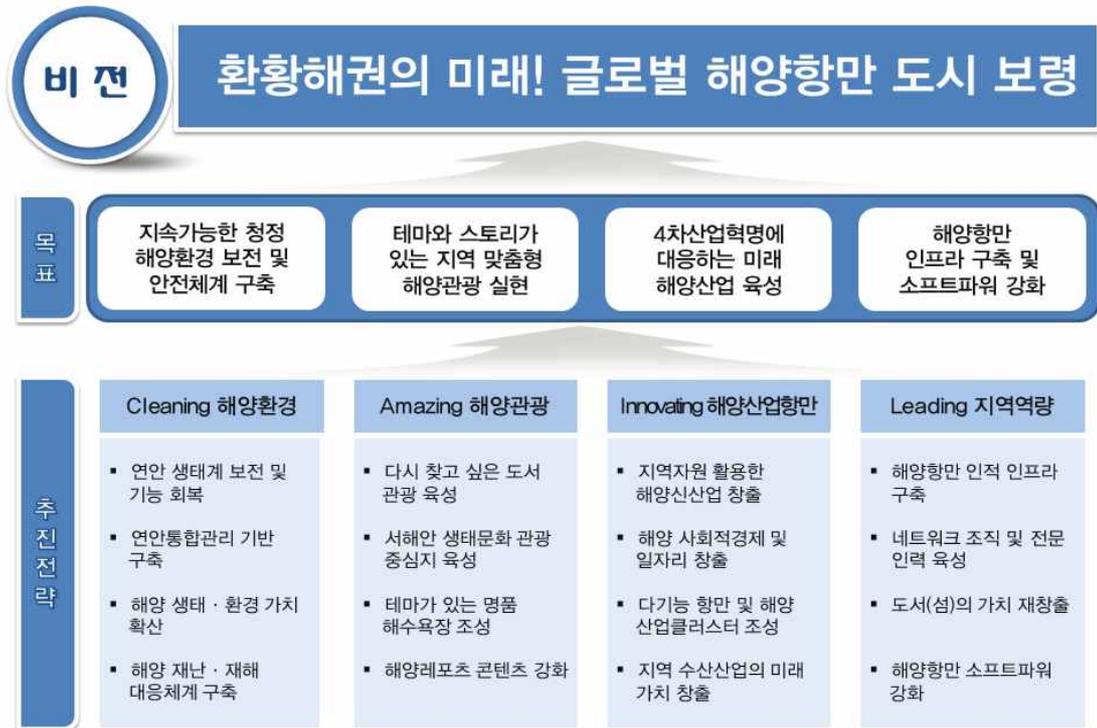
■ 비 전 : 환황해권의 미래! 글로벌 해양항만 도시 보령

- 환황해권은 우리나라 서해안과 맞닿은 중국 산둥성 일대, 그리고 일본 규슈까지 공간적 범위로 규정
- 보령은 우리나라 서해안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 지리적으로 환황해권의 거점 역할 수행 가능
-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동남아로 진출하기 위한 해양관광, 해양산업, 항만산업의 메카로서의 위상 정립
- 그동안 강점이었던 해양관광뿐만 아니라 해양환경, 해양산업, 항만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받는 글로벌 해양도시 지향

- 환황해권의 미래를 책임질 최고의 해양도시로서 4차산업혁명과 해양산업이 결합된 미래 지향적인 해양도시

■ 목 표

- Cleaning 해양환경 : 지속가능한 청정 해양환경 보전 및 안전체계 구축
 - 서해안의 대표적인 청정해역의 이미지 및 안전이 담보된 보령시의 위상 강화
 - 보령시 신항만 개발, 해양관광산업 활성화 등과 연계한 환경 친화적인 도시개발 정책 수행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해양환경의 건강성 보전 담보
 - 보령시 연안의 해양재난 및 안전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지역 어업인 및 주민이 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 해안의 안전을 확보하여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안전한 해양 관광지로 위상 확립
 - 서해안의 대표적인 청정해역 이미지 및 안전이 담보된 보령시의 위상 강화
- Amazing 해양관광 : 테마와 스토리가 있는 지역 맞춤형 해양관광 실현
 - 천편일률적인 관광이 아닌 테마와 스토리로 관광객의 재미와 즐거움 극대화
 - 보령에 있는 도서(섬), 습지(갯벌) 해수욕장 등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
 - 서해안 최대 해수욕장인 대천과 무창포 해수욕장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
 - 보령의 해양문화, 어촌문화와 어울릴 수 있는 스토리를 발굴하여 콘텐츠 강화
 - 해양 레저스포츠 관련 산업의 기반 조성으로 미래 해양관광의 먹거리 개발
- Innovating 해양산업 및 항만 :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미래 해양산업 육성
 - 지역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해양신산업을 육성하여 미래 먹거리 발굴
 - 양질의 해양항만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 보령신항의 다기능·복합화, 친수공간의 마리나항만 건설로 다목적 항만산업 육성
 - 보령신항 배후에 해양산업클러스터 조성으로 지역의 미래 먹거리 창출
 - 전통 수산업이 아닌 미래지향형 수산산업 육성으로 지역 수산업의 활력 제고
- Leading 지역역량 : 해양항만의 인프라 구축 및 소프트파워 강화
 - 해양항만 전문기관 유치 및 전문인력 육성으로 미래 해양도시로의 기반 조성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관광복지를 실현하고, 도서 주민의 삶의 질 개선
 - 주력 산업인 해양관광의 컨트롤타워를 운영하여, 관련 산업의 인재 육성
 - 지역의 도서(섬)의 가치를 재창출, 전통 해양(어업)문화의 보전·기록
 - 지역 해양항만 정책의 상향식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민·관 거버넌스 구축



[그림 1-4-1] 보령시 해양항만 발전 비전도

3. 추진전략

1) Cleaning 해양환경

■ 연안생태계 보전 및 기능 회복

- 연안 생태계 서식지 복원을 바탕으로 해양생태·환경의 건강성 증진
- 해양생태·환경의 근간이 되는 갯벌 및 하구의 해양생물 서식환경 회복을 통해 생태 환경 보전의 기반 조성
- 대천천 하구의 해양보호구역 추진으로 지역의 연안생태계 보전 및 기능 관리
- 보령시 주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사후 모니터링으로 충실한 해양환경 복원 사례 도출

■ 연안통합관리 기반 구축

- 보령시 연안의 다양한 부분을 개별요소 관리가 아닌 공간적 통합관리를 통하여 연안 관리정책의 일원화 및 효율성 도모

- 지역 연안침식, 해수욕장 모래유실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속적인 연안환경 대응체계 구축
-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연안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해양환경 가치 인식 제고

■ 해양 생태·환경 가치 확산

- 지역 해양환경을 훼손하는 요인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시민이 지역 해양자원의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령시 해양자원 보존의 토대 마련
- 화력발전소 온배수 문제, 공군사격장 등 지역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실질적인 해양 생태·환경 보호방안 마련
-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적인 해양환경 교육으로 지역 해양환경에 대한 범시민적 공감대 형성

■ 해양 재해·재난 대응체계 구축

- 보령시 연안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재난·사고에 대하여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을 통하여 안정적인 재난관리 및 사고방지
- 어선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 어업인 및 관광객의 안전한 조업·여가 환경 조성 및 위급상황 대응체계 구축
- 해양환경관리공단 보령지사 유치를 통하여 해양사고의 선제적·능동적 대응체계 구축
- 해양 재해·재난·사고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체험을 통하여 위급상황 발생 시 능동적·자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 강화

2) Amazing 해양관광

■ 다시 찾고 싶은 도서관광 육성

- 보령의 7개 유인도서를 이어 도서의 다채로운 자연환경, 해양문화 체험이 가능한 세븐아일랜드 사업 추진
- 우리나라 최초 성경전래지로서 고대도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해양문화관광지로서의 기능 부여

- 우리나라 전통 효스토리가 있는 효자도를 재평가하여 도서 인성마을로 개발하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어촌민속마을로서의 위상 정립
- 섬 주민과 함께 문학, 미술, 무용 등 문화와 예술이 넘쳐나는 도서(섬)를 육성하고, 나아가 예술인들이 직접 작업하면 거주할 수 있는 공간 조성
- 보령의 깨끗한 수산물을 바탕으로 바다낚시공원을 자체적으로 지정하여 수산자원 관리 및 낚시객의 편의 제공

■ 서해안 생태·문화 관광 중심지 육성

- 천수만 보령호의 환경 및 수질개선 등을 통하여 지역 자원과 조화되는 생태관광 추진
- 보령의 아름다운 리아스식 해안선 및 경관을 강조하고, 이를 지역주민 및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해안선 탐방코스 개발
- 전통 어촌의 가치를 지키고, 이를 보전·활용하기 위한 어촌민속마을 조성
- 대천천 하구갯벌, 주교갯벌 등 보령의 갯벌에 대한 도립공원 지정
- 충남의 백제문화권과 보령의 해양생태·환경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바다여행 개발

■ 테마가 있는 명품 해수욕장 조성

- 대천해수욕장 관광객이 현금 없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함으로 제공하는 스마트비치 조성
- 숙박업소와 식당이 즐비한 대천해수욕장에 대한 배후단지 정비를 통하여 해변의 낭만이 넘쳐나는 핫 플레이스로 전환
- 무창포 해수욕장이 갖고 있는 생태자원으로 활용하여 볼거리, 즐길거리, 느낄거리, 먹거리 등 특색이 있는 가족중심 명품 해수욕장 조성
- 겨울철에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해변문화축제 운영으로 단순한 여름철 해수욕에서 벗어나 사계절 볼거리, 즐길거리가 넘쳐나는 테마공간 조성
- 관광객에게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대천만 포차단지 조성으로 관광객에게 먹거리와 추억거리 제공

■ 해양레포츠 콘텐츠 강화

- 최근 젊은 층에게 새로운 여행문화로 급부상 중인 요트웨어, 요트스테이 단지 조성
- 요트경기장, 市 소속 요트팀이 있는 보령시의 특성을 살려 동북아 국제 요트대회 개최
- 최근 젊은 층에서 인기가 좋은 서핑 해변 조성으로 해양관광 수요 발굴·충족
- 요트와 서핑, 바다수영, 스킨스쿠버 등 해양스포츠와 관련된 전문기술을 교육할 수 있는 아카데미 설립·운영

3) Innovating 해양산업 및 항만

■ 지역자원을 활용한 해양신산업 창출

- 보령의 청정 치유자원을 활용하여 해양헬스케어 비즈니스 모델 구축
- 다양한 고부가가치의 창출을 위한 해양바이오 기능성 소재산업 육성
- 화력발전소의 폐열의 활용을 통한 해양바이오연료 생산단지 조성
- 보령 갯벌, 질피 등을 탄소흡수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블루카본 시범단지 조성

■ 해양 사회적경제 및 일자리 창출

- 해양수산업의 건강한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육성
- 전통 수산업과 2차(가공), 3차(서비스·유통) 산업 간의 융·복합화로 주민소득 증대
- 어촌마을기업 육성을 통한 어촌마을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해양수산 창업·직업·진로 체험관 건립을 통하여 해양수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 유도
- 해양수산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통하여 지역 해양항만산업의 발전기반 강화
- 해양 MICE산업을 통하여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 창출

■ 다기능항만 및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

- 보령신항의 다기능 복합항만 및 마리나항만,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글로벌 해양산업도시 위상 제고
- 다목적 보령신항, 마리나항 건설로 지역 해양관광, 해양레포츠 산업의 토대 마련
- 서비스형 마리나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하여 지역 해양관광 인프라 및 시너지 창출

- 해양 레저보트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해양관광산업의 저변 및 기반 구축

■ 지역 수산산업의 미래가치 창출

- 수산식품 수출가공 클러스터 조성으로 서해안권 최대의 수산산업 지역으로 육성
- 새로운 기능을 부여한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고도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 수산종자·수산기자재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수산업의 후방산업 강화
- 전통 수산업과 ICT, IoT 기술과의 접목으로 스마트팜 등 최근 양식기술 확보

4) Leading 지역역량

■ 해양항만 인적 인프라 구축

- 국립해양수산대학, KIOST 서해분원, 보령지방해양수산청 등 유치를 통하여 지역 해양항만 역량 강화
- 지역의 해양관광자원을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장애인, 노약자,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계층을 위한 시설 및 사업 추진
- 도서 연안여행객향로 지원 강화를 통한 도서주민의 삶의 질 개선 및 도서관광 활성화

■ 네트워크 조직 및 전문인력 육성

- 해수욕장, 어촌체험마을, 해양축제 등의 해양관광자원의 마케팅 강화를 위한 해양관광 네트워크조직 육성
- 미래 관광수요가 예측되는 해양레포츠, 크루즈·마리나산업의 전문인력 육성
- 지역의 해양항만 정책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과 지역역량 결집을 위한 보령 해양비전위원회 설립·운영

■ 도서(섬)의 가치 재창출

- 제4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계획('18년 ~ '27년)에 선제적 대응기반 마련
- 지역 도서(섬)의 특색을 살려 도서별 가치창출을 통한 주민소득 향상 기여
- 원산도↔효자도 간 명품 브릿지 조성으로 효자도의 개발여건 강화

■ 해양항만 소프트파워 강화

- 보령의 전통 어업자원이 세계화를 위한 FAO 세계중요어업유산 등재 추진
- 지역의 전통 해양(어업)문화의 보전·기록을 위한 아카이브 사업 추진
- 보령 머드의 세계화를 위한 2022 보령머드엑스포 추진

4. 공간계획

■ 해양거점공간

- 보령시 해양항만정책의 집결지로서 해양문화, 해양축제, 해양교육의 중심지
- 대천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인근상권과 협력하여 역사와 문화, 낭만이 있는 콘텐츠가 강한 해변문화특구로 발돋움
- 대천항을 중심으로 수산식품 수출가공 클러스터, 수산종자수산기자재 산업을 육성하여 수산업의 전후방산업 중심의 수산산업 거점공간 조성

■ 해양산업공간

- 크루즈·마리나, 해양MICE, 해양레포츠 중심의 서해안 해양산업의 거점공간
- 보령신항 및 항만배후단지를 중심으로 서비스형 마리나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해양 MICE 산업지구, 해양수산 벤처타운, 해양레포츠 전문단지, 크루즈 및 마리나 산업 교육기관을 조성 및 유치하여 미래 해양산업의 서해안 거점공간으로 육성

■ 해양테마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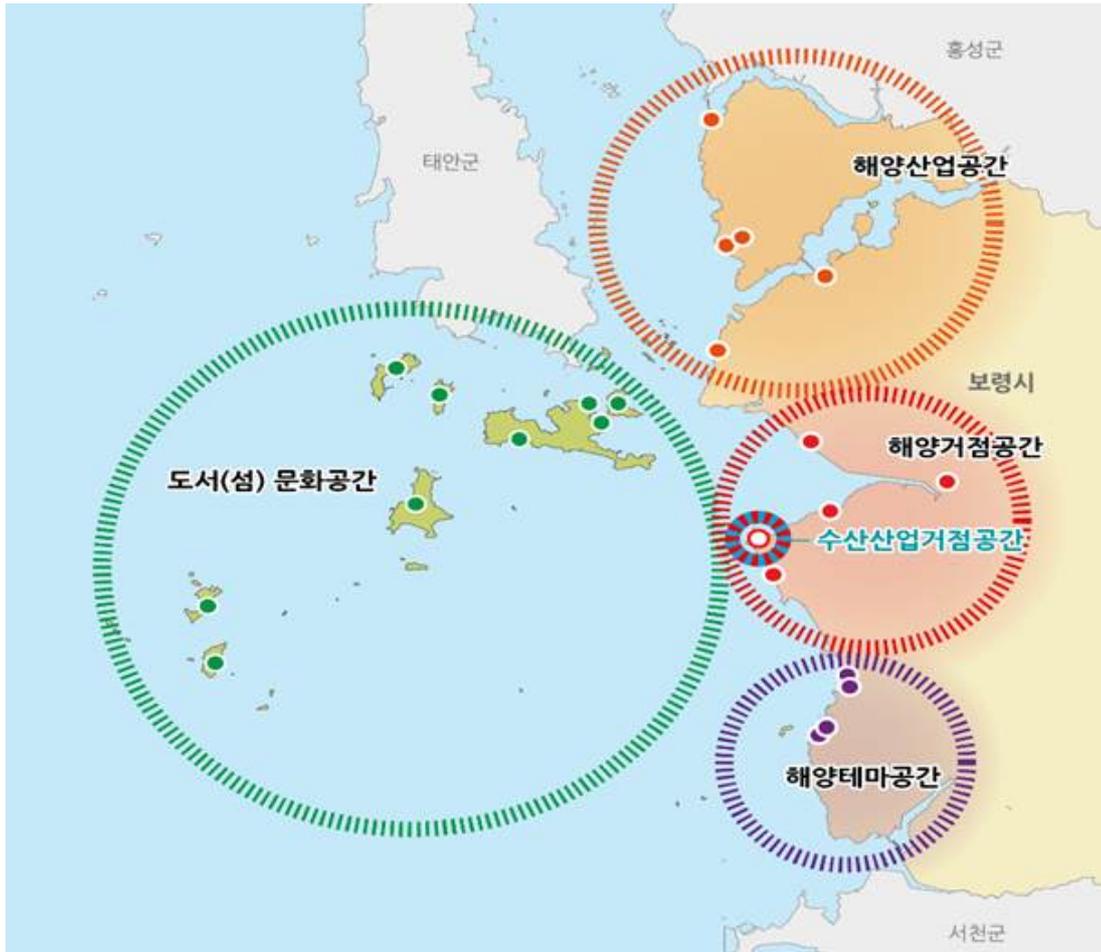
- 가족단위 해양관광체험, 해양레포츠 교육 등 체험과 교육이 가능한 콘텐츠 중심의 테마공간
- 무창포 해수욕장 중심의 가족단위 해양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요트경기장 인근에 해양레포츠 교육시설, 용두해수욕장에 서핑 지원시설을 설치하여 해양체험과 레포츠가 어우러질 수 있는 테마공간으로 조성

■ 도서(섬)문화공간

- 보령의 도서별 역사문화의 특성을 살린 콘텐츠가 있는 이색 문화공간 조성

보령시 해양항만 발전 기본계획

- 국내 최초 성경전래지인 고대도, 효자이야기가 있는 효자도, 화살촉 모양의 삼시도 등 각 도서의 특성을 살린 도서개발을 통하여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도서 테마공간으로 육성



[그림 1-4-2] 보령시 해양항만 공간계획도

[표 1-4-1] 추진전략 및 세부사업 (1)

부문명	추진전략	세부사업
Cleaning 해양환경	연안 생태계 보전 및 기능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령호 하굿둑 구조개선을 통한 연안수질 개선 대천천 하구갯벌의 해양보호구역 지정 추진 잘피 이식을 통한 연안 수중생태계 복원
	연안통합관리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연안침식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대천해수욕장 모래유실방지 대응사업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연안환경 조성
	해양 생태·환경 가치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름다운 보령 해안선 만들기 주민과 함께하는 해양쓰레기 개선사업 지역 해양환경 관여요인 조사 시민이 참여하는 해양환경학교 운영
	해양 재난·재해 대응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양 재난·사고 대응 컨트롤타워 구축 해양환경관리공단 보령지사 유치 어린이·청소년 해양안전체험 교실 운영 국립해양안전체험관 설립
Amazing 해양관광	다시 찾고 싶은 도서관광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산도 중심의 세븐아일랜드 개발 고대도 해양문화관광지 조성 효자도 전통孝인성마을(학교) 조성 예술과 활력이 넘치는 아트헬스아일랜드 조성 도서(섬) 바다낚시공원 조성
	서해안 생태문화 관광 중심지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천수만 보령호 생태관광 개발 보령 해안선 생태탐방코스 개발 전통 어업유산을 활용한 어촌민속마을 조성 보령 갯벌 도립공원 지정 추진 백제문화권과 함께하는 보령 바다여행 개발
	테마가 있는 명품 해수욕장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천해수욕장 스마트비치 조성 대천해수욕장 추억과 낭만의 거리 조성 가족중심 명품 무창포 해수욕장 조성 가을바다와 함께 하는 해변문학축제 개최 주민과 함께 하는 대천포차타운 조성
	해양레포츠 콘텐츠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아시아 국제요트대회 개최 요트스테이·요트투어 단지 조성 서핑 전용 해변단지 조성 및 지원센터 운영 국제 해양레포츠 아카데미 설립·운영

[표 1-4-2] 추진전략 및 세부사업 (2)

부문명	추진전략	세부사업
Innovating 해양산업항만	지역자원 활용한 해양신산업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 치유·휴양관광 헬스케어산업 육성 • 해양바이오 기능성 소재산업 육성 • 블루카본 시범단지 조성 • 미세조류 바이오연료 대량생산기반 조성
	해양 사회적경제 및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수산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육성 • 해양수산 창업·직업·진로 체험관 설립 • 해양수산 중소벤처기업 육성 • 해양 MICE산업으로 일자리 창출
	다가능항만 및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령신항 다기능 복합항만 조성 • 원산도·무창포 복합 마리나항 건설 • 서비스형 마리나산업 클러스터 조성 • 해양 레저보트 산업단지 조성
	지역 수산산업의 미래가치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식품 수출가공클러스터 조성 •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고도화 추진 • 수산종자·수산기자재산업단지 조성 • GIS Web 기반 해삼 스마트 팜 조성
Leading 지역역량	해양항만 인적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인프라 관련 전문기관 유치 • 보령형 해양관광복지 구현 • 도서 연안여객항로 지원
	네트워크 조직 및 전문인력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관광 네트워크조직 육성 • 크루즈·마리나산업 전문인력 육성 • 보령 해양비전위원회 설립·운영
	도서(섬)의 가치 재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의 미래! 도서종합개발 10개년계획 추진 • 특색있는 도서별 가치창출 • 원산도·효자도 명품 브릿지 조성
	해양항만 소프트파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AO 세계중요어업유산 등재 • 전통 해양문화 아카이브 사업 추진 • 2022 보령머드엑스포 유치

2장

부문별 계획

1절 Cleaning 해양환경

2절 Amazing 해양관광

3절 Innovating 해양산업 및 항만

4절 Leading 지역역량

1절 Cleaning 해양환경

1. 현황분석 및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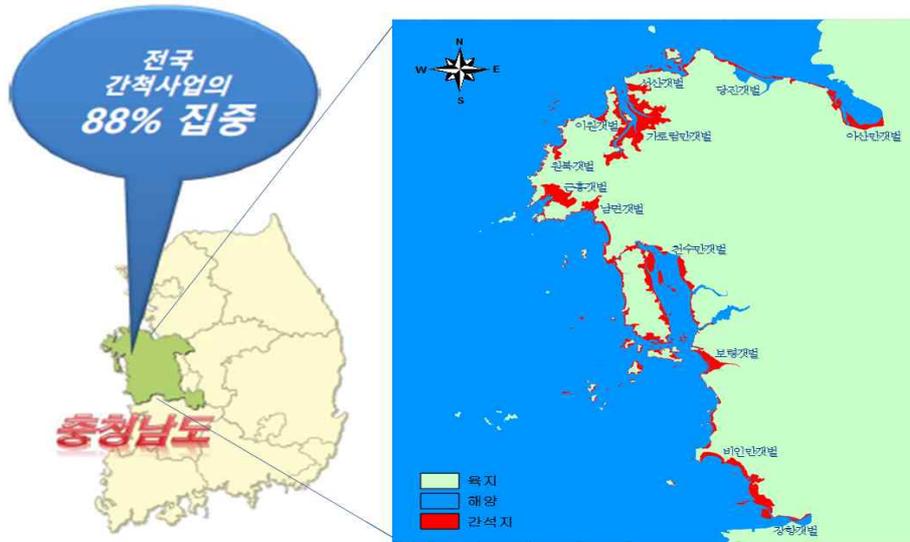
1) 현황 및 문제점

■ 해양환경 개발압력 증가로 인한 보전·개발 간 이해 상충 발생

- 경제성장의 지속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높은 수준의 생활환경 여건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여 청정하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국민적 요구의 지속적 대두
- 반면, 지방정부의 자치행정 강화 여건과 함께 도시 개발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여 환경적인 요인보다는 성장·개발 위주의 사업추진이 우선시 될 우려
- 개발과 환경문제 해결이 상충되고, 이에 따른 지역갈등과 님비현상 등 개발과 보전 간에 지자체간의 갈등 심화
 - 태안-보령, 홍성-보령, 보령-서천 간 연안을 둘러싼 갈등 지속

■ 대형 국책사업 추진 예정으로 인한 지역 갈등 발생 우려

- 보령 신항만 개발계획 추진과 함께 공유수면 매립, 입지 선정 등 지역 간 갈등 발생 우려 상존
- 갯벌매립사업 추진으로 인한 갯벌면적 감소
 - 보령시 갯벌 2003년 44.5km² ⇒ 2013년 33.1km²로 면적 감소
- 체계적인 연안공간계획 수립을 통하여 보전과 개발이 공존하는 친환경 스마트 항만 개발, 해양관광산업 활성화 정책 추진으로 지역의 사회적 편익 극대화 방안 필요



[그림 2-1-1] 충청남도 간척지 현황

자료 : 충청남도(2016), 충청남도 해양생태환경 및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 각종 해상사고, 육상기인 오염원에 의한 해양환경 훼손

- 보령해역의 해수 수질은 COD 기준으로 5년 평균 II등급에 준하는 수준으로 유지
- 보령해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폐쇄성 해역 천수만을 중심으로 물 순환 차단과 육상으로부터의 오염물질 지속 유입으로 인한 부영양화로 수질악화의 근본적 원인 자가 상존
- 충청남도 하구호 수질조사 결과, 지속적으로 악화 수준이고, 특히 홍성호, 보령호 등 하구둑 내측의 오염된 담수(호소 수질기준 5~6등급)의 비정기적 방류로 인한 해역에 미치는 악영향은 해양생태계 파괴의 주요 원인
 - 홍성호 내측: COD 10.12mg/l, 보령호 내측 : COD 9.87mg/l (4등급 기준 8.0 초과)

[표 2-1-1] 충청남도 연안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단위 : mg/l)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증감률 (%)
전국	1.00	1.02	1.07	1.13	1.12	-0.9
보령연안	1.26	1.68	1.43	1.24	1.40	12.9
태안연안	1.33	1.17	1.29	1.18	1.12	-5.1
가로림만	1.12	1.34	1.08	1.00	1.17	17.0
대산연안	1.13	1.43	1.07	1.27	1.09	-14.2
아산연안	1.36	1.64	1.55	1.16	1.30	12.1
천수만	1.64	1.75	1.60	1.70	1.37	-19.4

자료 : 해양수산부(2015), 해양수산통계시스템 해수수질실태보고



연안 및 하구 생태환경 악화

수산자원 감소

[생물다양성 및 수산자원 감소]



[그림 2-1-2] 하굿둑 단절로 인한 하구생태계 악화

자료 : 충청남도(2016), 충청남도 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 방안 연구용역



[그림 2-1-3] 보령 인근 해역 주요 방조제

주 : (좌) 보령호, (우) 홍성호

자료 : 충청남도(2016), 충청남도 해양생태환경 및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 기후변화(지구온난화)에 따른 다양한 해양환경 변화 초래

-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및 이상기후 발생 가능성이 증대하고, 이에 따른 연안 침식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사구포락, 해변후퇴 등)
 - 국토해양부(2012)에 따르면 서해안의 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약 1.36mm/년 정도이며, 기상청(2012) 예측자료에서는 2008년 대비 2050년에 약 9.5cm, 2100년에는 약 20.9cm 가량 해수면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연안침식 기본 모니터링 대상지역 중 보령시 관할지역 중에서 2016년 침식등급 평가결과 대천, 무창포는 침식등급이 B(보통)등급, 학성 및 장고도는 C(우려)등급으로 나타나 침식우심 지역에 대한 관리가 시급

[표 2-1-2] 연안침식 평가 결과 (보령지역)

번호	지역명	평가 결과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	보령시 학성	-	-	-	C	C	C	C	B	B	C
2	보령시 대천	B	B	B	B	B	C	C	B	B	B
3	보령시 무창포	C	C	C	C	C	C	C	B	B	B
4	보령시 장고도	-	-	-	-	-	-	-	-	B	C

주 : A등급 양호, B등급 보통, C등급 우려, D등급 심각
 자료 : 해양수산부, 2016년 연안침식 실태조사

■ 보령 화력발전소에 의한 해역환경 영향 등 지역적이고 집약적인 관리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

- 보령시에는 오천면에 보령화력발전소(중부발전)가 위치하고 있으며, 석탄화력 500 MW × 8기, LNG 복합화력 1,350 MW로 충청남도 내 발전소 중 발전용량이 가장 큼
 - 신보령 1, 2호기(1,000 MW × 2기)가 2017년에 준공 예정
- 온배수 배출로 인한 백화현상 등 지역어민의 피해 호소 및 대책마련 요구 심화
 - 충남의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발전 온배수는 연간 113.8억 톤에 이르며, 그 중 보령화력과 복합화력이 위치한 보령지역에서 연간 46.4억 톤의 발전 온배수가 유출 (2012년 기준)
 - 1,000MW 급의 발전소 1기에서 냉각수로 사용하는 해수의 양은 초당 약 50~60 톤에 달함
 - 보령시에 입지한 화력발전소는 원자력발전소를 제외한 발전소 당 발전온배수 배출량이 전국 1위 수준(2012년 기준)

■ 지자체의 단기성장 중심의 개발 정책추진 및 협의·조정 권한의 한계에 따른 지역 통합관리체제 기반 취약

- 시·군 지자체 연안관리 담당자의 연안 현안 해결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 방안 미흡으로 협의·조정을 위한 행정적 지원체계 한계
- 연안관리지역계획이 5년 단위로 수립되고 있으나 본래 취지인 연안개발·보전 간의 조화·균형이 아닌 연안 개발의 근거자료로 활용되며, 연안보전 정책 추진을 위한 구속력 부족으로 계획의 추진 한계

2) 여건분석 및 진단

■ 해양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에 따라 기존 개발 위주에서 보전·복원 중심으로 해역이용의 패러다임 변화

- 해양환경의 지속 보전, 관리, 복원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대되고, 친수공간 확보를 통한 연관산업(관광, 수산 등) 발전 가능
- 해양환경의 보전·복원을 통한 가치평가가 재조명되고 있고 이에 따른 다양한 해양환경 개선 및 해양생태복원을 위한 국가사업 추진
- 보령지역의 대표 갯벌인 대천천 하구갯벌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 추진하여, 생태적 자원의 가치를 지속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확보 필요
 - 충남도내 해양보호구역 지정 공백 지점인 보령 해역에 해양보호구역 추가 지정 필요

■ 지역의 갯벌보호를 위한 중장기 보호·관리 정책 수립 및 친환경적 이용 기반 조성 필요

- 보령시에서는 지속적인 소규모 공유수면 매립을 통한 간척지의 확장으로 인한 갯벌의 면적 감소 중
- 갯벌의 단위면적당(km² 당) 생태적 가치는 990,000 US\$로 추정되며, 이는 농경지 가치 9,200 US\$의 약 100 여 배, 숲의 약 10 배에 해당
- 해양수산부(2013) 발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갯벌의 연간 경제적 가치는 약 16조 원, 단위 면적당(km² 당) 연간 가치는 63.5억 원에 달함
- 이 중 충남도 보유 갯벌(357.0km²)의 연간 경제적 가치는 연간 2조 2,676억, 보령시 보유 갯벌(33.1km²)은 약 2,1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 해양 신산업에 따른 환경적 영향 및 사회적 갈등 발생 가능

- 해양에너지 산업은 육상자원 고갈 및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파력, 조력, 해상풍력, 온도차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수단으로 주목
 - 그러나 해상구조물 및 해상 발전 시설물 설치·운영에 따른 해양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환경적 영향에 대한 객관적 규명 필요 (각종 민원 및 갈등 유발)
- 보령시는 석탄화력의 연료탄 수입 목적의 보령항 이외에 신보령항 유치 정책 추진 중이나, 이는 지역의 대기환경의 오염원이 될 수도 있음

- 대형 국책사업인 만큼 친환경적인 항만 공간계획 및 다기능 항만 배후단지의 조성
을 통한 지역 발전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기본계획 수립 필요

■ 중앙 정부 및 광역·기초 지자체의 연안관리 체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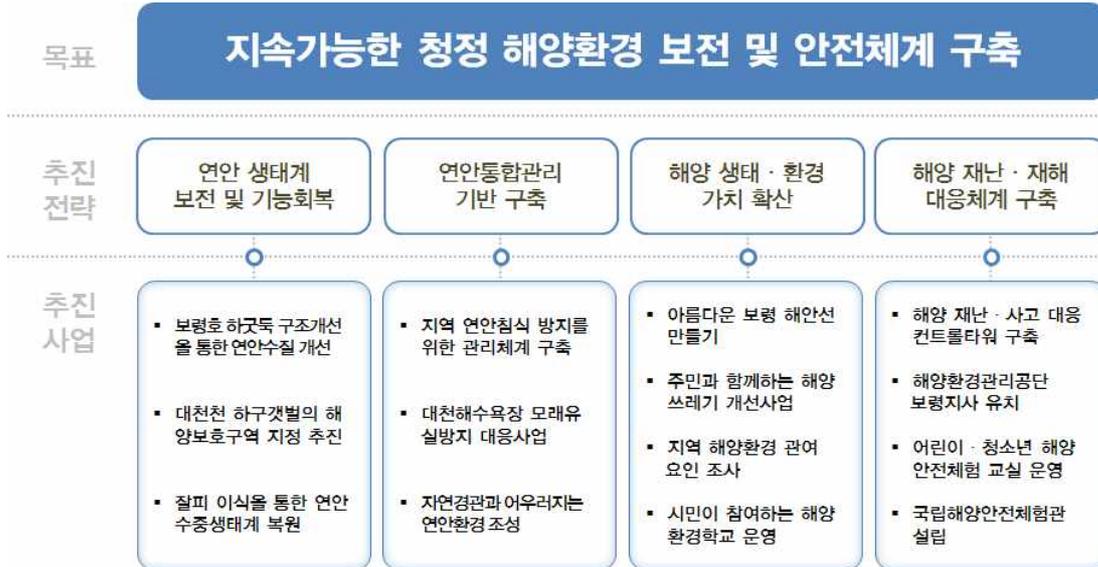
- 제1차 연안통합관리계획에서 67개 지자체가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하였고, 38개
지자체에서 연안관리 조례 제정
 - 보령시는 2016년 6월 제2차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고시
- 연안정비계획,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등 연안관리정책을 수립에 있어서 지역 관계
자 심의 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 및 정책지원 시스템 강화 추세
 - 연안 및 해안 관리목표제, 연안용도 해역제 등 신 연안관리제도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자연해안 실태조사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중앙부처-도-시·군 지자체간의
연계 강화 중요

2. 기본방향 및 목표

1) 기본방향

- 지속가능한 해양환경의 건강성 보전·관리를 통하여 서해안 해양환경 보전의
중심적 역할 수행
- 깨끗하고 건강한 해양 생태·환경을 유지하여 서해안의 대표 청정해역의
이미지 강화
- 현 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청정 해역으로의 가치 및 이미지
조성
- 청정한 해양환경을 바탕으로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지역
산업 육성

2) 목표 및 추진전략



(1) 목 표

■ 지속가능한 청정 해양환경 보전 및 안전체계 구축

- 충남 서해안의 중심에 위치한 보령 연안은 아름다운 해변 및 사구를 주요 자원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깨끗하게 보전된 수질환경 및 갯벌의 건강성이 큰 자산
- 보령 신항만 개발, 해양관광산업 활성화 등과 연계한 환경 친화적인 도시개발 정책 수행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해양환경의 건강성 보전 담보
- 보령 연안의 해양재난 및 안전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지역 어업인 및 주민이 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 서해안의 대표적인 청정해역의 이미지 및 안전이 담보된 보령시의 위상 강화

(2) 추진전략

■ 연안생태계 보전 및 기능회복

-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이상 현상(해수면 상승, 이상고파·해일피해 증가, 태풍 강도 증가 등)에 따라 연안침식이 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적으로 연안의 복원성 회복에 한계 봉착

- 연안 생태계 서식지 복원을 바탕으로 해양생태·환경의 건강성 증진
- 해양 생태·환경의 근간이 되는 갯벌 및 하구역의 해양생물 서식환경 회복을 통해 환경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친환경적 환경 조성 및 사회적 편익 증대
- 보령 주도의 실효적인 사업추진을 통하여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사후 모니터링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양환경 복원 사례 도출

■ 연안통합관리 기반 구축

- 연안의 다양한 부분을 개별요소 관리가 아닌 공간적 통합관리를 통하여 해역 관리 정책의 일원화 및 효율성 도모
- 보령 습지(갯벌)의 해양보호구역 추진 등을 통한 지역 연안환경 관리의 역량 강화
- 지역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연안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이 해양 생태·환경의 가치를 인식하는 계기 마련

■ 해양 생태·환경 가치 확산

- 지역 해양환경을 훼손하는 요인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시민이 지역 해양자원의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령시 해양자원 보존의 토대 마련
- 지역의 주요 환경 이슈인 화력발전소 온배수 문제, 공군사격장 등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안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로 실질적인 해양환경보전 정책 추진
-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적인 해양환경 교육으로 지역 해양환경에 대한 범시민적 공감대 형성

■ 해양 재해·재난 대응체계 구축

- 보령시 연안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재난·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위급상황에 주도적·능동적 대응
- 어선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 어업인 및 관광객의 안전한 조업 및 여가 환경 조성
- 해양환경관리공단 보령지사 유치를 통한 해양오염 사고의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 해양 재해·재난·사고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체험을 통하여 위급상황 발생 시 능동적·자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 강화

3. 세부사업계획

1) 연안 생태계 보전 및 기능회복

■ 보령호 하굿둑 구조개선을 통한 연안수질 개선

- 현황 및 필요성
 - 하굿둑 운영에 따른 담수호 내 수질악화, 방류 시 해양생태환경에 악영향 등 환경 피해 영향이 지속적으로 발생
 - 간척지의 농업적 수요가 감소하고, 연안환경에 대한 비시장재적 가치 증가
 - 육상에 기인하는 오염물질(축산폐수 등)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고, 해수유통이 되지 않아 환경재적 가치 상실
 - 충청도의 '충청남도 연안 및 하구생태 복원방안 연구용역(2016)' 을 통한 보령호 연안환경 복원 추진
- 관련계획 및 사업
 - 한국농어촌공사, '보령호 홍보지구(천수만) 수질개선사업'
 - 환경부,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
 - 환경부, '생태하천 복원사업'
- 사업개요
 - 추진주체 : 한국농어촌공사, 충청남도, 보령시
 - 위 치 :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보령방조제 일원
 - 분 류 : 신규
 - 사업기간 : 중기·장기 (2021~2030년)
 - 사 업 비 : 100억 원
- 사업내용
 - 하굿둑 복원에 대한 타당성이 확보된 곳을 중심으로 수문개방에 대한 기술적·환경적 영향 분석 실시
 - 지역적인 해역의 환경특성을 분석하여, 최적의 구조개선 방안을 검토(보령호 대상)
 - 친환경적인 구조개선 실시 설계 및 사업 추진
 - 어도 및 통선문 신설, 배수갑문 증설 등 구조개선 추진 (국책사업화, 중장기 추진)

- 해수유통을 통한 소성리 일대 수산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 육상에 기인하는 오염물 관리체계 수립을 통한 담수유역 수질개선 추진
 - (단기) 생태하천복원사업,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등
 - (중기) 수질오염총량제 도입 검토(하구수질 2등급 달성 목표)
 - (장기) 해수유통을 통하여 인근 연안 생태계 복원 및 수산자원 활용

〈 해수유통 사례 : 전남 장흥군 안양면 제방 〉²⁴⁾

- 전남 장흥군 안양면의 제방은 육지와 장재도를 연결하기 위하여 1960년에 건설
- 제방건설로 갯벌이 심각하게 오염되어 생태계파괴가 가속화되고, 악취가 발생하는 등 환경오염이 심각하게 진행
- 이에, 장흥군은 2007년 제방아래 해수유통을 위한 통로를 만들었고, 그로부터 2년 후 생태계가 빠르게 복원 중
- 해수유통 후, 기존에 생산되지 않았던 장뚱어, 칠게가 생산되고, 기존에 생산되었던 바지락, 꼬막, 키조개의 성장속도가 빨라지고 생산량이 증가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 발생



장흥군 안양면 제방



제방아래 해수유통

[그림 2-1-4] 장흥군 안양면 제방 해수유통

자료 : 환경스페셜(KBS), '갯벌복원, 바닷물을 허하라', 2009.9.30 방영.

24) 원자료 : 환경스페셜(KBS), '갯벌복원, 바닷물을 허하라', 2009.9.30. 방영내용 정리; 자료 : 김종화 외 (2013), 바다복원 사례조사 및 논리개발, 충남연구원

■ 대천천 하구갯벌의 해양보호구역 지정 추진

- 현황 및 필요성
 - 해양생태계법 제25조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양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
 - 동법 제36조는 시·도지사가 시·도 해양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정부는 2020년까지 해양보호구역을 국토면적의 20%까지 확대 목표
 - 국내에는 인천광역시 2009년 송도갯벌을 시·도 해양보호구역(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2014년에는 국내 19번째로 국제 람사르 습지로 지정
 - 충남도에는 가로림만, 신두리사구, 서천갯벌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태안 근소만 갯벌이 현재 해양보호구역 추가지정 진행 중에 있음
 - 보령 해역에는 국가지정 해양보호구역이 아직 없으나, 해양환경 관리의 공간적 연속성 측면에서 천수만과 서천갯벌 사이의 대천천 하구 갯벌 등이 해양보호구역이 추가 지정 타당성이 높게 나타남
 - 대천천 하구갯벌에 대한 충남도 지정 또는 보령시 지정 해양보호구역 추진을 통한 해양생태환경 관리정책을 선도하는 지자체의 이미지 제고효과 기대
- 관련계획 및 사업
 - 환경부·해양수산부, '습지보호지역 지정'
 - 환경부,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 사업개요
 - 추진주체 : 보령시
 - 위 치 : 보령시 대천천 하구 갯벌 일대
 - 분 류 : 신규
 - 사업기간 : 단기·중기 (2018~2022년)
 - 사 업 비 : 5억 원
- 사업내용
 - 도 지정 혹은 시 지정 해양보호구역(습지보호지역) 추가 지정 추진 (대천천 하구 갯벌)
 - 향후 유네스코 지정 생물 보전지역 및 국제 람사르 습지로 지정 추진
 - 보령해역 해양보호구역 추가 지정을 통한 가칭 '충청남도 해양생태 Blue Belt 체제 구축' 기대
 - 해양보호구역 주변 마을(배후지역)을 '해양생태 체험지구' 로 조성하여 생태·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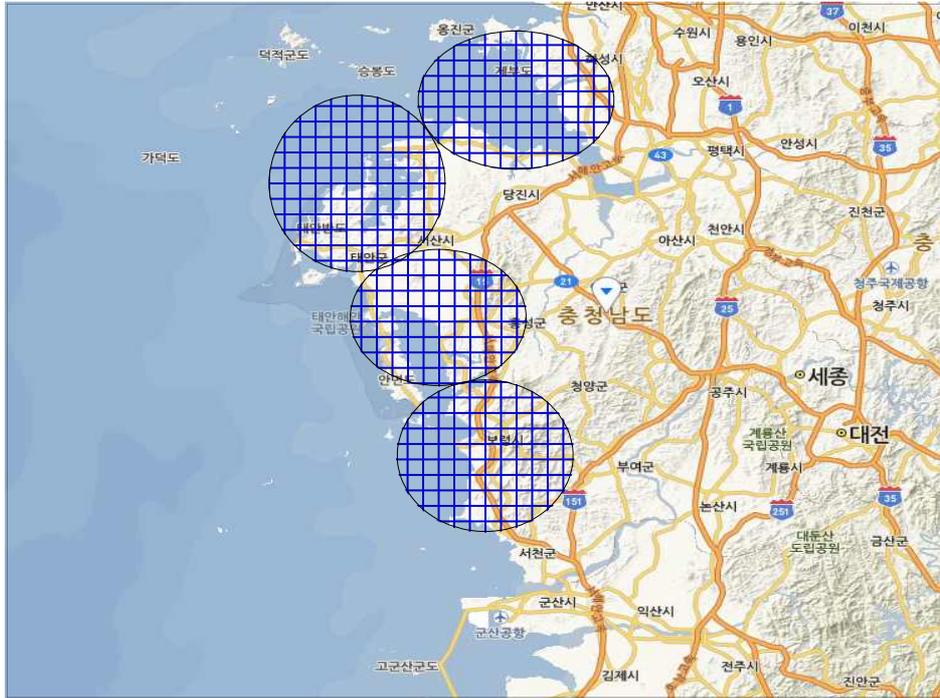
협학습 공간 및 친환경 탐방지구로 관광자원 연계 개발 유도

- 해양보호구역 유치 후 도내 해양보호구역 통합관리 센터를 보령시에 유치하여, 도내 해양보호구역 간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고 연계 운영 방안 제시
- 해양보호구역을 평가하는 각종 지표 활용을 통하여 지속적인 평가와 환류체계 구축
- 해양보호구역 지역 관리자 및 관리기관 역량 강화 프로그램 도입

■ 잘피 이식을 통한 연안 수중생태계 복원²⁵⁾

- 현황 및 필요성
 - 해조류는 연안생태계 먹이사슬의 최말단 기초생산자로서 생물종 다양성 형성, 절지의 재부유 억제, 부유물 침강, 오염물질과 영양염 제거 등의 역할 및 기능 수행
 - 최근 해조류가 급감하여 연안생태계의 먹이사슬이 교란되고 생태계가 파괴됨에 따라 잘피를 이식복원하여 생태계 재형성에 기여
 - 잘피 이식을 통하여 매립과 간척, 항만 건설, 생활하수 유입으로 부영양화된 연안의 생태환경의 개선에 기여
- 관련계획 및 사업
 - 충청남도(2017), 충남 서해안의 도전과 변화 (충남 해양수산발전 대표사업)
- 사업개요
 - 추진주체 : 보령시
 - 위 치 : 보령시 연안 일대
 - 분 류 : 계속 (※ 충남도 대표사업과 연계)
 - 사업기간 : 단기 (2018~2019년)
 - 사 업 비 : 5억 원
- 사업내용
 - 잘피 이식을 통하여 연안생태계 복원을 추진하고 생물종 다양성 및 생태환경 개선
 - 충남도의 '충남 해양수산발전 대표사업' 중의 하나로 시범사업 대상지로서 선정 건의 및 추진
 - 잘피 이식 외 해양생태계 복원이 가능한 해조류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충남도와 해수부에 건의 필요

25) '충청남도(2017), 충남 서해안의 도전과 변화(충남 해양수산발전 대표사업)' 참조



[그림 2-1-5] 잘피 이식을 통한 연안 수중생태계 복원 대상지

자료 : 충청남도(2017), 충남 서해안의 도전과 변화(충남 해양수산발전 대표사업)

2) 연안통합관리 기반 구축

■ 지역 연안침식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 현황 및 필요성
 -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상승, 이상고파·폭풍해일 내습 증가, 태풍의 강도 증가에 따라 연안침식이 지속적인 확산 우려
 - 해안친수공간 확보를 위한 연안개발 진행에 따라 해안사구로의 토사유입량 감소, 인근해역 바다모래 채취 등 인위적 요인이 해안침식의 주요 원인
 - 중장기적으로 장래의 연안 자연복원성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존 연안관리계획의 체계적인 정비 필요
 - 연안정비사업을 통한 충남도 내 연안침식 우려지역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
- 관련계획 및 사업
 - 해양수산부(2014), 제2차 연안정비 기본계획 변경계획 (2010~2019)
 - 해양수산부,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 (※ '19년도 수립 예정)

- 해양수산부, '아리미르 프로젝트' (기후변화에 따른 항만구역 내 재해취약지구 정비계획)
- 2016년 충청남도는 연안 6개 시·군에 대하여 연안침식 방지를 위하여 투자
 - 2016년 9지구(계속4, 신규5) 81억 원 투자 : 당진 2지구, 서천 2지구, 보령 1지구, 홍성 1지구, 서산 1지구, 태안 2지구
 - 2017년 8지구(계속6, 신규2) 86억 원 투자 : 당진 1지구, 서천 2지구, 보령 1지구, 홍성 1지구, 서산 1지구, 태안 2지구
- 사업개요
 - 추진주체 : 충청남도, 보령시
 - 위 치 : 보령시 관할 해안선 일대
 - 분 류 : 신규
 - 사업기간 : 단기·중기 (2018~2020년)
 - 사 업 비 : 9억 원
- 사업내용
 - 보령 해역 일대 주요 침식 우심지에 대한 원인규명 조사
 - 주요 조사 대상지역은 2016년 연안침식 기본모니터링 결과 C등급(우려) 지역인 학성지구, 장고도 및 지난 수년간 C등급(우려)을 기록했던 대천, 무창포 해변 및 기타 갯바위, 월전 등 보령 관내 해안사구 중심
 - 해변 정밀측량, 과거 해안선 항공·위성 사진, 드론 등을 활용한 침식실태 분석
 - 파랑, 조위 등 해양 조사 및 해변 단면 프로파일(모래 수지량) 조사를 통한 계절별 지형변화 분석
 - 조사·분석 자료를 근거로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 (2020~2029)' 사업지구 구역반영에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연안침식 통합대응을 위한 기반체제 구축
 - 국비확보 추진을 통한 보령시 자연해안 복원사업 순차적·상시적 진행

■ 대천해수욕장 모래유실방지 대응사업

- 현황 및 필요성
 - 현재는 대천해수욕장의 모래유실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은 아니나, 향후에는 모래유실이 심각한 상황이 될 가능성 있음
 - 태안군 만리포, 꽃지와 같이 모래유실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여 30년 이후에는 모래가 거의 없는 자갈 해수욕장이 될 가능성 높음

- 대천해수욕장은 패각성분이 다량 함유된 모래의 특성 상 양빈공법으로는 대천해수욕장의 특성을 상실시킬 우려 상존
- 이에 양빈이 아닌 인공어초 및 해조류 이식을 통한 해중림 등 조성으로 대천해수욕장의 모래유실방지 대응방안 마련
- 관련계획 및 사업
 - 충청남도(2017), 충남 서해안의 도전과 변화 (충남 해양수산발전 대표사업)
- 사업개요
 - 추진주체 : 보령시
 - 위 치 :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 분 류 : 계속 (* 충남도 대표사업과 연계)
 - 사업기간 : 단기 (2018~2025년)
 - 사 업 비 : 271억 원
- 사업내용
 - 대천해수욕장 앞바다에 인공어초 및 해조류의 이식을 통한 친환경적 단면을 갖는 모래유실 방지구조물(잠제) 설치
 - 해수욕장 모래유실방지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으로 모래유실, 침식원인 규명 후 대책으로 해중림 설치 건의
 - 충남도, 해양수산부와의 협조 아래 중장기 국가사업으로 추진 필요
 - 해중림 및 잠제 설치 외 대천해수욕장 모래유실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학습과 논의 필요

■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연안환경 조성

- 현황 및 필요성
 - 연안·항만 개발, 기후변화, 연안침식 등의 요인으로 연안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을 통하여 호안침식 예방 및 해안경관 보전
 -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연안의 자연복원성을 되돌리고, 자연과 조화되는 건강한 연안공간 조성 필요
- 관련계획 및 사업
 - 해양수산부(2014), 제2차 연안정비 기본계획 변경계획 (2010~2019)

- 사업개요
 - 추진주체 : 보령시
 - 위 치 : 보령시 장고도지구
 - 분 류 : 계속
 - 사업기간 : 단기 (2016~2018년)
 - 사 업 비 : 27.48억 원 (지특 70%, 도비 9%, 시비 21%)
- 사업내용
 - 현재 장고도지구 연안정비사업 추진 중
 - (2017.2) 장고도지구 일반해역이용협의 실시
 - (2017.5) 장고도지구 해양수산부 실시계획협의 완료
 - (2017.6) 장고도지구 연안정비 공사 착수 추진 (~2018.12)
 - 향후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 대비 사업대상지 발굴 필요
 -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 (2020~2029)' 반영 수요조사 대비
 - 사업대상지 발굴 및 기본계획 반영 목적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비 용역 추진

3) 해양 생태·환경 가치 확산

■ 아름다운 보령 해안선 만들기

- 현황 및 필요성
 - 과거 보령시의 해안선은 리아스식 해안과 다양한 형태의 도서가 밀집되어, 그 아름다운 해안경관에 대하여 높이 평가
 - 최근에는 항만개발, 화력발전소 건설, 간척 및 매립 등에 의하여 기존의 아름다운 해양선의 모습이 점점 상실되고, 기후변화, 연안침식 등의 환경적 변화에 따라 상실도가 가속화
 - 국가차원에서 연안침식 방지, 해안사구 복원 등 해안선 복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총괄적인 해안선 보전정책 미비
 - 보령시에서 해안선을 지역의 고유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지원 필요

- 관련계획 및 사업
 - 충청남도(2015),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
- 사업개요
 - 위 치 : 보령시 연안 및 도서 해안
 - 분 류 : 신규
 - 사업기간 : 단기 (2018~2020년)
 - 사 업 비 : 9억 원
- 사업내용
 - 보령시 자체적으로 해안선 관리개발 계획 및 각 해안별 용도관리계획 수립
 - 지역 주민 및 시민단체가 주체가 되는 '보령시 해양선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 해안지역에 방풍림(흑송) 및 꽃길 조성 및 도로 정비
 - 해안선 경관을 해치는 폐기물 및 쓰레기 정리, 불법 방치시설 철거
 - 해안의 불법 노점상 및 가건물에 대한 단속철거 또는 적법화 추진
 - '해안길 조성사업' 과 연계를 통한 건강하고 깨끗한 해안선 이미지 구축
 - 각 해안선 포인트별 CCTV 설치 및 지정 관리인(기관) 지정
 - 보령시 해양선 관리 조례 추진 및 충남도 조례 건의

■ 주민과 함께하는 해양쓰레기 개선사업

- 현황 및 필요성
 - 보령시 인근 해안 및 해수욕장에는 해양쓰레기가 밀려 들어와 지역 환경 및 경관을 파괴하고, 악취가 발생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에 큰 피해
 - 보령시는 2004년부터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하여 항, 포구 쓰레기와 바다 속의 폐어구어망을 수거하여 왔으나, 국내 및 중국 등에서 밀려오는 쓰레기로 인하여 절치부심
 - 한편, 보령시 고대도는 '2015년 우리마을 해양쓰레기는 내가' 시범사업에서 최 우수 인증마을로 선정되어 마을환경개선 사업비 1억원 지원
 - 보령시 해양쓰레기 문제를 단기간 내에 해결하기 어려우나, 이러한 쓰레기 문제에 대한 시민 차원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깨끗한 해안 및 바다 환경 분위기 조성

- 관련계획 및 사업
 - 충청남도(2015),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
 - 해양수산부(2017), 제1차 해수욕장 기본계획
 - 민·관 합동 클린 해수욕장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 사업개요
 - 추진주체 : 보령시, 지역주민
 - 위 치 : 보령시 연안 및 도서 해안
 - 분 류 : 신규
 - 사업기간 : 단기·중기 (2018~2025년)
 - 사 업 비 : 8천만 원
- 사업내용
 - 보령시 주민들이 해양쓰레기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市차원의 지원 확대
 - 보령시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보령시 해양쓰레기 수거 대회’ 와 같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의 관심 유도
 - 연안마을별로 구획을 정해서 해안가 쓰레기를 현황을 감시하고, 수거, 분리, 처리를 전담하는 해양환경미화원 제도 도입
 - 해수부의 ‘클린 해수욕장 만들기’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추진
 - 장기적으로 해양폐기물 종합처리장 시설 조성을 충남도에 건의

■ 지역 해양환경 관여요인 조사

- 현황 및 필요성
 - 보령 석탄화력발전소, 산업단지(고정, 영보 등) 등이 연안역에 집중되어 해양환경에 위협요소로 장기간 작용
 - 특히 보령의 석탄화력과 복합화력 발전 시에는 연간 46.4억톤의 온배수가 해양으로 방출되어 단일 지역 전국 최대 규모의 온배수 방류 규모
 - 이는 방류구 인접 해역의 해양생태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로 인한 발전소 주변 어촌계와 어업피해에 따른 마찰 지속
 - 현재 온배수 방류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적인 규제안이 국내 전무
 - 발전소 자체 수행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중립기관에서의 객관적 환경영향조사를 통한 영향 평가 및 정보공개가 반드시 필요

- 관련계획 및 사업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개요
 - 추진주체 : 충청남도, 보령시
 - 위 치 : 보령항 및 보령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해역 일대
 - 분 류 : 신규
 - 사업기간 : 단기 (2018~2020년)
 - 사 업 비 : 9억 원 (※ 도비,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재원 활용)
- 사업내용
 - 보령 화력 온배수 및 미세먼지(분진) 배출에 따른 해양환경 피해 영향 조사
 - 온배수 확산에 의한 해양생태환경 영향, 염소 및 소포제(거품제거제) 등 화학물질 사용에 따른 해양환경 영향, 배출가스(미세분진)의 해양침적 영향 평가 등에 대한 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
 - 지역의 해역특성을 고려한 온배수 배출기준안 설정
 - 온배수 해양 배출에 대한 국내외 환경기준치 충족여부에 대한 검토 실시
 - 주기적 조사 실시를 통한 연속성 있는 자료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



[그림 2-1-6] 보령 화력발전소 온배수 유출 및 저탄장 분포 위성 영상

자료 : 충청남도(2016), 충청남도 해양생태환경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 시민이 참여하는 해양환경학교 운영

- 현황 및 필요성
 - 환경 및 생태체험 관련 교육이 활성화된 것에 비해 해양환경에 대한 일반인 교육은 활성화되지 않아 어업인, 학생 등 일반인에게 다가가는 해양환경 보전 교육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운영 필요
 - 해양환경교육 수혜 학생 수는 전체(64,800백 명)의 0.17%(110백 명), 일반시민은 약 6천 명에 불과하며, 교재는 1종, 전용 교육프로그램 부재
 - 장기적으로는 해양환경 보전에 대한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제도권 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적 뒷받침 필수
 - 해양환경 정책기조가 사후조치 중심, 치우기(방제) 중심에서 사전 예방적 조치 중심, 줄이기(버리지 않기)로 바뀌면서 해양환경보전 교육을 통한 국민 인식제고(의식전환) 정책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 그동안 해양환경교육은 국가 해양환경교육센터(2016년 지정, 해양환경관리공단) 및 각종 환경단체 일부(지역 환경운동연합, 지역 기후변화 네트워크 등)를 중심으로 일부 비정기적으로 진행
 - 향후에는 지자체별로 시민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해양환경교육 수행체제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진행 필요
- 관련계획 및 사업
 - 해양수산부(2017), 제1차 해수욕장 기본계획
 - ‘찾아가는 해양환경교육 강사단’, ‘찾아가는 해양환경 이동교실’ 과 연계
 - 한국해양환경관리공단,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 사업과 연계’
- 사업개요
 - 추진주체 : 보령시
 - 위 치 : 보령시 문예회관 또는 문화의 전당 등
 - 분 류 : 신규
 - 사업기간 : 단기 (2018~2020년)
 - 사 업 비 : 6천만 원
- 사업내용
 - 보령시에 위치한 시민단체 주관으로 보령시민을 대상으로 해양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지역해양환경교육센터)와 연계하여 프로그램 운영

- 市 전문 어업인, 귀어·귀어민 등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해양환경교육 (해양쓰레기 예방, 어업 활동 안전교육, 기후변화와 해양수산, 해양오염 방제 등) 추진
- 학생(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해양환경보전 체험교실 (해양생태환경, 해양쓰레기 예방, 기후변화와 해양환경 등) 운영
- 해양쓰레기 청소·정화 활동과 연계하여 체험형 해양환경 교육 실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 봉사활동 점수 부여 가능)
-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운영하는 해수욕장 방문객을 위해 '찾아가는 해양환경교육 강사단' 및 학생 대상 '찾아가는 해양환경 이동교실' 과 연계하여 추진
- 교육을 통한 시민의식 전환사업 추진은 비용대비 효과 및 지속성·확장성이 크므로 해양의 가치 제고에 기여 가능

4) 해양 재난·재해 대응체계 구축

■ 해양 재난·사고 대응 컨트롤타워 구축

- 현황 및 필요성
 - 대형 유류유출 사고, 어선 및 선박 침몰전복 사고, 태풍 및 풍랑 강타 등 바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재난 및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
 -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 유출, 세월호 침몰 등 다양한 해양 재난·재해사고가 발생하여 막대한 재산 및 소중한 인명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대응체계 미비
 - 특히 과거에는 해양 재난·재해관련 컨트롤타워 부재로 신속하고 선제적 대응이 불가하여 피해 확대
 - 보령시 차원의 해양 재난·재해 대응체계 구축을 통하여 관내 해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의 신속한 대처로 지역주민의 안전 보장
- 관련계획 및 계획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개요
 - 추진주체 : 보령시
 - 위 치 : 보령시 연안 및 도서
 - 분 류 : 신규
 - 사업기간 : 단기 (2018~2020년)
 - 사 업 비 : 6억 원

- 사업내용
 - 해양사고 발생부터 접수, 보고, 상위기관과 공조, 인명구조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한 매뉴얼 작성 및 대응체계 구축
 - 보령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령시 해양재난·재해대응위원회’ 설립·운영으로 분기별 해양 재난·재해 대응체계 점검
 - 어업인에 대한 안전교육 확대 및 노후어선에 대한 점검·단속 강화
 - 연안 내에서의 재난·재해 발생 시 사전경보 발령 및 상위기관, 해경과의 공조체계 확립 (※ 도 및 국가에 역제안 추진)
 - 지역 어선을 활용한 보령해양안전선 도입으로 관할 해역에 대한 안전감시체계 확립
 - 보령해양안전선은 응급환자 발생 시 주요한 이동수단으로 활용 가능

■ 해양환경관리공단 보령지사 유치

- 현황 및 필요성
 - 각종 해양오염 사고 발생에 따른 방제 역량 강화를 위한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지역별 지사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증대
 - 충남 해역에는 대산지사가 서산시 대신읍에 위치하고 있으나, 관할해역이 충남 당진시 국화도에서 태안군 장산포 인근해역까지만 이르러 당시, 서산, 태안군을 대상으로만 활동 중 (※ 관할항만 : 무역항인 대신항, 태안항)
 - 보령 해역의 경우 현재 해양환경관리공단 군산지사에서 관할하고 있으나, 군산지사의 관할해역은 천수만 해역부터 전라북도 전 해역에 이르러 그 활동 범위가 매우 넓어 원거리 지역인 보령 해역까지 방제선 도착까지 약 4시간이 소요되는 등 관리에 미흡 (※ 골든타임 1시간 이내, 방제세력 여건 열악)
 - 보령 해역 주변 신보령화력 및 LNG 터미널 개장 등에 따른 대형선박 입출항이 증가하고 있어 보령항 주변 오염사고 신속대응을 위한 신규 인프라 구축 절실
 - 충남 중남부권 및 군산북부장항 해역 일대를 전담할 수 있는 해양환경관리공단 보령지사의 신규 유치를 통하여 당 해역 일대의 해양오염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시급
- 관련계획 및 사업
 - 충청남도(2017), 충남 서해안의 도전과 변화 (충남 해양수산발전 대표사업)
- 사업개요
 - 추진주체 : 한국해양환경관리공단

- 위 치 : 보령시 대천항 일대 (해경부두 매립지 인근 신규 부지 확보 필요)
- 분 류 : 신규
- 사업기간 : 중기 (2021~2025년)
- 사 업 비 : 300억 원
- 사업내용
 - 해양환경관리공단 보령 지사 설립 및 주요 방제장비(선박 포함) 도입
 - 현 군산지사 예방선 4척, 청방선 1척, 작업선 1척 보유, 현 대산지사 예방선 4척, 청방선 1척, 작업선 1척 보유 중에 따라 보령지사 유치 시 유사한 세력의 선박 및 방제장비 도입 추진
 - 향후 도서지역의 활발한 개발이 예상됨에 따라 고속방제선(항행속도 20knot 이상)을 필수적으로 도입
 - 서해안 특성을 고려한 선박(선형 및 규모) 확보를 통해 오염사고에 24시 신속대응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 어린이·청소년 해양안전체험 교실 운영

- 현황 및 필요성
 - 세월호 침몰, 여름캠프 등 해양 재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 미흡
 - 특히 어린이들은 해양 재난사고 발생 시,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해서 대형사고로 발전 가능성 높음
 - 바닷가에 위치한 지역의 특성 상, 지역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해양 재난재해, 안전 사고에 대한 사전적 교육으로 지역 어린이들의 해양안전 의식 및 지식 함양
- 관련계획 및 사업
 - 해양수산부(2017), 제1차 해수욕장 기본계획
- 사업개요
 - 추진주체 : 보령시
 - 위 치 : 보령시에 위치한 초등학교, 중학교
 - 분 류 : 신규
 - 사업기간 : 단기 (2018~2022년)
 - 사 업 비 : 5억 원

- 사업내용
 - 보령시에 위치한 초등학교, 중학교의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양안전교육 추진
 - 지역 어린이, 청소년에게 해양 재난재해의 개념, 재난재해 시 대처요령, 물놀이 안전, 생존수영 등을 교육하여 해양사고 발생 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적 교육 실시
 - 향후 해양안전체험관이 건립되면 각종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추진

■ 국립해양안전체험관 설립

- 현황 및 필요성
 - 기후변화에 의한 각종 자연재해 발생 증가로 미래 대형 해양재난 피해 증가 예상
 - 충남 도내 지속적인 해역이용 물동량 증가로 각종 선박 사고 위험 상존
 - 보령시는 대천해수욕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머드축제의 안착 등을 통한 서해안권역 대표해양 도시로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어 체험형 해양재난안전체험 시설 도입을 통한 해양랜드마크 도시 위상 확대 기대
 - 사계절 방문객이 많은 장점과 함께 대천해수욕장 인근 학생수련원(대학교) 및 각종 연수원이 다수 위치하여 재난안전 체험관 인프라와 연계 운영에 유리
 - 수련원 및 연수원 현황 : ' 17. 1월 현재 18개소, 평균 연이용객 25만 명
 - 도민의 해양안전의식 함양 및 재난피해 예방 인식 제고에 큰 효과 기대
 - 대천해수욕장 인근 해양관광지와 연계한 관광객 유입 효과 기대 (※ 해양관광 특구 확대)
- 관련계획
 - 해양수산부(2013) 중장기 해양안전문화진흥 기본계획 (2014~2017)
 - 해양수산부(2017) 제2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2017~2021)
 - 충청남도(2017), 충남 서해안의 도전과 변화 (충남 해양수산발전 대표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보령시 신항동 (대천해수욕장 일원)
 - 분 류 : 계속
 - 사업기간 : 단기 (2018~2020년)
 - 사 업 비 : 400억 원

- 사업내용
 - 해양재난안전체험관을 건립하여 해양 재난, 재해에 대한 국민의 안전의식 확립
 - 선박 침수 및 탈출 체험, 선박피해·해양재난 체험장, 선박운항 체험장, 시뮬레이션 체험 및 훈련, 이안류 체험 등 사고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시설 마련
 - 이상해황(해일, 지진, 태풍 등), 각종 선박사고, 해상구조훈련, 인명구조 교육 등 가상 체험프로그램 도입
 - 연안역이 친수공간이자 연안재해의 발생지로서 위험한 공간임을 체험교육을 통해 일깨워 줄 수 있는 기회 부여
 - 학습 및 체험프로그램(연령대 별 구분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 하고, 해안안전 사고 관련 영상 및 자료 전시
 - 보령시 또는 충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견학하는 해양안전재난체험관 지향
 - 교육기관(초·중·고 및 대학교)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해양안전교육 실시(대상 학교 방문을 통한 교육 포함)
 - 국립해양안전체험관 관련 유치논리 개발 및 사업추진은 충남도와 협의하여 추진



[그림 2-1-7] 보령시 해양안전체험관 예상 위치도

자료 : 충청남도(2017), 충남 서해안의 도전과 변화(충남 해양수산발전 대표사업)

보령시 해양항만 발전 기본계획

[표 2-1-3] 「Cleaning 해양환경」 연차별 예산계획

(단위 : 백만 원)

추진 전략	세부사업	계	단기					중기	장기
			2016년 이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 2025년	2026~ 2030년
연안 생태계 보전 및 기능 회복	보령호 하굿둑 구조개선을 통한 연안수질 개선	10,000						5,000	5,000
	대천천 하구갯벌의 해양보호구역 지정 추진	500			100	100	100	200	
	잡피 이식을 통한 연안 수중생태계 복원	500			250	250			
연안 통합관리 기반 구축	지역 연안침식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900			300	300	300		
	대천해수욕장 모래유실방지 대응사업	27,100			1,000	2,000	4,000	20,100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연안환경 조성	2,748	48	1,350	1,350				
해양 생태·환경 가치 확산	아름다운 보령 해안선 만들기	900			300	300	300		
	주민과 함께하는 해양쓰레기 개선사업	160			20	20	20	100	
	지역 해양환경 관여요인 조사	900			300	300	300		
	시민이 참여하는 해양환경학교 운영	60			20	20	20		
해양 재난·재해 대응체계 구축	해양 재난·사고 대응 컨트롤타워 구축	600			200	200	200		
	해양환경관리공단 보령지사 유지	30,000						30,000	
	어린이·청소년 해양안전체험 교실 운영	500			100	100	100	200	
	국립해양안전체험관 설립	40,000			400	19,800	19,800		

[표 2-1-4] 「Cleaning 해양환경」 자원별 예산계획

(단위 : 백만 원)

추진전략	세부사업	계	국비	도비	시비	민자 (자부담)
연안 생태계 보전 및 기능 회복	보령호 하굿둑 구조개선을 통한 연안수질 개선	10,000	7,500	2,500		
	대천천 하구갯벌의 해양보호구역 지정 추진	500		100	400	
	잘피 이식을 통한 연안 수중생태계 복원	500	400	50	50	
연안통합관리 기반 구축	지역 연안침식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900		300	600	
	대천해수욕장 모래유실방지 대응사업	27,100	13,550	6,775	6,775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연안환경 조성	2,748	1,924	247	577	
해양 생태·환경 가치 확산	아름다운 보령 해안선 만들기	900			900	
	주민과 함께하는 해양쓰레기 개선사업	160			160	
	지역 해양환경 관여요인 조사	900		900		
	시민이 참여하는 해양환경학교 운영	60			60	
해양 재난·재해 대응체계 구축	해양 재난·사고 대응 컨트롤타워 구축	600			600	
	해양환경관리공단 보령지사 유치	30,000	30,000			
	어린이·청소년 해양안전체험 교실 운영	500	250	125	125	
	국립해양안전체험관 설립	40,000	40,000			

2절 Amazing 해양관광

1. 현황분석 및 진단

1) 현황 및 문제점

■ 보령시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과거부터 해양관광에 대한 관심 높음

- 대천해수욕장은 과거부터 전국적인 인지도의 서해안 최대·최고의 해수욕장으로 평가
- 1998년 7월부터 시작된 보령 머드축제는 지역의 천혜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축제로 승화시킨 서해안의 대표적인 해안 축제
- 대천해수욕장, 무창포해수욕장, 죽도, 갯바위, 보령팔경, 오서산 등은 1997년 보령 해수욕장 관광특구로 지정

■ 보령시에는 2개의 지정 해수욕장이 있고, 소규모 포구와 섬 등이 밀집

- 보령의 2개의 해수욕장(대천, 무창포)은 충남 전체 해수욕장 방문객 의 73.9% 점유
- 보령 해수욕장 방문객은 총 13백만 명 방문 (대천 12백만 명, 무창포 1백만 명)

■ 보령머드축제는 연간 약 500백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 머드축제 외 총 10개의 축제가 매년 개최

-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축제, 대하·전어 축제, 주꾸미·도다리 축제, 전국해양스포츠포럼, 주산봄꽃축제, 보령 천북굴축제, 시민이 즐거운 보령 김축제, 청라 은행마을 단풍축제, 성주산 단풍축제, 해안선 레저스포츠 페스티벌

■ 그러나 보령시는 그동안 주로 해수욕장 중심의 관광산업으로 지역의 해양관광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함

- 특히, 대천해수욕장(머드축제)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정책으로 지역의 우수한 해양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보령에는 91개의 유무인도(유인도 16개), 33.1km²의 갯벌, 25개소의 어촌계가 존재하나, 이러한 자원을 충분히 활용한 관광정책 미흡

- 보령에는 요트장이 있고, 요트팀을 운영하고 있으나, 그 외 해양 레저스포츠 관련 산업 전무
- 특히 보령 대천~원산도~태안 영목을 잇는 국도 77호선이 완공되면 보령시 해양 관광정책의 근본적인 변화 필요

2) 여건분석 및 진단

■ 최근 소비자는 해양문화 관광지의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으로 ‘기존 자원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교육적 효과’ 등 감성적인 영향에 의해 구매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어 그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²⁶⁾

- 해양문화 관광지의 선택 시 고려사항은 ‘흥미로운 체험 프로그램 28.4% > 해양문화에 대한 지식 20.2% > 교육적인 효과 19.4% > 접근성 17.2% > 비용 14.6% > 편의시설 0.2%’ 로 나타남
- 해양문화 관광지원화의 효과적 방법은 ‘해양문화 체험 프로그램 및 상품 개발 59.1% > 해양문화 테마공원 및 관광지 조성 23.6%, 해양문화축제 및 이벤트 개발 12.6% > 해양문화박물관 및 전시관 조성 3.1%’ 로 나타남

■ 해양관광과 결합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자원을 발굴하여, 대표적인 해양 관광 테마로 육성 필요

- 해양문화는 해양과 관련하여 과거부터 현재까지 전승되어온 정신과 예술, 그리고 의미와 가치, 생활 방식들뿐만 아니라, 해양과 관련하여 의미를 발견하고 함께 실천해나가는 것을 의미
- 특히 보령 해양관광의 육성을 위하여 기존에 이루어진 ‘개발’ 위주 방식에서 ‘복원·보존’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여 지역의 부존자원, 문화·예술자원과 결합된 관광산업 육성 필요

■ 지역의 도서(섬), 어촌, 해수욕장 등 공간에 포커스를 맞춘 관광정책 필요

- 보령이 보유하고 있는 공간적 자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자원의 가치를 보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 모색 필요
- 도서(섬)의 생태자원, 어촌의 전통어업유산, 해수욕장의 문화자원 등에 대한 가치 재인식 및 활용방안 모색 필요

26)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0),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양문화콘텐츠 활용방안 연구

■ 해양 레저관광의 콘텐츠 발굴을 통한 테마와 스토리가 있는 해양관광 실현

- 해양 문화유산의 재인식 및 확산을 통하여 지역의 해양관광산업과 결합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보령시가 보유하고 있는 해양문화자원의 발굴 및 보전을 통한 지역 콘텐츠의 외연적 확장 필요
- 콘텐츠 개발을 통하여 체험형·체류형 해양관광의 기반 구축 필요

■ 향후 보령의 해양관광은 대천, 무창포 등의 해수욕장을 보다 고도화하여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도서(섬), 갯벌 등 생태자원, 레저스포츠 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로 콘텐츠 범위 확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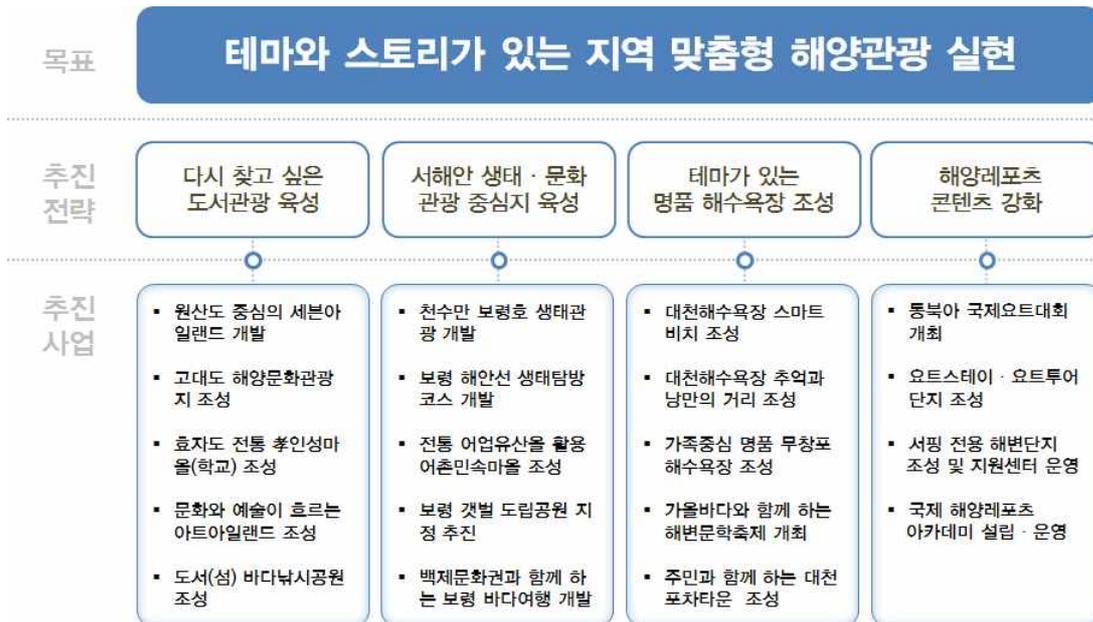
- 또한 어촌마을 보유하고 있는 전통의 유무형의 어촌자원을 콘텐츠로 하여 관광 산업화 추진 필요
-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해양 레저스포츠 산업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나, 향후 잠재적 시장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투자 필요
- 해양 레저스포츠 산업에 대한 기반 조성 및 국내외적인 인지도 확보가 관건

2. 기본방향 및 목표

1) 기본방향

- 보령 도서(섬)만이 갖고 있는 특성을 극대화하여 차별적인 해양 도서관광 추구
- 보령 도서(섬)의 전통과 문화, 역사가 결합된 복합 콘텐츠로 도서관광 실현
- 청정지역으로서의 보령의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생태관광 활성화 추진
- 서해안(충남)을 대표하는 최고 해양생태관광, 해양레포츠 지역으로서 위상 제고
- 충청권 최대의 해수욕장으로서의 보령 해수욕장의 위상 재정립 및 이용객의 만족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스마트 명품 해수욕장 조성
- 최신 관광 트렌드에 부합하는 콘텐츠 중심의 이야기가 있는 해양레포츠 실현

2) 목표 및 추진전략



(1) 목표

■ 테마와 스토리가 있는 지역 맞춤형 해양관광 실현

- 천편일률적인 관광이 아닌 테마와 스토리로 관광객의 재미와 즐거움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해양관광 추구
- 보령에 있는 도서(섬), 습지(갯벌) 해수욕장 등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연, 바다와 어우러질 수 있는 생태관광 지향
- 서해안 최대 해수욕장인 대천과 무창포 해수욕장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이용객에게 즐거움과 추억을 줄 수 있는 장소로 탈바꿈
- 보령의 해양문화, 어촌문화와 어울릴 수 있는 스토리를 발굴하여 콘텐츠 강화
- 해양 레저스포츠 관련 산업의 기반 조성으로 미래 해양관광의 먹거리 개발

(2) 추진전략

■ 다시 찾고 싶은 도서관광 육성

- 보령의 7개 유인도서를 이어 도서의 다채로운 자연환경, 해양문화 체험이 가능한 세븐아일랜드 사업 추진
- 우리나라 최초 성경전래지로서 고대도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기독교문화관광지로서의 기능 부여
- 우리나라 전통 효스토리가 있는 효자도를 재평가하여 도서 인성마을로 개발하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어촌민속마을로서의 위상 정립
- 섬 주민과 함께 문학, 미술, 무용 등 문화와 예술이 넘쳐나는 도서(섬)를 육성하고, 나아가 예술인들이 직접 작업하면 거주할 수 있는 공간 조성
- 보령의 깨끗한 수산물을 바탕으로 바다낚시공원을 자체적으로 지정하여 수산자원 관리 및 낚시객의 편의 제공

■ 서해안 생태·문화 관광 중심지 육성

- 천수만 보령호의 환경 및 수질개선 등을 통하여 지역 자원과 조화되는 생태관광 추진
- 보령의 아름다운 리아스식 해안선 및 경관을 강조하고, 이를 지역주민 및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해안선 탐방코스 개발

- 전통 어촌의 가치를 지키고, 이를 보전·활용하기 위한 어촌민속마을 조성
- 대천천 하구 갯벌, 주교갯벌 등 보령의 갯벌에 대한 도립공원 지정 추진
- 보령 도서(섬)의 생태자원 및 자연환경을 감상할 수 있는 해양생태 탐방 패키지 개발

■ 테마가 있는 명품 해수욕장 조성

- 대천해수욕장 관광객이 현금없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함으로 제공하는 스마트비지 조성
- 숙박업소와 식당이 준비한 대천해수욕장에 대한 배후단지 준비를 통하여 해변의 낭만이 넘쳐나는 핫 플레이스로 전환
- 무창포 해수욕장이 갖고 있는 생태자원으로 활용하여 볼거리, 즐길거리, 느낄거리, 먹거리 등 특색이 있는 가족중심 명품 해수욕장 조성 추진
- 겨울철에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해변문학축제 운영으로 단순한 여름철 해수욕에서 벗어나 사계절 볼거리, 즐길거리가 넘쳐나는 테마공간 조성
- 관광객에게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대천만 포차단지 조성으로 관광객에게 먹거리와 추억거리 제공

■ 해양레포츠 콘텐츠 강화

- 최근 젊은 층에게 새로운 여행문화로 급부상 중인 요트웨어, 요트스테이 단지 조성
- 요트경기장, 市 소속 요트팀이 있는 보령시의 특성을 살려 동북아 국제 요트대회 개최 추진
- 최근 젊은 층에서 인기가 좋은 서핑 해변, 스킨스쿠버 해역을 조성하여 해양 스포츠 트렌드에 맞는 해양관광 수요 발굴·충족
- 요트와 서핑, 바다수영, 스킨스쿠버 등 해양스포츠와 관련된 전문기술을 교육할 수 있는 아카데미 설립·운영으로 해양스포츠의 메카로 자리매김

3. 세부사업계획

1) 다시 찾고 싶은 도서관광 육성

■ 원산도 중심의 세븐아일랜드 개발

- 현황 및 필요성
 - 보령 대천 ~ 태안 영목항 연륙교 건설과 원산도 대명리조트 조성 이후, 증가할 관광객의 수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원산도 등 7개 도서를 체험형 해양관광의 모델로 개발
 - 국도 77호선 개통에 따라 원산도를 중심으로 7개 도서에 대한 연도교 건설을 통하여 주민 및 관광객의 이동권 보장
- 관련계획 및 사업
 - 충청남도(2015),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
- 사업개요
 - 추진주체 : 중앙정부, 충청남도, 보령시, 대명리조트
 - 위 치 : 원산도, 효자도, 고대도, 장고도, 삼시도, 녹도, 호도, 외연도
 - 분 류 : 계속
 - 사업기간 : 단기·중기 (2016~2025년)
 - 사업비 : 12,200억 원
 - 세븐아일랜드 7,000억 원, 대명리조트 관광단지 5,000억 원, 테마랜드 200억 원
- 사업내용
 - 원산도 주변 5개 도서에 연도교 연결 (4구간 6.1km)
 - 도서별 관광 및 생태 자원의 특성을 살린 개발 추진
 - 원산도 : 어촌체험마을 조성, 해양레포츠, 대명리조트 등 조성
 - 효자도 : 해상낚시터 조성, '등불써기놀이(풍어제)' 체험
 - 고대도 : 기독교 테마관광지 조성 (칼 귀출라프 역사관 등)
 - 장고도 : 어촌체험마을 운영, 독살체험, 해삼마을, 명장섬(모세의 기적)
 - 삼시도 : 힐링 휴양타운(밤섬해변) 조성, 해변테크 설치
 - 녹도 : 해안산책로 및 연도 데크 개설 (선착장~모도~본섬)

- 호 도 : 해안 일주 산책로 조성, 가고싶은섬 시범사업 추진
- 외연도 : 동백수림 탐방로 조성, 가고싶은섬 시범사업 추진
- 대명리조트에서 서해안 최고의 레저관광단지로서 관광숙박시설 및 휴양시설 조성 (2,034실 규모)
- 원산도를 테마랜드로 조성하기 위하여 관광기반시설, 관광단지 진입도로 확·포장(5km)
- 주차시설, 화장실 등 관광기반시설 확충, 관광단지 진입도로 확보

■ 고대도 해양문화관광지 조성

- 현황 및 필요성
 - 우리나라 최초 성경 전래지인 고대도가 기독교 문화의 성지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
 - 최초 성경전래지, 귀출라프 신부 등 기독교와 관련된 스토리가 풍부하여 개발 여건 좋음
 - 국도 77호 개통과 연계하여 보령 도서(섬)에 방문하는 관광객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 제공 필요
 - 2014년 충청남도 도서발전 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며, 고대도의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하여 관광객 유치를 통한 주민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가능
- 관련계획 및 사업
 - 해양수산부(2016), 제1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 충청남도(2017), 충남 서해안의 도전과 변화 (충남 해양수산발전 대표사업)
- 사업개요
 - 추진주체 : 정부, 충남도, 보령시
 - 위 치 : 보령시 고대도
 - 분 류 : 계속
 - 사업기간 : 단기 (2019~2021년)
 - 사 업 비 : 39억 원 (국비 16억 원, 시비 23억 원)
- 사업내용
 - 최초 성경전래지로서의 고대도의 위상 강화를 위한 부대시설 조성
 - 베를린하우스(메인시설) : 지상 2층, 외부체험공간
 - 앵커공원 및 테마마을 조성 1식
 - 편의시설 및 전시 체험콘텐츠 개발 1식

- 고대도가 갖고 있는 역사·문화자원을 부각시켜 스토리텔링을 강화하여 관광객에게 다양한 기독교 문화 콘텐츠 제공
- 성경 또는 귀출라프 문화제, 미술제, 연극제, 예술공연 등을 통한 기독교 문화의 성지로 육성 필요
- 기독교 문화 체험 공간 조성으로 전국 기독교 수련회 및 박람회 등 유치

■ 효자도 전통孝인성마을(학교) 조성

- 현황 및 필요성
 - 자신의 허벅지를 베어 어머니를 봉양했던 효자의 일화를 간직한 효자도의 역사·문화적 가치 재발견 필요
 - 원산도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 국도 77호선 개통 이후에는 교통편의 획기적인 개선이 가능하고, 예상되는 관광수요에 선제적 대응방안 모색 가능
 - 효자도 내 농업과 수산업이 공존해 있고, 폐교, 성황당, 당산제 등의 역사·문화 유산을 보유하고 있어 다양한 콘텐츠 개발 가능
- 관련계획 및 사업
 - 해양수산부(2016), 제1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 충청남도(2017), 충남 서해안의 도전과 변화 (충남 해양수산발전 대표사업)
 - ‘한국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과 연계하여 추진
 - 충남어촌특화지원센터 ‘2017년 예비특화어촌 발전계획 수립 지원’ 추진 중
- 사업개요
 - 추진주체 : 보령시
 - 위 치 : 보령시 효자도
 - 분 류 : 신규
 - 사업기간 : 단기·중기 (2019~2023년)
 - 사 업 비 : 15억 원
- 사업내용
 - 효자도 ‘孝인성마을’ 조성을 통하여 전국의 초·중 학생들 유치를 통한 지역의 전통 효자상 및 유교문화 전수
 - 효자도 孝子문화체험, 농어업체험, 낚시체험, 전통요리체험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 효자도 내 폐교를 활용하여 숙박·숙식이 가능한 ‘孝인성학교’ 를 설립하고, 유교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초빙하여 孝 및 예절에 관한 교육 실시

- 마을 어른들이 담임 선생님이로 참여하여 섬 주민과 학생들 간의 교류의 폭 확대
- 효자도 자체적인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마을주민 주도의 상향식 발전 지향
- ‘한국어촌민속마을 지정’,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 사업과의 연계하여 추진

〈 농어촌인성학교 사례 : 홍성 거북이마을 >²⁷⁾

- 농림축산식품부 권역사업(내현권역)을 통하여 추진
- 500년 전통의 종가집 전통요리체험과 전통예절 및 제례를 배움으로 전통을 되새기고, 이를 토대로 오늘 날에 적용가능한 새로운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교육
- 보개산 숲이야기와 공작교육으로 목공체험(새집만들기, 자연나무화분만들기, 고비만들기)과 계절별 노작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인성이 함양될 수 있는 프로그램 진행
- 주요 프로그램은 논밭의 재발견, 나는 농부다, 자연을 살리는 새집만들기, 전통제례의 의미 알아보기, 종가집 오색칼국수 만들기, 거북이마을 런닝맨, 거북이 숲길 산책 등



전통 성인식 체험



벼수확 체험

[그림 2-2-1] 거북이마을 인성학교

자료 : 네이버 블로그(거북이마을 농어촌인성학교), 「<http://blog.naver.com/c4663/130186411219>」

27) 농어촌인성학교 HP, 「<http://www.ruralschool.co.kr>」 (내현권역)

■ 예술과 활력이 넘치는 아트헬스아일랜드 조성

- 현황 및 필요성
 - 일본 나오시마, 고흥 연흥도 등 문화와 예술을 테마로 하는 도서(섬) 개발 성공사례 등장하였으나, 나오시마는 외국이고, 연흥도는 전남이라 수도권의 접근성 취약
 - 최근 Well-being, Healing, YOLO(You Only Live Once) 등 몸과 마음을 치유하면서 의미있는 즐길거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 수도권, 대전권과 근접한 보령 도서(섬) 중에 문화와 예술, 건강과 활력이 충만한 섬을 조성하여 지역 관광산업의 활력 증진
 - 국도 77호 개통과 연계하여 보령 도서(섬)에 방문하는 관광객의 수요에 부합하는 문화·예술, 건강관련 콘텐츠 제공 필요
- 관련계획 및 사업
 - 해양수산부(2016), 제1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 충청남도(2017), 충남 서해안의 도전과 변화 (충남 해양수산발전 대표사업)
 -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골든오션 조성’ 과 연계하여 추진
- 사업개요
 - 추진주체 : 정부, 충남도, 보령시, 도서주민
 - 위 치 : 보령시 삼시도
 - 분 류 : 신규
 - 사업기간 : 단기·중기 (2019~2025년)
 - 사 업 비 : 50억 원
- 사업내용
 - 섬 전체를 미술, 조형물, 조각상, 벽화 등으로 조성하여 지붕없는 미술관 지향
 - 미술작품뿐만 아니라 문학관, 공연장 등도 조성하여 문학, 공연예술, 미술 등 복합 되는 복합 문화·예술공간으로 재창조
 -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건강관련 시설 및 인프라 구축으로 힐링의 섬 지향
 - 섬 주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의지 고취를 위한 주민교육 확대 및 체계적인 마을발전계획 수립으로 상향식 발전 지향
 - 보령시에 ‘보령 아트헬스아일랜드 추진위원회’ 조직을 통하여 민·관 협력체계 구축
 - 전문 미술가, 조각가, 문학인, 건강 전문가 등의 해당마을 정착 유도 및 작품 활동 지원 추진

- ‘대천해수욕장 추억과 낭만 거리’, ‘겨울바다와 함께하는 해변문학축제’와 작품 및 활동 등 공유
-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골든오션’,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과 연계하여 추진



일본 나오시마 상징



전남 고흥 연흥도 상징

[그림 2-2-2] 관광도서 사례 (나오시마, 연흥도)

자료 : (좌) Happy Trend 「<http://happy-trendy.com/naoshima-904>」
 (우) 이돈삼, “박치기왕 김일이 반겨주는 곳, 예술의 섬 연흥도”, 오마이뉴스, 2017.07.24.일자.

■ 도서(섬) 바다낚시공원 조성

- 현황 및 필요성
 - 충남지역은 수도권, 대전권과의 근접성으로 연안 전역에 바다낚시객들의 방문이 매우 활발함
 - 바다낚시는 숙박, 식당, 교육·체험 등 타 관광분야와 연계가 용이하고, 고정 매니아층과 동호회, 가족단위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큼
 - 부정적으로는 무분별한 낚시활동으로 인하여 수산자원이 고갈되고, 그로 인하여 지역 어업인과의 마찰·갈등 발생
 - 일본의 경우 약 120여개의 바다낚시공원이 있고, 장흥 정남진, 울진 석호항, 인천 대부도 등 성공사례 존재하고, 태안군, 홍성군에서도 비슷한 사업 추진 중
- 관련계획 및 사업
 - 충청남도(2015),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
 - 2018년 시책사업 ‘보령시장배 바다낚시대회’와 연계 추진

- 사업개요
 - 추진주체 : 보령시
 - 위 치 : 보령시 녹도, 호도
 - 분 류 : 신규
 - 사업기간 : 단기·중기 (2019~2022년)
 - 사업량 : 2개소
 - 사업비 : 40억 원
- 사업내용
 - 보령 도서의 특성을 살리고, 관광객의 흥미유발을 위하여 유인도서에 바다낚시공원 조성
 - 해상 낚시터, 좌대 낚시터, 낚시배 계류장, 해상전망대, 어촌체험장, 캠핑장 등 부대 시설 조성
 - 수산자원 방류 및 인공어초 조성, 어류서식 환경개선으로 서해안에 적합한 어종 방류·증식
 - 낚시터 시설의 관리, 치안관리, 구매 및 결제, 홍보 등이 관리자 또는 사용자 앱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IT 기술 적용
 - 낚시 초보자, 어린이·청소년 대상으로 낚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캠프 운영

2) 서해안 생태관광 중심지 육성

■ 천수만 보령호 생태관광 개발

- 현황 및 필요성
 - 해양생태관광의 수요증대에 따라 관광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관광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서 해양생태관광의 전략적 육성 필요
 - 최근 보령호의 해수유통과 관련된 충남도의 정책사업이 추진되는 등 보령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 연안 및 해양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의 해양생태관광 도입 가능
 - 보령호 인근에는 오천항, 충청수영성, 도미부인사당, 갈래못성지 등 역사·문화자원이 위치하여, 이것들과 연계한 생태관광의 가능성 높음
 - 역사·문화자원, 자연·생태·경관 자원이 연계된 서해안권 해안관광단지까지 하구 생태교육의 장으로 조성

- 관련계획 및 사업
 - 충청남도(2016), 충청남도 연안하구 및 생태복원방안 연구용역
 - 2018년 시책사업 '보령댐 주변 관광기반시설 확충' 과 연계
- 사업개요
 - 추진주체 : 보령시
 - 위 치 :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일대
 - 분 류 : 계속
 - 사업기간 : 단기·중기 (2018~2022년)
 - 사 업 비 : 60억 원 (국비 42억 원, 도비 9억 원, 시비 9억 원)
- 사업내용
 - 연안경관, 해양생태환경, 지역 문화자원, 체험관광 요소 등이 복합 연계될 수 있는 환경성 평가를 통한 사전 검토 후, 보령호에 대한 단계적인 리모델링 전략 수립
 - 해안하구 생태학습장 및 해변공원 조성 (수변테크, 포토존, 갯벌체험장, 경관조명 등)
 - 생태관광 해설사, 생태체험탐방단 운영, 보령호 마라톤 대회 등 소프트웨어사업 확충
 - 지역주민 사업 추진주체로 참여하여 시설을 관리하고, 어촌체험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상향식 사업 지향

■ 보령 해안선 생태탐방(트래킹)코스 개발

- 현황 및 필요성
 - 최근 관광수요는 웰빙, 힐링과 같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
 - 보령의 해안선은 복잡한 리아스식 해안이고, 갯벌과 바다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안에서는 일몰 석양 등의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 있는 자연환경 조성
 - 제주도에서는 올레길, 태안 해변길·노을길·솔향기길 등 연안의 특성을 살려 트래킹이 가능한 길 조성으로 관광객 유치
 - 보령도 천혜의 아름다운 해안경관과 해안선을 갖고 있으므로, 보령 해안선을 잇는 길 조성으로 트래킹 관광객 수요 흡수 필요
- 관련계획 및 사업
 - 충청남도(2017), 충남 서해안의 도전과 변화 (충남 해양수산발전 대표사업)
 - 신비로운 리아스해안서 탐방코스 개발
 - 문화체육관광부, '코리아 둘레길 조성사업' 연계
 - 2018년 시책사업 '천수만 해변 트래킹코스 조성' 연계

- 사업개요
 - 추진주체 : 보령시
 - 위 치 : 보령시 해안선 (무창포 ~ 대천)
 - 분 류 : 신규
 - 사업기간 : 단기·중기 (2019~2025년)
 - 사 업 비 : 50억 원
- 사업내용
 - 보령시 연안 해안선 중 해안길 조성이 가능한 지역에 트래킹 코스를 개발하여 웰빙, 힐링을 원하는 관광객의 수요 충족
 - 市 연안코스뿐만 아니라, 현재 인기가 있는 삼시도 둘레길, 호도 해안 일주도로, 외연도 동백수림 탐방로 등도 정비하여 트래킹 명소로서의 위상 제고
 - 각 탐방코스별로 테마와 스토리를 부여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관광객에게 재미와 흥미를 유발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
 - 예시적으로 보령의 경우 두 개의 유명한 해수욕장(대천~무창포)을 잇는 코스를 개발하고, 스마트 해수욕장 사업과 연계하여 위치정보, 전자결제 등이 가능하도록 설계 가능
 - 지역 숙박업소, 식당, 편의점 등과 연계하여 트래킹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코레일·여객선사와 협력하여 ‘기차와 배를 타고 떠나는 트래킹 여행’ 등 패키지 상품 개발 가능
 - ‘천수만 해변 트래킹코스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 전통 어업유산을 활용한 어촌민속마을 조성

- 현황 및 필요성
 - 어촌의 고령화, 과소화 등으로 어촌인구가 감소하고, 어촌문화가 사라져 감에 따라, 이를 보전하고 계승시킬 필요성 절실
 - 사라져 가는 어촌의 전통 문화, 민속, 어로기술, 풍습, 관례 등을 보전하기 위한 기념비적 공간 조성 필요
 - 예부터 전통어업이 성행했던 보령의 어업자원 및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전통어촌 마을을 재현하고, 옛 것을 찾는 관광수요를 충족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관련계획 및 사업
 - 충청남도(2017), 충남 서해안의 도전과 변화 (충남 해양수산업발전 대표사업)
 - 충청남도(2017), 한국어촌민속마을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 (용역 중)
- 사업개요
 - 추진주체 : 보령시, 충청남도
 - 위 치 : 보령시 원산도, 효자도
 - 분 류 : 계속
 - 사업기간 : 단기·중기 (2018~2023년)
 - 사 업 비 : 994억 원 (국비 210억 원, 도비 262억 원, 시비 252억 원, 민자 270억 원)
- 사업내용
 - 전통적인 어촌의 문화, 민속, 풍습, 어로기술, 관례 등의 보전을 위한 공간과 체험 시설 조성
 - 전통 어촌가옥단지, 어촌민속박물관, 전통어로체험시설(장) 등 설치
 - 충남 어촌의 역사와 과거 어업행위, 어촌생활상 등을 포함한 4D 상영관 설치
 - 마을 전통 어촌민속축제(풍어제 등) 재현 및 체험활동 전개
 -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어촌민속마을 조성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상향식 정책 추진
 - 현재 보령 효자도와 태안 가경주마을이 경합 중이나, 필요에 따라서는 두 마을을 연계하여 추진 필요
 - 효자도 '孝心성마을'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필요

■ 보령 갯벌 도립공원 지정 추진

- 현황 및 필요성
 - 보령시는 4개의 사구, 33.1km²의 갯벌, 91개의 유·무인도서가 위치해 있어 습지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 보령 소항사구는 2005년 환경부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
 - 지역의 습지가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의 생태자원을 보전하여 후세대에 전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전해야 하는 당위성 확보 필요
 - 갯벌 도립공원을 도입하여 보령 습지의 환경친화적 운영 필요

보령시 해양항만 발전 기본계획

- **관련계획 및 사업**
 - 환경부·해양수산부, '습지보호지역 지정'
 - 환경부,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 **사업개요**
 - 추진주체 : 충청남도, 보령시
 - 위 치 : 대천천 하구갯벌 또는 주교갯벌
 - 분 류 : 신규
 - 사업기간 : 단기·중기 (2018~2025년)
 - 사 업 비 : 10억 원
- **사업내용**
 - 국가차원으로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원산사구, 오봉사구, 삼시도사구, 습지보호구역으로 대천천 하구갯벌, 주교 갯벌 지정 추진
 - 보령의 사구 및 습지를 지역 주민(학생, 어린이 등)의 생태교육의 장, 생태관광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소항사구, 주교갯벌, 대천천 하구 갯벌 등에 대한 습지도립공원 지정 추진
 - 습지(사구 및 갯벌)에 대한 출현종, 식물상, 동물상 등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D/B 구축하여 도립공원으로서의 당위성 확보
 - 습지(갯벌) 도립공원에 대한 사구 및 뺨의 유실, 환경오염, 생태계 교란 등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市차원의 정책 지원 및 모니터링 확대
 -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보령 습지(갯벌) 도립공원 추진위원회' 설립·운영
 - 참고로 전남에서는 순천 조계산, 해남 두륜산, 장흥 천관산, 무안 갯벌, 신안 갯벌, 벌 갯벌 6개소에 도립공원 지정



전남 신안갯벌 도립공원



전남 벌교갯벌 도립공원

[그림 2-2-3] 전남 신안·벌교 갯벌 도립공원

자료 : (좌) 박민우, "전남 신안 갯벌도립공원 13개 읍면 확대 지정 추진", 광주데일리, 2016.12.18.일자.
 (우) 정성환, "전남도, '벌교갯벌' 국내 3번째 갯벌도립공원 지정", 아주경제, 2016.01.28.일자.

■ 백제문화권과 함께하는 보령 바다여행 개발

- 현황 및 필요성
 - 최근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캠핑, 야영 등 정형화되지 않은 어드벤처 투어에 대한 관심 고조
 - 보령에는 16개의 유인도와 75개의 무인도가 위치해 있고, 각 도서별 천혜의 해양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유하고 있어 관광객에게 생태관광 수요 제공 가능
 - 서해안의 일몰, 철새, 해양식생 등 다양한 도서 생태를 관광 콘텐츠로 제공하고, 유·무인도를 연계하여 도서의 문화자원과 결합 가능
 -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 조기착수를 통하여 철도를 통한 연안 및 도서의 접근성 향상 기대
- 관련계획 및 사업
 - 충청남도(2015),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
 - 국토교통부(2015),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
- 사업개요
 - 추진주체 : 보령시
 - 위 치 : 보령시 도서 (유·무인도)
 - 분 류 : 신규
 - 사업기간 : 단기·중기·장기 (2019~2030년)
 - 사 업 비 : 20억 원
- 사업내용
 -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와 연계하여 백제문화권, 서해안 바다, 도서를 함께 접할 수 있는 관광코스 개발
 - 공주, 부여 백제문화권의 역사와 문화, 보령의 깨끗한 바다와 해수욕장, 그리고 도서를 즐길 수 있는 패키지 개발
 - 코레일, 유람선업체와 연계하여 ‘철도와 함께하는 백제문화권, 서해안바다 탐방’ 패키지 개발
 - 충청산업문화철도와 보령 유인도를 잇는 생태탐방 패키지 개발 (예, 대천~원산도~각 도서(섬)~외연도)
 - 전문 여행사와의 연계를 통하여 충청산업문화철도 완공 전에 ‘철도와 함께하는 보령 바다여행’ 을 시범적으로 운영

- 도서 탐방코스 개발 시에는 가능한 자연을 훼손하지 않도록 엄격한 규정을 제정·준수하고, 해양안전이 최우선될 수 있는 안전대책 마련 필수



[그림 2-2-4] 충청산업문화철도 노선도

자료 : 네이버 블로그(세종생활뉴스), 「<http://blog.naver.com/axkjh/221058869338>」

3) 테마가 있는 명품 해수욕장 조성

■ 대천해수욕장 스마트비치 조성

- 현황 및 필요성
 - 대천해수욕장의 관광객의 편의 증진으로 급증하는 수요에 선제적 대응 필요
 - 조세원 확보 및 부담요금 근절로 해수욕장의 운영의 신뢰도 상승
 - IoT 기술과 해수욕장 운영의 결합으로 통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최우선하는 4차산업 혁명 선도
- 관련계획 및 사업
 - 해양수산부(2017), 제1차 해수욕장 기본계획
 - '18년 스마트 해수욕장 시범사업 추진 예정
 - 충청남도(2017), 충남 서해안의 도전과 변화 (충남 해양수산발전 대표사업)
- 사업개요
 - 추진주체 : 보령시

- 위 치 : 보령시 신항동 일대 (대천해수욕장 인근)
- 분 류 : 계속
- 사업기간 : 단기 (2019~2020년)
- 사 업 비 : 40억 원 (국비 20억 원, 시비 20억 원)
- 사업내용²⁸⁾
 - 이안류·갯골 경보, 긴급구조, 미아찾기 등 안전기능이 내장된 지능형 웨어러블 장비개발 및 위치기반 관제시스템 구축
 - 웨어러블 장비와 연동하는 위치기반 해양 안전정보 알림서비스 사업 ISP 수립
 - 민간이 보급하고 있는 해수욕장 전자결제시스템과 웨어러블 개인장비 간의 연계를 통하여 용품대여, 레저체험, 샤워장 이용 등에 현금없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해수욕장 시스템 구축
 - 2011년부터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민자사업으로 전자결제시스템 추진 중
 - 향후 인근 편의시설, 음식점, 숙박업소 등 해수욕장 인근 상업을 시설을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대천해수욕장을 바다 워크파크 형태로 전환



[그림 2-2-5] 해운대 스마트비치 시설

자료 : 네이버 블로그(시간여행자), 「<https://blog.naver.com/midung/100191482296>」

■ 대천해수욕장 ‘추억과 낭만의 거리’ 조성

- 현황 및 필요성
 - 현재 대천해수욕장의 방문객은 해수욕과 머드축제 관람 등을 위해 주로 여름철에 집중되어 있어, 겨울철에는 비수기로 방문 관광객 수 저조
 - 1930년에 개장하여 국민 누구나 추억과 향수를 보유하고 있는 역사와 전통을 보유

28) ‘해양수산부(2017), 제1차 해수욕장 기본계획’ 참조

- 한 해수욕장이나, 관광객이 이를 리마인드 시킬 수 있는 공간 및 콘텐츠 부족
 - 대천해수욕장 인근은 식당, 숙박업소 등이 즐비하여 타 해수욕장 관광지와의 차별성 부족
 - 보령시에도 대천해수욕장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상징조형물 제작을 통하여 콘텐츠 확보를 위한 노력 지속 중
- 관련계획 및 사업
 - 2018년 시책사업 ‘보령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과 연계
- 사업개요
 - 추진주체 : 보령시
 - 위 치 : 보령시 신항동 일대 (대천해수욕장 인근)
 - 분 류 : 신규
 - 사업기간 : 단기·중기 (2018~2025년)
 - 사 업 비 : 200억 원
- 사업내용
 - 대천해수욕장 역사관, 보령 전통문화관, 대천문화관, 아트갤러리 등 역사, 문화, 예술이 접목된 공간 조성으로 관광객에게 과거에 대한 회상과 추억을 제공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 제공
 - 대천의 인사동, 동피랑, 감천문화마을과 같은 문화와 예술의 거리를 조성하여, 관광객이 사계절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
 - 지역의 역사, 문화, 예술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해양, 해변, 바다 등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 공연 및 전시
 - 대천관광협회, 인근 상인, 지역 주민 간의 연계·협력을 통한 상향식 거버넌스 지향으로 주민주도의 지역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 향후 ‘예술과 활력이 넘치는 아트헬스아일랜드’ , ‘겨울바다와 함께 하는 해변문학축제’ 와 작품 및 활동 공유

■ 가족중심의 명품 무창포해수욕장 조성

- 현황 및 필요성
 - 현재 무창포해수욕장은 ‘신비의 바닷길’ 과 다양한 수산물로 연간 관광객 100만 명이 방문하고 있으나, 대천해수욕장의 약 1/12 수준

- 보령시의 대규모 해변축제도 대천해수욕장에 집중되어 있어, 무창포 해수욕장은 ‘신비의 바닷길 축제’, ‘주꾸미·도다리축제’, ‘대하·전어축제’ 등 수산물 중심의 축제 개최
- 무창포 해수욕장을 대천해수욕장의 절반이상의 명품 해수욕장 수준으로 끌어올려 해수욕장 방문 관광객에게 선택의 폭 확대
- 관련계획 및 사업
 - 해양수산부(2017), 제1차 해수욕장 기본계획
 - 테마형 해수욕장 발굴 지원(향토체험형), 민·관 협력 해수욕장 거버넌스 구축 등
 - 해양수산부(2015),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
- 사업개요
 - 추진주체 : 보령시
 - 위 치 : 보령시 웅천읍 (무창포해수욕장 일대)
 - 분 류 : 신규
 - 사업기간 : 단기·중기 (2019~2023년)
 - 사 업 비 : 10억 원
- 사업내용
 - 보령어촌문화관, 해양안전체험관, 숙박형·가족형 갯벌체험학교, 바다생존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어촌, 갯벌, 어린이 안전을 강조하는 콘텐츠 사업 추진
 - 보령시의 어촌문화의 사료, 자료, 유물을 전시할 수 있는 보령어촌문화관 건설
 - 체험어장 클리인 카르텐 단지 조성으로 가족단위 숙박객 유치 및 어업·갯벌체험 강화
 - 갯벌 지식이 충분한 인근어촌 어르신을 갯벌체험학교 강사로 고용하여 갯벌 생태교육 및 안전체험 강화
 - 수영장이 아닌 실제 바다에서 체험하는 해양사고 대비 바다수영, 바다생존체험 등의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 ‘사계절 즐기는 무창포 체험 프로그램’ 도입으로 김장김치 담그기, 낚시체험, 겨울바다 포토경진대회 등 어촌 특성을 강조한 다양한 소규모 이벤트 개최
 - 무창포관광협회, 무창포어촌계 간의 연계·협력을 통한 상향식 거버넌스 지향으로 주민주도의 지역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 유아·어린이가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수질 및 토양질의 지속적인 관리
 - 향후 해수욕장 박람회 유치, 지능형 웨어러블 장비개발 및 위치기반 관제시스템 구축, 전자결제시스템 도입으로 스마트 해수욕장 구현
 - 향후 마리나항 건설 이후, 가족단위 마리나 관광지로서 위상 제고

■ 가을바다와 함께 하는 해변문학축제 개최

- 현황 및 필요성
 - 현재 대천해수욕장의 방문객은 해수욕과 머드축제 관람 등 위하여 주로 여름철에 집중되어 있어, 계절 간 방문객 수 편차 큼
 - 성수기인 여름에는 숙박업소, 식당 등 편의시설 예약이 증가하나, 비수기인 가을 또는 겨울에는 방문객 수 및 편의시설 예약 감소로 지역경제의 활력 저조
 - 늦가을·초겨울에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로 사계절 관광객이 찾는 해변으로 전환 필요
- 관련계획 및 사업
 - 해양수산부(2017), 제1차 해수욕장 기본계획
 - 테마형 해수욕장 발굴 지원 (휴양형)
- 사업개요
 - 추진주체 : 보령시
 - 위 치 : 보령시 신항동 (대천해수욕장 인근)
 - 분 류 : 신규
 - 사업기간 : 단기 (2018~2020년)
 - 사 업 비 : 6억 원
- 사업내용
 - 가을바다의 풍광과 낭만을 즐길 수 있는 해변문학축제를 10월 중순 ~ 11월 초순 사이에 지역주민 주도로 주최
 - 현재 지역 일부 문인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해변시인학교' 를 확대하여 충청권 최대 문학축제로 육성하여 문학을 테마로 하되 미술, 만화 등 예술작품도 전시
 - 지역 문인회 주관으로 대천해수욕장 인근 시설을 임대하여 해변 시낭송회, 해변 백일장 대회, 아트헬스아일랜드 미술작품 전시회, 만화 및 애니메이션 전시회, 유명작가(소설가, 시인) 초청강연 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
 - '예술과 활력이 넘치는 아트헬스아일랜드' , '대천해수욕장 추억과 낭만의 거리'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 주민과 함께 하는 대천포차타운 조성

- 현황 및 필요성
 - 현재 여름에 집중되어 있는 대천해수욕장 방문객을 사계절로 분산하기 위하여 다양한 콘텐츠 사업 추진 필요
 - 도농복합도시인 보령시의 특성을 살린 지역 농수산물을 지원으로 관광외식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한 경제사업 추진 필요
 - 현재 여수시에서 운영 중인 ‘낭만포차’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대천의 풍광, 낭만, 추억이 가능한 ‘대천포차타운’ 조성 필요
 - 수도권과의 인접성, 대천해수욕장의 역사와 인지도를 고려했을 때 여수 낭만포차보다 높은 경쟁력 보유
- 관련계획 및 사업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개요
 - 추진주체 : 보령시
 - 위 치 : 보령시 신흑동 (대천해수욕장 인근)
 - 분 류 : 신규
 - 사업기간 : 단기·중기·장기 (2019~2030년)
 - 사업비 : 30억 원 (※ 시설 설치 비용)
- 사업내용
 - 보령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산물을 활용하는 대천포차타운 조성으로 지역 농수산물 소비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 희망자를 대상으로 랜덤 추천을 통하여 최대 10개 포차만 운영하여 지역 인근 식당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수익의 일정 부분은 대천해수욕장 발전기금으로 기부
 - 참여포차는 최소 3년 ~ 최대 5년 간만 운영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타 사업자에게 기회 부여 (※ 참여포차의 사업기간은 市방침 설정 필요)
 - 참여 포차에 대해서는 전기, 수도, 가스 등의 기본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운영시간, 판매요리·음식료, 가격 등 운영방식에 대하여 市에서 가이드라인 제시
 - 식품 위생·안전에 대해서는 市에서 정기적·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시에는 강력한 행정제재 시행
 - ‘대천해수욕장 추억과 낭만의 거리’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그림 2-2-6] 여수 낭만포차거리 전경

자료 : 힐링아일랜드로의 초대 남해스토리 블로그 「<http://namhaestory.co.kr/221062068606>」

4) 해양레포츠 콘텐츠 강화

■ 동북아 국제요트대회 개최

- 현황 및 필요성
 - 충남 서해안은 마리나시설 미비로 요트 등 해양레저·스포츠 산업 기반이 취약하나, 보령만이 요트경기장, 市소속 요트팀을 보유하고 있어 충남 유일의 해양레저·스포츠 기반 시설 보유
 - 향후 보령에는 원산도와 무창포에 복합마리나항 건설되어 마리나 관련 인프라 확충
 - 보령이 서해안 해양레저·스포츠의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이벤트를 개최하여 대외적인 인지도와 신뢰도 확보 필요
 - 대외적 인지도와 신뢰도는 보령 마리나산업 육성의 자산으로 작용 가능성 높음
- 관련계획 및 사업
 - 해양수산부(2015),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
 - 충청남도(2017), 충남 서해안의 도전과 변화 (충남 해양수산발전 대표사업)
- 사업개요
 - 추진주체 : 보령시
 - 위 치 : 보령시 원산도 (오봉산 마리나 항만 예정지), 대천 일원
 - 분 류 : 신규
 - 사업기간 : 중기 (2022년)
 - 사 업 비 : 10억 원

- 사업내용
 - 현재 추진 중인 중국 청도 국제요트대회와 연계하여 한중 국제요트대회를 개최하고, 점차적으로 일본, 대만, 홍콩 등이 참가하는 동북아 국제요트대회 확대 추진
 - 충남세일링연맹과의 협력을 통하여 동북아 요트대회의 구체적인 실행계획 및 로드맵 작성
 - 2022 보령 머드엑스포와 연계 추진하여 다양한 이벤트 개최 및 시너지효과 창출 가능



호주 골드코스트 국제 보트쇼

뉴질랜드 오클랜드 보트쇼

[그림 2-2-7] 국제 보트쇼 사례

자료 : 해양수산부(2017), 제1차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

■ 요트스테이 · 요트투어 단지 조성

- 현황 및 필요성
 - 최근에는 부유층의 전유물인 대형 고급 요트에 대한 일반인의 동경 및 관심이 증가하여 요트쉐어라는 신조어가 생기로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
 - 부산 수영만, 경남 거제·통영, 인천 등에서는 요트쉐어의 개념에서 요트스테이, 요트투어로 요트 비즈니스에 대한 수요 증가
 - 보령은 원산도, 무창포에 마리나항만이 건설 예정이고, 서해안과 인접하여 요트스테이, 요트투어 관련 사업 추진으로 지역 요트관광산업의 거점으로 위상 제고 가능
- 관련계획 및 사업
 - 해양수산부(2015),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
- 사업개요
 - 추진주체 : 보령시
 - 위 치 : 보령시 원산도 (오봉산 마리나항만 예정지), 무창포 (마리나항만 예정지)

- 분 류 : 신규
- 사업기간 : 중기·장기 (2021~2030년)
- 사 업 비 : 40억 원
- 사업내용
 - 향후 보령에 위치할 마리나 항만을 중심으로 요트스테이·요트투어 비즈니스 추진
 -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박료 할인, 市차원의 공동마케팅·홍보 지원, 행정지원 등을 통하여 고급 요트 보유자 및 사업자 유치
 - 요트스테이·요트투어관련 관광(투어)상품을 개발하고 전·후방 산업(관광, 이벤트, 소품 등) 육성
 - 원산도 대명리조트, 무창포 비체펠리스 등 숙박업소, 인근 횃집 등 식당, 지역 관광 명소와의 연계 추진

■ 서핑 전용 해변단지 조성 및 지원센터 운영

- 현황 및 필요성
 - 최근에는 서핑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2014년 4만 명 → 2017년 20만 명)²⁹⁾
 - 2020년 도쿄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서핑이 채택되면서 국내 수요 증가 예상
 - 서핑은 간단한 장비(서핑보드)만 있으면 누구나 즐길 수 있고, 스릴과 멋이 있어 최근 젊은 층에서 가장 주목받는 해양레포츠로서 국내에서는 제주도를 시작으로 강원 양양, 부산 송정 등에서 서핑을 전문적으로 육성
 - 특히, 양양의 경우 2017년 여름에 7만 명의 서핑객이 찾아 13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달성
 - 충남에서 태안 만리포가 서핑지로 급부상하고 있으므로, 보령에서 서핑 적지를 찾아 관광산업으로 육성 시급
- 관련계획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개요
 - 위 치 : 용두해수욕장 (※ 후보지로서 검토 필요)
 - 분 류 : 신규
 - 사업기간 : 단기·중기 (2019~2023년)
 - 사 업 비 : 50억 원

29) 대한서핑협회 추산 (자료: 강기현, "파도타기 짜릿함, 10초면 충분", 중앙일보, 2017.07.03.일자.)

- 사업내용
 - 보령 내 서핑이 가능한 최적의 해변 발굴이 시급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핑 지원센터 설립·운영 추진
 - 서핑 전용해변 조성으로 주차장, 샤워장, 탈의실,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 지원
 - 지원센터 설립·운영으로 서핑슈트, 서핑보드 대여, 안전교육, 안전요원 배치, 환경정비사업 등 추진
 - 태안 만리포 해수욕장과 연계·협력하여 공동 마케팅 및 홍보 추진

■ 국제 해양레포츠 아카데미 설립·운영

- 현황 및 필요성
 - 국내의 해양레포츠 교육기관은 각 종목별로 개별적으로 교육하는 민간업체가 주를 이루고 있고, 아직까지 요트, 스킨스쿠버, 서핑, 윈드서핑, 카이트보딩 등 다양한 해양레포츠를 전문적·종합적으로 교육하는 기관이 서해안에 전무
 - 해양레포츠 전문 교육기관으로 울진군이 2011년 완공한 ‘울진해양레포츠센터’가 있으며 국비 포함하여 총 147억 원으로 조성하였으며, 현재 민간기업이 위탁받아 운영 중
 - 최근 해양레포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자가 늘어남에 따라 해양레포츠를 전문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수요 필요
 - 보령은 요트경기장, 소속 요트팀을 보유하고 있고,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을 개최하기도 하는 등 해양레포츠 관련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장하여 전문 교육기관 유치 또는 설립 추진
 - 수도권과 인접해 있고, 대천해수욕장, 머드축제 등 풍부한 해양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전문 교육기관 설립 시 시너지 효과 창출 가능
 - 머드 등 해양자원이 풍부한 보령에서 해양레포츠 전문기관을 설립 또는 유치하여 새로운 영역인 해양레포츠의 메카로 부각 가능
- 관련계획 및 사업
 - 2018년 시책사업 ‘보령요트경기장 보강’ 과 연계하여 추진
- 사업개요
 - 추진주체 : 보령시
 - 위 치 : 보령시 남포면 (요트경기장 인근)
 - 분 류 : 신규

보령시 해양항만 발전 기본계획

- 사업기간 : 중기·장기 (2021~2030년)
- 사업비 : 50억 원
- 사업내용
 - 요트, 스킨스쿠버, 서핑, 윈드서핑, 바다 래프팅, 스노우쿨링, 카이트보딩 등 해양레포츠를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기관 설립을 추진하여, 해양레포츠를 배우고자 하는 교육생의 수요 충족
 - 해양레포츠 이론교육, 체험, 교육, 숙박 등이 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종합·전문 교육기관으로 설립하고, 해양레포츠 관련 대학 및 선수단의 교육 및 전지훈련장으로도 이용
 - 해양레포츠 관련 국제대회를 유치·주관하고, 외국 선수단 등의 전지훈련장으로 제공하여 국제 해양레포츠 기관으로 위상 정립
 - 해양수산부, 충남도청에 역제안하여 국가차원의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되, 이것이 불가능 할 경우 보령요트학교, 지역대학 등과 연계하여 민자 중심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추진
 - 전문 교육기관 설립이 어려울 경우, 각 종목별 민간교육업체가 집적할 수 있는 클러스터 형태의 공간을 조성하고, 관련 전·후방산업도 집적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



잠수풀



챔버실

[그림 2-2-8] 울진 해양레포츠센터 시설

자료 : 유엠아이 울진해양레포츠센터 HP 「<http://www.uljinleports.co.kr>」

[표 2-2-1] 「Amazing 해양관광」 연차별 예산계획

(단위 : 백만 원)

추진전략	세부사업	합계	단기					중기	장기
			2016년 이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 2025년	2026~ 2030년
다시 찾고싶은 도서관광 육성	원산도 중심의 세븐아일랜드 개발	1,220,000	800	6,200	106,500	206,500	300,000	600,000	
	고대도 해양문화관광지 조성	3,900			700	800	2400		
	효자도 전통 孝인성마을(학교) 조성	1,500			300	300	900		
	예술과 활력이 넘치는 아트헬스아일랜드 조성	5,000			1,000	1,000	3,000		
	도서(섬) 바다낚시공원 조성	4,000			1,000	1,000	2,000		
서해안 생태문화 관광 중심지 육성	천수만 보령호 생태관광 개발	6,000			300	2,000	2,000	1,700	
	보령 해안선 생태탐방코스 개발	5,000			1,000	1,000	3,000		
	전통 어업유산을 활용한 어촌민속마을 조성	99,400			400	19,800	19,800	59,400	
	보령 갯벌 독립공원 지정 추진	1,000			200	200	200	400	
	백제문화권과 함께하는 보령 바다여행 개발	2,000			200	200	600	1,000	
테마가 있는 명품 해수욕장 조성	대천해수욕장 스마트비치 조성	4,000			2,000	2,000			
	대천해수욕장 추억과 낭만의 거리 조성	20,000			5,000	5,000	10,000		
	가족중심 명품 무창포 해수욕장 조성	1,000			200	200	600		
	가을바다와 함께 하는 해변문학축제 개최	600			200	200	200		
	주민과 함께 하는 대천포차타운 조성	3,000			1,000	1,000	1,000		
해양레포 츠 콘텐츠 강화	동북아 국제요트대회 개최	1,000					1,000		
	요트스테이·요트투 어 단지 조성	4,000					2,000	2,000	
	서핑 전용 해변단지 조성 및 자원센터 운영	5,000			1,000	1,000	3,000		
	국제 해양레포츠 아카데미 설립·운영	5,000					2,500	2,500	

보령시 해양항만 발전 기본계획

[표 2-2-2] 「Amazing 해양관광」 자원별 예산계획

(단위 : 백만 원)

추진전략	세부사업	계	국비	도비	시비	민자 (자부담)
다시 찾고 싶은 도서관광 육성	원산도 중심의 세븐아일랜드 개발	1,220,000	360,000	175,000	185,000	500,000
	고대도 해양문화관광지 조성	3,900	1,600		2,300	
	효자도 전통 孝인성마을(학교) 조성	1,500			1,500	
	예술과 활력이 넘치는 아트헬스아일랜드 조성	5,000	2,500	1,100	1,100	300
	도서(섬) 바다낚시공원 조성	4,000		1,000	3,000	
서해안 생태문화 관광 중심지 육성	천수만 보령호 생태관광 개발	6,000	4,200	900	900	
	보령 해안선 생태탐방코스 개발	5,000	2,500		2,500	
	전통 어업유산을 활용한 어촌민속마을 조성	99,400	21,000	26,200	25,200	27,000
	보령 갯벌 도립공원 지정 추진	1,000		500	500	
	백제문화권과 함께하는 보령 바다여행 개발	2,000		500	500	1,000
테마가 있는 명품 해수욕장 조성	대천해수욕장 스마트비치 조성	4,000	2,000		2,000	
	대천해수욕장 추억과 낭만의 거리 조성	20,000	10,000	5,000	5,000	
	가족중심 명품 무창포 해수욕장 조성	1,000			1,000	
	기울바다와 함께 하는 해변문학축제 개최	600			600	
	주민과 함께 하는 대천포차타운 조성	3,000			3,000	
해양레포츠 콘텐츠 강화	동북아 국제요트대회 개최	1,000	500	250	250	
	요트스테이·요트투어 단지 조성	4,000	2,000	500	500	1,000
	서핑 전용 해변단지 조성 및 지원센터 운영	5,000	2,500	1,000	1,000	500
	국제 해양레포츠 아카데미 설립·운영	5,000	2,500	1,000	1,000	500

3절 Innovating 해양산업 및 항만

1. 현황분석 및 진단

1)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의 해양관련 사업체의 수는 총 18,385개로 파악³⁰⁾

- 국내 해양사업체는 해운항만업(8,446개, 45.9%)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수리업(4,985개, 27.1%), 해양기기·장비 제조업(1,653개, 9%)순
- 이러한 수치는 조선, 항만과 관련된 전통적인 산업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산업 영역으로의 저변 확대 필요
- 해양산업 통계조사에서 해양신산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산업영역은 해양자원개발업(해저광물자원 채굴업, 해수자원 개발업, 해양에너지 개발업, 해양바이오제품 개발업)으로서 138개 사업체(약 0.75%)에서 3,297,974백만 원의 매출(약 2.60%) 달성
- 해양신산업으로는 해양광물자원, 해수담수화, 해양에너지, 해상풍력발전, 해양바이오, 이산화탄소 해중저장 등의 분야들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은 모두 연평균 7% 이상의 고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³¹⁾

■ 충남의 사업체는 2014년 기준으로 약 15만4천개이고, 이 중 보령에는 8,336개가 산재하여 소재 (충남 7위 점유)

- 산업별 사업체는 월등히 앞서거나 현저하게 뒤쳐져 있는 분야가 없으나, 충남 북부 권보다는 산업기반이 약하고, 홍성군과 비슷한 수준 (농림어업은 도내 2위)

■ 보령시에는 우리나라 최대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

- 기력(유연탄), 복합화력(LNG), 신재생에너지(소수력, 태양광, 연료전지) 방식
- 2017년에 주교면 송학리에 기력방식의 신보령 1,2호기 준공

30) 국가통계포털 KOSIS 「<http://kosis.kr>」, 2015년 해양산업 통계조사

31)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1), 해양수산산업 분류체계 수립 및 해양수산산업의 역할과 성장전망 분석을 위한 기획연구

[표 2-3-1] 해양관련 산업별 사업체 및 매출액 현황

(단위 : 개, 백만 원)

구분	사업체 수	매출액
해양관광업	954	372,927
해운항만업	8,446	50,926,970
해양건설업	318	1,638,416
해양자원개발업	138	3,297,974
해양환경관리업	89	137,010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수리업	4,985	51,223,250
해양기기·장비 제조업	1,653	9,684,981
해양전문서비스업	1,167	7,617,181
해양공공서비스업	635	2,024,474
합계	18,385	126,923,183

자료 : 국가통계포털 KOSIS 「<http://kosis.kr>」, 2015년 해양산업 통계조사

■ 보령에는 총 11개의 산업단지(면적 11,741천㎡) 위치

- 국가산단은 고정단지로 현재 조성 중에 있으며 입주업체는 43개소
- 일반산단은 관창(조성 중), 영보(조성 중), 웅천(미개발) 단지
- 농공단지는 대천, 웅천, 주산, 주포, 청소, 주포2, 웅천석재로서 모두 조성 완료
- 국가산단인 고정단지와 일반산단인 영보단지(LNG 생산기지)는 보령항의 배후지역으로 보령화력발전소의 원료를 공급하는 기능

■ 보령은 지방관리 무역항 1개소, 지방관리 연안항 1개소, 신항만 1개소 보유

- 지방관리 무역항은 보령항, 지방관리 연안항은 대천항, 신항만은 보령신항
- 보령항은 충남에 위치한 무역항 중 국가관리 무역항인 평택·당진, 대산에 비하여 비교적 작은 규모 보유

■ 보령항은 4선석이고, 석탄, 가스, 광석, 유류 등 에너지관련 화물 실적 높음

- 보령항 내에 중부발전(주) 시설이 위치해 있어 화력발전소 연료공급항만으로서의 기능
-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따라 보령항은 에너지산업 특성화 항만 분류

■ 보령신항은 천북면 학성리에서 2선석 규모로 추진

-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향후 물류와 관광이 공존하는 다기능 복합항만으로서의 가능성 높음

■ 원산도와 무창포는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포함

- 오천항은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변경

■ 최근 5년간 수산물 어획고를 살펴보면, 2014년까지는 꾸준히 증가하여 22,858톤이었으나 2015년에는 감소하여 19,642톤 기록

- 수산물 품목별로 살펴보았을 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류가 2011년에 수량 59.6%, 금액 42.2%였으며 2015년에는 수량 48.5%, 금액 42.6%로 나타나 가장 높은 비율 차지
- 2011년과 2015년을 비교했을 때 전체에서 차지하는 어류의 수량 비율은 59.6%에서 48.5%로 감소하였으나 금액은 42.2%에서 42.6%로 증가
- 수산물 가공품 생산현황은 총 수량은 2011년 5,457톤에서 2015년 20,699톤으로 증가했으나 금액은 67억196만6천 원에서 44억9843만 원으로 감소

■ 보령의 어항시설은 총 26개이고, 이 중 국가어항 3개소, 지방어항 7개소 지정

- 2017년 4월 무창포항이 지방어항에서 국가어항으로 승격
- 어촌정주어항 4개, 소규모어항 12개 보유

2) 여건분석 및 진단

■ 해양산업의 규모는 국내외 모두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장기적 관점에서 향후에도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세계 해양산업 시장 규모는 2010년 기준 매출액 약 2.6조 달러로 추정되며, 2020년에는 4.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³²⁾
- 해양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약 4.7%로 세계 GDP 성장률 전망(3.2%)을 크게 상회

■ 해양산업은 제조업 중심 성장의 한계에 직면함에 따라 해양산업 발굴을 위한 노력이 정부를 비롯한 여러 주체들이 관여

32)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1), 해양수산산업 분류체계 수립 및 해양수산산업의 역할과 성장전망 분석을 위한 기획연구

- 해양헬스케어, 해양에너지, 해양바이오 또는 기존 전통산업들에서의 융합과 혁신을 통한 시장개척 등이 대안으로 높은 관심 집중

■ 해양산업분야는 태동기 또는 도입기에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할 경우, 장래 형성될 시장 선점 가능

- 지역자원을 활용한 해양신산업, 보령신항 및 배후단지 조성, 수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 해양산업을 이끌 지역산업의 역량 강화 필요
- 지역의 해양자원을 활용하여 첨단기술과의 융·복합화 및 기술혁신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필요

■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및 교역 성장세 둔화에 따라 해운·항만 산업 기반 약화 및 항만기능의 다변화

- 한진해운 사태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근본적 위기 봉착
- 항만물류 클러스터화, 항만과 해양관광 산업과의 연계 등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로 항만정책 패러다임 변화

■ 보령항은 에너지산업 특성화 항만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 중에 있으나, 향후 건설될 보령신항은 일반 화물부두뿐만 아니라 레저, 마리나, 크루즈 등 해양관광이 가능한 다목적 복합항만으로 개발 추진

-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서는 보령항에 석탄부두 2선석, LNG부두 2선석을 개발할 계획이 포함되어 있고,³³⁾ 보령신항 개발 반영
-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2021~2030) 수립 시, 다목적 복합항만으로 보령신항의 개발 계획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노력 필요

■ 전통 수산업에서 벗어나 ICT·IoT기술, 생명공학, 경영정보기술 등과 접목한 미래산업화 및 수산식품의 고도화·글로벌화 추진

- 수산종자산업 육성,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첨단 스마트 팜 조성 등 타 산업기술과 연계한 융·복합한 산업화 추진
- 수산식품의 고도화, 글로벌시장 개척 등을 통한 국내 수산산업의 역량 강화 추진

33) 석탄부두 1선석은 접안능력 증대

2. 기본방향 및 목표

1) 기본방향

- 보령의 해양자원을 이용한 해양신산업을 창출을 통한 미래 먹거리 발굴
- 해양수산 사회적경제 기반 조성으로 지역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해양산업 육성
- 해양수산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글로벌 해양산업 도시로서 위상 제고
- 보령신항의 다기능·복합화를 통한 보령내 항만의 역할 및 기능 재배치
- 마리나산업, 레저보트산업, MICE산업, 해양수산 벤처타운 등 해양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항만배후단지 조성
- 전통 수산업과 ICT·IoT 기술, 생명공학과 연계한 미래지향 수산산업 육성
- 수산식품 수출가공, 수산종자 및 수산기자재 등 수산업의 후방산업 육성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2) 목표 및 추진전략



(1) 목표

■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미래 해양산업 육성

- 보령의 지역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해양신산업을 육성하여 미래 먹거리 발굴
- 양질의 해양항만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 보령신항의 다기능·복합화 및 배후단지 조성을 통하여 글로벌 해양도시 위상 제고
- 전통 수산업이 아닌 미래지향형 수산업 육성으로 지역 수산업의 활력 제고

(2) 추진전략

■ 지역자원을 활용한 해양신산업 창출

- 보령의 청정 치유자원을 활용하여 해양헬스케어 비즈니스 모델 구축
- 다양한 고부가가치의 창출을 위한 해양바이오 기능성 소재산업 육성
- 탄소흡수원으로서 블루카본 시범단지 조성으로 미래 먹거리 창출 기반 구축
- 화력발전소의 폐열의 활용을 통한 해양바이오연료 생산단지 조성

■ 해양 사회적경제 및 일자리 창출

- 해양수산분야의 건강한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육성
- 전통 수산업과 2차(가공), 3차(서비스·유통) 산업 간의 융·복합화로 주민소득 증대
- 어촌마을기업 육성을 어촌마을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해양항만 창업·직업·진로체험관 건립을 통하여 해양항만 분야의 사회적 관심 유도
- 해양항만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통하여 지역 해양항만산업의 발전기반 강화
- 해양 MICE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글로벌 해양도시의 위상 강화

■ 보령신항 및 해양산업클러스터 조성

- 보령신항의 다기능 복합항만 및 해양산업클러스터 조성으로 글로벌 해양산업도시 위상 제고
- 원산도, 무창포 마리나항만 조성으로 충남 마리나산업의 선도적 위치 선점

- 서비스형 마린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하여 지역 해양관광 인프라 및 시너지 창출
- 레저보트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해양관광산업의 저변 및 기반 구축

■ 지역 수산산업의 미래가치 창출

- 수산식품 수출가공 클러스터 조성으로 서해안권 최대의 수산산업 지역으로 육성
- 새로운 기능을 부여한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고도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 수산종자·수산기자재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수산업의 후방산업 강화
- 전통 수산업과 ICT, IoT 기술과의 접목으로 스마트팜 등 최근 양식기술 확보

3. 세부사업계획

1) 지역자원을 활용한 해양신산업 창출

■ 해양 치유·휴양관광 헬스케어산업 육성

- 현황 및 필요성
 - 평균수명 증가, 고령인구 증가, 건강 및 웰빙(Well-Being)에 대한 관심의 증대 등으로 치유산업에 대한 관심 및 수요 증대
 - 해양수산부는 '해양헬스케어 기반구축 기술' 을 파급효과가 크고, 성과창출 가능성이 높은 20개 기술의 하나로 선정³⁴⁾
 - 해양수산부는 '제2차 해양관광진흥 기본계획' 에서 해양치유관광을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으로 추진³⁵⁾
 - 2020년까지 해양자원을 이용한 치유·재활 서비스와 해양레저·관광 기능을 결합한 복합레저단지인 '해양헬스케어 시범단지' 4개소 조성 계획
 - 충청남도는 특색 있는 해안환경과 의료인프라 등 해양치유산업의 발전가능성을 충분히 지니고 있음³⁶⁾
 - 보령시는 해양헬스케어 치유센터 시범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에 대한 용역 추진 중

34) 해양수산부(2014), 해양수산 R&D 중장기계획

35) 해양수산부(2014), 제2차 해양관광진흥 기본계획

36) 충청남도(2015),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

- 보령시는 머드를 비롯하여 해수와 해풍, 해조류 및 해양미생물 등 다양한 청정해양 치유자원 풍부
- 보령의 머드는 피부노화방지, 노폐물제거 등 피부미용에 뛰어난 효능
- 보령은 머드와 관련된 관련 연구자료 등 기초기반시설 구축
 - 머드박물관(머드체험관) 운영 노하우 등으로 해양헬스케어 치유센터 유치를 위한 운영 및 조직 기반 마련
 - 머드화장품 개발, 머드 테라피 시설 운영 등 치유센터 시범단지 유치를 위한 기반 마련
-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헬스케어산업과 보령시의 청정 해양자원을 융복합화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국내 해양헬스케어를 선도하는 거점단지 조성 전략 수립 필요
- 관련계획 및 사업
 - 해양수산부(2010), 제2차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
 - 해양수산부(2014), 제2차 해양관광진흥 기본계획
 - 충청남도(2017), 충남 서해안의 도전과 변화 (충남 해양수산발전 대표사업)
 - 충청남도(2015), 충청남도 해양수산 발전계획
- 사업개요
 - 추진주체 : 보령시, 민간기업
 - 위 치 : 원산도 또는 대천해수욕장 일대
 - 분 류 : 계속
 - 사업기간 : 단기 (2018~2019년)
 - 사 업 비 : 50억 원
- 사업내용
 - 머드, 염지하수 등을 활용한 충남 고유의 해양 치유자원 소재 발굴 및 내륙 치유자원 연계의 연계를 통하여 경쟁력 확보
 - 일광욕과 풍욕, 해수(입욕요법), 머드팩요법, 모래찜질, 함초, 천일염, 해양미생물, 해조류, 전신마사지, 족탕 등
 - 해양치유 프로그램 및 마케팅 전략 수립으로 대외 경쟁력 확보
 - 원산도 대명리조트와의 연계를 통한 관광산업으로서의 시너지 효과 창출
 - 내륙 휴양 관광시설(오서산 휴양림 등)과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 해양헬스케어·휴양시설 조성 지원 및 발굴된 해양헬스케어 소재의 산업화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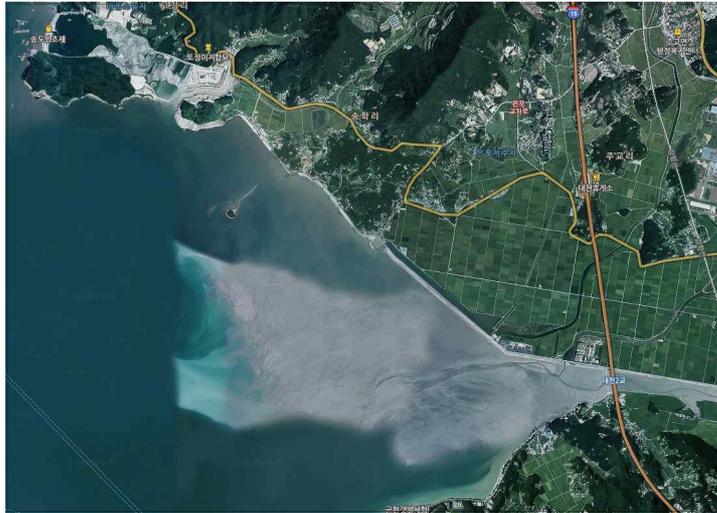
■ 해양바이오 기능성소재산업 육성

- 현황 및 필요성
 - 최근 해양바이오산업은 성장전망이 매우 큰 분야로 각광
 - GIA(2015)의 보고서는 세계 해양바이오 산업의 시장규모가 2020년에 4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Smithers Rapra(2015)의 보고서는 2020년 48억 달러, 2025년에 6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해양바이오산업 중에서도 기능성소재를 활용한 분야의 전망 밝음
 - 해양추출물을 이용한 제약분야나 화장품산업 응용분야를 가장 성공가능성이 높은 사업 분야로 전망
 - 해양생물을 이용한 바이오 기능성소재산업은 다양한 분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는 산업
 - 1차 가공품에서 기능성 향장품, 의약소재 등의 추출을 통한 고부가가치산업화 가능
 - 풍부한 갯벌자원은 바이오소재산업의 기본조건의 하나로서 보령에 적합
 -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연계를 통한 해양바이오 기능성소재 산업화 용이
 - 해양헬스케어 치유센터와의 시너지 효과 기대 가능
- 관련계획 및 사업
 - 해양수산부(2010), 제2차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
- 사업개요
 - 추진주체 : 국가, 충청남도, 보령시, 민간기업
 - 위 치 : 원산도 또는 대천해수욕장 일대
 - 분 류 : 신규
 - 사업기간 : 단기·중기 (2018~2022년)
 - 사 업 비 : 280억 원 (국비 170억 원, 지방비 80억 원, 민자 30억 원)
- 사업내용
 - 해양바이오 기능성소재 지원센터 설립 및 산학연 연구개발 프로그램 개발·운영
 - 기능성 소재에 대한 기술 표준화 및 제품화 연구 지원
 - 해양바이오 신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시제품 제작지원 장비활용 지원
 - 기능성소재에 대한 시장조사 및 글로벌 마케팅 지원
 - 개발된 기능성 소재에 대한 기술 실용화 및 교류 확대

■ 블루카본(Blue Carbon) 시범단지 조성

- 현황 및 필요성
 - 블루카본은 연안에 서식하는 염생식물이 광합성을 통해 흡수한 탄소와 조석파도 등 물리적 작용에 의해 갯벌(진흙) 사이사이 공간에 포집된 탄소를 이르는 말로, 새로운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주목³⁷⁾
 - 우리나라는 파리협정(2016년 11월 발효)에 따라, 2030년까지 37%의 온실가스를 감축 불가피
 - 블루카본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기여함과 동시에 갯벌 등 해양생태계 복원사업에도 기여 가능
- 관련계획 및 사업
 -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관리공단(KOEM)을 주관기관으로, 서울대학교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을 블루카본 공동연구기관으로 선정하여 관련분야 기술 개발 중
 - 충청남도는 '연안역 블루카본 잠재적 가치 평가 학술연구용역' 수행 중
- 사업개요
 - 추진주체 : 충청남도, 한국해양환경관리공단
 - 위 치 : 보령시 주교면 송학리 일대 갯벌
 - 분 류 : 신규
 - 사업기간 : 단기·중기 (2019~2023년)
 - 사 업 비 : 50억 원 (국비 40억 원, 도비 10억 원)
- 사업내용
 - 블루카본 현황 조사 및 통계 산출
 - 갯벌 분포 및 염생식물, 잘피 등의 서식밀도와 생체량 조사
 - 갯벌 환경과 탄소흡수량 간의 연관관계 분석
 - 염생식물, 잘피 등에 대한 관리 및 갯벌 보호 방안 마련
 - 블루카본 산업화 및 기술 실용화를 위한 기반 구축
 - 블루카본 관련 기관 및 기업 유치를 통한 전·후방산업 네트워크 구축

37)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해양생태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한다: 향후 5년간 100억원 투입하여 블루카본 연구개발 본격 추진', 2017.3.24.일자.



[그림 2-3-1] 블루카본 시범단지 예정지 (보령시 주교면 송학리)

■ 미세조류 이용 바이오연료 대량생산단지 조성

- 현황 및 필요성
 - 청정바이오에너지 개발이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급격하게 부상함에 따라 해양바이오연료(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등)산업의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
 - 화력발전소 온배수 폐열의 활용을 통한 해양바이오연료 대량생산 실증단지 구축 및 산업화 기반 확보 가능
- 관련계획 및 사업
 - 해양수산부(2010), 제2차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
- 사업개요
 - 추진주체 : 정부, 충남도, 보령시, 민간기업
 - 위 치 : 보령시 오천면 일대 (보령화력발전소 인근)
 - 분 류 : 신규
 - 사업기간 : 중기·장기 (2021~2030년)
 - 사 업 비 : 1,000억 원
- 사업내용
 - 해양바이오연료 실증단지 구축 (2021~2025년)
 - 미세조류 바이오연료 플랜트 설계·운영 및 시범생산 기반 구축
 - 미세조류 바이오연료 산업화를 위한 대량생산 실증단지 구축 (2025년 이후)

- 미세조류 대량배양 단지 구축 (※ 총 40ha=2개 화력발전소 × 20ha)
- 해양바이오연료 추출 및 부산물 처리공정 실증
- 미세조류 바이오연료 산업화를 위한 경제성 모델 산정
- 미세조류 이용 바이오연료산업 육성을 해수부와 충남도에 건의하여 바이오연료의 테스트베드이자 국가 시범단지를 보령에 유치 추진

2) 해양 사회적경제 및 일자리 창출

■ 해양수산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육성

- 현황 및 필요성
 -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는 각각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통해서 마을·지역에 다양한 경제주체 조직화 추진
 - 보령의 마을기업은 9개소로 충남 전체 109개소의 8.3%에 지나지 않으며, 사회적기업은 고용부 인증 2개소, 지역형 예비 2개소로 충남 전체(134개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약
 - 농어촌지역의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은 지역특산품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것을 주요 수익모델로 설정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효과
- 어촌 지역의 수산자원을 기반으로 어촌 주민 주도의 특화계획에 따라 1차(생산), 2차(가공), 3차(유통·판매) 산업의 융·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
 - 중앙정부에서는 앞으로도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농어촌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충남도는 자체적으로 충남형 예비적사회적기업 지정
 - 중앙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에 대응·지원하기 위한 보령시 차원의 지원(아이디어 발굴, 주민교육 등) 필요
- 관련계획 및 사업
 -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 관계부처 합동(2012), 제2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2조 및 제6조, 제7조
 - 2018년 시책사업 '사회적경제 기업 신규 발굴 및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과 연계

- 사업개요
 - 추진주체 : 보령시
 - 위 치 : 보령시 연안(어촌) 마을
 - 분 류 : 계속
 - 사업기간 : 단기·중기 (2018~2025년)
 - 사 업 비 : 16억 원
- 사업내용
 - 중앙정부·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과의 매칭을 통한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
 - 해양수산물 관련 해양레포츠, 해양관광, 수산물 유통·가공분야에서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육성계획 수립
 - 해양관광·산업관련 종사자, 어촌마을 주민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관련 교육 강화 및 사업 아이디어 발굴 지원
 - 어촌마을기업 육성과 관련하여 ‘충남 어촌특화지원센터’ 외의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해양수산 사회적경제 지원 방안을 충남도와 협의하여 추진

< 어촌 마을기업 사례 : 포항 동해면 검은돌장어마을 >³⁸⁾

- 2014년 6월 포항의 음식특화마을로 마을기업에 지정되어 흥환리를 중심으로 인근 발산리, 마산리 주민을 포함하여 총 43명이 ‘영일만검은돌장어영어조합법인’ 구성
- ‘2017년 경상북도 마을이야기 박람회’ 에 포항시 대표마을로 참가하여 ‘경상북도지사상(으뜸상)’, 마을먹거리 부문 ‘월빙상’ 수상



[그림 2-3-2] 포항 검은돌장어마을

자료 : (좌측) 이원우, “포항 동해면 흥환리 검은돌장어마을”, 경북타임즈, 2017.09.27. 일자.
 (우측) 정철화, “‘검은돌장어’ 창조경제 수산업 신먹거리로 부상”, 경북매일, 2016.06.12. 일자.

38) 이원우, “포항 동해면 흥환리 검은돌장어마을”, 경북타임즈, 2017.09.27. 일자.

■ 해양수산 창업·직업·진로 체험관 설립

- 현황 및 필요성
 - 어촌의 노령화 및 인력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어업관련 직업을 3D로 인식하는 경향
 - 해양수산 관련 직업은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청년층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 학습 및 교육의 기회가 부족
 - 지역 청년층의 해양수산분야 취업기피 등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 및 인력난 완화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 필요
 - 아동·청소년 시기부터 해양수산업에 대한 다양한 체험 및 직업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해양수산의 미래인력으로 육성 필요
 - 상설적인 해양수산분야 직업 체험 및 창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건전한 직업관 인식 제고 필요
- 관련계획 및 사업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개요
 - 추진주체 : 충청남도
 - 위 치 : 보령시 신항동 (대천해수욕장 인근)
 - 분 류 : 신규
 - 사업기간 : 단기·중기 (2019~2021년)
 - 사 업 비 : 200억 원 (국비 150억 원, 도비 50억 원)
- 사업내용
 - 현재 우리나라 해양수산의 현황과 해양 선진국의 해양수산의 사례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 및 체험관 운영
 - 우리나라 바다의 특성과 관련 산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4D 상영관 운영
 - 지역 해양수산관련 유물 및 역사를 전시하는 전시관 운영 및 큐레이터 고용
 - 해양수산관련 교육 및 진로 상담을 위한 전문 컨설턴트 고용
 - 해양수산관련 명사 초청 강연회 등 지역주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

■ 해양수산 중소벤처기업 육성

- 현황 및 필요성
 - 최근 문재인 정부의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립은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의 대전환 의미
 - 문재인정부는 20대 국정전략 중 하나로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동시에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와도 연결
 - 해양항만 분야 역시 현재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 양질의 일자리 부족, 그리고 이러한 것의 결과로 발생하는 인구유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이 반드시 필요
 - 해양항만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을 통하여 일자리창출, 가계소득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등 모색 필요
- 관련계획 및 사업
 -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 사업개요
 - 추진주체 : 국가, 충남도, 보령시, 민간기업
 - 위 치 : 보령시 천북면 학성리 (준설투기장 일원)
 - 분 류 : 신규
 - 사업기간 : 단기·중기 (2018~2021년)
 - 사 업 비 : 300억 원
- 사업내용
 - 해양항만 스타트업·중소기업 유치 및 집적단지 조성 지원 (학성리 일대)
 - 해양항만 스타트업·중소기업의 지방세 감면 등의 세제지원 및 경영안정화를 위한 초기 창업자금 지원
 - 스타트업·중소기업의 우수 창업 아이템에 대한 보령시 공동연구 추진 및 제품 판로개척 지원
 - 지역인재 고용 및 채용 관련 행정서비스 제공

■ 해양 MICE산업으로 일자리 창출

- 현황 및 필요성
 - MICE(Meetings, Incentives, Conventions, Events & Exhibitions)산업은 각종 회의, 포상 관광, 국제회의, 기획행사 및 전시회의 약어로 비즈니스 관광의 통칭 의미³⁹⁾
 - MICE 산업은 관련된 행사의 직접 참가자의 규모가 크고, 참가자 1인당 지출액 역시 일반관광객보다 크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 분야로 주목 받음
 - 회의 개최 외에도 인근 지역의 관광·숙박·항공·운송·식당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높고, 서비스산업 관련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여 지역경제 기여도 높음
 - MICE산업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충남은 수도권·부산·제주와 비교하여 기반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에 회의·전시 목적으로 한 MICE산업의 경쟁력 약함
 -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령지역의 MICE산업은 해양레저산업과 관련된 해양 MICE라는 콘셉트의 접근 유리
- 관련계획 및 사업
 - 문화체육관광부(2013), 제3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
 - 해양수산부(2014), 제2차 해양관광진흥 기본계획
- 사업개요
 - 추진주체 : 국가, 충청도, 보령시, 민간기업
 - 위 치 : 보령시 천북면 학성리 (준설투기장 일대)
 - 분 류 : 신규
 - 사업기간 : 중기·장기 (2021~2030년)
 - 사 업 비 : 300억 원
- 사업내용
 - 대형 컨벤션 설립으로 국제적인 행사가 유치가 가능한 MICE 산업기반 조성
 - 컨벤션·전시·숙박 기능을 갖춘 유명 호텔 유치로 비즈니스관광 인프라 조성
 - 해양관광, 해양레포츠, 레저보트 산업과 MICE를 연계한 비즈니스 관광 패키지 개발
 - 해양레저 패키지 개발 : 해양레저 연계 관광 프로그램, 해양헬스케어 패키지 등
 - 고유문화 패키지 개발 : 외국인 대상 고유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
 - 역사·문화·생태자원 패키지 개발 : 지역 문화재·관광지 연계 프로그램, 가족 단위 지역 축제 연계 프로그램 등

39) 문화체육관광부(2013), 제3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

- MICE산업과 관련된 인재양성을 위한 전문학교 설립 또는 유치, 지역대학에 MICE 관련 전문학과 설치 요청 등
- 중기적으로 '2022 보령머드엑스포' 유치를 위한 기본시설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엑스포 시설 활용계획 필요



[그림 2-3-3] 부산 bexco 전경

자료 : bexco HP 「<http://www.bexco.co.kr/kor/Main.do>」 (백스코 시설안내)

3) 다기능항만 및 해양산업클러스터 조성

■ 보령신항 다기능 복합항만 건설

- 현황 및 필요성
 - 대중국 물동량 및 관광 잠재력 등 서해안 경제권 성장이 확대 예상되어 물류, 관광, 마리나 등 다기능 복합항만 육성 개발 필요
 - 현재 보령항은 발전소와 산업단지가 배후에 위치하여 석탄 및 LNG 공급을 위한 에너지 중심 항만 (※ 2015년 기준 총 물동량 13,244천 RT)
 - '보령신항 다기능 복합개발 타당성 분석 및 기본구상 용역'에서는 다목적부두 5만톤급 2선석과 마리나항, 배후단지 등 약 57만㎡의 항만시설단지 개발 필요
 - 2016년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보령신항이 반영되어 있으나, 석탄부두 2선석과 LNG부두 2선석 반영
 - 보령신항 항만시설용 부지(준설투투기장) 조성 (1단계 : 호안 2,228m, 551천㎡)

- 관련계획 및 사업
 - 해양수산부(2016),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 보령시(2015), 보령신항 다기능 복합개발 타당성 분석 및 기본구상 연구
- 사업개요
 - 추진주체 : 국가
 - 위 치 : 보령시 천북면 학성리 일대
 - 분 류 : 신규
 - 사업기간 : 중기·장기 (2021~2030년)
 - 사 업 비 : 3,301.09억 원 (※ 1단계 추진 427억 원 포함)
- 사업내용
 - 5만톤급 2선석 다목적부두 건설과 약 57만㎡의 항만시설(배후단지) 마련 필요
 - 다목적부두에 일반화물 뿐만 아니라 크루즈 전용부두를 설치하여 서해안권의 크루즈 거점 기항지 조성
 - 장기적으로 인근에 마리나항만(30선석) 건설하여 파트워트, 세일요트의 중간기점으로 활용
 - 크루즈 기항을 위한 전용 여객선 터미널 설치를 추진하고, 크루즈뿐만 아니라 대중국 여객선 항로 개발 추진
 - 보령항의 석탄부두의 먼지 등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및 환경정비

■ 원산도·무창포 복합 마리나항 건설

- 현황 및 필요성
 - 보령은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중 서해안의 중앙에 위치하여 마라나산업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충남에서는 유일하게 마리나인 보령요트 경기장 위치
 - 현재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에는 원산도와 오천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수정계획에서 최종적으로 원산도와 무창포 지정
 - 보령신항과 연계하여 서해안권 최대 해양관광 및 레저·스포츠를 위한 복합 마리나항 개발
- 관련계획 및 사업
 - 해양수산부(2015), 제1차 마라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

- 사업개요
 - 추진주체 : 국가, 민간기업
 - 위 치 : 보령시 원산도, 무창포
 - 분 류 : 계속
 - 사업기간 : 단기·중기 (2014~2020년)
 - 사 업 비 : 600억 원 (국비 50%, 민자 50%)
- 사업내용
 - 선박계류시설, 클러하우스, 공연장, 숙박시설, 주차장 등 건설 추진
 - 원산도는 대명리조트 수요를 고려하여 기존 선촌에서 오봉산 일대로 변경 추진
 - 원산도 마리나항만 기본조사 설계 용역을 통하여 구체적인 조성방안 도출 필요
 - 보령신항, 서비스형 마리나산업 클러스터(준설투기장)와의 연계 방안 모색 필요

〈 마리나 사례 : 호주 시드니 The Spit, 골드코스트 Sanctuary Cove 〉⁴⁰⁾

- The Spit 마리나는 일상형으로 단기 체류형이며, 대도시 근교에 위치
- Sanctuary Cove 마리나는 리조트형으로 장기체류 및 숙박이 가능하고 관광지 인근에 위치



시드니 The Spit 마리나



골드코스트 Sanctuary Cove 마리나 리조트

[그림 2-3-4] 호주 마리나 시설

자료 : (좌측) Bryant Hevesi, Mosman Daily, "Superyachts to become a regular sight at The Spit once d' Alborra Marinas revamp is completed", The Daily Telegraph, 2015.6.18.일자.

(우측) 류효종(2007), 세계 레저보트 및 마리나 산업의 이해 : 지방자치단체 마리나 산업 정책 제안,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시드니사무소

40) 류효종(2007), 세계 레저보트 및 마리나 산업의 이해 : 지방자치단체 마리나 산업 정책 제안,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시드니사무소

■ 서비스형 마리나산업 클러스터 조성

- 현황 및 필요성
 - 보령은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중 서해안의 중앙에 위치하여 마리나산업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지리적 위치 보유⁴¹⁾
 - 보령에는 충남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마리나인 보령요트경기장이 있으며, 무창포와 원산도가 각각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으로 지정
 - 보령신항 건설을 위한 준설투기장 조성으로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대단위 부지 확보가 용이하므로, 항만과 인접한 천북면 학성리 준설투기장을 서해안 마리나산업의 중심지역으로 육성 가능
- 관련계획 및 사업
 - 해양수산부(2015),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
- 사업개요
 - 추진주체 : 국가, 충청도, 보령시, 민간기업
 - 위 치 : 보령시 천북면 학성리 (준설투기장 일대)
 - 분 류 : 신규
 - 사업기간 : 중기·장기 (2021~2030년)
 - 사 업 비 : 5,000억 원
- 사업내용
 - 중장기적으로 마리나, 해양레포츠 산업관련 전·후방산업 집적을 통하여 '서비스형 클러스터' 조성
 - 마리나산업 관련 철강, 전자 소재·부품기업부터 은행, 회계 등의 금융기업, 외식업체, 교육기관 등의 서비스 기업까지 집적될 수 있는 클러스터 형성 추진
 - 마리나, 크루즈 등을 이용하여 관광객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문 쇼핑센터 및 아울렛 등 유치, 지역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관광상품 개발 등 추진
 - 요트, 서핑, 스킨스쿠버 등 해양레포츠 관련 장비 제조, 매매, 교육서비스 등이 집적될 수 있도록 추진
 - 충청도와 보령시를 중심으로 '보령신항 및 마리나산업 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하여 대내외적인 필요성 설득 및 중앙·광역의 관심 유도
 - 클러스터 형성을 위한 도로, 상하수도 건설 등의 인프라 투자 필요

41) 충남 마리나항만 예정지 : 무창포, 원산도(보령), 창리(서산), 왜목, 장고(당진), 흥원(서천), 안흥(태안)

■ 해양 레저보트 산업단지 조성

- 현황 및 필요성
 - 국내외 해양레저용 선박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정부는 마리나 활성화와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
 - 보령에는 충남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마리나인 요트경기장이 있으며, 무창포와 원산도가 각각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으로 지정
 - 보령의 마리나 수요는 보령요트경기장(육상 50척), 무창포 마리나(100척), 원산도 마리나(200척) 예상⁴²⁾
- 관련계획 및 사업
 - 해양수산부(2015),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
 - 해양수산부(2017), 제1차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
- 사업개요
 - 추진주체 : 국가, 충남도, 보령시, 민간기업
 - 위 치 : 보령시 천북면 학성리 (준설투기장 일대)
 - 분 류 : 신규
 - 사업기간 : 중기·장기 (2021~2030년)
 - 사 업 비 : 300억 원
- 사업내용
 - 마리나산업 클러스터 내 레저보트의 제조, 수리, 정비, 매매 등의 관련 산업이 집적하는 산업단지 조성
 - 설계 : 레저보트 디자인 및 설계, 자재 및 부품 조달
 - 제조 : 건조, 표면처리, 도색 등을 위한 중·소규모의 조선소 입지
 - 수리·정비 : 레저선박 수리·정비 등 경정비
 - 서비스 : 레저선박 매매, 보급기능(부품)
 - 관광 및 교육·실습 : 레저선박 이용한 관광 상품개발, 레저선박 교육 및 실습
 - 해양레포츠산업과 연계하여 레저보트 외 서핑, 스키스쿠버 장비산업 유치 추진
 - ‘보령 레저보트산업 지원센터’ 설립을 통하여 해양 레저보트 및 레포츠 관련 중소기업의 보령시 이주 지원
 - 향후 마리나산업 클러스터 내 타 산업과의 융·복합화를 통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

42) 수요 예측은 ‘해양수산부(2015),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의함

4) 지역 수산산업의 미래가치 창출

■ 수산식품 수출가공 클러스터 조성

- 현황 및 필요성⁴³⁾
 - 수산식품시장은 세계 인구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10년 대비 2050년 까지 약 1.1억 톤 발생 전망
 - 우리나라의 수산가공산업은 수산물 산지 입지를 기반으로 성장하여 주요 수출항과 연계성이 낮은 연안 어항에 산재되어 있고 내수시장에 의존
 - 수산물 수출단지 조성을 통하여 산재된 수산가공업체를 집적화하고, 집중적인 지원을 통하여 수출산업으로 육성 도모
 - 한중 FTA 체결 이후 수산물의 대중국 수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수산식품산업 육성은 현 정부의 기조에 부합
 - 현재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산물 수출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권역별 수산물 수출가공클러스터 조성 연구’ 추진 중
- 관련계획 및 사업
 - 해양수산부(추진 중), ‘수산물 수출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권역별 수산물 수출가공클러스터 조성 연구’
- 사업개요
 - 추진주체 : 국가, 충남도, 보령시, 추진주체
 - 위 치 : 보령시 대천항 일대 (해경부두 매립지 인근)
 - 분 류 : 신규
 - 사업기간 : 단기·중기 (2018~2025년)
 - 사 업 비 : 총 50억 원
- 사업내용
 - 보령신항, 수산가공식품 거점단지와 연계하여 수산식품 수출가공 클러스터 조성 추진
 - 보령에서 생산되는 수산물뿐만 아니라 충남 연안권 전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수산가공산업 단지 조성
 - 현재 충남은 김 산업 관련 수출가공 클러스터 조성이 유력하므로, 도내 최대 조미 김 생산업체가 밀집되어 있음을 강조 필요

43) 해양수산부(2016), ‘수산물 수출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권역별 수산물 수출가공클러스터 조성 연구 과업지시서’ 참조

■ 수산식품산업(천북웰빙특화) 거점단지 고도화 추진

- 현황 및 필요성
 - 천북면 장은리는 1990년대 초반부터 형성된 생계형 굴단지로 매년 10월~3월까지 연간 20여만 명이 찾는 관광명소
 - 미래 수산업을 이끌어갈 고부가가치 청정 수산물 생산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안전한 식품 공급체계의 구축하기 위하여 천북에 웰빙특화단지 조성
 - 향후 보령신항의 배후지역으로 지역수산물 직매장, 굴 전문식당가, 굴가공식품 개발 등 지역 수산식품의 거점지역으로 육성 필요
 - 2018년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향후 고도화 사업을 통한 지역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필요
- 관련계획 및 사업
 - 해양수산부,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사업'
 - 보령시(2016),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 사업개요
 - 추진주체 : 보령시
 - 위 치 : 보령시 천북면 장은리
 - 분 류 : 계속
 - 사업기간 : 단기·중기 (2019~2021년)
 - 사 업 비 : 총 25억 원
- 사업내용
 - 현재의 단지 기능은 가공기능, 판매기능, 기타 부대기능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향후에는 판매기능 확대를 통한 소득사업 중심으로 고도화 추진
 - 수산물 전문 직매장 유치, 굴 등 지역수산물 전문식당가 조성, 수산가공 식품기업 유치, 수산가공품 개발 등에 대한 전문기업 유치 필요
 - 운영주체의 전문성 강화 및 주민역량 강화를 통한 단지의 인적 인프라 강화 필요
 - 지역브랜드 개발을 통한 마케팅 강화, 민간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유통망 확보
 - 지역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관광객 요구에 적절한 대응 필요

■ 수산종자·수산기자재 산업단지 조성

- 현황 및 필요성
 - 2016년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이 시행됨에 따라 국가차원의 수산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 및 기반 조성
 - 수산종자는 국가 미래 식량자원의 원천이자 BT(생명공학기술), NT(나노기술) 등 신기술, 의약재료 산업 등과의 융복합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자원
 - 수산종자 보전 및 친어 관리는 지역 양식어업 발전의 원천이 되고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필요조건으로 지역 수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
 - 국내 수산기자재는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발전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기자재의 국산화 필요⁴⁴⁾
 - 항법 및 전자 장비의 일부는 국산화되어 있으나, 정밀한 고가의 장비는 노르웨이, 일본에서 수입하고, 어망, 어구는 중국에서 수입
 - 수산기자재 관련 영세업체가 난립하고 있으며, 가공·유통관련 기자재는 선진국에 비하여 50~60% 기술 수준⁴⁵⁾
 - 일반 양식어업 기자재는 영세업체가 조립 또는 가공을 통하여 단순 보급
 - 수산물 양륙·물류, 위생, 수산식품 안전관리 기술 미흡
 - 수산종자 및 수산기자재 산업의 메카로서 보령의 위상을 정립하고, 향후 신기술 및 전후방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관련계획 및 사업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개요
 - 추진주체 : 국가, 충남도, 민간기업
 - 위 치 : 보령시 대천항 일대 (해경부두 매립지 인근)
 - 분 류 : 신규
 - 사업기간 : 중기·장기 (2021~2030년)
 - 사 업 비 : 총 100억 원
- 사업내용
 - 보령신항 항만배후단지 일원에 수산종자 및 수산기자재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관련 전·후방산업 육성 추진

44) ‘충청남도(2015),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 참조

45) ‘충청남도(2015),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 참조

- 수산종자 및 수산기자재 산업관련 전·후방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
- '해양항만 중소벤처 기업 육성' 사업과 연계하여 수산종자 및 수산기자재 스타트업·중소기업 유치 추진
- 단기적으로는 수산종자 및 수산기자재 산업 유치를 해수부와 충남도에 건의하고, 타당성 용역 후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

■ GIS Web 기반 해삼 스마트 팜 조성

- 현황 및 필요성
 - 해삼은 충남의 대표적인 수산물로서 4대 전략품종의 하나로서 안정적 생산과 규모화를 통한 공급체계 확립 및 경쟁력 강화 필요
 - 해삼 양식, 기술이전 및 양식단지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생산량 증대 및 고품질화 필요
 - 충남의 황해 냉수대를 활용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대규모 스마트 팜 적용 가능
 -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해삼의 양식 및 중간 종묘생산 기술이 없어 주로 살포에 따른 자연증식에 의존
 - 복잡한 유통단계 극복을 위한 생산, 가공, 유통 단계를 연계한 One-Stop 시스템 개발 필요
 - 향후 대중국 주요 수출품목으로 기대 가능하고, 수출용 해삼양식단지 조성으로 경쟁력 확보
 - 대외 수출뿐만 아니라, 다양한 로컬푸드 및 향토음식의 개발을 병행 추진하여 활용의 다양성 증대 도모
- 관련계획 및 사업
 - 해양수산부, '수산물 10대 수출전략품목 육성'
 - 해양수산부(2016), 해양수산분야 기획영역별 R&D 로드맵
- 사업개요
 - 추진주체 : 국가, 충남도, 보령시
 - 위 치 : 보령시 장고도 및 삽시도
 - 분 류 : 신규
 - 사업기간 : 단기·중기 (2019~2021년)
 - 사 업 비 : 총 75억 원 (국비 37.5억 원, 지방비 37.5억 원)

보령시 해양항만 발전 기본계획

- 사업내용
 - 해삼 종묘배양장 건립, 어장환경개선(투석), 종묘입식 등 해삼 특화단지 조성
 - 해삼 복합 양식장 조성 및 스마트 팜 구축
 - 도서 주변 해면을 대상으로 인공서식장 조성
 - 실시간 자동관측 환경정보, 자연 조건 및 모니터링 정보, 보안 감시 정보 등의 실시간 정보 DB를 GIS기반 시스템과 양식관리 시스템과 연동하여 실시간 양식장 관리, 환경변화 신속대응, 생산성 향상 도모
 - 양식, 중간 종묘생산, 가공기술 개발 등 양식 R&D와 연계를 통한 생산기반 구축
 - 해삼 테마파크와의 연계를 통한 관광산업 및 수산업의 경쟁력 극대화



전북 고창의 IoT 기반 장어 양식장



노르웨이 아크바(AKAVA)사의 1인 제어 스마트 양식장

[그림 2-3-5] 스마트 양식 사례

자료 : (좌측) 김창덕, “비싸고 까다로운 장어 양식, 사물인터넷이 구세주로 뜬다”, dongA.com, 2014.09.01.일자.
 (우측) 민동훈, “4차 산업혁명 시대, ‘스마트 양식’ 이 미래 먹거리 책임진다”, 머니투데이, 2017.11.20.일자.

[표 2-3-2] 「Innovating 해양산업-항만」 연차별 예산계획

(단위 : 백만 원)

추진전략	세부사업	계	단기					중기	장기
			2016년 이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 2025년	2026~ 2030년
지역자원 활용한 해양신산업 창출	해양 치유·휴양관광 헬스케어산업 육성	5,000			200	1,600	1,600	1,600	
	해양바이오 가능성 소재산업 육성	28,000			1,000	2,000	5,000	20,000	
	블루카본 시범단지 조성	5,000				1,000	1,000	3,000	
	미세조류 바이오연료 대량생산단지 조성	100,000						40,000	60,000
해양 사회적경제 및 일자리 창출	해양수산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육성	1,600			200	200	200	1,000	
	해양수산 창업·직업·진로 체험관 설립	20,000				4,000	6,000	10,000	
	해양수산 중소벤처기업 육성	30,000			3,000	6,000	13,000	8,000	
	해양 MICE산업으로 일자리 창출	30,000						15,000	15,000
다기능항만 및 해양산업클 러스터 조성	보령신항 다기능 복합항만	330,109		2,000	4,000	18,000	18,700	122,355	165,054
	원산도·무장포 복합 마리나항 건설	60,000			20,000	20,000	20,000		
	서비스형 마리나산업클러스터 조성	500,000						250,000	250,000
	해양 레저보트 산업단지 조성	30,000						15,000	15,000
지역수산업 의 미래기회 창출	수산식품 수출가공클러스터 조성	5,000			500	500	500	3,500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고도화 추진	2,500				500	1,000	1,000	
	수산종자·수산기 자재산업단지 조성	8,000						4,000	4,000
	GS Web 기반 해삼 스마트 팜 조성	7,500				2,500	2,500	2,500	

보령시 해양항만 발전 기본계획

[표 2-3-3] 「Innovating 해양산업항만」 자원별 예산계획

(단위 : 백만 원)

추진전략	세부사업	계	국비	도비	시비	민자 (자부담)
지역자원 활용한 해양신산업 창출	해양 치유·휴양관광 헬스케어산업 육성	5,000		1,000	1,000	3,000
	해양바이오 기능성 소재산업 육성	28,000	17,000	4,000	4,000	3,000
	탄소흡수원 블루카본 시범단지 조성	5,000	4,000	1,000		
	미세조류 바이오연료 대량생산단지 조성	100,000	60,000	15,000	15,000	10,000
해양 사회적경제 및 일자리 창출	해양수산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육성	1,600	800	400	400	
	해양항만 창업·직업 체험관 설립	20,000	15,000	5,000		
	해양항만 중소벤처기업 육성	30,000	17,000	4,500	4,500	4,000
	해양 MICE산업으로 일자리 창출	30,000	17,000	4,500	4,500	4,000
다기능항만 및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	보령신항 다기능 복합항만	330,109	330,109			
	원산도·무창포 복합 마리나항 건설	60,000	30,000			30,000
	서비스형 마리나산업클러스터 조성	500,000	250,000	50,000	50,000	150,000
	해양 레저보트 산업단지 조성	30,000	18,000	4,500	4,500	3,000
지역수산산업의 미래가치 창출	수산식품 수출가공클러스터 조성	5,000	3,000	750	750	500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고도화 추진	2,500			2,000	500
	수산종자·수산기자재산 업단지 조성	8,000	6,000	1,000		1,000
	GIS Web 기반 해삼 스마트 팜 조성	7,500	3,750	1,500	2,250	

4절 Leading 지역역량

1. 현황분석 및 진단

1) 현황 및 문제점

■ 보령에는 주로 해양관광 중심으로 시설이 구축되고 유관단체가 조직

- 대천해수욕장 주변 상인들의 단체인 대천관광협회 및 해수욕장 상인회, 무창포해수욕장 주변 상인들의 단체인 무창포관광협회가 활동 중
- 보령신항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 대표로 구성된 보령시발전협의회가 주도적 역할
- 충남요트협회, 충남세일링연맹, 보령요트학교가 있어 주로 요트중심의 해양레포츠 기관 위치

■ 보령에는 대학이 없으며,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가 위치하여 해양관련 중등교육 실시

- 과거 대천수산고등학교로서 지역 수산인재를 육성하는 학교였으나, 최근에는 해양생산과, 동력기계과, 지역수산과, 냉동공조과 4개과로 수산뿐만 아니라 해양영역까지 확대 교육 (※ 현재 286명 재학)

■ 보령시의 어업조직으로는 수협 2개소, 어촌계 25개소 유인도서 16개소에 1,608세대 거주

- 충남 어촌계 165개소 중 25개소가 위치해 있고, 수협은 보령수협과 대천서부수협 위치
- 보령수협은 전국 조합별 위판실적이 13위를 차지할 정도의 규모 있는 수협이고, 대천서부수협은 50위권 (2013년 기준)

■ 해수욕장과 축제 중심의 해양사업 집중되고 지역역량 편중

- 대천 및 무창포 해수욕장 중심의 하드웨어 사업 추진과 축제 중심의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
- 유관기관도 주로 해수욕장 상인 중심의 관광협(의)회가 주도

■ 보령시에는 해양항만과 관련하여 인적·물적 인프라가 부족하고, 교육시설, 유관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제한적임

- 보령시 해양항만을 중장기적 안목에서 육성하기 위하여 연구·교육기관 부족
- 지역 해양항만정책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거버넌스 조직 부족
- 지역 해양항만의 콘텐츠, 스토리 개발 등 소프트파워 부족

2) 여건분석 및 진단

■ 해양관광 외 해양환경, 해양산업 및 항만, 해양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 지역 역량 강화 필요

- 해양환경, 해양산업, 해양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기관 유치 및 전문인력 양성
- 해양관광뿐만 아니라 타 산업과의 연계·협력을 통하여 충남 해양항만의 중추도시로 육성

■ 지역주민의 편의를 개선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통하여 명실상부한 해양관광의 메카로 정착

- 장애인·노약자 등에 대한 편의시설 확충으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해수욕장 조성
- 유인도서의 연안여객항로 지원으로 도서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서관광 활성화

■ 해양항만 네트워크 조직 및 전문인력 양성으로 지역 해양산업의 기반 구축

- 해양관광 네트워크 조직으로 지역 해양관광의 통합적 컨트롤센터 운영
- 크루즈 및 마리나 산업 전문인력 육성으로 해양관광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
- 보령 해양비전위원회 설립을 통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으로 지역역량 강화

■ 보령 도서의 낙후된 이미지를 만회할 수 있는 정책 추진 필요

- 보령 도서개발의 중장기적 안목으로 접근하여 도서별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정책 추진 필요
- 특히 국도 77호선 개통에 따라 대천항·원산도 인근도서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도서관광 명소화 추진

■ 지역의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해양항만 소프트파워 강화로 해양도시로서의 지역 위상 강화

- 지역 전통어법을 FAO 세계중요어업유산으로 등재시켜 전통어업 도시의 위상 구축
- 소멸되어 가는 해양 전통문화를 보전하기 위한 아카이브사업 추진으로 지역 전통문화 보전·기록 강화
- 2022년 보령머드엑스포 유치를 통하여 보령 머드의 세계화 추진

2. 기본방향 및 목표

1) 기본방향

- 해양항만 관련 전문기관 유치, 전문인력 양성으로 인적 인프라 구축
- 해양관광자원을 사회적 약자에게 제공하여 관광복지 실현
- 도서 연안여객항로 지원을 통하여 도서주민의 삶의 질 개선
- 해양관광의 전문적인 컨트롤타워 운영으로 효율화·체계화 추구
- 크루즈·마리나 산업 전문인력 육성으로 미래 수요 대비
- 보령 도서의 낙후된 이미지를 개선하고, 미래 자산으로서 도서 개발
- 지역 해양자원의 세계화를 통한 해양도시로서 위상 제고 및 전통 해양문화의 보전 및 기록
- 보령의 해양항만 발전을 토론했고 논의할 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

2) 목표 및 추진전략



(1) 목표

■ 해양항만의 인프라 구축 및 소프트웨어 강화

- 중장기적 안목에서 보령의 해양항만의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 해양항만 전문기관 유치 및 전문인력 육성으로 미래 해양도시로의 기반 조성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관광복지를 실현하고, 도서 주민의 삶의 질 개선
- 주력 산업인 해양관광의 컨트롤타워를 운영하여, 관련 산업의 인재 육성
- 그동안 낙후되었던 지역의 도서(섬)의 가치를 재창출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지역의 전통 해양(어업)문화를 보존·기록하고, 이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정책 추진
- 지역 해양항만 정책의 상향식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

(2) 추진전략

■ 해양항만 인적 인프라 구축

- 국립해양수산대학, KOST 서해분원, 보령지방해양수산청 등 유치를 통하여 지역 해양항만 역량 강화

- 지역의 해양관광자원을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장애인, 노약자,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계층을 위한 시설 및 사업 추진
- 도서 연안여행객향로 지원 강화를 통한 도서주민의 삶의질 개선 및 도서관광 활성화

■ 네트워크 조직 및 전문인력 육성

- 해수욕장, 어촌체험마을, 해양축제 등의 해양관광자원의 마케팅 강화를 위한 해양관광 네트워크조직(컨트롤타워) 육성
- 미래 관광수요가 예측되는 해양레포츠, 마리나산업의 전문인력 육성
- 지역의 해양항만 정책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과 지역역량 결집을 위한 보령 해양비전위원회 설립·운영

■ 도서(섬)의 가치 재창출

- 제4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18년 ~ '27년)에 선제적 대응기반 마련
- 지역 도서(섬)의 특색을 살려 도서별 가치창출을 통한 주민소득 향상 기여
- 원산도↔효자도 간 명품 브릿지 조성으로 효자도의 개발여건 강화

■ 해양항만 소프트파워 강화

- 보령의 전통 어업자원이 세계화를 위한 FAO 세계중요어업유산 등재 추진
- 지역의 전통 해양(어업)문화의 보전·기록을 위한 아카이브 사업 추진
- 보령 머드의 세계화를 위한 2022 보령머드엑스포 추진

3. 세부사업계획

1) 해양항만 인적 인프라 구축

■ 해양(연구)인프라 관련 전문기관 유치

- 현황 및 필요성
 - 보령의 해양(신)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관련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나, 해양 산업과 관련된 연구 인프라 부족
 - 해양항만분야와 관련된 역량있는 전문기관을 유치하여 지역 해양항만정책을 지원 및 자문할 수 있는 역할 및 기능 부여 필요
 - 서해안의 거점 해양도시로서 보령이 보유하고 있는 위상에 비하여 해양항만 관련 기관 전무
 - 한국해양관리공단, 지방해양수산청은 서산(대산)에 위치, 충남어촌특화지원센터는 홍성에 위치,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서천에 위치
 - 해양항만(수산)관련 대학은 충남(보령)에 전무하고, 현재 보령에는 충남해양대학교, 충남수산자원연구소 위치
- 관련계획 및 사업
 - 충청남도(2015),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
- 사업개요
 - 추진주체 : 국가, 해당기관
 - 위 치 : 대천항 해경부두 조성 매립지 등
 - 분 류 : 계속
 - 사업기간 : 단기·중기·장기 (2017~2030년)
 - 사 업 비 : 1,421억 원
 - 국립해양수산대학 : 567억 원, KIOST 서해분원 : 254억 원,
 - 보령지방해양수산청, 보령해양교통관제센터, 세관·출입국·검역(보령항) : 600억 원 추정
- 사업내용
 - 대천항 해경부두 조성 매립지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해분원, 국립해양수산대학교 유치를 위한 논리 개발 및 부지 조성 추진

- 보령시는 2016년 9월 국립해양수산대학교 유치의향서 제출
- 2016년 10월에는 KIOST 서해분원 유치를 위한 사전조사서 제출
- 보령신항에 보령지방해양수산청, 보령해양교통관제센터, 세관·출입국·검역소 유치
- 그 외, 한국해양관리공단 보령지사 유치, 한국어촌어항협회(공단 승격 후) 충남지사 유치



[그림 2-4-1] 전국 해양수산 유관기관 위치

자료 : 충청남도(2016), KIOST 서해분원 유치 타당성 개발 및 설립방안

■ 보령형 해양관광복지 구현

- 현황 및 필요성
 - 서해안 해양관광의 위상에 걸맞게 사회적 약자에게 해양관광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기초수급자, 다문화가정 등 해수욕, 해양레포츠 등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없는 사회적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복지 실현 필요
 - 현재 대천해수욕장은 2016년 ‘열린 관광지’로 지정·조성되어 국비 1억6천만

- 원을 포함하여 총 3억2천만 원의 예산 투입
 - 장애인과 노약자의 입수를 돕기 위하여 워터체어 및 열린 카페트 비치
 - 워터체어는 물에 들어가면 뜨도록 고안된 특수한 장치로 3대 비치
 - 열린 카페트는 유모차가 바다까지 편리하게 오갈 수 있도록 특수제작된 카페트로 20개(각 10m) 비치
 - 워터체어 및 카페트 이용을 도와줄 수 있는 도우미 5명 고용
 - 경사로 정비 및 확충, 장애인 주차장 2개소에 21대 규모 설치
- 현재 보령은 대천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장애인 및 고령인의 해수욕을 도와 줄 수 있는 시설이 구비되어 있어 해양관광복지의 기반이 조성되어 있으나, 이를 좀 더 발전시켜 국내 해양관광복지의 선진지로서의 위상 정립
- 관련계획 및 사업
 - 해양수산부(2017), 제1차 해수욕장 기본계획
- 사업개요
 - 추진주체 : 보령시
 - 위 치 : 보령시 대천 및 무창포 해수욕장
 - 분 류 : 신규
 - 사업기간 : 단기·중기 (2019~2023년)
 - 사 업 비 : 5억 원
- 사업내용
 - 장애인, 노약자 대상으로 숙소와 해양관광지의 편리한 이동을 위한 관광택시 운행 (※ 예,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택시요금의 50% 감면)
 - 무창포 해수욕장에 장애인, 노약자 대상의 화장실, 샤워장, 야영장, 주차공간, 경사로 등 시설 확충
 - 다문화가정, 결손가정, 보육원아 초청 야영캠프 및 어촌체험 등 지원
 - 경증장애인이 이용가능한 서핑, 바다수영 체험 프로그램 개발
 - 중증장애인 및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해양투어 프로그램 개발
 -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장벽없는 해수욕장” 인증 제도 추진
 - 방문객 100만 명이상의 해수욕장 대상으로 대천, 무창포 모두 가능

■ 도서 연안여객항로 지원

• 현황 및 필요성

- 보령시에는 16개의 유인도서가 있으나, 일부 유인도서의 경우 정기항로가 존재하지 않는 등 접근성이 미흡
 - 현재 운항 중인 연안여객항로는 대천항-원산도-효자도, 대천항-삽시도-장고도-고대도, 대천항-호도-녹도-외연도, 오천항-월도-육도-허육도-추도-소도 노선
- 도서와 내륙 간 연결 편의성 수준 개선 필요
 - 적자항로, 접경지역 항로 및 1일 생활권 구축항로 등에 대해서도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항로 운영 필요⁴⁶⁾
 - 보령의 도서들은 고유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정주공간이며,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음
 - 최근 도서관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도서지역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음
 - 연안여객항로에 대한 지원은 도서관광을 활성화 시키고, 도서주민들의 소득향상에 기여 가능
- 인구가 많지 않은 소규모 도서에 대한 적합한 교통수단의 보급은 경제적 관점이 아닌 복지·주민편의 및 교통권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함
- 2018년부터 연안여객 준공영제를 확대·시행 예정⁴⁷⁾

• 관련계획 및 사업

- 충청남도(2015),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
-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 사업개요

- 추진주체 : 국가, 충남도, 보령시
- 위 치 : 보령시 16개 유인도서
- 분 류 : 신규
- 사업기간 : 단기·중기 (2018~2025년)
- 사 업 비 : 70억 원

46)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참고

4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추진과제

- 사업내용
 - 도서 주민에 대한 정기 여객선 운임 보조
 - 현재 도서민의 경우 실부담 금액으로 일반인 대인 요금의 약 45%수준의 요금 지불⁴⁸⁾
 - 낙후도서 거점형 수상택시 운항 지원
 - 육지 근접 도서(호도, 육도) 및 원산도 자섬 대상

2) 네트워크 조직 및 전문인력 양성

■ 해양관광 네트워크 조직 운영

- 현황 및 필요성
 - 보령에 산재되어 있는 해수욕장, 어촌체험마을, 유인도서, 해양축제 등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엮어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전문 네트워크 조직 필요
 - 본 계획 상, 대천해수욕장 낭만거리, 요트스테이·요트투어단지, 해변문학축제, 갯벌도립공원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육성 필요
 - 보령시만의 관광 브랜드를 개발하고, 해양관광자원에 대한 공동 마케팅 및 홍보 지원을 통하여 지역 관광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
 - 어촌체험마을, 도서마을의 관광수익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지속적인 개발 필요
- 관련계획 및 사업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개요
 - 추진주체 : 보령시
 - 위 치 : 보령시 연안 및 도서 일대
 - 분 류 : 신규
 - 사업기간 : 단기·중기·장기 (2018~2030년)
 - 사 업 비 : 14억 원
- 사업내용
 - 해양관광자원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신설 및 지원

48) 각 노선마다 차이가 있음

- 官주도의 중간지원조직이 아닌 民·官 연계·협력형 중간지원조직 육성
- 중간지원조직은 각 해수욕장 관광협회, 어촌체험마을, 도서(섬) 마을주민과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보령의 해양관광자원 및 콘텐츠를 전파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초기에 사무실 설치비용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이후에는 사업비만 지원
- 네트워크조직은 어촌체험마을, 도서(섬)의 공동 마케팅 및 홍보, 경영·회계 수수료를 통하여 운영하고, 이는 네트워크 조직으로 관광객이 유치되었을 경우 일정금액을 수수료로 차액
- 향후 해양관광뿐만 아니라 보령시 전역의 관광 네트워크로 확대 추진 필요



[그림 2-4-2] 지역 관광 중간지원조직 사례 (일본 나가사키현 오지카)

자료 : 나가사키현 오지카 아일랜드 투어 「<http://ojikajima.jp/>」

■ 크루즈 및 마리나 산업 전문인력 양성

- 현황 및 필요성
 - 보령신항 개발에 따라 보령이 크루즈·마리나산업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 필요
 - 보령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크루즈 및 마리나산업 관련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
 - 향후 원산도·무창포에 마리나항만, 보령신항에 크루즈 취항을 대비하여 마리나산업 전문인력 양성 필요
 - 크루즈·마리나 입항에서부터 관광, 쇼핑, 숙박 등 출국 전까지의 전·후방산업에 전문인력 투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시너지 효과 제고 필요
- 관련계획 및 사업
 - 해양수산부(2015),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
- 사업개요
 - 추진주체 : 보령시, 교육기업, 대학
 - 위 치 : 보령시 천북면 학성리 (준설투기장 일대)
 - 분 류 : 신규
 - 사업기간 : 단기·중기·장기 (2021~2030년)
 - 사 업 비 : 200억 원
- 사업내용
 - 크루즈·마리나 관련 서비스업, 통역업무, 입·출국, 관제·세관, 관광가이드 등 관련 전문인력 양성
 - 충남해양과학고 '해양관광학과', 충남도립대학 '해양산업학과', 인근 시·군에 위치한 사립대학에 해양관광관련 학과 설립 건의
 - 현재 유치 추진 중인 국립해양수산대학, 보령대학에 해양관광 및 크루즈·마리나 관련 학과설립 지원
 - 서비스형 마리나산업 클러스터에 크루즈, 마리나 산업과 관련된 전문 직업학교 유치 또는 설립 추진

■ 보령 해양비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

- 현황 및 필요성
 - 보령시는 환황해권 시대를 선도하기 위하여 2017년 환황해전략사업단 출범
 - 해양수산의 현실적·객관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과 정책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의 구성이 필요
 - 각종 연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등의 해양수산 분야 전문가·연구자들의 위원회 참여
 - 단기적으로 보령해양비전위원회를 통하여 현재 부족한 인적토대와 연구인프라의 기능 보완
 - 장기적으로는 인적토대 구축을 통한 인적역량 강화를 실현
 - 미래 해양발전을 선도할 인적네트워크 구축이 필요
 - 전문가들의 보령의 해양수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보령 해양수산 정책 개발에 반영
 - 보령 해양항만의 비전·아젠다를 이슈화하고, '보령시 해양항만 발전 기본계획'의 실질적인 집행·실시를 보조
 - 구체적인 사업 개발 및 정책과제를 도정 및 국가적 과제로 반영
 - 각종 국가사업 및 도정사업의 보령유치를 위한 근거 및 논리 개발
- 관련계획 및 사업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개요
 - 추진주체 : 보령시
 - 위 치 : 보령시 전역
 - 분 류 : 신규
 - 사업기간 : 단기·중기 (2018~2025년)
 - 사 업 비 : 8천만 원 (지방비로서 연 1천만 원)
- 사업내용
 - 포럼 및 세미나 개최
 - 보령 해양항만의 실태 및 상황에 대한 정보교류 및 인식 공유
 - 해양항만 정책동향 및 전망에 대한 정보교류 및 내용 공유
 - 보령 해양항만 분야 정책수요 및 정책과제 발굴

- 보령 해양항만의 이슈를 도정 또는 국가적 과제로 반영하기 위한 정책 개발 및 사업화 전략 모색
- 인적 네트워크 조성
- 각종 연구기관, 교육기관(대학교 등), 민간단체 등의 해양수산 전문가·연구자들에 대한 인적 네트워크 조성
- '보령시 해양항만 발전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및 피드백

3) 도서(섬)의 가치 재창출

■ 도서의 미래! 「도서종합개발 10개년계획」 추진

- 현황 및 필요성
 - 제3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계획('08 ~ '17)이 종료됨에 따라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18 ~ '27)의 원활한 추진 필요
 - 낙후된 도서의 생산·소득·생산기반시설을 정비·확충하여 주민 거주지 생활 여건의 실질적 개선 및 육지와와의 격차 해소
- 관련계획 및 사업
 - 행정자치부(2016), 제4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계획
 - 도서개발촉진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 사업개요
 - 추진주체 : 국가, 보령시
 - 위 치 : 보령시 도서
 - 분 류 : 계속
 - 사업기간 : 단기·중기·장기 (2018~2027년)
 - 사 업 비 : 50억 원
- 사업내용
 -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에서 보령은 총 13개 도서의 55개 사업 추진 예정
 -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에서 보령시의 방향성은 권역별 특화된 도서개발, 희망있는 생태환경 조성 및 부족함 없는 정주환경 구축
 - 권역별로는 1권역(육지근접형)은 월도, 육도, 허육도, 추도, 소도, 2권역(관광자원개발형)은 원산도, 삼시도, 고대도, 장고도, 3권역(가고싶은섬 연계형)은 외연도, 녹도, 호도

■ 특색있는 도서별 가치창출

- 현황 및 필요성
 - 보령 도서(장고도, 원산도)의 특성에 맞는 가치 창출을 통하여 주민소득 증대
 - 장고도 해삼을 건삼 및 반건삼 가공하여 대중국 수출 및 내수시장 개척을 통한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역소득 창출 필요
 - 도서지역의 특화된 소득자원(한과 바지락)을 발굴, 가공하고, 적법한 인·허가를 통한 지역공동소득 증대사업 실현
- 관련계획 및 사업
 - 행정자치부(2016), 제4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계획
 - 도서개발촉진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 사업개요
 - 추진주체 : 국가, 보령시
 - 위 치 : 보령시 원산도, 장고도
 - 분 류 : 계속
 - 사업기간 : 단기·중기 (2017~2020년)
 - 사 업 비 : 53.36억 원 (원산도 28.36억 원, 장고도 25억 원)
- 사업내용
 - 도서별 주민역량강화사업(주민 및 리더 교육),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 해삼랜드 장고도 : 해삼가공시설 건립 및 주민주도의 해삼가공 판매 추진
 - 해삼가공센터뿐만 아니라 해삼의 종묘 양식 및 생산을 통한 해삼 섬의 이미지 제고
 - 해삼사업 활성화로 도서관광 및 해삼 수출판로, 내수시장 개척
 - 원산도(원산3리) : 바지락해감시설, 한과가공공장 건립 추진
 - 살기좋은 어촌건설, 주민역량강화용역으로 주민주도 사업 추진
 - 소득창출을 통한 부자어촌 구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원산도·효자도 명품 브릿지 조성

- 현황 및 필요성
 - 국도 77호선 개통에 따른 관광객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원산도와 효자도의 접근성 향상 및 랜드마크로서 가교 설치 추진

- 원산도와 효자도의 도서관광의 수요에 부합하고, 풍성한 볼거리 및 먹을거리 제공으로 도서지역의 관광소득 증대 및 해양관광자원의 고부가가치 확대
- 대천항, 원산도와 비교적 근거리에 있는 효자도의 발전가능성 제고를 통한 주민소득 증대 사업 필요
- 관련계획 및 사업
 - 충청남도(2014), 충청남도 도서발전종합계획
- 사업개요
 - 추진주체 : 국가, 보령시
 - 위 치 : 보령시 원산도(진고지), 효자도
 - 분 류 : 계속
 - 사업기간 : 중기 (2021~2025년)
 - 사 업 비 : 600억 원
- 사업내용
 - 원산도 진고지와 효자도를 교량으로 연결 (교량연장 500m, 접속도로 300m(2차선))
 - 교량을 지역의 랜드마크로 개발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관광객·탐방객의 이용편의 도모 및 접근성 향상
 - 향후 '효자도 전통孝인성마을(학교) 사업', '한국어촌민속마을 조성사업' 과 연계하여 추진

4) 해양항만 소프트파워 강화

■ FAO 세계중요어업유산 등재

- 현황 및 필요성
 - FAO(세계식량기구)에서는 2002년 세계중요농업유산시스템(GIAHS : 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 도입
 - 여기서 농업은 광의적 개념으로서 축산업, 어업, 임업까지 포괄하는 개념
 - GIAHS의 목적은 다음 세대로 전승해야 하는 세계적인 중요한 농어업기술과 생물다양성 등을 가진 농어업유산을 보전하고, 이를 통하여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유지
 - 2012년 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 (NIAHS : Nation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가 도입되었으며, 해양수산부 복원에 따라 농업유산과 어업유산 분리

- 현재 우리나라의 세계중요농업유산은 청산도 구들장논, 제주 밭담이 지정되어 있으며, 경남 하동녹차, 충남 금산인산이 추진 중
- 현재 국가중요어업유산은 제주 해녀어업('15.12), 보성 뽕배어업('15.12), 남해 죽방렴('15.12), 신안 갯벌 천일염업('16.10)
- 관련계획 및 사업
 - FAO, '세계중요농업유산시스템(GIAHS)'
 - 해양수산부, '국가중요어업유산시스템(KIFHS)'
- 사업개요
 - 추진주체 : 보령시
 - 위 치 : 보령시 연안 및 도서
 - 분 류 : 신규
 - 사업기간 : 단기·중기 (2018~2025년)
 - 사 업 비 : 3억 원
- 사업내용
 - 보령시 일대에서 전통적으로 행해져왔던 어업기술을 국가중요어업유산 및 세계중요어업유산으로 등재 추진
 - 효자도 낭장망, 장고도 독살 등의 전통어업 유산을 발굴하여 국가 및 세계 중요어업유산으로 등재시켜 지역의 브랜드가치 제고
 - 국가어업유산 지정 시, 어업유산 지정지구 어촌체험마을로 선정되어 국비 지원
 - 보령시 중요어업유산 발굴을 위한 용역 수행 및 국가 및 FAO 등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그림 2-4-3] 어업유산 지정지구 어촌체험마을 현황

자료 : 국가중요어업유산 HP 「<http://www.국가중요어업유산.kr>」

■ 전통 해양문화 아카이브 사업 추진

- 현황 및 필요성
 - 최근 어촌의 고령화로 인하여 어촌마을이 소멸위기에 있어 전통 해양 및 어촌문화 소실 우려
 - 해양도시인 보령의 전통 해양 및 어촌문화를 기록·보전할 수 있는 정책사업 추진으로 사라져가는 보령의 해양 역사·문화 재건
 - 보령 전역에 분포되고 있는 해양 역사·문화자원을 기록하여 향후 해양관광의 문화·예술 콘텐츠로 개발 필요
- 관련계획 및 사업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개요
 - 추진주체 : 보령시
 - 위 치 : 보령시 연안 및 도서 어촌마을
 - 분 류 : 신규
 - 사업기간 : 단기·중기 (2018~2025년)
 - 사 업 비 : 8억 원
- 사업내용
 - 전통 해양문화의 ‘과거 자원(유산)→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져온 것→현재 향유되고 창출되어 가는 것’ 으로 구분하여 아카이브 제작 추진
 - 전통 해양문화 아카이브 작성을 중요어업유산시스템과 연계하여 어업유산 발굴
 - 보령시 해양 및 어촌관련 하여 어촌마을을 중심으로 유·무형 자원에 대한 기초조사 및 DB 구축
 - 지역의 역사성(인물, 역사적 사건 등), 전통풍습, 전통가옥, 전통 어구·어법, 전통 음식문화, 전설·설화, 축제(예술제) 등에 대한 데이터 확보
 - 지역에서 활동하는 향토사학자, 문화·예술 활동가 등의 참여유도 및 공동작업

■ 2022 보령머드엑스포 유치

- 현황 및 필요성
 - 이미 머드축제가 국내를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 잡았으나, 문화콘텐츠의 확장성과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도는 미흡한 상황
 - 보령 머드축제의 인지도로 세계로 확장하여 산업형 엑스포로 확대 발전 도모
 - 지속가능한 머드 문화콘텐츠 개발로 사계절 관광지로서의 보령의 위상제고 필요
- 관련계획 및 사업
 - 보령시(2017), 2022 보령머드엑스포 기본계획
- 사업개요
 - 추진주체 : 보령시, 충남도, 국가
 - 위 치 :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일대
 - 분 류 : 계속
 - 사업기간 : 단기·중기 (2017~2025년)
 - 사 업 비 : 500억 원

보령시 해양항만 발전 기본계획

• 사업내용

- 현재 머드엑스포 유치에 위한 기본계획 수립 중이고, 향후 국제행사개최 계획서 제출 및 승인·심사 과제 대응 예정
- 전문가 자문, 지역주민 및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상향식 국제행사 개최
- 내실있는 엑스포 개최로 지역 경제, 문화, 관광 등이 어우러질 수 있는 기반 마련
- 2022년 머드엑스포 개최 이후, 성과 및 실패 요인을 분석하여 주기적으로 개최

[표 2-4-1] 「Leading 지역역량」 연차별 예산계획

(단위 : 백만 원)

추진전략	세부사업	계	단기					중기	장기
			2016년 이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2025년	2026~2030년
해양항만 인적 인프라 구축	해양인프라 관련 전문기관 유치	142,100						25,400	116,700
	보령형 해양관광복지 구현	500				100	100	300	
	도서 연안여객항로 지원	7,000				1,000	1,000	5,000	
네트워크 조직 및 전문인력 육성	해양관광 네트워크조직 육성	1,400			200	100	100	500	500
	크루즈·마리나산업 전문인력 육성	20,000						10,000	10,000
	보령 해양비전위원회 설립·운영	80			10	10	10	50	
도서섬의 가치 재창출	도서의 미래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 추진	5,000			1,000	1,000	1,000	2,000	
	특색있는 도서별 가치 창출	5,336	336	600	1,470	1,470	1,460		
	원산도·효자도 명품 브릿지 조성	60,000						60,000	
해양항만 소프트웨어 강화	FAO세계중요어업유산 등재	300			100	100	100		
	전통 해양문화 아카이브 사업 추진	800			100	100	100	500	
	2022 보령머드엑스포 유치	50,000						50,000	

[표 2-4-2] 「Leading 지역역량」 자원별 예산계획

(단위 : 백만 원)

추진전략	세부사업	계	자원별 예산			
			국비	도비	시비	민자 (자부담)
해양항만 인적 인프라 구축	해양인프라 관련 전문기관 유치	142,100	142,100			
	보령형 해양관광복지 구현	500			500	
	도서 연안여객항로 지원	7,000	5,000	1,000	1,000	
네트워크 조직 및 전문인력 육성	해양관광 네트워크조직 육성	1,400			1,400	
	크루즈·마리나산업 전문인력 육성	20,000				20,000
	보령 해양비전위원회 설립·운영	80			80	
도서(섬)의 가치 재창출	도서의 미래!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 추진	5,000	3,500	750	750	
	특색있는 도서별 가치 창출	5,336	4,268	534	534	
	원산도·효자도 명품 브릿지 조성	60,000	30,000	15,000	15,000	
해양항만 소프트파워 강화	FAO세계중요어업유산 등재	300			300	
	전통 해양문화 아카이브 사업 추진	800			800	
	2022 보령머드엑스포 유치	50,000	30,000	10,000	10,000	

3장

핵심사업 및 관리계획

1절 해양항만 핵심사업

2절 해양항만 조직체계

3절 투·융자 및 관리계획

1절 해양항만 핵심사업

1. 보령신항 및 배후단지 개발

배경 및 필요성

- 글로벌 해양관광도시로서 보령시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물류와 인적 교류가 가능한 다목적 항만 필요
 - 현재 보령항은 발전소와 산업단지가 배후에 위치하여 석탄 및 LNG 공급을 위한 에너지 중심 항만 (2015년 기준 총 물동량 13,244천 RT)
 - 일반화물선, 크루즈, 마리나 등이 정착할 수 있는 항만시설 전무
- 대중국 물동량 및 관광 잠재력 등 서해안 경제권 성장이 확대 예상되어 물류, 관광, 마리나 등 다기능 복합항만 육성 개발 필요
 - 2022 보령머드엑스포 등을 개최하여 글로벌 해양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인적물적 교류가 가능한 다목적항만 절실
 - ‘보령신항 다기능 복합개발 타당성 분석 및 기본구상 용역’에서는 다목적부두 5만톤급 2선석과 마리나항, 배후단지 등 약 57만㎡의 항만시설단지 개발 필요
 - 2016년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보령신항 반영
- 제4차 항만기본계획(2021~2030) ‘보령신항 2단계’ 반영 추진 필요
 - 보령신항을 물류와 관광(레저, 마리나, 크루즈 등) 공존하는 복합항만으로 개발
 - 항만시설예정부지 조성,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및 기본 실시설계 등 추진 필요
- 보령시의 글로벌 해양도시로서 위상에 적합하도록 해상관문 건설 및 서비스형 해양산업단지 조성 필요
 - 보령머드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나고, 2022 보령머드엑스포를 추진 중에 있으므로 해양관광, 해양산업과 관련된 전·후방산업 육성 필요

사업의 개요

■ 사업위치 : 보령시 천북면 학성리 일대

■ 사업기간 : 단기·중기·장기 (2016~2030년)

■ 사업비 : 9,201.09억 원 (※ 1단계 추진 427억 원 포함)

- 보령신항 및 배후단지 : 3301.09억 원, 해양수산 벤처타운 : 300억 원, 해양 MICE 산업지구: 300억 원, 서비스형 마리나산업클러스터 : 5,000억 원, 해양 레저 보트 산업단지 : 300억 원

■ 추진주체 : 국가

■ 관련계획

- 국가계획
 - 해양수산부(2016),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 보령계획
 - 보령시(2015), “보령신항 다기능 복합개발 타당성 분석 및 기본구상 연구”

사업 내용

■ 기본방향

- 다기능 복합항만으로서 다목적부두 건설을 목표로 개발하고, 확장 가능성 고려
- 일반화물선, 크루즈선, 마리나 요트가 어우러질 수 있는 물류와 관광이 함께 이루어 질 수 있는 복합항만으로 건설
- 현 준설투기장 57만㎡의 배후단지 조성과 보령신항의 역할과 기능이 일치하도록 조성하고,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성
- 배후단지는 복합항만인 보령신항을 활용하여 지역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시설 구축
- 주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개발지역 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건설 방향 설정

■ 보령신항의 역할 및 기능

- 충남도 및 보령시의 해상관문으로서의 역할 및 배후단지의 기능 지지
- 접화를 선적하고 하역할 수 있는 일반화물부두의 기능 (※ 5만톤급 2선석)
- 일반화물부두에 크루즈선도 일시적 또는 단기적으로 정박할 수 있는 기항지 개발
 - 보령신항이 크루즈선의 기항지로서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배후단지의 역할이 중요
- 화물부두 옆에 요트가 정박할 수 있는 마리나항만 개발 (150척)
 - 크루즈선이 들어오는 다목적항만의 경우, 인근에 마리나항만이 인접해 있는 것이 시너지 효과 창출 가능
 - 특히 배후단지를 서비스형 마리나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할 경우, 레저보트뿐만 아니라 크루즈선, 일반화물선의 정박, 수리, 보급 등의 복합단지로 조성 가능

■ 서비스형 마리나산업 클러스터(배후단지)의 역할 및 기능

- 보령신항을 중심으로 해양관광, 해양산업이 집적될 수 있도록 서비스형 마리나산업 클러스터 조성
 - 서비스형 마리나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마리나산업 관련 철강, 전자 소재·부품 기업부터 은행, 회계 등의 금융기업, 외식업체, 교육기관 등의 서비스 기업 집적
 - 마리나, 크루즈 등을 이용한 관광객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문 쇼핑센터 및 아울렛 등 유치, 지역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관광상품 개발 등 추진
 - 요트, 서핑, 스킨스쿠버 등 해양레포츠 관련 장비 제조, 매매, 교육서비스 등이 집적될 수 있도록 추진
 - 마리나산업 클러스터 내 레저보트의 제조, 수리, 정비, 매매 등의 관련 산업이 집적하는 산업단지 조성
 - 설계 : 레저보트 디자인 및 설계, 자재 및 부품 조달
 - 제조 : 건조, 표면처리, 도색 등을 위한 중·소규모의 조선소 입지
 - 수리·정비 : 레저선박 수리·정비 등 경정비
 - 서비스 : 레저선박 매매, 보급기능(부품), 육상보관
 - 관광 및 교육·실습 : 레저선박 이용한 관광 상품개발, 레저선박 교육 및 실습
 - 해양레포츠산업과 연계하여 레저보트 외 서핑, 스킨스쿠버 장비산업 유치 추진
- 해양수산 스타트업·중소기업 유치 및 집적단지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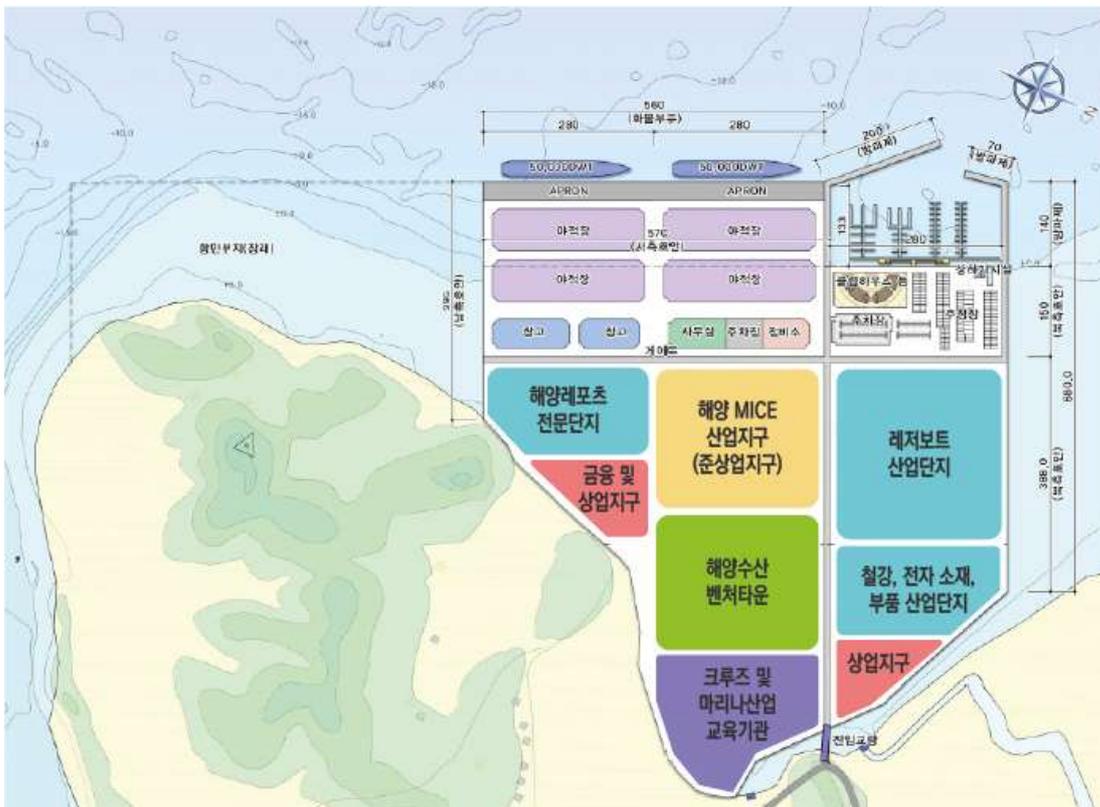
- 서해안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해양수산업 관련 창업이 발생할 수 있는 벤처타운 조성
- 해양수산 스타트업·중소기업의 지방세 감면 등의 세제지원 및 경영안정화를 위한 초기 창업자금 지원
- 스타트업·중소기업의 우수 창업 아이템에 대한 보령시 공동연구 추진 및 제품 판로개척 지원
- 서해안 최대의 해양 MICE산업 집적단지 조성
 - 대형 컨벤션 설립으로 국제적인 행사가 유치가 가능한 MICE 산업기반 조성
 - 컨벤션·전시·숙박 기능을 갖춘 유명 호텔 유치로 비즈니스관광 인프라 조성
 - 해양관광, 해양레포츠, 레저보트 산업과 MICE를 연계한 비즈니스 관광 패키지 개발
 - 해양레저 패키지 개발 : 해양레저 연계 관광 프로그램, 해양헬스케어 패키지 등
 - 고유문화 패키지 개발 : 외국인 대상 고유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
 - 역사·문화·생태자원 패키지 개발 : 지역 문화재·관광지 연계 프로그램, 가족 단위 지역 축제 연계 프로그램 등
 - MICE산업과 관련된 인재양성을 위한 전문학교 설립 또는 유치, 지역대학에 MICE 관련 전문학과 설치 요청 등
 - 중기적으로 “2022 보령머드엑스포” 유치 시 관련시설로 활용
- 크루즈·마리나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 유치
 - 크루즈·마리나 관련 서비스업, 통역업무, 입·출국, 관제·세관, 관광가이드 등 관련 전문인력 양성
 - 서비스형 마리나산업 클러스터에 크루즈, 마리나 산업과 관련된 전문직업학교, 전문대 등 유치 또는 설립 추진
 - 인근 세한대, 한서대 등 관련학과가 있는 대학의 캠퍼스 조성 추진

■ 보령신항 및 배후단지 추진방안

- 보령 해양비전위원회의 조속한 설립 및 운영
 - 보령신항 및 배후단지 조성을 둘러싸고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공존함으로 이를 지역사회의 합의를 통해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거버넌스 조직 운영
 - 현재 보령시 내 유관단체 중심으로 보령신항 및 배후단지 조성에 적극적이나, 일부에서는 반대의견도 있으므로, 이를 공론화하는 방안 마련 필요
- 보령시만의 숙원사업이 아닌 충남도 전체의 숙원사업임을 재확인
 - 보령신항 및 배후단지 건설이 보령시만의 사업이 아니라, 충남도 전체에 시너지 효

과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점을 강조 필요

- 충남도, 보령시, 전문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보령신항 및 마리나산업 추진위원회’ 를 구성하여 충남도와 보령시 차원의 체계적·조직적 추진 필요
- 보령신항 건설 계획을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2021~2030)’,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2020~2029)’ 에 ‘보령신항 2단계 반영’ 을 위하여 충남도, 보령시의 협력 및 공조체계 구축 필요



[그림 3-1-1] 보령신항 배후단지 산업별 입지도

지도자료 : 보령시(2015), 보령신항 다기능 복합개발 타당성 분석 및 기본구상 연구

기대효과

- 보령신항 및 서비스형 마리나산업 클러스터(배후단지) 조성으로 충남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보령시의 글로벌 해양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다목적 복합항만 조성을 통하여 외국 관광객의 방문이 증가하여 지역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

- 서비스형 마리나산업 단지 조성으로 보령시의 미래 해양 먹거리를 조기에 확보하여 서해안 최대 해양산업도시로서 자리매김 가능
- 해양수산벤처타운, 레저보트산업단지 등 스타트업, 중소기업 중심 제조업 육성으로 지역산업의 체질 개선

2. 대천해수욕장 활력 및 재생

배경 및 필요성

- 대천해수욕장은 서해안 최대의 휴양지로서 여름에는 천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 보령 머드축제가 개최되는 대표적인 관광지
 - 2016년 대천해수욕장 방문객은 약 12,477천 명으로 이는 충청남도 해수욕장 총 방문객의 68.4%에 해당하는 수치
 - 2016년 충청남도의 지정해수욕장은 총 33개소이며, 약 18,254천 명 방문
 - 충청남도는 부산과 강원도의 뒤를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해수욕장 이용객이 방문(2015년 기준)
 - 2015년 기준 전국 254개 지정 해수욕장 이용객수는 약 99,855천 명
 - 이중 46.3%가 부산에 위치한 해수욕장을 방문하였고, 25.8%가 강원지역에 위치한 해수욕장 이용
 - 충청지역의 해수욕장 이용객은 전체대비 14.6%인, 약 14,566천 명
- 대천해수욕장 이용객은 주로 여름철에 집중
 - 대천해수욕장 이용객의 계절 간 편차가 큼
 - 성수기인 여름에는 숙박시설, 식당 등 편의시설 예약이 증가하나, 비수기인 가을 또는 겨울에는 방문객 수 감소 및 편의시설 예약 감소로 지역경제 활력 저조
- 해수욕장의 사계절 이용에 관한 관심 증대
 - 해양수산부(2017)의 '제1차 해수욕장 기본계획'에서는 해수욕장의 사계절 이용을 위한 내용 포함

- 보령시는 대천해수욕장의 사계절 관광지화를 위하여, 2016년 12월 머드광장에 야외스케이트장을 조성·운영
- 2017년에는 야외스케이트장 개장과 더불어 제1회 대천겨울바다 사랑축제 개최 예정

■ 계절단위로 진행되는 분절된 계절행사가 아닌 1년 내내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필요

- 여름이 아닌 비수기에도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필요
- 현재 대천해수욕장은 봄에는 수학여행 및 대학 MT, 여름에는 머드축제, 가을에는 김 축제, 오서산 역사 및 성주산 단풍축제, 겨울에는 야외스케이트장 등 계절에 따른 다양한 콘셉트를 제공하고 있음
- 이러한 콘셉트들은 일종의 계절행사 성격이 강하여, 1년 내내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아니라는 한계 및 아쉬움 존재
 - 여름철 해수욕장 이용의 계절적 편중을 극복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으나, 프로그램·사업의 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 있음

■ 사업의 개요

■ 사업위치 : 보령시 신항동 일대 (대천해수욕장 인근)

■ 사업기간 : 단기·중기·장기 (2018년~2030년)

■ 사업비 : 276억 원

- 대천해수욕장 스마트비치 : 40억 원, 추억과 낭만의 거리 : 200억 원, 해변문화 축제 : 6억 원, 대천포차타운 : 30억 원

■ 추진주체 : 보령시

■ 관련계획

- 국가계획
 - 해양수산부(2017), 제1차 해수욕장 기본계획

사업 내용

■ 대천해수욕장의 옛날을 되살리는 ‘추억과 낭만의 거리’

- (대천해수욕장 역사관/추억관) 대천해수욕장은 1930년에 개장한 역사와 전통을 보유한 해수욕장으로서, 이를 기념하고 관광객들에게 자신들의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공간 조성 및 콘텐츠 제공
 - 대천해수욕장을 추억할 수 있는 공간 조성 및 콘텐츠 제공
 - 대천해수욕장 역사관(추억관), 아트갤러리, 사진기록관 등



[그림 3-1-2] 뉴런던(New London)의 한 카페에 걸려 있는 사진기록들

주 : 뉴런던은 미국 코네티컷 주에 있는 작은 항구도시

- 지역의 역사, 문화, 예술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해양, 해변, 섬 등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 공연 및 전시
- (포토존 설치) 대천해수욕장 방문객들이 기억할 만한 사진을 찍기 좋은 포토존을 설치하여, 기념할 수 있도록 하여 해수욕장 방문 만족도 향상
 - SNS를 중심으로 관광지의 사진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의 파급효과도 큼
 - 간접적으로 자연스럽게 대천해수욕장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효과 높음
 - 기존의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변의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포토존 설치를 원칙으로 함



[그림 3-1-3] 강문해변의 다양한 포토존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대천포차타운 조성

- ‘추억과 낭만의 거리’ 조성과 연계하여 수산도시인 보령의 지역먹거리 제공
- 보령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산물을 활용하는 대천포차타운 조성
 - 낮에는 ‘추억과 낭만의 거리’ 에서 관람 및 체험 위주의 관광활동을 하고, 밤에는 대천포차타운에서 추억과 낭만을 느낄 수 있는 콘셉트로 개발
 - 지역 농수산물을 소비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예상
- (운영방식) 희망자를 대상으로 랜덤 추천을 통하여 최대 10개 포차만 운영하여 지역 인근 식당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수익의 일정 부분은 대천해수욕장 발전기금으로 기부
 - 참여포차는 최소 3년 ~ 최대 5년간만 운영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타 사업자에게 기회 부여 (※ 참여포차의 사업기간은 市방침 설정 필요)
 - 참여 포차에 대해서는 전기, 수도, 가스 등의 기본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운영시간, 판매요리·음식료, 가격 등 운영방식에 대하여 市에서 가이드라인 제시
 - 식품 위생·안전에 대해서는 市에서 정기적·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시에는 강력한 행정제재 시행



자료 : 힐링아일랜드로의 초대 남해스토리 블로그 「<http://namhaestory.co.kr/221062068606>」

[그림 3-1-4] 여수 낭만포차거리 전경

■ 똑똑한 대천해수욕장의 스마트비치 조성

- 이안류·갯골 경보, 긴급구조, 미아찾기 등 안전기능이 내장된 지능형 웨어러블 장비개발 및 위치기반 관제시스템 구축으로 안전한 해수욕장 조성
- 민간이 보급하고 있는 해수욕장 전자결제시스템과 웨어러블 개인장비 간의 연계를 통하여 용품대여, 레저체험, 샤워장 이용 등에 현금없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주 중심의 똑똑한 해수욕장 조성
- 향후 인근 편의시설, 음식점, 숙박업소 등 해수욕장 인근 상업을 시설을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대천해수욕장을 바다 워크파크 형태로 전환
- 대천포차타운과 연계하여 현금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결제시스템 구축

■ 다계절 이용가능한 대천해수욕장 조성을 위한 가을해변문학축제 개최

- 가을바다의 풍광과 낭만을 즐길 수 있는 해변문학축제를 10월 중순 ~ 11월 초순 사이에 지역주민 주도로 주최
- 현재 지역 일부 문인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해변시인학교” 를 확대하여 충청권 최대 문학축제로 육성하되, 문학을 테마로 하되 미술, 만화 등 예술작품도 전시
- 지역 문인회 주관으로 대천해수욕장 인근 시설을 임대하여 해변 시낭송회, 해변 백일장 대회, 아트헬스아일랜드 미술작품 전시회, 만화 및 애니메이션 전시회, 유명 작가(소설가, 시인) 초청강연 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

■ **대천관광협회, 인근 상인, 지역 주민간의 연계·협력을 통한 상향적 거버넌스 지향으로 주민주도의 지역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 추억의 낭만의 거리 조성, 대천포차타운 조성의 지역주민 및 상인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사업으로 추진



[그림 3-1-5] 대천해수욕장 역사관(추억관), 포토존, 대천포차타운 조성(안)

기대효과

- 여름에 편중된 대천해수욕장의 활용도를 다계절로 확장
- 비수기 관광객 및 방문객 유치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소득 증대
- 지역 농수산물 이용을 통한 소비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3. 대천천 하구갯벌 보존 및 개발

1) 지자체 주도의 선진화된 갯벌 보호구역 관리

☆ 대천천 하구갯벌을 道지정 신규 해양보호구역으로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실효성 증진을 통한 갯벌 보전 본연의 목표 달성 필요
- 道 지정의 체계적인 해양보호구역 관리를 통하여 갯벌생태환경 및 수산자원 보호 및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 동법 제25조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양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 가능
 - 동법 제36조는 시·도지사가 시·도 해양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
 - 해양보호구역의 지정·관리(제25조), 행위제한(제27조), 관리기본계획(제28조), 조사 및 관찰(제29조), 주민의 지원(제34조), 우선이용(제35조) 규정을 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전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
 - 해양보호구역 이외의 해역관리에 관한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의 환경관리해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수산자원보호구역, ‘수산자원관리법’ 제48조의 수산자원관리수면, 『습지보전법』 제8조의 습지보호지역 등이 있으며, 개별 법률마다 따로따로 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고 있어 효율적이고 일원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한계 상존

사업의 개요

- 사업위치 : 보령시 주교면 주교 갯벌 일대(대천천 하구 갯벌)
- 사업기간 : 단기·중기 (2018년~2024년)
- 사업비 : 29억 원 (국비 12.5억 원, 지방비 16.5억 원)

■ 추진주체 : 충청남도, 보령시 (道 지정 후 보령시에서 주도적 관리)

■ 관련계획

- 국가계획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우리나라에는 총 27개소의 해양보호구역이 지정 (※ 2017년 12월 현재 습지보호지역 14개소,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2개소, 해양생물보호구역 1개소)
 - 2035년까지 해양보호구역을 전 국토면적의 약 20%까지 확대목표 추진 중



[그림 3-1-6] 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체계

자료 : 해양수산부 바다생태 정보나라 HP 「<http://www.ecosea.go.kr/>」



[그림 3-1-7] 해양보호구역 지정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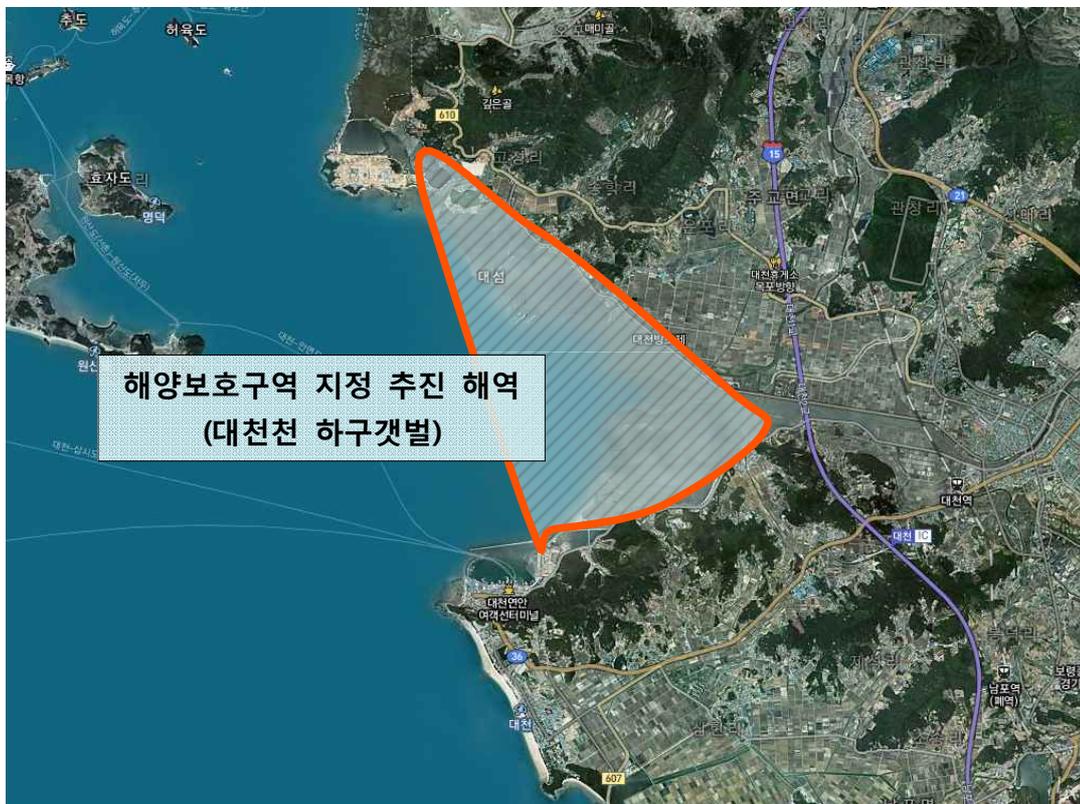
자료 : 해양수산부 바다생태 정보나라 HP 「<http://www.ecosea.go.kr/>」

- 충남도 계획
 - 충청남도에는 해양보호구역 3개소가 지정됨, 서천갯벌 습지보호지역(2008), 태안 신두리 사구 해양생태계보호구역(2002), 가로림만 해양생물보호구역(2016)
 - 이외 대천천 하구갯벌, 근소만 갯벌, 소항사구 등 지역에 대한 추가 해양보호구역 지정 추진 중

- 보령시 계획
 - 현재 보령시 해역에는 해양보호구역이 미소재하며, 생태환경적 가치가 높은 해역을 대상으로 평가 및 관리구역 지정 추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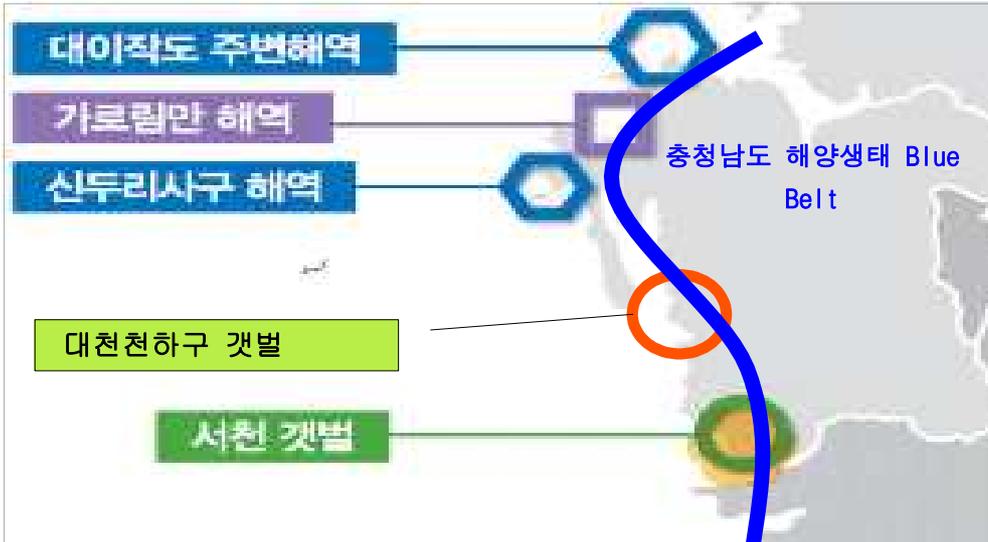
사업 내용

-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대천천 하구갯벌(생태환경 우수) 해역에 대한 도 지정 신규 해양보호구역 지정 검토



[그림 3-1-8] 해양보호구역 지정 대상 지역(안)

■ 보령 관내 대천천 하구갯벌 해양보호구역 추가 지정을 통한 ‘충청남도 해양 생태 Blue Belt’ 체제 구축



[그림 3-1-9] 해양보호구역 연계·지정을 통한 충남 해양생태 Blue Belt 체제 구축(안)

- 광역지자체 최초의 해양보호구역간 연결고리를 구축을 통한 공간적 연속성 확보
- 지역민과 보호구역 생태계가 공존 및 공영할 수 있는 관리모형 도입 방안 마련
- 해양보호구역 지역 관리기관 및 관리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그림 3-1-10] 해양보호구역 지정 시 혜택

자료 : 해양수산부 바다생태 정보나라 HP 「<http://www.ecosea.go.kr/>」

■ 연차별 추진 계획

- (2018년) 도 지정 신규 해양보호구역 지정 검토
 - 지정 요건 및 지정에 따른 효과 분석
- (2019년) 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해양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5년 주기 수립) 수립
 - 소요예산 : 100백만 원
 - 지역민과 보호구역 생태계가 공존 및 공영할 수 있는 관리모형 도입 방안 마련
 - 육상(비점오염원) 및 해양기인 오염원 중점관리 검토
 - 서천갯벌 : 해양쓰레기 관리, 신두리 사구 : 침식방지, 육상오염물질 영향 범위평가
 - 해양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5년 주기 수립) 수립에 있어 실효적 관리주체인 도·시·군지자체의 참여를 통한 계획 보완
 - 지역의 민·관·학·연이 고루 참여한 해양보호구역 관리 협력체 구성 및 관리계획 수립 등을 통해 체계적인 해양보호구역 관리 체계 마련
- (2020년~2024년) 해양보호구역 지속 관리(1단계 5년)
 - 소요예산 : 500백만 원/년
 - (2019년) 지역현안에 적합한 해양보호구역 관리모형 수립
 - (2020년) 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 공동 수립 체계 구축(충청남도-해양수산부 협력)
 - (2020년 이후) 도내 해양보호구역 관리 모니터링 사업 추진
- (2020년~2024년) 해양보호구역 지역 관리기관 및 관리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수립
 - 소요예산 : (1년차) 100백만 원, (2년차 이후) 50백만 원
 - 도내 해양보호구역의 관리평가 결과, 평균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지역 협의체가 중심이 되는 관리계획 보완 필요
 - (2020년) 해양보호구역 관리의 주체인 지역 관리자(해당 시군관계자)의 역량(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수립
 - (2020년) 도내 통합 해양보호구역센터 지정(보령시 내 설치 제안)을 통한 도내 해양보호구역 통합관리
 - (2020년 이후) 공무원 조직을 활용한 센터 운영 방안 수립(사무관급 1명, 연구사 1명 파견 배치)
 - (2020년 이후) 해양보호구역의 취지 및 해양생태환경 가치에 대한 인식제고 교육 실시
 - (2020년 이후) 지역 해양보호구역 관리 전문가 양성(지자체 공무원, 지역 전문가, 주민대표 대상)

- (2020년 이후) 시·군 지자체 해양보호구역 관리 전담 인력(공무원) 추가 배치 지원
- (2020년 이후) 해양보호구역 방문자 교육프로그램 운영 강화

기대효과

- 도 및 시군지자체의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효율성을 향상시켜, 실질적인 해양 보호구역 지정효과를 지역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해양생태환경의 비시장적 자원가치로서 보전정책 추진을 통한 에코클린 (Eco-Clean) 선도도시 이미지 제고
- 지자체, 지역주민,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협의하여 실효적 관리 방안 도출
- 해양보호구역 관리 전담인력에 대한 전문성 강화 및 관리 효율성 증대
- 관리계획 수립 및 세부관리시행 방안 수립에 지자체 실무 담당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지역 거버넌스 활용을 통한 실효적인 해양보호구역 관리 성과 기대
- 자연생태계 및 생물 다양성 보전·관리에 있어서 지역 거버넌스의 역할 강화

2) 갯벌도립공원 도입을 통한 갯벌 생태자원 관리

☆ 대천천 하구갯벌을 갯벌도립공원으로 지정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국가 주도의 관리계획·이행평가에 대응하고, 道 및 市 주도의 체계적 관리 이행을 통한 선순환 관리체계 개선 추진
- 道 및 市 주도의 체계적인 갯벌환경 관리를 통하여 해양환경 및 생물자원 보호와 함께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

사업의 개요

- 사업위치 : 보령시 주교면 주교 갯벌 일대(대천천 하구 갯벌)
- 사업기간 : 단기·중기 (2018년~2024년)
- 사업비 : 29억 원 (국비 12.5억 원, 지방비 16.5억 원)
- 추진주체 : 충청남도, 보령시 (道 지정 후 보령시에서 주도적 관리)
- 관련계획
 - 국가계획
 - 전라남도에서는 3개소의 갯벌도립공원을 도입하여 운영
 - 사례 참조 : 무안, 벌교, 증도 갯벌도립공원(3개소)
 - 충남계획
 - 충청남도에는 해양보호구역 3개소, 태안해안국립공원 1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도립공원은 덕산도립공원, 칠갑산도립공원 등 총 2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나 해역 내 도립공원 지정사례는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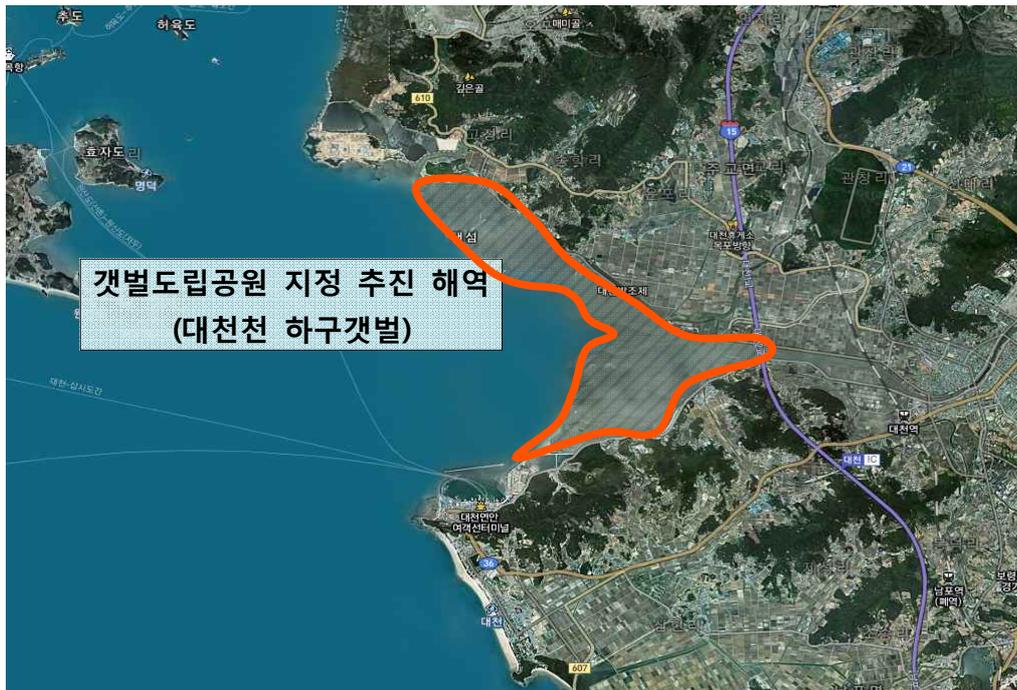


[그림 3-1-11] 갯벌도립공원 사례

주 : (좌) 전남 무안 갯벌도립공원, (우) 전남 신안증도 갯벌도립공원

사업 내용

-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대천천 하구 갯벌(생태환경 우수) 해역에 대한 갯벌 도립공원 시범 사례지 지정 검토
- 대천천하구 갯벌 도립공원 시범 사례지 선정(연안생태자원 우수지)



[그림 3-1-12] 갯벌도립공원 지정 대상 지역(안)

- 대상지 선정을 위한 갯벌자원 가치 평가를 통한 생태, 경제, 문화, 사회적 요소 통합 검토
- 갯벌도립공원 지역 관리기관 및 관리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수립
- 지역민과 지정구역의 생태계가 공존 및 공영할 수 있는 관리모형 도입
- 연차별 추진 계획
 - (2018년) 대상지 선정을 위한 갯벌 자원 가치 평가
 - 소요예산 : 200백만 원
 - (2019년) 갯벌도립공원 도입 타당성 평가
 - 소요예산 : 100백만 원

- (2020년~2024년) 갯벌 도립공원 시범 사례지 선정 및 관리
 - 소요예산 : 500백만 원/년
 - (2019년) 지역현안에 적합한 갯벌도립공원 관리모형 수립
 - (2020년) 갯벌도립공원 관리계획 공동 수립 체계 구축(충청남도-보령시 협력)
 - (2020년 이후) 갯벌도립공원 관리 모니터링 사업 추진
- (2021년) 갯벌도립공원 지역 관리기관 및 관리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수립
 - 소요예산 : (1년차) 100백만 원, (2년차 이후) 50백만 원
 - (2021년) 갯벌도립공원 관리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수립
 - (2020년 이후) 해양보호구역 방문자 교육프로그램 및 관리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대효과

- 해양서식지-수산자원-해양생태관광의 통합관리 기반 구축하고, 보령시에서 주도적으로 관리하여 생태기반의 새로운 국민 휴양처 제공 기대
- 지자체, 지역주민,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협의하여 실효적 관리 성과 도출
- 해양생태환경의 비시장적 자원가치로서 보전정책 추진을 통한 에코클린(Eco-Clean) 선도도시 이미지 제고
- 자연생태계 및 생물 다양성 보전·관리에 있어서 지역 거버넌스의 역할 강화

2절 해양항만 조직체계

1. 조직 현황

1) 보령시 조직 현황⁴⁹⁾

■ 2017년 1월 조직개편을 통하여, 2실 2국 1단 체제 구축

- 2실 :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 2국 : 자치행정국, 경제개발국
 - 자치행정국 : 총무과, 안전총괄과, 교육체육과, 주민생활지원과, 민원지적과, 새마을정보과, 세무과, 회계과, 관광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 경제개발국 : 지역경제과, 건축허가과, 건설과, 도시과, 도로교통과, 수산과, 산림공원과
- 1단 : 환황해전략사업단
 - 환황해전략사업단 : 해양정책과, 미래사업과

2) 환황해전략사업단

■ 2017년 1월 환황해전략사업단 출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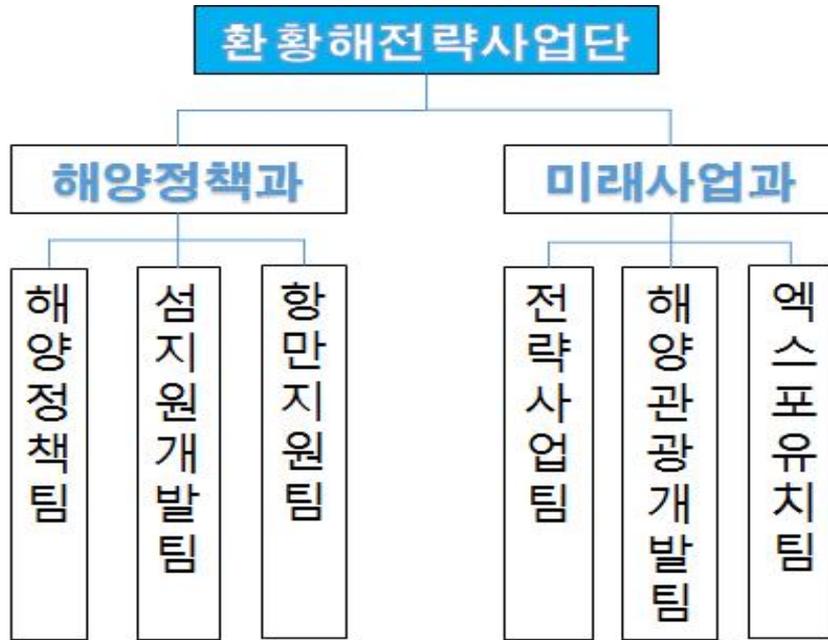
- 서해안시대 환황해권 중심의 선도적 역할과 보령의 미래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2017년 1월 출범
- 기존 해양항만과의 정책기능을 강화한 '해양정책과' 와 미래성장 전략사업을 발굴·추진하게 될 '미래사업과' 로 구성
 - (기존 해양항만과의 한계) 보령시는 해양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15년 '해양항만과' 신설하였으나, 실질적인 업무는 기존의 수산과에서 추진하던 대로 진행, 과중한 민원업무로 인하여 해양분야 비전제시 및 정책발굴에 한계
- 글로벌 해양관광도시 선도와 미래행정 변화의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해양개발종합추진

49) 보령시 본청을 기준으로 함

- 섬자원개발, 항만지원, 도서관개발, 미래사업전략개발, EXPO유치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

■ 환황해전략사업단의 구성

- 해양정책과와 미래사업과의 2과로 구성
 - 해양정책과 : 해양정책팀, 섬자원개발팀, 항만지원팀의 3개 팀으로 구성
 - 미래사업과 : 전략사업팀, 해양관광개발팀, 엑스포유치팀의 3개 팀으로 구성



[그림 3-2-1] 현재 환황해전략사업단의 조직 구성

2. 조직 구성의 한계 및 제안

■ 2017년 환황해전략사업단이 출범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한계점과 대응방안 제시

- 해양기능과 수산기능의 조직적 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기대
- 환황해전략사업단의 업무와 유사한 기능 또는 연관된 정책 및 사업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한 타 부서와의 협력·협조 필요

1) 한계 : 타부서와의 중복성 및 불명확성 발생

- 해양과 관련된 정책 및 사업의 경우, 공간적 범위 및 관할, 사업대상 등과 관련된 중복성 및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담당부서가 불명확한 경우 발생
- ‘해양’ 과 ‘수산’ 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두 분야를 분리해서 생각하기 어려우나, 현재 보령시 조직체계는 환황해전략사업단에 해양정책과, 경제개발국에 수산과가 배치되어 있어 局단위의 협력사업 한계
 - 충청남도 타 시군의 해양수산관련 조직체계는 다음과 같음
 - 당진시 : 항만수산과
 - 서산시 : 해양수산과
 - 서천군 : 해양수산과
 - 태안군 : 해양수산과
 - 홍성군 : 해양수산팀(농수산과)
- 해양관광과 관련된 정책·사업의 경우, 관광과와 환황해전략사업단의 해양관광개발팀과의 중복가능성 상존
 - 보령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인 보령머드축제는 관광과(관광진흥팀)의 업무이나, 머드엑스포 유치, 해양관광 개발은 미래사업과의 업무임
 - 해양관광자원 및 콘텐츠 개발과 관련하여 미래사업과와 관광과의 협력관계 유지가 중요
 - 보령 해안선 탐방(트래킹)코스 개발 사업의 경우, 관광과(관광개발팀)의 사업과 겹치는 부분 있음
- 해양환경과 관련된 정책·사업의 경우 환경보호과와 협조가 필요하며, 해양환경관리공단과의 협조 필요
 - 해양생태 및 해양환경 관련 분야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다수의 정책이 추진되거나 계획 중
 - 보령호 하굿둑 구조개선 및 담수호 수질관리, 대천천 하구 갯벌 보존 및 개발 등과 관련하여 환경보호과와 협조 필요

- 최근 정책적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해양안전과 관련해서도 안전총괄과를 포함한 유관기관(해양경찰서 등)과의 협조 필요

2) 환황해전략사업단 조직 확대(안)

- 환황해전략사업단은 개발사업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지역 연근해를 관할하는 통합바다행정의 관점에서 접근 필요

- 통합바다행정은 바다를 관리하는 행정조직체계의 일관성·통일성 유지

- 현재 수산과는 바다행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나, 현재 타局에 소속되어 있어 해양정책과, 미래사업과 등과의 통합적 바다행정체계 구축 미흡

- 해양환경, 수산자원, 어촌개발, 어촌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양정책, 미래사업과의 업무와의 연관성 높음
- 수산업은 해양정책, 항만정책, 도서개발 등과 밀접한 연관성이 존재하므로 별도의 행정조직으로 분리하는 것은 불합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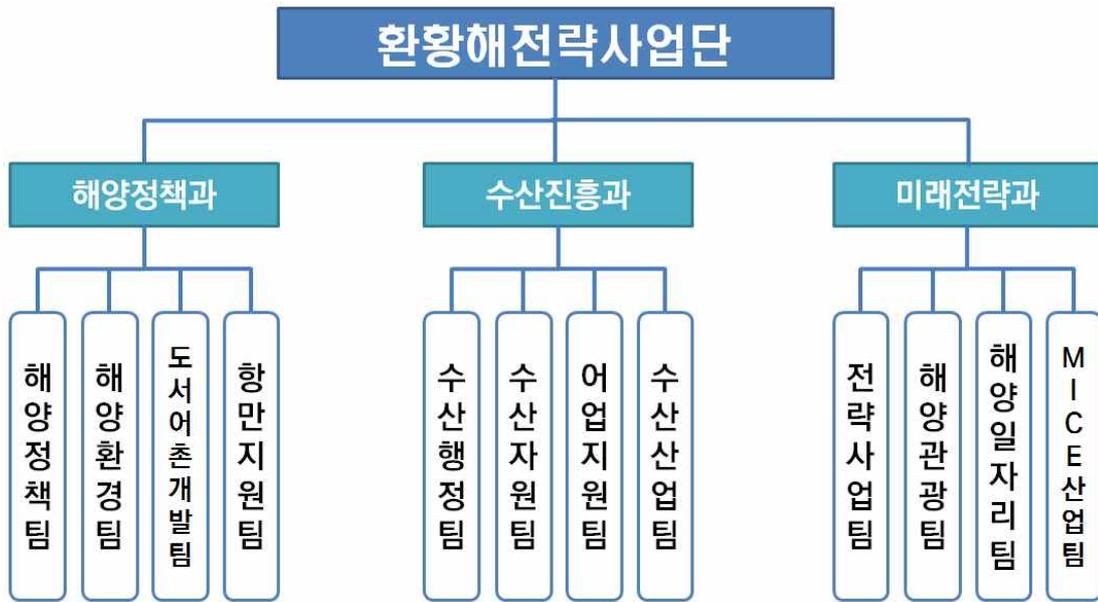
- 중앙정부와 충청남도를 비롯하여 해양수산 관련 행정기능을 보유한 타 시군에서도 해양 및 수산 기능을 동일한 조직체계에서 관리

- 해양과 수산의 분리로 인한 업무의 비효율을 방지하고, 중앙정부(해양수산부) 정책에 효율적인 대응 필요
- 최근에는 해양과 수산 정책이 융복합된 정책사업이 개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 수요 발생

- 향후 환황해전략사업단의 역할 및 기능이 확대되었을 것을 전제로, 본 계획의 사업내용을 바탕으로 조직 확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해양정책과
 - 해양정책팀 : 해양정책 총괄, 공유수면 관리, 연안정비 및 보수, 해양재난·재해 대응, 보령신항 및 마리나항만 개발 등
 - 해양환경팀 : 해양환경 보전, 해양수질 측정망 운영, 해양오염 방제장비 운영 및 관리, 연안통합 관리 및 습지보전 등
 - 도서·어촌개발팀 : 도서 및 어촌 개발, 어촌주민 역량강화 및 삶의 질 향상, 정주여건 개선, 어촌산업 육성 등

- 항만지원팀 : 연안항 및 어항개발사업, 항만시설 및 여객선터미널 유지·관리, 항만 관리사무소 청사 관리 등
- 수산진흥과
 - 수산행정팀 : 수산행정 총괄, 수산진흥사업, 귀어귀촌 및 청년창업 지원, 수산단체 및 법인 관리 등
 - 수산지원팀 : 수산지원 업무, 어업면허, 육상해수양식, 자율관리어업, 수산종자 및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내수면어업 육성 등
 - 어업지원팀 : 어선 등록·변경, 어업 신고 처분, 불법어업 지도·단속, 어선사고 예방 및 관리 등
 - 수산산업팀 : 수산 증·양식 복합단지 조성, GIS기반 스마트팜 양식장 조성, 수산물 유통·가공·수출 진흥 등
- 미래전략과
 - 전략사업팀 : 해양헬스케어, 해양바이오, 미세조류 바이오산업, 블루카본, 원산도 개발, 서비스형 마리나산업 클러스터 조성
 - 해양관광팀 : 해양관광 콘텐츠 개발, 요트스테이·요트투어 단지 조성, 서핑전용 해변단지 조성, 해양레포츠 산업 진흥 등
 - 해양일자리팀 : 해양관련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기업 유치, 해양 사회적경제 및 마을기업 육성 등
 - MICE산업팀 : 보령 머드엑스포 유치, 엑스포기반 구축, 해양 MICE 산업기반 구축, 해양관련 인력 양성 등



[그림 3-2-2] 향후 환황해전략사업단 조직 확대(안)

3) 대내·외 협력체계 구축

(1) 市の 有關부서와 협력방안

- 행정의 중복성 및 불명확성은 반드시 부정적인 현상은 아니고, 현실 행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임
- 해양과 관련된 정책 및 사업들은 타부서 및 타 분야와 중복이 될 가능성이 높은 바, 중복 및 불명확성이 발생할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 모색 필요
 - 환황해전략사업단은 유연한 조직 운영과 탄력적 사고방식으로 타 부서와의 협력체계 구축 강화 필요
 - 관할 문제 발생 시 관련부서 간 협의를 통하여 담당부서 결정 및 지속적인 협조 유지 필요

(2) 유관기관과 협력방안**■ 해양과 관련된 정책 및 사업은 보령시의 행정조직 및 기관뿐만 아니라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요구**

- 지역내·외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필요
- 유관기관의 역량(물적, 인적 등)을 통하여 체계적·효과적 협력방안에 대한 사전 조사 및 분석 필요

■ 연구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보령시 담당직원들의 역량강화 필요

- 보령시 담당직원의 해양, 연안, 도서 등 바다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연구기관의 정례적인 교육 기회 제공
- 지역에서 개최되는 해양수산관련 토론회, 세미나, 포럼 등의 참여를 장려하여 담당 직원들에게 해양수산관련 정보습득 기회 제공
- 해양수산전문가, 연구자 등을 초빙하여 강연, 강의 등을 통하여 보령시 전 직원들에게 해양수산관련 마인드를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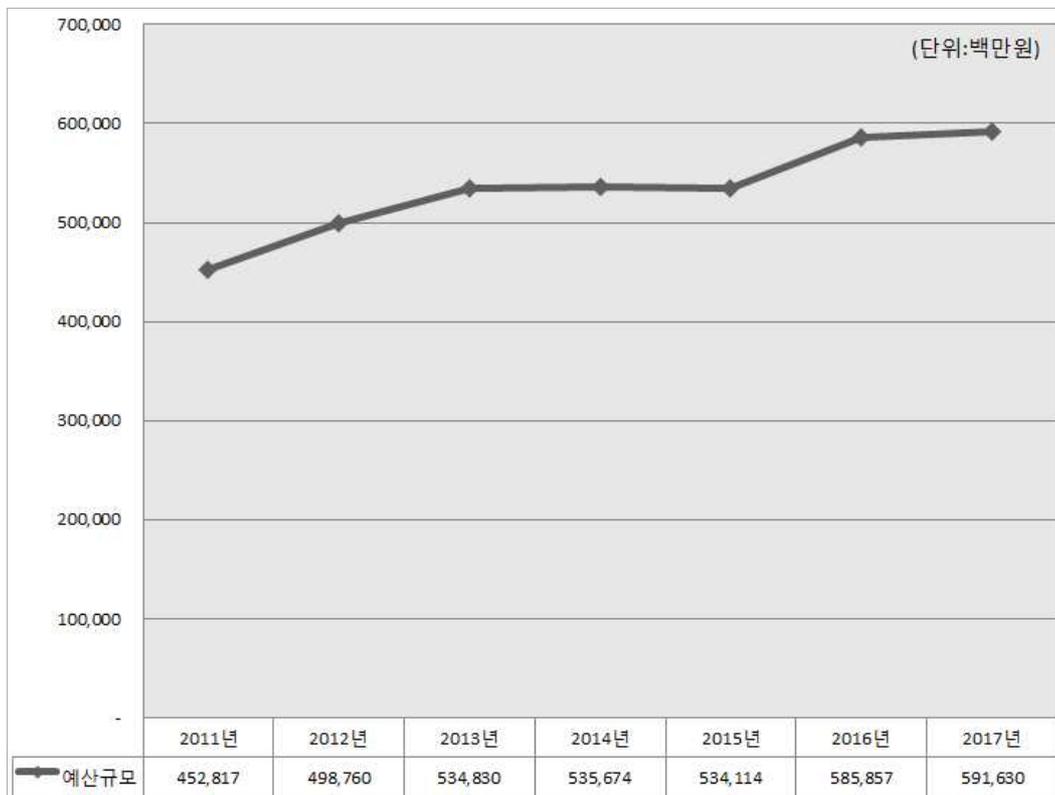
3절 투·융자 및 관리계획

1. 보령시 해양항만 예산현황

1) 보령시 예산현황

■ 보령시 예산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2017년 본예산은 591,630백만원으로, 2011년 대비 30.7% 증가

- 2013년 기점으로 예산규모가 5천억 원 돌파하여 꾸준히 증가 추세
- 2017년 본예산과 추경 2회를 합한 예산은 679,877백만 원 수준



[그림 3-3-1] 보령시 예산 규모 (본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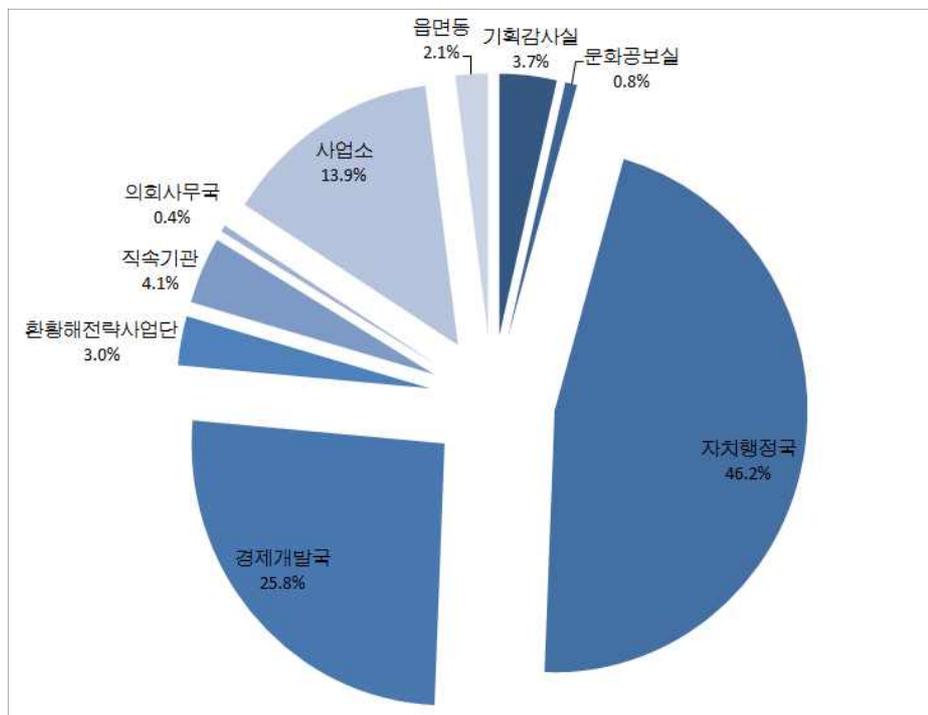
2) 해양항만 예산현황

■ 2017년 본예산 기준 환황해전략사업단의 예산은 17,944,432천 원으로 전체 예산의 3.0%에 불과

- 경제개발국의 수산과와 해수욕장 사업예산을 합하면 57,286,601천 원으로 보령시 예산의 9.7% 점유

■ 2017년 본예산 중 환황해전략사업단의 예산은 3.0%로 부서별로 4위에 위치

- 가장 예산이 많은 부서는 자치행정국 46.2%, 다음으로 경제개발국 25.8%, 기획감사실 3.7% 순



[그림 3-3-2] 2017년 본예산 부서별 예산 비율

2. 투·융자 계획

1) 기본방향

■ 해양항만 발전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 제시

- 투자우선 순위 설정
 - 중장기적인 보령시 개발방향 및 수요를 고려하여 투자의 우선순위 설정
 -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하드웨어 사업보다는 적은 예산을 실행가능한 소프트웨어 사업부터 추진
 - 시민이 납득될 수 있고 설득가능한 개발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추진
 - 도서, 어촌, 마을 개발에서는 주민의지가 강하고, 단기간 내 착수가 가능한 사업부터 추진
- 해양항만 정책 추진의지 및 목표 지향
 - 보령시의 해양항만 정책 추진의지를 반영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市차원의 중장기적 관점의 개발 목표와 부합하도록 추진
 - 장기간에도 흔들림 없이 해양항만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강화
- 타 분야, 타 부서와의 연계 및 협력
 - 해양항만 정책이 문화, 관광, 환경, 도시 등 타 분야와 융복합되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
 - 자치행정국, 경제개발국, 문화공보실, 각 사업소 등 유관부서와의 연계·협력을 통한 효율적·체계적인 사업 기반 마련
- 지역의 개발수요 및 파급효과 고려
 - 현재 보령시의 개발 수요에 부합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가능한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
 - 본 계획과 지역의 숙원사업이 일치할 경우, 우선적으로 착수하여 사업의 만족도 제고
- 중장기적 관점에서 단계적 추진
 - 해양항만분야 사업은 대규모 SOC 및 기술개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사업 추진
 - 지역의 숙원사업(보령신항, 배후단지 조성) 등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비 확보를 통하여 단계적 추진을 원칙으로 함

-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합리적 집행
 - 市の 한정된 자원을 각계각층에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하고, 합리적 집행을 통하여 투명성 제고
 - 시민이 납득 가능한 해양항만사업 추진을 통하여 주민간의 갈등 최소화

2) 투자계획

■ 본 계획의 총 예산은 29,614.93억 원이고, 연차별로는 중기예산이 전체의 47%로 가장 많음

- 연차별 예산은 2016년 이전 11.84억 원, 단기(2017년~2020년) 9,137.50억 원, 중기(2021년~2025년) 13,998.05억 원, 장기(2026년~2030년) 6,467.54억 원
- 2020년까지 전체 예산의 약 31%가 소요되고, 2021년부터 중·장기에 약 69%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착실한 사업 추진으로 적기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기반 마련
- 본 계획은 단기에는 소프트웨어 사업 중심이고, 중장기적으로는 국비를 수반하는 하드웨어 사업 중심이므로, 본격적인 하드웨어사업 추진을 위하여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 개발이 중요함

[표 3-3-1] 해양항만 발전계획 연차별 예산규모

(단위 : 백만 원)

부문명	사업 수	계	단기	중기	장기
Cleaning 해양환경	14	114,868	54,268	55,600	5,000
Amazing 해양관광	19	1,391,400	692,400	693,500	5,500
Innovating 해양산업·항만	16	1,162,709	56,700	496,955	509,054
Leading 지역역량	12	292,516	11,566	53,750	127,200
합계	61	2,961,493 (100%)	914,934 (31%)	1,399,805 (47%)	646,754 (22%)

주 : ()는 비율임

■ 본 계획의 총 예산 29,614.93억 원 중 국비가 전체의 50%로 가장 많음

- 총 예산 중 국비(50%) 14,914.51억 원, 도비(12%) 3,443.81억 원, 시비(12%) 3,663.61억 원, 민간자본(26%) 7,593억 원
- 국비의 비중(50.4%)이 높은 것은 보령신항 및 배후단지 조성, 세븐아일랜드 개발 등 SOC 사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고, 민간자본의 비중(25.7%)이 높은 것은 세븐아일랜드 개발, 어촌민속마을 조성, 보령신항 배후단지 조성에 민간의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임
 - 총 예산대비 국비(50.4%), 도비(11.6%), 시비(12.3%), 민간자본(25.7%)
- 본 계획에서는 국비의 비중이 약 50%에 달하므로 국비를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도비도 약 11% 수준이므로 충남도의 적극적인 협력 필요
- 따라서 해양수산부 등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등에 충남도와 함께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투입하여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또한 민간자본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하여 도로, 수도, 편의시설 등의 인프라 구축 및 세제, 부지공여 등의 지원정책 마련 필요

[표 3-3-2] 해양항만 발전계획 자원별 예산규모

(단위 : 백만 원)

부문명	사업 수	계	국비	도비	시비	민자
Cleaning 해양환경	14	114,868	93,624	10,997	10,247	-
Amazing 해양관광	19	1,391,400	411,300	212,950	236,850	530,300
Innovating 해양산업·항만	16	1,162,709	771,659	93,150	88,900	209,000
Leading 지역역량	12	292,516	214,868	27,284	30,364	20,000
합계	61	2,961,493 (100%)	1,491,451 (50%)	344,381 (12%)	366,361 (12%)	759,300 (26%)

주 : ()는 비율임

■ 본 계획에서 사업 수와 예산이 가장 많은 부문은 해양관광 부문으로 총 19개 사업, 13,914억 원의 투자 필요

- 다음으로 해양산업·항만 분야로 16개(11,627억 원), 해양환경 14개(1,149억 원), 지역역량 12개(2,925억 원)순

■ 본 계획은 향후 미래 수요를 예측하여 사업을 구상하였으므로, 예산의 변동성이 클 것으로 사료되며, 2030년까지 장기적 관점에서 해당시점에 맞는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2030년까지 보령시의 재정상황 및 경제여건의 변동성, 해양산업의 발전 속도 등을 고려하여 투융자 계획의 변경 필요
- 현재 세계적인 보호무역 강화와 우리나라 성장률 둔화에 따라 경제여건의 변동성이 강하고, 북핵 리스크, 지진 등에 의한 지정학적 리스크 상존
- 보령시의 재정자립도는 21.26%로 전국 146위 수준에 머물러 있으므로, 시비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의 재정적자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향후 철저한 세부계획 수립으로 적정 예산 설정 필요

보령시 해양항만 발전 기본계획

[표 3-3-3] 「Cleaning 해양환경」 연차별 예산규모

(단위 : 백만 원)

부문 및 사업		계	단기					중기	장기
			2016년 0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 2025년	2026~ 2030년
Cleaning 해양환경		114,868	48	1,350	4,340	23,390	25,140	55,600	5,000
연안 생태계 보전 및 기능 회복	보령호 하굿둑 구조개선을 통한 연안수질 개선	10,000						5,000	5,000
	대전천 하구갯벌의 해양보호구역 지정 추진	500			100	100	100	200	
	잡피 이식을 통한 연안 수중생태계 복원	500			250	250			
연안환경 통합관리 기반 구축	지역 연안침식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900			300	300	300		
	대전해수욕장 모래유실방지 대응사업	27,100			1,000	2,000	4,000	20,100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연안환경 조성	2,748	48	1,350	1,350				
해양 생태·환경 기치 확산	아름다운 보령 해안선 만들기	900			300	300	300		
	주민과 함께하는 해양쓰레기 개선사업	160			20	20	20	100	
	지역 해양환경 관여요인 조사	900			300	300	300		
	시민이 참여하는 해양환경학교 운영	60			20	20	20		
해양 재난·재해 대응체계 구축	해양 재난·사고 대응 컨트롤타워 구축	600			200	200	200		
	해양환경관리공단 보령지사 유치	30,000						30,000	
	어린이·청소년 해양안전체험 교실 운영	500			100	100	100	200	
	국립해양안전체험관 설립	40,000			400	19,800	19,800		

[표 3-3-4] 「Amazing 해양관광」 연차별 예산규모

(단위 : 백만 원)

부문 및 사업		계	단기					중기	장기
			2016년 이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 년	2021~ 2025년	2026~ 2030년
Amazing 해양관광		1,391,400	800	6,200	107,600	242,100	335,700	693,500	5,500
다시 찾고싶은 도서관광 육성	원산도 중심의 세븐아일랜드 개발	1,220,000	800	6,200	106,500	206,500	300,000	600,000	
	고대도 해양문화관광지 조성	3,900				700	800	2,400	
	효자도 전통 孝인성마을(학교) 조성	1,500				300	300	900	
	예술과 활력이 넘치는 아트힐스아일랜드 조성	5,000				1,000	1,000	3,000	
	도서(섬) 바다낚시공원 조성	4,000				1,000	1,000	2,000	
서해안 생태문화 관광 중심지 육성	천수만 보령호 생태관광 개발	6,000			300	2,000	2,000	1,700	
	보령 해안선 생태탐방코스 개발	5,000				1,000	1,000	3,000	
	전통 어업유산을 활용한 어촌민속마을 조성	99,400			400	19,800	19,800	59,400	
	보령 갯벌 도립공원 지정 추진	1,000			200	200	200	400	
	백제문화권과 연결하는 보령 바다여행 개발	2,000				200	200	600	1,000
테마가 있는 명품 해수욕장 조성	대전해수욕장 스마트비치 조성	4,000				2,000	2,000		
	대전해수욕장 추억과 낭만의 거리 조성	20,000				5,000	5,000	10,000	
	가족중심 명품 무창포 해수욕장 조성	1,000				200	200	600	
	가을바다와 함께 하는 해변문화축제 개최	600			200	200	200		
	주민과 함께 하는 대전포차타운 조성	3,000				1,000	1,000	1,000	
해양레포츠 콘텐츠 강화	동북아 국제요트대회 개최	1,000						1,000	
	요트스테이·요트투 어 단지 조성	4,000						2,000	2,000
	서핑 전용 해변단지 조성 및 자원센터 운영	5,000				1,000	1,000	3,000	
	국제 해양레포츠 아카데미 설립·운영	5,000						2,500	2,500

보령시 해양항만 발전 기본계획

[표 3-3-5] 「Innovating 해양산업·항만」 연차별 예산규모

(단위 : 백만 원)

부문 및 사업		계	단기					중기	장기
			2016년 이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 2025년	2026~ 2030년
Innovating 해양산업·항만		1,162,709		2,000	28,900	56,300	69,500	496,955	509,054
지역자원 활용한 해양신산 업 창출	해양 치유·휴양관광 헬스케어산업 육성	5,000			200	1,600	1,600	1,600	
	해양바이오 기능성 소재산업 육성	28,000			1,000	2,000	5,000	20,000	
	블루카본 시범단지 조성	5,000				1,000	1,000	3,000	
	미세조류 바이오연료 대량생산단지 조성	100,000						40,000	60,000
해양 사회적경제 및 일자리 창출	해양수산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육성	1,600			200	200	200	1,000	
	해양수산 창업·직업·진로 체험관 설립	20,000				4,000	6,000	10,000	
	해양수산 중소벤처기업 육성	30,000			3,000	6,000	13,000	8,000	
	해양 MICE산업으로 일자리 창출	30,000						15,000	15,000
다가능항만 및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	보령신항 다기능 복합항만	330,109		2,000	4,000	18,000	18,700	122,355	165,054
	원산도·무창포 복합 마리나항 건설	60,000			20,000	20,000	20,000		
	서비스형 마리나산업 클러스터 조성	500,000						250,000	250,000
	해양 레저보트 산업단지 조성	30,000						15,000	15,000
지역수산 산업의 미래가치 창출	수산식품 수출기공클러스터 조성	5,000			500	500	500	3,500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고도화 추진	2,500				500	1,000	1,000	
	수산종자·수산기자 재산업단지 조성	8,000						4,000	4,000
	GIS Web 기반 해삼 스마트 팜 조성	7,500				2,500	2,500	2,500	

[표 3-3-6] 「Leading 지역역량」 연차별 예산규모

(단위 : 백만 원)

부문 및 사업		계	단기					중기	장기
			2016년 이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 2025년	2026~ 2030년
Leading 지역역량		292,516	336	600	2,880	3,880	3,870	153,750	127,200
해양항만 인적 인프라 구축	해양인프라 관련 전문기관 유치	142,100						25,400	116,700
	보령형 해양관광복지 구현	500				100	100	300	
	도서 연안여객항로 지원	7,000				1,000	1,000	5,000	
네트워크 조직 및 전문인력 육성	해양관광 네트워크조직 육성	1,400			200	100	100	500	500
	크루즈·마리나산 업 전문인력 육성	20,000						10,000	10,000
	보령 해양비전위원회 설립·운영	80			10	10	10	50	
도서(섬)의 가치 재창출	도서의 미래!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 추진	5,000			1,000	1,000	1,000	2,000	
	특색있는 도서별 가치 창출	5,336	336	600	1,470	1,470	1,460		
	웬산도·효자도 명품 브릿지 조성	60,000						60,000	
해양항만 소프트파워 강화	FAO세계중요어업 유산 등재	300			100	100	100		
	전통 해양문화 아카이브 사업 추진	800			100	100	100	500	
	2022 보령머드엑스포 유치	50,000						50,000	

보령시 해양항만 발전 기본계획

[표 3-3-7] 「Cleaning 해양환경」 및 「Amazing 해양관광」 자원별 예산규모

(단위 : 백만 원)

부문 및 세부사업		계	국비	도비	시비	민자
Cleaning 해양환경		14,868	93,624	0,997	10,247	
연안 생태계 보전 및 기능 회복	보령호 하굿둑 구조개선을 통한 연안수질 개선	10,000	7,500	2,500		
	대전천 하구갯벌의 해양보호구역 지정	500		100	400	
	잡피 이식을 통한 연안 수중생태계 복원	500	400	50	50	
연안환경 통합관리 기반 구축	지역 연안침식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900		300	600	
	대전해수욕장 모래유실방지 대응사업	27,100	13,550	6,775	6,775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연안환경 조성	2,748	1,924	247	577	
해양 생태·환경 가치 확산	아름다운 보령 해안선 만들기	900			900	
	주민과 함께하는 해양쓰레기 개선사업	160			160	
	지역 해양환경 관여요인 조사	900		900		
	시민이 참여하는 해양환경학교 운영	60			60	
해양 재난·재해 대응체계 구축	해양 재난·사고 대응 컨트롤타워 구축	600			600	
	해양환경관리공단 보령지사 유치	30,000	30,000			
	어린이·청소년 해양안전체험 교실 운영	500	250	125	125	
	해양안전체험관 설립	40,000	40,000			
Amazing 해양관광		1,391,400	411,300	212,950	236,850	530,300
다시 찾고 싶은 도서관광 육성	원산도 중심의 세븐아일랜드 개발	1,220,000	360,000	175,000	185,000	500,000
	고대도 해양문화관광지 조성	3,900	1,600		2,300	
	효자도 전통孝인성마을(학교) 조성	1,500			1,500	
	예술과 활력이 넘치는 아트헬스아일랜드 조성	5,000	2,500	1,100	1,100	300
	도서(섬) 바다낚시공원 조성	4,000		1,000	3,000	
서해안 생태문화 관광 중심지 육성	천수만 보령호 생태관광 개발	6,000	4,200	900	900	
	보령 해안선 생태탐방코스 개발	5,000	2,500		2,500	
	전통 어업유산을 활용한 어촌민속마을	99,400	21,000	26,200	25,200	27,000
	보령 갯벌 도립공원 지정 추진	1,000		500	500	
	백제문화권과 연결하는 보령 바다여행 개발	2,000		500	500	1,000
테마가 있는 명품 해수욕장 조성	대전해수욕장 스마트비치 조성	4,000	2,000		2,000	
	대전해수욕장 추억과 낭만의 거리 조성	20,000	10,000	5,000	5,000	
	가족중심 명품 무창포 해수욕장 조성	1,000			1,000	
	가을바다와 함께 하는 해변문화축제 개최	600			600	
	주민과 함께 하는 대전포차타운 조성	3,000			3,000	
해양레포츠 콘텐츠 강화	동북아 국제요트대회 개최	1,000	500	250	250	
	요트스테이·요트투어 단지 조성	4,000	2,000	500	500	1,000
	서핑 전용 해변단지 조성 및 지원센터 운영	5,000	2,500	1,000	1,000	500
	국제 해양레포츠 아카데미 설립·운영	5,000	2,500	1,000	1,000	500

[표 3-3-8] 「Innovating 해양산업·항만」 및 「Leading 지역역량」 자원별 예산규모

(단위 : 백만 원)

부문 및 세부사업		계	국비	도비	시비	민자
Innovating 해양산업·항만		1,162,709	771,659	93,150	88,900	209,000
지역자원 활용한 해양신산업 창출	해양 치유·휴양관광 헬스케어산업 육성	5,000		1,000	1,000	3,000
	해양바이오 기능성 소재산업 육성	28,000	17,000	4,000	4,000	3,000
	블루카본 시범단지 조성	5,000	4,000	1,000		
	미세조류 바이오연료 대량생산단지 조성	100,000	60,000	15,000	15,000	10,000
해양 사회적경제 및 일자리 창출	해양수산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육성	1,600	800	400	400	
	해양수산 창업·직업·진로 체험관 설립	20,000	15,000	5,000		
	해양수산 중소벤처기업 육성	30,000	17,000	4,500	4,500	4,000
	해양 MICE산업으로 일자리 창출	30,000	17,000	4,500	4,500	4,000
다기능항만 및 해양신업 클러스터 조성	보령신항 다기능 복합항만	330,109	330,109			
	원산도·무창포 복합 마리나항 건설	60,000	30,000			30,000
	서비스형 마리나산업클러스터 조성	500,000	250,000	50,000	50,000	150,000
	해양 레저보트 산업단지 조성	30,000	18,000	4,500	4,500	3,000
지역수산 산업의 미래가치 창출	수산식품 수출기공클러스터 조성	5,000	3,000	750	750	500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고도화 추진	2,500			2,000	500
	수산종자·수산기자재산업단지 조성	8,000	6,000	1,000		1,000
	GS Web 기반 해삼 스마트 팜 조성	7,500	3,750	1,500	2,250	
Leading 지역역량		292,516	214,868	27,284	30,364	20,000
해양항만 인적 인프라 구축	해양인프라 관련 전문기관 유치	142,100	142,100			
	보령형 해양관광복지 구현	500			500	
	도서 연안여객항로 지원	7,000	5,000	1,000	1,000	
네트워크 조직 및 전문인력 육성	해양관광 네트워크조직 육성	1,400			1,400	
	크루즈·마리나산업 전문인력 육성	20,000				20,000
	보령 해양비전위원회 설립·운영	80			80	
도서(섬)의 가치 재창출	도서의 미래!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 추진	5,000	3,500	750	750	
	특색있는 도서별 가치 창출	5,336	4,268	534	534	
	원산도·효자도 명품 브릿지	60,000	30,000	15,000	15,000	
해양항만 소프트파워 강화	FAO세계중요어업유산 등재	300			300	
	전통 해양문화 아카이브 사업	800			800	
	2022 보령머드엑스포 유치	50,000	30,000	10,000	10,000	

3) 추진일정

[표 3-3-9] 「Cleaning 해양환경」 추진일정

부문 및 사업		단기					중기	장기
		2016년 이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 2025년	2026~ 2030년
연안 생태계 보전 및 기능 회복	보령호 하굿둑 구조개선을 통한 연안수질 개선							
	대천천 하구갯벌의 해양보호구역 지정 추진							
	잘피 이식을 통한 연안 수중생태계 복원							
연안환경 통합관리 기반 구축	지역 연안침식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대천해수욕장 모래유실방지 대응사업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연안환경 조성							
해양 생태·환경 가치 확산	아름다운 보령 해안선 만들기							
	주민과 함께하는 해양쓰레기 개선사업							
	지역 해양환경 관여요인 조사							
	시민이 참여하는 해양환경학교 운영							
해양 재난·재해 대응체계 구축	해양 재난·사고 대응 컨트롤타워 구축							
	해양환경관리공단 보령지사 유치							
	어린이·청소년 해양안전체험 교실 운영							
	국립해양안전체험관 설립							

[표 3-3-10] 「Amazing 해양관광」 추진일정

부문 및 사업		단기					중기	장기
		2016년 이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 2025년	2026~ 2030년
다시 찾고싶은 도서관광 육성	원산도 중심의 세븐아일랜드 개발							
	고대도 해양문화관광지 조성							
	효자도 전통 孝인성마을(학교) 조성							
	예술과 활력이 넘치는 아트헬스아일랜드 조성							
	도서(섬) 바다낚시공원 조성							
서해안 생태문화 관광 중심지 육성	천수만 보령호 생태관광 개발							
	보령 해안선 생태탐방코스 개발							
	전통 어업유산을 활용한 어촌민속마을 조성							
	보령 갯벌 도립공원 지정 추진							
	백제문화권과 연결하는 보령 바다여행 개발							
테마가 있는 명품 해수욕장 조성	대천해수욕장 스마트비치 조성							
	대천해수욕장 추억과 낭만의 거리 조성							
	가족중심 명품 무창포 해수욕장 조성							
	가을바다와 함께 하는 해변문학축제 개최							
	주민과 함께 하는 대천포차타운 조성							
해양레포츠 콘텐츠 강화	동북아 국제요트대회 개최							
	요트스테이·요트투어 단지 조성							
	서핑 전용 해변단지 조성 및 지원센터 운영							
	국제 해양레포츠 아카데미 설립·운영							

보령시 해양항만 발전 기본계획

[표 3-3-11] 「Innovating 해양산업·항만」 추진일정

부문 및 사업		단기					중기	장기
		2016년 이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 2025년	2026~ 2030년
지역자원 활용한 해양신산 업 창출	해양 치유·휴양관광 헬스케어산업 육성			■	■	■	■	
	해양바이오 기능성 소재산업 육성			■	■	■	■	
	블루카본 시범단지 조성				■	■	■	
	미세조류 바이오연료 대량생산단지 조성						■	■
해양 사회적경제 및 일자리 창출	해양수산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육성			■	■	■	■	
	해양수산 창업·직업·진로 체험관 설립				■	■	■	
	해양수산 중소벤처기업 육성			■	■	■	■	
	해양 MICE산업으로 일자리 창출						■	■
다가능항만 및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	보령신항 다기능 복합항만		■	■	■	■	■	■
	원산도·무창포 복합 마리나항 건설			■	■	■		
	서비스형 마리나산업 클러스터 조성						■	■
	해양 레저보트 산업단지 조성						■	■
지역수산 산업의 미래가치 창출	수산식품 수출가공클러스터 조성			■	■	■	■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고도화 추진				■	■	■	
	수산종자·수산기자재 산업단지 조성						■	■
	GIS Web 기반 해삼 스마트 팜 조성				■	■	■	

[표 3-3-12] 「Leading 지역역량」 추진일정

부문 및 사업		단기					중기	장기
		2016년 이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 2025년	2026~ 2030년
해양항만 인적 인프라 구축	해양인프라 관련 전문기관 유치						■	■
	보령형 해양관광복지 구현				■	■	■	
	도서 연안여행항로 지원				■	■	■	
네트워크 조직 및 전문인력 육성	해양관광 네트워크조직 육성			■	■	■	■	■
	크루즈·마리나 산업 전문인력 육성						■	■
	보령 해양비전위원회 설립·운영			■	■	■	■	
도서(섬)의 가치 재창출	도서의 미래!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 추진			■	■	■	■	
	특색있는 도서별 가치 창출	■	■	■	■	■		
	원산도·효자도 명품 브릿지 조성						■	
해양항만 소프트파워 강화	FAO세계중요어업 유산 등재			■	■	■		
	전통 해양문화 아카이브 사업 추진			■	■	■	■	
	2022 보령머드엑스포 유치						■	

참고문헌

- 김중화 외(2013), 바다복원 사례조사 및 논리개발, 현안과제연구, 충남연구원
-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 국토해양부(2011),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 국토교통부(2015),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
- 국토교통부(201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2011~2020)
- 국토교통부·서해안권 지자체(2016),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계획
- 관계부처합동(2010), 제2차 해양수산업발전 기본계획 (2011~2020)
- 관계부처 합동(2012), 제2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 류효종(2007), 세계 레저보트 및 마리나 산업의 이해 : 지방자치단체 마리나 산업 정책 제안,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시드니사무소
- 문화체육관광부(2011), 제3차 관광개발 기본계획 (2012~2021)
- 문화체육관광부(2013), 제3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
- 보령시(2014), 2020년 보령도시기본계획(변경)
- 보령시(2017), 2016년 통계연보
- 보령시(2012), 보령시 농어업농어촌 중장기 발전계획
- 보령시(2015), 보령신항 다기능 복합개발 타당성 분석 및 기본구상 연구
- 보령시(2014), 보령 비전 2025 발전전략
- 보령시(2007), 보령시 중기 발전전략 (2007~2015)
- 보령시(2011), 연륙교 건설에 따른 기초생활권 발전전략 수립
- 보령시(2004), 보령시 섬지역 종합발전계획 (2005~2013)
- 보령시(2017), 2022 보령머드엑스포 기본계획
- 보령시(2016),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 충청남도(2012), 충청남도 종합계획 (2012~2020)
- 충청남도(2015), 충청남도 해양수산업발전계획
- 충청남도(2016), 충청남도 해양생태환경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기획연구
- 충청남도(2016), 2016년 수산현황
- 충청남도(2014), 2013년 도정백서

충청남도(2017), 2016 제56회 통계연보

충청남도(2016), 2016년 하반기 도정주요통계집

충청남도(2016), 충청남도 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 방안 연구용역

충청남도(2017), 충남 서해안의 도전과 변화 (충남 해양수산업발전 대표사업)

충청남도(2016), KIOST 서해분원 유치 타당성 개발 및 설립방안

충청남도(2014), 충청남도 도서발전종합계획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7), 2017 해양수산업전망대회 자료집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6), 2016 해운통계요람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0),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양문화콘텐츠 활용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1), 해양수산업 분류체계 수립 및 해양수산업의 역할과 성장전망 분석을 위한 기획연구

해양수산부(2010), 제2차 해양수산업발전 기본계획

해양수산부(2016), 제1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해양수산부(2014), 제2차 연안정비기본계획 변경계획 (2010~2019)

해양수산부(2014), 제2차 해양관광 진흥 기본계획

해양수산부(2015), 해양수산업통계시스템 해수수질실태보고

해양수산부(2016),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해양수산부(2015),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

해양수산부(2017), 제1차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

해양수산부(2017), 제1차 해수욕장 기본계획

해양수산부(2014), 해양수산업 R&D 중장기계획

해양수산부(2013), 중장기 해양안전문화 진흥 기본계획 (2014~2017)

해양수산부(2016), 해양수산업분야 기획영역별 R&D 로드맵

행정자치부(2016), 제4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계획

해양수산부(2017), 제2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2017~2021)

OECD(2016), The Ocean Economy in 2030

해양수산부, '전국 갯벌 면적 조사', 각 년도

해양수산부, '2013 전국 갯벌 면적 조사'

해양수산부, '2016년 연안침식 실태조사'

해양수산부, '수산물 수출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권역별 수산물 수출가공클러스터 조성 연구
과업지시서 (2016)'

환경부, '전국 해안사구 목록(2001)'

환경부, '전국 해안사구 정밀조사(2003, 2007)'

환경스페셜(KBS), '갯벌복원, 바닷물을 허하라' , 2009.9.30. 방영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해양생태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한다: 향후 5년간 100억 원
투입하여 블루카본 연구개발 본격 추진' , 2017.3.24.일자.

국가통계포털 KOSIS 「<http://kosis.kr>」

국가중요어업유산 HP 「<http://www.국가중요어업유산.kr>」

기상청 HP 「<http://www.kma.go.kr>」

나가사키현 오지카 아일랜드 투어 「<http://ojikajima.jp/>」

농어촌인성학교 HP 「<http://www.ruralschool.co.kr>」 (내현권역)

네이버 블로그(거북이마을 농어촌인성학교) 「<http://blog.naver.com/c4663/130186411219>」

네이버 블로그(세종생활뉴스) 「<http://blog.naver.com/axkjh/221058869338>」

네이버 블로그(시간여행자) 「<https://blog.naver.com/midung/100191482296>」

보령시 HP 「<http://www.brcn.go.kr>」

보령화력발전소 EPSIS 전력통계정보시스템 「<http://epsis.kpx.or.kr>」

부산시청 HP 「www.busan.go.kr」

수산정보포털 「<http://www.fips.go.kr>」

유엠아이 울진해양레포츠센터 HP 「<http://www.uljinleports.co.kr>」

위키피디아 「<https://ko.wikipedia.org>」

한국해양과학기술원 HP 「<http://www.kiost.ac.kr>」

한국해양수산개발원 HP 「<http://www.kmi.re.kr>」

한국산업단지공단 CLUSTER, 「<http://www.e-cluster.net>」

해양수산부 HP 「<http://www.mof.go.kr>」

해양수산부 바다생태 정보나라 HP 「<http://www.ecosea.go.kr/>」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 SP-IDC 「<https://www.spidc.go.kr>」

힐링아일랜드로의 초대 남해스토리 블로그 「<http://namhaestory.co.kr>」

bexco HP 「<http://www.bexco.co.kr/kor/Main.do>」 (벅스코 시설안내)

Happy Trend 「<http://happy-trendy.com/naoshima-904>」

강기현, “파도타기 짜릿함, 10초면 충분” , 중앙일보, 2017.07.03.일자.

고성민, “인면도~보령간 국내 최장 해저 터널, 서해안 관광차도 바꾼다” , chosun.com, 2017.09.05.일자.

김창덕, “비싸고 까다로운 장어 양식, 사물인터넷이 구세주로 뜬다” , dongA.com, 2014.09.01.일자.

민동훈, “4차 산업혁명 시대, ‘스마트 양식’ 이 미래 먹거리 책임진다” , 머니투데이, 2017.11.20.일자.

박찬준, “한국, 선박 평형수·심층수산업,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운다” , 세계일보, 2017.03.01.일자.

박민우, “전남 신안 갯벌도립공원 13개 읍면 확대 지정 추진” , 광주데일리뉴스, 2016.12.18.일자.

이돈삼, “박치기왕 김일이 반겨주는 곳, 예술의 섬 연흥도” , 오마이뉴스, 2017.07.24.일자.

이재윤, “한국, 사드 보복 영향 크루즈 관광객 감소 현실화” , 연합뉴스, 2017.07.10.일자.

이원우, “포항 도행면 흥환리 검은동장어마을” , 경북타임즈, 2017.09.27. 일자.

이회중, “한국, 2016년 크루즈 관광객 195만 달성” , 크루즈뉴스, 2017.01.10.일자.

정성환, “전남도, ‘별고갯벌’ 국내 3번째 갯벌도립공원 지정” , 아주경제, 2016.01.28.일자.

정철화, “ ‘검은돌장어’ 창조경제 수산업 신먹거리로 부상” , 경북매일, 2016.06.12. 일자.

조형국, “한국, ‘여의도 350배 면적’ ‘망간각 독점탐사광구’ 확보” , 경향비즈, 2016.07.20.일자.

Bryant Hevesi, Mosman Daily, “Superyachts to become a regular sight at The Spit once d’ Alborra Marinas revamp is completed” , The Daily Telegraph, 2015.6.18.일자.

보령시 해양항만 발전 계획도



참여 연구진

□ 연구책임

김종화 책임연구원 연구총괄, 비전 및 전략

□ 참여 연구진

윤종주	전임책임연구원	해양환경
김진영	책임연구원	해양산업, 조직체계
정지은	책임연구원	해양관광
신혜지	연구원	연구지원
김민주	연구원	연구지원

□ 행정지원

맹진영 보령시 해양정책과 팀장
문혜경 보령시 해양정책과 주무관